

연구보고서 2019-27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황남희

김경래 · 이아영 · 임정미 · 박신아 · 김만희

【책임연구자】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저서】

초고령사회 대응 노년기 생산적 활동 지원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공저)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구조와 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공저)

【공동연구진】

김경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아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임정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신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만희 양코르파트너즈 대표

연구보고서 2019-27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발 행 일 2019년 12월

저 자 황 남 희

발 행 인 조 흥 식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 쇄 처 (주)삼일기획

발간사 <<

우리 사회는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라 2018년 3764만 5085명을 정점으로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국가통계포털, 2019). 정부는 생산가능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정년제도, 기업문화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영향으로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중년층 혹은 ‘신중년’을 인구고령화 시대에 주요한 인적자원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서 ‘신중년’은 정부 차원에서 새롭게 등장한 용어이며, 50세 전후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거나 노동시장 은퇴(72세 전후)의 과도기를 경험하는 50~69세를 이른다. 신중년은 그간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연령대로 인식되는 고령자나 노인과 차별화해 여전히 일자리에서 활력이 있는 인구로 본다는 시각의 전환을 의미한다.

신중년은 현재 중년층 및 고령층과 사회경제적 특성이 다르므로, 기존의 중년층 대상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며 보다 중장기 관점에서는 이들이 노년인구로 편입되는 것에 대응하여 고령사회 정책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신중년은 고령층보다 건강 수준 및 교육 수준, 경제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다른 정책적 욕구를 지니며 활발한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적 기여를 이어갈 수 있는 세대이다. 또한 신중년은 노부모와 청년 자녀 사이의 낀 샌드위치 세대로서 사회적으로 부모를 부양하지만 자녀로부터 자신의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첫 세대가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성별 및 연령별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의 특성과 욕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신중년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보여 주는 경험적 자료가 부족하여, 신중년층의 정책은 단편적인 자료나 행정자료에 기초하여 고용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정부의 신중년 인생3모작 정책은 인생 2~3모작에서 재취업(임금 근로), 창업, 귀농·귀어·귀촌, 사회공헌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신중년의 다양한 욕구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경희 외, 2010a; 양지훈, 권미애, 2018).

이 연구는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사회복지정책 개발 및 고령사회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근거 기반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베이비부머가 대거 포함된 신중년은 생산연령인구에서 고령인구로 편입되는 과정에 있으므로 일자리에서 큰 변화를 경험한다. 따라서 이들이 노년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적절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가 신중년 관련 토론과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 그 결과가 신중년의 안정적인 노후 정착 지원을 하는데 중요한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황남희 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원내의 김경래 부연구위원, 이아영 부연구위원, 임정미 부연구위원, 박신아 연구원, 원외의 김만희 양코르파트너즈 대표가 참여하여 수행하였다. 모든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 과정에서 유용한 조언을 아끼지 않은 원내 김유경 연구위원과 송현주 (전)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석상훈 기획재정부 사무관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9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목 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연구 방법	19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21
제1절 중장년 생애주기 특성 변화	23
제2절 신중년의 정의	26
제3절 선행조사 검토	30
제3장 조사 개요	37
제1절 조사 개요 및 표본 설계	39
제2절 신중년의 일반적 특성	52
제4장 건강 수준 및 삶의 질	59
제1절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	61
제2절 삶의 질	78
제5장 경제상태	83
제1절 소득과 소비	85
제2절 가구 자산 및 부채	105

제6장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119

제1절 경제활동 실태 및 욕구 121

제2절 사회참여 실태 및 욕구 159

제7장 가족·사회관계 및 부양 수준 183

제1절 가족 현황 및 사회관계 185

제2절 부모와의 부양 교환 194

제3절 자녀와의 부양 교환 209

제8장 노후 가치관 및 정책 인지도 221

제1절 노후 가치관 223

제2절 정책 인지도 및 욕구 238

제9장 주요 결과 및 정책 제언 265

제1절 신중년의 주요 특성 267

제2절 전기 신중년(50대)의 특성 변화: 2010년과 2019년 비교 분석 274

제3절 정책 제언 293

참고문헌 305

부 록 309

부록 1. 조사표 309

부록 2. 부표 337

표 목차

〈표 2-1〉 선행연구에 따른 중장년 연령 범위	24
〈표 2-2〉 신중년 관련 기존 조사 특성 비교	32
〈표 3-1〉 신중년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내용 요약	40
〈표 3-2〉 모집단 집계구 분포	41
〈표 3-3〉 모집단 가구 분포	42
〈표 3-4〉 모집단 인구 분포	43
〈표 3-5〉 모집단 인구의 성별 분포	44
〈표 3-6〉 시도별 인구의 50~60대 분포	45
〈표 3-7〉 시도별 인구의 50~60대 성별 분포	46
〈표 3-8〉 목표오차별 표본 규모	47
〈표 3-9〉 표본 집계구 배분(제곱근 비례배분)	48
〈표 3-10〉 최종 표본 집계구 배분 결과	49
〈표 3-11〉 신중년의 일반 특성	54
〈표 3-12〉 신중년의 성별 특성	55
〈표 3-13〉 신중년의 연령 집단별 특성	56
〈표 3-14〉 신중년의 취업 여부별 특성	58
〈표 4-1〉 신중년의 평소 건강상태	62
〈표 4-2〉 신중년의 건강검진 여부	63
〈표 4-3〉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이유	65
〈표 4-4〉 신중년의 만성질환 보유 여부 및 개수	67
〈표 4-5〉 병원 및 치과 미치료 경험 여부	69
〈표 4-6〉 병원 미치료 이유	70
〈표 4-7〉 치과 미치료 이유	72
〈표 4-8〉 우울 수준 측정 문항(CES-D 10)	74
〈표 4-9〉 우울 수준	75
〈표 4-10〉 자살 생각 경험률 및 도움, 구체적인 시도 및 계획	77

〈표 4-11〉 삶의 질 만족도: 전반적인 삶	79
〈표 4-12〉 현재 삶의 위치	82
〈표 5-1〉 신중년의 가구소득 항목별 보유 유무	87
〈표 5-2〉 신중년의 가구소득 항목별 금액(월평균): 전체 기준	90
〈표 5-3〉 신중년의 가구소득 항목별 금액(월평균): 소득 항목별 보유자 기준	91
〈표 5-4〉 신중년의 현재 주관적 계층 인식	94
〈표 5-5〉 신중년의 10년 전과 비교한 경제생활 수준 변화	95
〈표 5-6〉 신중년의 10년 후 경제생활 수준 전망	97
〈표 5-7〉 신중년의 소비지출	99
〈표 5-8〉 신중년의 소비 전 가격 정보 수집 수준	101
〈표 5-9〉 신중년의 근접성 소비행태	102
〈표 5-10〉 신중년의 온라인 금융서비스 이용	103
〈표 5-11〉 신중년의 온라인 물건 구매	104
〈표 5-12〉 신중년의 부동산 자산 보유율과 규모	106
〈표 5-13〉 신중년의 금융자산 보유율과 규모	108
〈표 5-14〉 신중년의 기타자산 보유율과 규모	110
〈표 5-15〉 신중년의 주택 점유 형태	112
〈표 5-16〉 신중년의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한 저축, 민간보험 가입률(본인 및 배우자) ..	113
〈표 5-17〉 신중년의 부채 보유율과 규모	115
〈표 5-18〉 신중년의 부채를 진 주된 이유	117
〈표 6-1〉 신중년의 생애 근로활동 경험 여부	122
〈표 6-2〉 신중년의 생애 주된 일자리(가장 오래 했던 일) 유형	123
〈표 6-3〉 신중년의 생애 주된 일자리 종사상 지위	126
〈표 6-4〉 신중년의 생애 주된 일자리 종사 기간	128
〈표 6-5〉 생애 주된 일자리 현재 종사 여부 및 그만둔 당시 연령	129
〈표 6-6〉 생애 주된 일자리 그만둔 이유	131
〈표 6-7〉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변화: 배우자와의 관계	134
〈표 6-8〉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변화: 자녀와의 관계	135

〈표 6-9〉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변화: 부모와의 관계	137
〈표 6-10〉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변화: 전반적인 생활만족	138
〈표 6-11〉 신중년의 현재 근로활동 여부	140
〈표 6-12〉 신중년의 현재 일자리 유형	141
〈표 6-13〉 신중년의 현재 일자리 종사상 지위	144
〈표 6-14〉 현재 일자리 종사 기간	146
〈표 6-15〉 신중년의 현재 일자리 안정성 인식	148
〈표 6-16〉 현재 일자리 퇴직 시 대비	149
〈표 6-17〉 근로활동 지속 희망 연령	153
〈표 6-18〉 노후 근로활동 희망 이유	154
〈표 6-19〉 일자리 유형별 근로 참여 의향	157
〈표 6-20〉 신중년의 노후 삶에서 근로활동의 중요도	158
〈표 6-21〉 신중년의 현재 여가활동: 1순위 기준	161
〈표 6-22〉 신중년의 현재 여가활동 참여 빈도	164
〈표 6-23〉 신중년의 현재 여가활동 동반자	165
〈표 6-24〉 신중년의 노후 선호하는 여가활동: 1순위 기준	167
〈표 6-25〉 신중년의 현재 및 노후 삶에서 여가활동의 중요도	170
〈표 6-26〉 신중년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	172
〈표 6-27〉 신중년의 노후 자원봉사활동 참여 의향	173
〈표 6-28〉 신중년의 평생교육 참여 경험	175
〈표 6-29〉 신중년의 노후 평생교육 참여 의향	176
〈표 6-30〉 신중년의 희망 노후 활동: 1순위 기준	179
〈표 6-31〉 신중년의 현재 및 노후 삶에서 사회참여의 중요도	182
〈표 7-1〉 부모 및 자녀 현황	187
〈표 7-2〉 신중년의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생존, 연령, 동거 여부	189
〈표 7-3〉 친밀감을 느끼는 친구 유무 및 규모	191
〈표 7-4〉 친구와의 접촉 빈도	193
〈표 7-5〉 본인 부모와의 연락 및 만남 빈도	195

〈표 7-6〉 배우자 부모와의 연락 및 만남 빈도	196
〈표 7-7〉 신중년의 비동거 본인 및 배우자 부모와의 도구적 부양 교환 빈도	198
〈표 7-8〉 신중년의 비동거 본인 부모와의 도구적 부양 교환	199
〈표 7-9〉 신중년의 비동거 배우자 부모와의 도구적 부양 교환	200
〈표 7-10〉 신중년의 비동거 본인 및 배우자 부모에 대한 도구적 도움 제공 부담 정도 ...	202
〈표 7-11〉 신중년의 비동거 본인 및 배우자 부모와 경제적 도움 교환 유무 및 금액 ...	205
〈표 7-12〉 신중년의 비동거 본인 및 배우자 부모에 대한 경제적 도움 제공 부담 정도 ...	207
〈표 7-13〉 신중년의 비동거 본인 및 배우자 부모에 대한 경제적 도움 교환 실태	208
〈표 7-14〉 신중년의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 및 만남 빈도	211
〈표 7-15〉 신중년의 비동거 자녀와의 도구적 부양 교환 빈도	212
〈표 7-16〉 신중년의 비동거 자녀와의 도구적 부양 교환	213
〈표 7-17〉 신중년의 비동거 자녀와의 도구적 도움 제공 부담 정도	214
〈표 7-18〉 신중년의 동거 및 비동거 자녀와 경제적 도움 교환 유무 및 금액	217
〈표 7-19〉 신중년의 동거 및 비동거 자녀에 대한 경제적 도움 제공 부담 정도	219
〈표 8-1〉 바람직한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	225
〈표 8-2〉 부모의 자녀 부양 적정 기간	227
〈표 8-3〉 노인의 연령 기준	229
〈표 8-4〉 최근 관심사	231
〈표 8-5〉 노후 희망 동거인	234
〈표 8-6〉 노후 생활의 예상되는 어려움	236
〈표 8-7〉 노후 만족의 중요 요소: 1순위 기준	237
〈표 8-8〉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인지도,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	240
〈표 8-9〉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인지도,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	242
〈표 8-10〉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인지도,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	244
〈표 8-11〉 고령자 인재은행: 인지도,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	246
〈표 8-12〉 노후 준비 서비스: 인지도,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	248
〈표 8-13〉 귀농귀촌종합센터: 인지도,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	250
〈표 8-14〉 주택(농지)연금: 인지도, 향후 이용 의향	252

〈표 8-1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지도, 향후 이용 의향	254
〈표 8-16〉 공적연금 가입 여부	256
〈표 8-17〉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인지도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향후 작성 의향	259
〈표 8-18〉 호스피스제도 인지도 및 향후 이용 의향	260
〈표 8-19〉 죽음 준비 교육 이용 의향	261
〈표 8-20〉 정부 정책 및 서비스 정보 습득 경로: 1순위 기준	264
〈표 9-1〉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이유 변화	276

그림 목차

[그림 1-1] 인생3모작 개념도	15
[그림 1-2] 연구 과정	20
[그림 4-1] 주요 영역별 삶의 만족 응답 비율(만족+매우 만족)	80
[그림 9-1] 건강 수준의 변화	275
[그림 9-2] 교육 수준의 변화	276
[그림 9-3] 가구소득 및 자산 변화: 명목 금액 기준	277
[그림 9-4] 노후 위험 대비 변화	278
[그림 9-5] 공적연금 가입 형태	279
[그림 9-6] 10년 후 가구경제 생활수준 변화 전망	280
[그림 9-7] 전 생애 및 현재 근로활동 여부	281
[그림 9-8] 생애 주된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 변화	282
[그림 9-9] 현재 일자리 지속 의지 및 불안 정도	284
[그림 9-10] 제2의 일을 위한 준비	285
[그림 9-11] 현재 및 노후 삶에서 사회참여 활동의 중요도	286
[그림 9-12] 본인 및 배우자 부모와의 도구적 부양 교환	287
[그림 9-13] 본인 및 배우자 부모와의 경제적 부양 교환	289
[그림 9-14] 자녀 부양 완료 시기	291
[그림 9-15]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	292
[그림 9-16] 최근 관심사	293

부표 목차

〈부표 1〉 삶의 질 만족도: 경제상태	337
〈부표 2〉 삶의 질 만족도: 건강상태	338
〈부표 3〉 삶의 질 만족도: 근로활동	339
〈부표 4〉 삶의 질 만족도: 여가활동	340
〈부표 5〉 삶의 질 만족도: 부모와의 관계	341
〈부표 6〉 삶의 질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	342
〈부표 7〉 삶의 질 만족도: 자녀와의 관계	343
〈부표 8〉 삶의 질 만족도: 친구·이웃과의 관계	344
〈부표 9〉 신중년의 현재 여가활동: 1+2+3순위 기준	345
〈부표 10〉 신중년의 노후 선호하는 여가활동: 1+2+3순위 기준	347
〈부표 11〉 신중년의 희망 노후 활동: 1+2순위 기준	349
〈부표 12〉 정부 정책 및 서비스 정보 습득 경로: 1+2순위 기준	351

Abstract <<

A Study of the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Needs of the New Middle Aged

Project Head: Hwang, Namhui

Due to rapid population aging, Korea's productive population is on the decline after reaching its peak in 2018.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those aged between 50 and 69, who still belong to productive age but who find it difficult to keep participating in productive activities due to the current retirement age limit and corporate culture, as an important human capital in the era of population aging, exerting efforts to help them continuously contribute to society.

However, there is a lack of data with which to systematically describe a thorough picture of the socioeconomic traits of the new middle-aged. This has led to a limited policy coverage focusing solely on the employment facet the new middle-age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on the new middle-aged, especially on their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needs,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comprehensive policy-making for those population groups.

Our living conditions survey, consisting mostly of face-to-face home visit interviews based on a constructed questionnaire, was conducted during 7 weeks from July to

Co-Researchers: Kim, Kyeongrae·Lee, Ayoung·Lim, Jeongmi·Kim, Manhee·Park, sina

August, 2019, with the participation of a total of 4,006 people aged 50~69. The questionnaire was designed based on relevant literature, meetings with sectoral experts and consultations with experts from academia and field. Also, the participants themselves contributed in the establishment of the questionnaire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 (FGI). The following criteria are included in the questionnaire: general information of the respondent, health condition, quality of life, exchange of family and social relationship with support for dependent family, desired values for life after retirement, policy preferences, social participation and economic status.

Suggestions drawn from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clude the following. There is a need for strengthening the capacity and opportunities for the new middle-aged. Policy-making for the new middle-aged should take into account their various characteristics. Also, mid- to long-term plans should be set to help the new middle-aged meet their needs for social participation, to support their lives after retirement and ease their burden of supporting their dependents.

*key words: new middle aged,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needs, preparedness for old age

1. 연구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50~69세 신중년의 삶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추진에 뒷받침되는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신중년의 변화된 생활상과 가치관 등을 비교 분석하여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 전국 4000명을 대상(4006명 완료)으로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을 활용한 대면면접조사를 실시함.

2. 주요 연구 결과

- (건강 수준 및 삶의 질) 신중년의 62.1%는 스스로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40.8%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음(만성질환 평균 1.6개).
- 신중년의 89.9%는 지난 2년간 건강검진을 1회 이상 받았으며,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로 ‘일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40.7%)’,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해서(30.2%)’, ‘건강에 관심이 없어서(14.0%)’ 등임.
- 신중년의 3.9%는 병의원 미치료, 5.8%는 치과 미치료 경험이 있으며, 주된 이유는 ‘일(가사, 직장 등)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비용이 부담되어서(경제적 이유)’로 확인됨.

4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 신중년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서 만족(매우 만족 포함)으로 응답한 비율은 53.5%임(주요 영역별: 경제상태 29.8%, 건강상태 54.8%, 근로활동 48.6%, 여가활동 29.5%, 부모와의 관계 60.4%, 배우자와의 관계 63.8%, 자녀와의 관계 77.0%, 친구·이웃과의 관계 67.8%).
- (소득 수준 및 구성) 신중년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413만 3000원이며, 이 중 근로·사업소득이 369만 6000원으로 가구소득의 89.4%를 차지함.
 - 재산소득 11만 9000원(2.9%), 사적이전소득 6만 1000원(1.5%), 공적연금소득 15만 9000원(3.8%), 공적연금 이외 공적이전소득 3만 9000원(0.9%), 사적연금소득 4만 2000원(1.0%) 등임.
- (소비지출) 신중년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266만 원이며 신중년의 소비행태 및 성향을 살펴보면 '가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후 구매'하는 행태에 58.7%, '가까운 곳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성향에 75.6%가 동의함.
 - 신중년의 41.6%는 온라인 금융서비스를, 33.5%는 온라인 물건 구매를 이용함.
- (자산 및 부채) 신중년 가구의 83.4%는 부동산(보유자 평균 3억 6151만 원)을, 81.4%는 금융자산(보유자 평균 6875만 원)을, 76.7%는 기타자산(보유자 평균 2357만 원)을 보유함.
 - 부채가 있는 신중년은 27.9%이며, 보유자 기준 평균 부채 금액은 9154만 원임.

- 부채를 지게 된 주된 이유는 ‘거주 주택 마련(35.0%)’, ‘사업자금 마련(26.8%)’, ‘거주 주택 이외의 부동산 마련(8.9%)’, ‘생활비 마련(7.8%)’ 등임.
- (생애 근로 경험) 신중년의 대부분인 95.0%는 생애 근로활동 경험(남성 99.3%, 여성 90.9%)이 있고, 가장 오랫동안 종사했던 일을 그만둘 당시 평균 나이는 50.5세임.
- 신중년의 약 2분의 1은 일거리가 없어서, 사업 부진 및 조업 중단, 정년퇴직·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 직장의 휴업 및 폐업 등과 같은 사유로 생애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것으로 확인됨.
- 신중년의 59.9%(생애 근로활동 경험자 중 63.0%)는 여전히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음.
- (현재 근로활동) 신중년의 77.4%는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며, 현재 일자리는 ‘서비스 종사자(29.5%)’, ‘판매 종사자(24.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13.2%)’ 순으로 높음.
- 현재 종사상 지위는 ‘단독 자영업자’가 46.0%로 가장 많고, 그다음 ‘상용직 임금근로자’ 27.0%, ‘고용주’ 9.5%, ‘임시직 임금근로자’ 8.1% 등임.
- 현재 일자리 종사 기간은 평균 18.4년이며, 신중년의 83.6%는 노후 경제활동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일자리 희망) 신중년의 89.5%(현재 근로활동 중인 3101명 기준)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응답하여 일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남.

6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 신중년의 약 3분의 1은 현업 지속가능성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만, 그럼에도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둘 경우를 대비해 86.0%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를 상실하거나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함.
- 근로활동 참여는 69.2세까지이며, 노후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이유는 58.1%가 소득을 얻기 위해서이지만 3분의 1 이상(35.5%)은 건강 및 자기발전, 여가시간 활용 등을 위해서임.
- (희망 여가생활) 신중년이 노후에 가장 즐기고 싶은 여가활동은 1순위 기준으로 ‘국내외 여행, 소풍, 나들이 등(31.2%)’, ‘등산(11.7%)’, ‘TV 시청(9.1%)’, ‘산책(7.2%)’, ‘친목단체·사회활동(5.5%)’ 등의 순으로 높음.
- 현재와 비교하여 노후에 국내외 여행, 소풍, 나들이 등을 하고 싶은 욕구가 높고,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등산, 산책, 수영 등 보다 활동적인 여가활동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사회참여 인식 및 실태) 신중년의 76.6%는 현재 삶에서 사회참여 활동이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83.2%는 노후에 사회참여 활동이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 신중년의 84.9%는 현재 삶에서, 91.9%는 노후 삶에서 여가활동이 중요하다고 응답함.
- 신중년의 16.3%는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단체 소속 11.4%, 단체 비소속 4.9%), 45.8%는 노후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음.

- 신중년의 5.1%만이 현재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지만, 신중년의 48.8%는 노후에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싶은 의향이 있음.
- (노후 참여희망 활동) 신중년은 노후 희망활동으로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생활을 하면서(52.8%)’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음.
- ‘소득 창출을 위한 일을 하면서(13.1%)’, ‘학습 등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10.3%)’, ‘자원봉사와 같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6.2%)’, ‘종교활동을 하면서(6.0%)’, ‘가사 및 손자녀 양육을 하면서(2.7%)’ 순임.
-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하게 지내고 싶다’고 응답한 신중년도 8.3%임.
- (노후 생활비 마련) 신중년의 86.4%가 노후 생활비는 본인 및 배우자가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자녀 부양 적정 기간은 자녀 결혼 시 31.5%, 학업 종료 시 31.0%, 취업 시 30.2% 등 유사 수준의 응답을 보임.
- 노인의 연령 기준은 70~75세 미만이라는 응답이 52.6%로 가장 많고, 75~80세 미만이 20.8%라고 응답하여, 신중년의 73.4%는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인식하고 있음.
- (최근 관심사 및 만족스러운 노후 요소) 신중년의 최근 관심사는 ‘본인의 건강’이 36.3%로 가장 많고, 그다음 ‘노후 준비’ 18.5%, ‘자녀 결혼’ 15.3% 순임.
- 노후 생활에 예상되는 어려움은 ‘건강 및 기능 악화’가 53.0%로 가장 많고, 그다음 ‘경제적 어려움’ 29.8%임.

8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 만족스러운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건강(48.4%)'과 '경제적인 안정과 여유(44.2%)'임.

□ (정책 인지도) 신중년층 대상 정책의 인지도는 낮은 편이며, 이용 의향 역시 낮은 수준임.

○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16.6%(이용 의향 23.1%),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17.8%(이용 의향 34.4%),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6.3%(이용 의향 19.1%), '고령자 인재은행' 6.7%(이용 의향 20.7%), '노후 준비 서비스' 13.9%(이용 의향 36.7%), '귀농귀촌 종합센터' 26.4%(이용 의향 20.4%)임.

□ (친구 관계) 신중년의 대부분인 90.1%는 문제나 걱정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고, 평균적으로 3.8명의 친구가 있음.

□ (부모와 도구적 부양 교환) 신중년은 비동거 본인 및 배우자 부모에게 도구적인 도움을 주로 주는 편이며, '집안일 도움'이 '간병·병원 동행'보다 더 빈번하게 이루어짐.

○ 신중년의 53.7%는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중 1명 이상이 생존해 있으며(본인 부모 39.3%, 배우자 부모 34.0%), 이들 신중년의 8.9%는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중 1명 이상과 동거하고 있음.

○ 신중년 본인이 부모에게 집안일을 제공할 경우 본인 부모 61.0%, 배우자 부모 56.3%이며, 부모로부터 집안일 도움 수혜는 본인 부모로부터 18.5%, 배우자 부모로부터 17.5%임. 즉 신중년이 부모에게 집안일 도움을 받는 비율은 도움을 주는 비율의 3분의 1 수준임.

○ 간병·병원 동행 제공의 경우 본인 부모 41.8%, 배우자 부모 36.4%이며, 수혜는 본인 부모 5.8%, 배우자 부모 5.7%임.

□ (부모와 경제적 부양 교환) 신중년의 81.0%(본인 부모 81.0%, 배우자 부모 81.6%)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와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받고 있으며, 본인이 부모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부모로부터 받는 금액보다 더 많음.

○ 연간 기준으로 본인 부모에게 189만 원, 배우자 부모에게 155만 원을 제공하고, 본인 부모로부터 18만 원, 배우자 부모로부터 20만 원을 수혜받음.

○ 신중년의 15.0%(본인 부모 15.7%, 배우자 부모 14.5%)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도구적인 지원에 대한 부담 수준(본인 부모 10.8%, 배우자 부모 10.1%)보다 높은 편임.

□ (자녀와 경제적 부양 교환) 자녀가 있는 신중년의 65.0~66.0%가 자녀와 경제적 도움을 주고받고 있으며(비동거 자녀 66.4%, 동거 자녀 65.1%), 신중년이 자녀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자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보다 더 많음.

○ 신중년의 대다수(94.1%)는 자녀가 있으며 평균 자녀 수는 1.9명임. 이들 신중년의 56.5%는 1명 이상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음.

○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규모는 연간 기준으로 비동거 196만 원, 동거 533만 원이며,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는 규모는 연간 기준으로 비동거 145만 원, 동거 108만 원임.

□ (자녀 부양 부담) 신중년은 비동거 자녀보다 동거 자녀에게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자녀와 동거하기 때문으로 유추됨.

○ 신중년의 45.3%는 동거 자녀에 대한 경제적인 부양을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동거 자녀에 대한 경제적인 부양 부담(14.0%)보다 3배 높은 수준임.

□ 전기 신중년(50대)의 9년간(2010년~2019년) 특성 변화를 살펴보면, 교육 수준과 건강 수준의 향상, 근로활동 참여 증가 및 일자리 안정성 인식 증가, 미래 불확실성 대비 증가, 적정 자녀 부양 시기 축소, 사회참여 욕구 증가 등이 확인됨.

○ 고등학교 졸업자 비율이 39.1%(2010년)에서 66.3%(2019년)로 증가하였으며, 현재 근로활동 참여 비율은 같은 기간 72.5%에서 81.8%로 증가하였음.

○ 공적연금 가입률은 48.8%(2010년)에서 76.7%(2019년)로 증가하였고, 건강 및 요양 관련 노후 대비는 같은 기간 84.9%에서 93.6%로 증가함.

○ 자녀 부양 적정 시기는 ‘결혼할 때까지’라는 의견이 분석 기간 중 46.0%에서 29.7%로 감소한 반면, ‘학업을 마칠 때까지’는 3.1%에서 32.8%로 증가하였음.

○ 신중년은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으로 ‘즐어서 하지 못한 취미생활을 하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는데, 2010년 40.5%에서 2019년 54.4%로 증가하였음. 반면에 ‘소득 창출을 위한 일을 하면서’라는 응답은 같은 기간 20.0%에서 13.1%로 감소하였음.

3. 결론 및 시사점

□ 이 연구의 주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신중년의 안정적인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해 삶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관심 필요
- 신중년의 건강 지원을 위한 사전 예방적 접근
- 신중년 1인 가구의 돌봄 지원 추진
- 공적연금 가입률 제고 및 납입 지원
- 신중년의 경제적 노후 준비 지원 및 가족 부양 부담 완화
- 사회참여 욕구 다양화에 따른 민간과 공공의 공동 대응
- 신중년의 다양성을 반영한 정책 체감도 높은 일자리 정책 실시
- 전반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신중년 일자리 지원 필요
- 수요자 관점에서 정책 인지도 제고 및 홍보 강화 추진
-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신중년 지원 사업 내실화
- 신중년 생활실태 및 정책욕구 조사의 정기적인 실시

*주요 용어: 신중년, 장년층, 경제활동, 노후 준비, 인생3모작

제 1 장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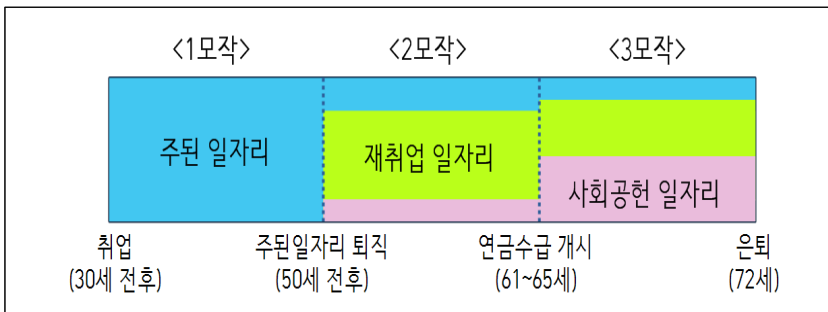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연구 방법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 사회는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라 2018년 3764만 5085명을 정점으로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국가통계포털, 2019). 정부는 생산가능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정년제도, 기업문화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영향으로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중년층 혹은 ‘신중년’을 인구고령화 시대에 주요한 인적자원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서 ‘신중년’은 정부 차원에서 과도기적 생애 경험을 반영하여 새롭게 형성한 용어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50세 전후)하고 재취업 일자리에 종사하거나, 노동시장 은퇴(72세 전후)의 과정을 경험하는 50~69세를 말한다.

[그림 1-1] 인생3모작 개념도



자료: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2017. 8. 8.). 정부 최초의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 마련.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p. 2.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165639>에서 2019. 4. 15. 인출.

2017년 8월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을 앞두고 전체 생산 가능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5060세대를 신중년으로 명명하였다. 이후 신중년을 대상으로 인생3모작 지원 정책(전직지원서비스, 노후 준비 서비스 등) 등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기존 관련 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新)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주된 일자리→재취업 일자리→사회공헌 일자리)’을 발표하였다(고용노동부, 2017). 즉 신중년을 그간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연령대로 인식되는 고령자나 노인과 차별화하여 여전히 일자리에서 활력 있는 인구로 본다는 시각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중년이라는 용어는 사회적으로 용어에 대한 학문적 및 정책적 합의 없이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신중년의 삶과 욕구 등 생활실태를 짚어보는 데 어려움이 있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9).

신중년은 현재 중년층 및 고령층과 사회경제적 특성이 다르므로, 기존의 중년층 대상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며 보다 중장기 관점에서는 이들이 노년인구로 편입되는 것에 대응하여 고령사회 정책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신중년은 고령층보다 건강 수준 및 교육 수준, 경제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다른 정책적 욕구를 지니며 활발한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적 기여를 이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남경아, 2017). 또한 신중년은 노부모와 청년 자녀 사이의 낀 샌드위치 세대로서 사회적으로 부모를 부양하지만 자녀로부터 자신의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첫 세대가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남경아, 2017, p. 27).

한편 이와 관련하여 성별 및 연령별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의 특성과 욕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가 필수적이므로, 아동, 여성, 청(소)년, 고령층 등 정책 대상별로 다양한 실태조사가 정

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참조할 만하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기초 자료는 아동종합실태조사(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와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여성 대상 조사는 여성가족패널조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와 여성관리자패널 조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이 있다. 청년 및 청소년 대상 조사는 청년 패널조사(한국고용정보원), 청소년실태조사(여성가족부), 한국교육고용 패널조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가 있다. 고령층 대상 조사는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한국고용정보원),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국민연금연구원)가 있다.

그러나 신중년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보여 주는 경험적 자료가 부족하여(양지훈, 권미애, 2019),¹⁾ 신중년층 정책은 단편적인 자료나 행정자료에 기초하여 고용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정부의 신중년 대상 인생3모작 정책은 인생 2~3모작에서 재취업(임금 근로), 창업, 귀농·귀어·귀촌, 사회공헌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신중년의 다양한 욕구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경희 외, 2010a; 양지훈, 권미애, 2018). 우리 사회는 아직 신중년층을 특화하여, 현재 신중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 정책은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사회복지정책 개발 및 고령사회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근거 기반 정책으로 추진되는데 한계가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중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를 통해 베이비부머(2010년 기준 47~55세) 연구의 일환

1) 특히 양지훈, 권미애(2018)는 신중년의 다수를 차지하는 베이비부머의 특성이나 노년기 준비 현황 등 관련 정보가 매우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있음(p. 4).

으로 46~59세의 중년층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였으나, 신중년의 일부 연령대(50대)만 포함하였고 조사 이후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더 이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정경희 외, 2010a). 앞에서 정책 대상별 실태조사에서 언급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송현주, 임란, 왕승현, 이은영, 2017)’와 ‘고령화연구패널조사(신종각, 안준기, 김정희, 김은영, 권운섭, 2017)’는 신중년을 포함하여 고령층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지만 노년층(65세 이상)에 보다 중점을 두고 은퇴 과정과 은퇴 이후의 생활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년의 특화된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하는 데 제한이 있다. 또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와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종단 추적조사라는 특성상 시간 경과에 따른 조사 대상의 탈락과 연령의 상향 등으로 인해 한 시점에서 신중년 전체의 특성을 포착하는 데 제한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50~69세에 해당하는 신중년의 삶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추진에 뒷받침되는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신중년의 변화된 생활상과 가치관 등을 비교 분석하여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베이비부머가 대거 포함된 신중년은 생산연령인구에서 고령인구로 편입되는 과정에 있으므로, 일자리에서의 큰 변화를 경험한다. 그러므로 이들이 노년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적절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아직 확립된 개념이 아닌 신중년 세대를 대상으로 선도적으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서울시50플러스재단, 국민연금공단 신중년 재충전센터)에서는 50~64세를 신중년으로 보기도 하지만,²⁾ 최근 정부가 고령화시대 신중년의 개념을 확장하면서 신중년의 연령 범위가 50~69세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신중년의 연령 정립에 대한 논의에 참고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서울시50플러스재단, 국민연금공단 신중년 재충전센터 관련 업무자 인터뷰에서 확인함.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과 연구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신중년의 연령 개념, 관련 기존 조사에 대해 검토하였다. 중장년의 변화된 개념을 통해서 신중년의 등장, 신중년의 연령 범위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고찰하였다.

둘째, 이러한 선행연구 및 기존 조사의 검토를 기반으로 신중년의 생활 실태와 복지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표를 마련하였다.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진이 개발한 조사표를 검토하고, 기초분석 결과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조사표 개발 단계에서 정책 대상자인 신중년의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³⁾ 조사표 개발 및 기초분석 결과와 정책 제언 도출 단계에서 신중년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였다. 조사표는 일반적인 특성 이외에 삶의 주요 영역인 가족·사회관계 및 부양 수준, 건강 수준, 노후 가치관과 정책 인지도, 삶의 질,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경제상태를 주요 영역으로 설계되었다.

셋째, 개발된 조사표를 이용하여 전국 4000명의 50~69세 신중년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대면면접조사(Personal Interview)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4006명이 조사 완료되었다. 조사 기간은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약 7주가 소요되었다.

넷째, 조사 결과를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지역,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 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다섯째, 기존 자료와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경희 외(2010b)의 ‘중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원자료 분석을 통해, 이 연구의 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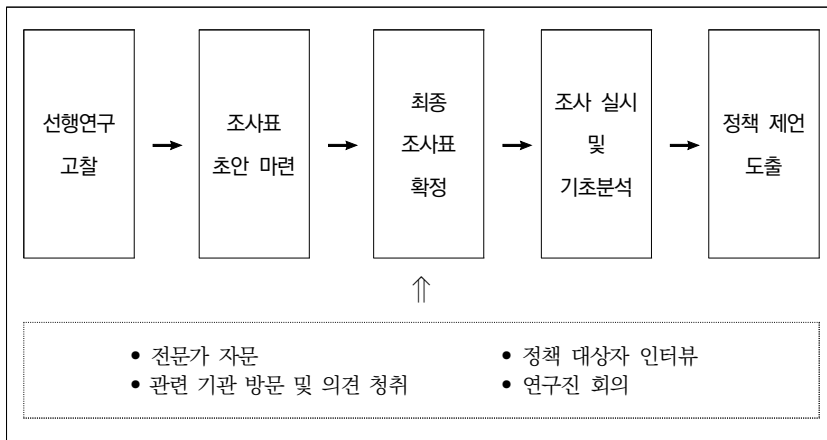
3)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관계자 협조하에, 5명의 캠퍼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함.

신중년인 50대의 9년간의 주요 특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정경희 외 (2010a; 2010b)는 전국의 46~59세를 대상으로 가족 부양, 경제활동, 사회참여, 노후 가치관 및 정책 인지도, 경제상태 등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의 연구 대상인 50~69세 중 50대에 대해서만 비교 분석이 가능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신중년 대상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과정은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 연구 과정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중장년 생애주기 특성 변화

제2절 신중년의 정의

제3절 선행조사 검토

2

이론적 배경 << 및 선행연구 검토

제2장은 신중년의 연령 정의를 검토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중장년 연령 정의 및 생애주기의 개념에 기초하여 과거와 달라진 중장년 생애주기 특성, 나아가 신중년의 차별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의 차별적 의의를 확인하기 위해 신중년과 유사한 정책 대상의 욕구를 파악한 선행조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중장년 생애주기 특성 변화

신중년의 개념이 구체화되기 이전 학계에서는 ‘중장년’을 일반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중장년에 대한 확정된 연령 범주 없이 유연하게 활용되어 왔다. 중장년은 중년과 장년의 복합어로 연령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개별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연령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김유경, 이진숙, 손서희, 조성호, 박신아, 2018). 김유경 외(2018)의 연구는 중장년의 개념 및 중장년의 연령 정의를 사전적 정의에 걸쳐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중년과 장년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순차적인 단계로 이해해 통합적인 집단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연령 범위는 매우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생애주기상의 특성은 보다 뚜렷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애주기는 취학, 취업, 결혼, 출산, 자녀 독립, 은퇴, 사망 등의 삶의 중요한 사건을 기준으로 생애주기를 구분하는데, 최근 학업 기간의 증가, 노동시장 진입의 지연, 초혼

과 초산 연령의 증가, 기대여명의 연장에 따른 노년기의 확대 등은 과거의 생애주기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신중년의 연령 정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신중년의 개념이 생애주기상의 변화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기존의 중장년 연령 정의에서 나타난 생애주기상의 특성을 <표 2-1>에 기초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 2-1> 선행연구에 따른 중장년 연령 범위

연구자	개념	연령 범위
네이버(2019)	장년기	일생 중 가장 활동이 활발한 시기, 30~40대 초반
	중년기	청년과 노년의 중간 시기, 40~50대 초반
Erikson(1974)	중년기	40~65세
Petry(2002)	중년기	36~55세 미만
Wakasaki 외(2006)	중년기	30~59세
김미경, 주재선(2003)	중고령기	50~60대
금재호(2011)	중장년층	45~59세
성지미, 안주엽(2011)	중고령기	50~60대
진주영, 하규수(2016)	중장년기	노년기 직전 시기
김영란(2017)	중·장년층	40~59세

자료: 1) 김유경, 이진숙, 손서희, 조성호, 박신아(2018).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1; 2), '중·장년 관련 연구들 연령 규정'에 네이버(2019). 네이버 국어사전(<https://ko.dict.naver.com/#/main>)에서 2019. 7. 15. 인출)을 추가하여 재구성.

사전적 정의의 경우, 장년기는 30~40대 초반의 연령을 일생 중 가장 활동이 활발한 시기, 중년기는 40~50대 연령을 청년과 노년의 중간 시기로 연령과 더불어 생애주기상의 특성도 함께 정의하고 있다(네이버, 2019). 중년기를 40~65세로 정의한 Erikson(1974)은 생애주기상 중년기를 인생의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전환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다. 중장년층에 관한 국내 연구를 수행한 진주영, 하규수(2016)는 중장년층 자체를

노년기 직전 시기로 정의하며 생애주기상에서의 특징을 반영해 중장년 연령 집단을 개념화한다. 즉 이제까지 학계에서 활용한 중장년의 개념은 연령보다는 생애주기상의 측면에서 청년기와 노년기 사이에 있는 집단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중장년의 생애주기 특성은 과거의 중장년의 특성과 어떻게 다른가? Havighurst(1972)는 중장년기를 안정적인 시기로 보고 있는데, 사회적 책임과 경제활동을 수행해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자녀를 부양하고 노년기를 대비하는 시기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생애주기 연구에서 중장년기는 과도기, 전환기와 같은 용어를 활용하며 인생 구조를 재평가하고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구축하는 시기로 정의한다(Levinson, 1978). 이진구, 정일찬, 오미래(2018)의 연구도 중장년의 핵심적인 발달과업을 지속적으로 경력을 개발하고 장기적인 자립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로 보고 있는데, 전통적인 중장년기의 특성과는 다름에 주목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사회의 변화에 따라 중장년기의 생애주기 특성이 이전과 다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신중년 집단의 특성을 새롭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의 정부 정책과 기초연구는 이렇게 변화한 생애주기 특성에 보다 주목하여 신중년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하여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변화한 생애주기 특성을 바탕으로 정부 주도의 신중년 개념이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제2절 신중년의 정의

‘신중년’의 명명과 사용은 문재인 정부의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 구축 계획(2017. 8. 8.)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고용노동부, 2017), 50~69세의 연령층을 의미하며, 이들의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하려는 정책적 개입을 추진하고 있다. 즉 신중년은 경제활동인구 중 가장 연령이 높은 인구 집단으로, 노년기 진입 직전의 50~60대의 연령층을 정의하는 개념이며 이들의 특수한 욕구를 포착하고 개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성혜영 외, 2018).

특히 정부에서 사용하는 신중년의 정의는 일자리 경로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50대 전후부터 노동시장 내에서 일자리의 이동을 거쳐, 완전하게 은퇴하는 70세 전후의 연령으로 정의한다. 즉 신중년은 기존의 중장년층 개념과 비교하여 장년층에 주목하는 반면, 노년층으로 정의되던 65~69세의 인구 집단을 포함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 신중년에 대한 용어가 낯설고, 학자별 또는 기관별로도 정의를 달리 사용하고 있다. 정부 이외의 공공기관이나 국외에서 신중년은 50~64세를 의미하며, 국내외에서 50+세대라는 말을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9).⁴⁾ 50+세대의 최초 사용배경을 살펴보면, 독일에서 2000년 중후반에 50+세대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45.0%를 차지하면서 50+세대의 고용정책 관련 법령을 제정하며 50+세대라는 개념이 세계 최초로 탄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9). 우리나라에서도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인생3모작 지원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이전인 2010년 초반부터

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 R&D팀(2019. 5. 13.), 신중년을 위한 디지털에이징 프로그램, 왜 필요할까요?, 정책리포트 <http://www.arte365.kr/?p=72894>(2019. 5. 14. 인출)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 차원에서 50~64세 대상, 특히 50+세대에 관심을 두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들 연령 집단을 신중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기구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신중년이라는 개념을 활용하기에 앞서 50+세대를 대상으로 정책 개입이 이루어졌음을 보여 준다.

언론의 경우 정부보다 앞서서 신중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2013년 조선일보는 60~75세를 신중년으로 명명하며 특집 기사를 발행했다(2013. 9. 9. 기사).⁵⁾ 해당 기사는 구체적으로 조선일보에서 주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하고 있는데, 전국의 60~75세 500명을 대상으로 건강과 일자리 관련한 주관적 인식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들은 본인이 실제 나이보다 어리다고 생각(90.6%)하고 일자리 기회가 주어지거나 체력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자 하는 생각(88.7%)⁶⁾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에서는 신중년의 용어 사용과 함께 신중년 인구 집단의 자체적인 인식조사를 통해 신중년의 특징을 검토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추후 신중년의 개념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고령화시대 노인인구 규모가 증가하면서 1990년대부터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역할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고령화로 인한 재정위기 등의 사회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은 은퇴 이후 사회에서 배제되어 돌봄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며, 노화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중년의 연장선’ 상에서 노년을 바라보려는 시각이 강조되었다(최희경, 2010; 양지훈, 권미애, 2018). 우리나라도 2004년 고령화 위기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

5) 조선일보(2013. 9. 9.). ‘6075 新 중년 열의 아홉은 “난 젊다, 일하고 싶다, 활기차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9/09/2013090900195.html에서 2019. 5. 14. 인출

6) 세부적으로 ‘다시 기회가 온다면 일정 기간 더 일하고 싶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49.1%, ‘체력이 허락하는 한 평생 일하고 싶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39.6%임.

면서 노인의 독립성과 활동성, 생산성 등에 초점을 두고 '신노년(new aging)'이라는 용어가 대중매체와 전문 학술분야 등에서 사용되었다(정경희, 한경혜, 김정석, 임정기, 2006; 최희경, 2010). 신노년은 특정 시기 출생아의 수가 급속히 증가했던 베이비붐 세대를 지칭하며, 이 세대가 노인인구로 편입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노인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였다(박현식, 전오진, 2014). 특히 신노년은 현재 노인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달리 긍정적인 이미지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박현식, 전오진, 2014). 신노년은 명확한 연령 범위 없이 사용되었지만, 과거 노인과 달리 노년기에 진입한 새로운 노년을 주로 통칭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신노년 역시 60대를 기존의 의존적인 노인과 동일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의 대상으로 본다는 인식의 전환 측면에서 신중년이라는 용어와 유사하다. 하지만 신노년은 여전히 60대 이상 인구를 노인복지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시각이 컸다는 점, 아직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편입까지 시간이 있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정부의 정책 대상으로 부각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정부에서 주목하는 신중년 집단에 대한 관심은 변화하는 신중년 집단의 특성을 포착하는 초기 접근에서 나아가 신중년의 핵심 욕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개입하려는 시도를 보인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실질 노동시장 은퇴연령은 72세 전후이며 노후 준비 혹은 노후소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보다 건강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65~69세의 연령대도 경제활동 참여 혹은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 차이를 보인다(송현주, 임란, 왕승현, 2019).

한편 신중년의 개념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의 연령 기준 상향 조정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이들 인구 집단의 특성이 나타난다.

1886년 독일에서 비스마르크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으로 삼았던 연령 기준은 65세이다. 하지만 2세기가 바뀌는 동안 우리 사회의 환경을 비롯하여 개인의 영양 수준과 건강 수준, 경제활동 상황 등이 크게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연령 기준은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60대 이상을 노인으로 보는 시각이 다수였는데, 이는 당시 60세의 기대여명이 15.9년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은 70~75세의 기대여명이 12.7~16.6년이라는 점에서 노인 연령 기준의 변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60세의 기대여명은 25.2년, 국가통계포털, 2019). 이에 우리 정부는 65~69세를 더 이상 노인으로 보지 않고, 신중년에 편입시켜 바라보고 있는데 이는 변화한 시대상과 생애주기, 신중년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연구는 우리 국민의 욕구에 선행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중장년으로 정의하였던 50~64세에서 5세 더 확장한 50~69세를 신중년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차별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인구구조 및 고용 환경에 맞물려 현 정부가 주목하는 인구 집단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기존의 중장년층뿐 아니라 현재의 노년층을 부분적으로 포괄하는 인구 집단이라는 점에서 연령적으로 차별적인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 연구는 50~69세인 신중년의 특화된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노인인구로 인식된 65~69세를 새로운 집단으로 구분하는 논의의 기초자료로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선행조사 검토

이 절에서는 신중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차별적인 의의를 찾고자 한다.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과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을 앞두고, 그간 실태조사는 신중년보다 중장년이나 고령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먼저 정경희 외(2010a)는 베이비부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증가와 달리 베이비부머에 대한 기초자료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베이비부머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 개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2010년 전국의 46~59세에 해당하는 중년층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완료 4050명). 조사영역은 가구원 및 일반 사항을 제외하고 가족·사회관계 및 부양의 교환,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 경제상태 및 소비스타일, 경제활동, 사회참여, 노후 가치관 및 정책 인지도, 삶의 만족도로 총 7개 영역을 조사하였다. 특히 7개 조사 영역은 노년기 준비를 위해 필요한 핵심 영역(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과 더불어 중장년이 노년기로 진입함에 있어 나타날 수 있는 부양 실태, 노후 가치관, 정책 필요성 등으로 중장년이 경험하는 구체적인 이슈를 파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성과를 가진다(성혜영 외, 2018). 베이비부머, 나아가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가 부족하던 시기에 이들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복지욕구를 파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함의하는 바가 크다.

정경희 외(2010a)와 유사한 정책적 관심을 배경으로 한 최근 조사로 양지훈, 권미애(2018)는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베이비부머 실태 및 욕구 조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인천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2018년 만 44~63세)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이 향후 노인인구 증가를 본격적으로 주도하는 인구 집단이라는 점에서 현 정부에서 주목하는

신증년 집단과 정책적으로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한다. 특히 양지훈, 권미애(2018)는 노년기에 진입하는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와 목적을 같이한다. 이를 위해 인천시에 거주 중이며 1955년부터 1974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부머(2018년 기준 44~63세) 1907명을 조사하였고 조사문항에서 가구원 일반 사항을 제외하고 가족, 사회적 활동, 건강, 주거 및 지역사회 인식, 근로 및 경제적 사항, 노후 준비 교육의 총 6개 영역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정경희 외(2010a)의 연구에 이어 베이비부머 집단의 고령화에 따라 변화된 최근 욕구를 파악하고, 나아가 노년기 대비를 위한 정책 이슈를 도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 출생, 전기 베이비부머)뿐 아니라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 출생, 후기 베이비부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추가한 점에서 차별적인 의의가 있다.

이보다 앞서서 강소랑, 이은정, 임승연(2017)은 지자체 차원에서 신증년 대상 정책을 선도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정책 근거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50~64세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50+세대 1225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노후 준비(재무, 노후설계교육), 학습, 사회자본(사회관계, 가족관계, 돌봄 포함), 건강, 여가, 삶의 만족도 및 50+정책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 자료는 서울시의 신증년층을 대상으로 특화된 욕구를 파악하여 서울시 50+세대를 위한 정책개발, 서울시 50+ 인프라인 캠퍼스 및 센터의 이용 활성화 등 50+세대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조사, 관리하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는 중고령층의 노후 준비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의 실태를 파악하여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한 정책 개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5년부터 수행되었

다(국민연금연구원 홈페이지, 2019). 이를 위해 전국의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속한 가구의 가구 및 개인 조사를 격년으로 수행해 현재 2017년 7차 조사까지 완료하였다. 조사 규모는 1차 조사 당시 5110가구였으나 패널 대상자의 탈락 및 초기 연령 대상 집단의 누락을 보완하고자 2013년 5차 조사 당시 5101가구의 신규 표본을 추가하였다(송현주 외, 2017). 가구 및 가구원의 일반 사항을 제외한 주요 설문 영역은 가계경제, 경제활동상태, 사회보장 실태, 노후생활, 삶의 질 영역으로 특히 고령사회를 대비한 중고령층 노후 준비 및 노후생활 점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민노후보장패널은 방대한 조사 규모와 함께 중년층의 노년기 대비 이슈를 포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표 2-2〉 신중년 관련 기존 조사 특성 비교

구분	중년층의 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인천시 베이비부머 실태 및 욕구조사	서울시 50+ 세대 실태 및 수요조사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	고령화연구 패널조사
조사 대상 및 규모	46~59세 (4,050명), 개인조사 *베이비부머 (47~54세) 3,027명 포함	44~63세 (1,907명), 개인 및 가구조사	50~64세 (1,225명)	50세 이상 (11,708명*), 개인 및 가구조사 *2017년 기준, 50~69세 4,090명 (50대 2,072명, 60대 2,018명)	45세 이상 (7,490명*) 개인 및 가구조사 *2016년 기준, 54~69세 4,013명 (50대 1,737명, 60대 2,276명)
조사 지역	전국	인천	서울	전국	전국 (제주 제외)
조사 주기 (시작)	1회 (2010년)	1회 (2018년)	1회 (2017년)	2년 (2005년~) *7차 조사 완료	2년 (2006년~) *6차 조사 완료
조사 목적	베이비부머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실태를 파악하여 노인복지정책의	노년기에 진입하는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50+세대를 위한 정책개발, 인프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으로	중고령층의 노후 준비 및 노후생활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고령자의 사회, 경제, 심리, 인구학적 형성 및 건강상태 등을 측정·파악하여

구분	중년층의 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인천시 베이비부머 실태 및 욕구조사	서울시 50+ 세대 실태 및 수요조사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	고령화연구 패널조사
	방향성 모색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자료 제공	기초자료 생산	50+세대 관련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 제공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정책을 위한 체계적인 자료 구축	효과적인 사회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기초자료 생산
조사 내용	가족사회관계 및 부양의 교환,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 경제상태 및 소비스타일, 경제활동, 사회참여, 노후 가치관 및 정책 인지도, 삶의 만족도	가족, 사회적 활동, 건강, 주거 및 지역사회인식, 근로 및 경제적 사향, 노후 준비교육	일자리, 노후 준비, 학습, 사회자본(사회관 계, 가족관계, 돌봄), 건강, 여가, 삶의 만족도 및 50+정책 인식	가계경제(소득, 지출, 자산, 부채), 경제활동상태, 사회보장 적용 실태, 노후생활(노후생 활비, 노후대책마련, 여가생활 등), 삶의 질	가구배경 및 인적속성, 가족, 건강, 고용, 소득과 소비, 자산, 주관적 기대감과 삶의 질 사망자 설문
실시 기관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인천고령사회 대응센터	서울시50플러스 재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자료: 1) 정경희, 이소정, 이윤경, 김수봉, 전우덕, 오영희, ... 이은진. (2010a). 베이비 부머의 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양지훈, 권미애. (2018). 인천시 베이비부머 실태 및 욕구조사, 인천광역시 고령사회 대응 센터.
 3) 강소량, 이은정, 임승연. (2017). 서울시 50+세대 실태 및 수요조사 연구 II, 서울특별시50 플러스재단.
 4) 송현주, 임란, 왕승현, 이은영. (2017).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 준비 실태: 제6차 (2015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 기초분석보고서,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5) 신종각, 안준기, 김경희, 김은영, 권윤섭. (2017). 2016 고령화 연구패널 기초분석,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은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는 한국 사회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개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06년부터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를 수행하였다(고용조사분석시스템, 2019).⁷⁾ 2006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45세 이상 중고령자 중

7) 2006년 당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시작하였으나, 이후 2010년 3차 조사부터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일반 가구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격년 조사를 수행하여 현재 2018년 7차 기본조사까지 완료하였다. 조사 규모는 1차 조사 당시 1만 254명이었으나 패널 대상자의 탈락 및 추적조사의 특성에 기인한 중년 대상자의 누락을 보완하고자 2014년 5차 조사 당시 1000명의 신규 표본을 추가해 6차 조사의 표본유지율은 약 80.0%이다(신종각 외, 2017). 주요 설문 영역은 가구원 및 일반 사항을 제외하고 가족 부양 관계, 건강, 고용, 소득과 소비, 자산, 주관적 기대감과 삶의 질(여가 포함), 사망자 조사이다. 고령화연구패널은 중장년 가운데 45세 이상 인구 집단을 포괄하고 노년기의 핵심적인 삶의 영역을 조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상과 같이 총 5가지의 유사 선행조사를 검토한 결과, 신중년층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신중년을 부분적으로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존 조사는 현 정부가 주목하는 신중년 집단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조사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차별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우선 정경희 외(2010a)의 경우 10여 년의 시간이 흐른 현 상황에서 베이비부머 집단이 고령화되어 현 신중년 집단의 욕구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조사 대상이 신중년의 연령 범위를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50~69세 대상의 실태조사가 새롭게 요구된다.

양지훈, 권미애(2018)와 강소랑 외(2017) 연구는 최근에 수행한 베이비부머 및 50+ 세대 대상 연구로 일부 중장년층의 생활실태 및 욕구를 재점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인천시 혹은 서울시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과 이 연구의 신중년 연령 범위와 다르다는 점에서 전국단위의 신중년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송현주 외(2017)의 경우 종단자료로 조사 대상의 욕구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패널조사의 특수성과 맞물려 시간 경과에 따른

50대의 연령 공백 문제가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신규 표본을 추가하기 전까지 2차연도의 표본 최저 연령은 52세, 3차연도 54세, 4차연도 56세로 초기 중년층의 공백이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는 일부 신중년층을 제외하여, 시간의 경과와 함께 변화하는 신중년의 특성을 포착하는데 한계로 작용한다.

신종각 외(2017)도 송현주 외(2017)에서 나타난 패널조사의 문제점과 유사하게 가장 최근 공개된 고령화연구패널조사 6차 조사의 최저연령이 56세이다. 즉 패널조사의 특성상 대상자가 고령화됨에 따라 초기 중년층의 누락이 나타나고, 설문 내용에 있어서도 패널의 장기조사와 함께 노년층의 욕구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신중년의 특성을 포착하는 데 제한이 있다.

종합적으로 이 연구는 신중년으로 정의하는 새로운 연령 집단(50~69세)을 대상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 신중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횡단연구로 수행되지만 신중년 대상이 현 상황에서 경험하는 욕구 특성을 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포착하는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기여를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의성 높은 기초자료를 생산해 실효성 높은 신중년 대상의 정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 3 장

조사 개요

제1절 조사 개요 및 표본 설계

제2절 신중년의 일반적 특성

제1절 조사 개요 및 표본 설계

1. 조사 개요 및 주요 내용

이 연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2019년 7월 15일부터 8월 29일까지 약 7주에 걸쳐 전국의 50~69세 약 4000명을 대상으로 ‘신증년 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4006명이 조사 완료되었다. 조사 방법은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을 활용한 대면면접조사(Personal Interview)이다.

이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연구계획서 및 기타 연구 관련 문서에 대한 심사를 거쳐, 2019년 7월 2일에 IRB 승인(제2019-46호)을 받아 진행하였다.

조사표는 정경희 외(2010a)의 조사표를 토대로, 영역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진 회의와 학계·현장 전문가 자문 등 10여 차례의 논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또한 신증년 대상 집단인터뷰를 통해 조사문항 개발에 참조하는 과정을 거쳤다.

신증년의 경우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며, 노후에 대한 인식, 자녀와 노부모 사이의 긴 세대로서 가족 부양 부담을 갖는다는 점에서 조사표 개발에 이러한 내용을 담고자 하였다. 그 외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 건강상태와 건강행태, 정책 인지도, 경제상태에 대한 영역을 선정하여 조사표를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조사표는 신증년의 삶 전반을 파악하는 조사라는 점에서, 영역 간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조

사 문항 수와 조사 깊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영역별 조사 내용은 <표 3-1>과 같다.

<표 3-1> 신중년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내용 요약

구분	주요 내용
가구 일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자녀, 배우자, 동거가족 등의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교육 수준, 근로 활동 여부 등 - 총 가구원 수, 총 자녀 수, 가구 형태
가족·사회관계 및 부양의 교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동거 부모와 부양 교환(정서적, 도구적, 신체적, 경제적) 및 부담 수준 - 비동거 자녀와 비경제적 부양 교환(정서적, 도구적, 손자녀 돌봄) - 동거 및 비동거 자녀와의 경제적 부양 교환 및 부담 수준 - 친구 수와 접촉/연락 빈도
건강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보유 여부 및 수 - 건강검진 실시 여부 및 미검진 시 이유 - 미충족 의료욕구 여부와 이유(병의원, 치과), 우울감, 자살 생각 등
노후 가치관 및 정책 인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 노후에 함께 살고 싶은 사람 - 최근 관심사, 노후에 예상되는 어려운 점 - 만족스러운 노후를 위한 조건, 노인 연령 인식 - 자녀의 부양책임 범위 - 일자리, 노후 준비, 귀농귀촌 관련 정책 인식 및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 - 주택(농지)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식 및 이용 의사 - 공적연금 가입 여부, 정부 사업 및 서비스 정보 습득 방법 - 웰다잉(죽음 준비 교육, 연명치료 중단, 호스피스) 관련 인식 및 이용 의사 - 전반 및 영역별 삶의 만족도, 행복
사회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여가활동 빈도 및 함께하는 사람, 향후 희망 여가활동 - 현재 및 노후 삶에서 여가활동의 중요성 - 자원봉사활동, 평생교육 참여 여부 및 향후 참여 희망 여부 - 희망하는 노년기 사회참여 활동 - 현재 및 노후 삶에서 사회참여 활동의 중요성
경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 근로활동 여부 및 최장 종사 직종, 직위, 종사 기간 - 생애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 퇴직 연령 및 퇴직 이유, 퇴직 전후 생활 만족도 및 가족관계 변화 - 현재 근로활동 여부 및 직종, 직위, 종사 기간, 근로안정성 인식 - 제2의 일을 위한 준비, 희망 은퇴연령 및 노후에 일하는 주된 이유 - 파트타임의 낮은 임금 및 전일제의 최저임금 수준 일 참여 의사 - 노후 일의 중요성 인식
경제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소득, 자산, 부채 및 부채 이유, 주택 점유 형태 - 월평균 소비지출액, 소비 성향, 저축 및 민간보험 가입 여부 - 주관적 계층 인식, 10년 전후 경제생활 수준 변화(전망)

2. 표본 설계 개요

가. 모집단 분석

신중년의 안정적인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는 2017년 기준 집계구 분포를 분석하여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고, 표본추출틀로 활용하였다.

2017년 기준 전체 집계구는 10만 3990개이며, 동부는 80.6%, 읍면부는 19.4%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8.5%, 경기도가 24.3%를 차지하고 있다(〈표 3-2〉 참조).

〈표 3-2〉 모집단 집계구 분포

(단위: 개, %)

구분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서울	7,798	(7.5)	11,455	(11.0)	-	(-)	-	(-)	19,253	(18.5)
부산	1,793	(1.7)	4,801	(4.6)	74	(0.1)	254	(0.2)	6,922	(6.7)
대구	1,538	(1.5)	2,996	(2.9)	109	(0.1)	358	(0.3)	5,001	(4.8)
인천	1,889	(1.8)	3,792	(3.6)	202	(0.2)	24	(0.0)	5,907	(5.7)
광주	823	(0.8)	2,223	(2.1)	-	(-)	-	(-)	3,046	(2.9)
대전	1,051	(1.0)	2,023	(1.9)	-	(-)	-	(-)	3,074	(3.0)
울산	434	(0.4)	1,470	(1.4)	142	(0.1)	290	(0.3)	2,336	(2.2)
세종	19	(0.0)	340	(0.3)	107	(0.1)	96	(0.1)	562	(0.5)
경기	6,800	(6.5)	14,293	(13.7)	2,178	(2.1)	2,033	(2.0)	25,304	(24.3)
강원	614	(0.6)	1,295	(1.2)	802	(0.8)	459	(0.4)	3,170	(3.0)
충북	630	(0.6)	1,279	(1.2)	760	(0.7)	567	(0.5)	3,236	(3.1)
충남	518	(0.5)	1,445	(1.4)	1,529	(1.5)	915	(0.9)	4,407	(4.2)
전북	829	(0.8)	1,818	(1.7)	859	(0.8)	257	(0.2)	3,763	(3.6)
전남	450	(0.4)	1,143	(1.1)	1,934	(1.9)	643	(0.6)	4,170	(4.0)
경북	808	(0.8)	2,109	(2.0)	1,637	(1.6)	945	(0.9)	5,499	(5.3)
경남	1,207	(1.2)	3,199	(3.1)	1,381	(1.3)	1,171	(1.1)	6,958	(6.7)
제주	399	(0.4)	572	(0.6)	345	(0.3)	66	(0.1)	1,382	(1.3)
계	27,600	(26.5)	56,253	(54.1)	12,059	(11.6)	8,078	(7.8)	103,990	(100.0)

주: 1) 총 집계구 수와 분석 가능한 집계구 수 간에는 차이가 있음.

2) ()는 %를 의미함.

가구와 인구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는 약 1967만 가구이며(〈표 3-3〉 참조) 전체 인구는 약 4936만 명으로 파악되었다(〈표 3-4〉 참조). 동부의 가구는 전체의 80.6%를, 읍면부의 가구는 전체의 1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규모는 동부 82.0%, 읍면부 18.0%이다. 전체 인구 중에서 경기도의 인구 비율이 24.7%로 가장 높고, 서울(18.8%)과 인천(5.7%)을 포함한 수도권인 인구 비율이 49.2%이다. 즉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

〈표 3-3〉 모집단 가구 분포

(단위: 천 가구, %)

구분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서울	1,680.1 (8.5)	2,133.1 (10.8)	- (-)	- (-)	3,813.3 (19.4)	
부산	359.4 (1.8)	936.2 (4.8)	12.9 (0.1)	45.9 (0.2)	1,354.4 (6.9)	
대구	313.3 (1.6)	547.7 (2.8)	21.5 (0.1)	65.6 (0.3)	948.0 (4.8)	
인천	367.0 (1.9)	677.9 (3.4)	30.9 (0.2)	4.5 (0.0)	1,080.3 (5.5)	
광주	163.9 (0.8)	411.9 (2.1)	- (-)	- (-)	575.7 (2.9)	
대전	225.4 (1.1)	372.3 (1.9)	- (-)	- (-)	597.7 (3.0)	
울산	84.9 (0.4)	263.6 (1.3)	28.0 (0.1)	52.2 (0.3)	428.7 (2.2)	
세종	1.0 (0.0)	59.8 (0.3)	24.7 (0.1)	18.8 (0.1)	104.3 (0.5)	
경기	1,356.0 (6.9)	2,456.5 (12.5)	430.1 (2.2)	360.3 (1.8)	4,603.0 (23.4)	
강원	126.5 (0.6)	245.6 (1.2)	159.0 (0.8)	89.6 (0.5)	620.7 (3.2)	
충북	127.5 (0.6)	236.4 (1.2)	158.3 (0.8)	106.7 (0.5)	629.1 (3.2)	
충남	112.9 (0.6)	260.8 (1.3)	286.7 (1.5)	174.6 (0.9)	835.0 (4.2)	
전북	164.8 (0.8)	338.2 (1.7)	177.1 (0.9)	48.8 (0.2)	728.9 (3.7)	
전남	88.5 (0.4)	218.4 (1.1)	309.4 (1.6)	117.4 (0.6)	733.7 (3.7)	
경북	172.0 (0.9)	393.2 (2.0)	346.5 (1.8)	176.2 (0.9)	1,087.9 (5.5)	
경남	237.4 (1.2)	582.3 (3.0)	262.3 (1.3)	210.9 (1.1)	1,293.0 (6.6)	
제주	69.4 (0.4)	103.6 (0.5)	54.9 (0.3)	12.2 (0.1)	240.2 (1.2)	
계	5,650.1 (28.7)	10,237.6 (52.0)	2,302.4 (11.7)	1,483.8 (7.5)	19,673.9 (100.0)	

주: ()는 %를 의미함.

〈표 3-4〉 모집단 인구 분포

(단위: 천 명, %)

구분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서울	3,621	(7.3)	5,676	(11.5)	-	(-)	-	(-)	9,296	(18.8)
부산	796	(1.6)	2,381	(4.8)	29	(0.1)	124	(0.3)	3,330	(6.7)
대구	692	(1.4)	1,469	(3.0)	51	(0.1)	179	(0.4)	2,392	(4.8)
인천	841	(1.7)	1,890	(3.8)	70	(0.1)	11	(0.0)	2,812	(5.7)
광주	347	(0.7)	1,104	(2.2)	-	(-)	-	(-)	1,452	(2.9)
대전	485	(1.0)	1,002	(2.0)	-	(-)	-	(-)	1,488	(3.0)
울산	188	(0.4)	717	(1.5)	63	(0.1)	147	(0.3)	1,115	(2.3)
세종	3	(0.0)	167	(0.3)	53	(0.1)	47	(0.1)	269	(0.5)
경기	3,066	(6.2)	7,100	(14.4)	1,043	(2.1)	1,003	(2.0)	12,211	(24.7)
강원	270	(0.5)	631	(1.3)	362	(0.7)	216	(0.4)	1,480	(3.0)
충북	288	(0.6)	630	(1.3)	354	(0.7)	273	(0.6)	1,545	(3.1)
충남	235	(0.5)	707	(1.4)	661	(1.3)	453	(0.9)	2,056	(4.2)
전북	364	(0.7)	895	(1.8)	390	(0.8)	123	(0.2)	1,772	(3.6)
전남	198	(0.4)	567	(1.1)	664	(1.3)	305	(0.6)	1,733	(3.5)
경북	367	(0.7)	1,025	(2.1)	745	(1.5)	447	(0.9)	2,584	(5.2)
경남	524	(1.1)	1,566	(3.2)	563	(1.1)	563	(1.1)	3,215	(6.5)
제주	178	(0.4)	271	(0.5)	134	(0.3)	30	(0.1)	614	(1.2)
계	12,463	(25.2)	27,798	(56.3)	5,181	(10.5)	3,921	(7.9)	49,363	(100.0)

주: ()는 %를 의미함.

성별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남성 49.4%, 여성 50.6%로 여성 비율이 더 높고, 특별·광역시 지역 중에서 남성 비율이 높은 지역은 울산(남성 51.3%, 여성 48.7%)이다. 도 지역에서는 강원과 충남 지역의 남성 비율이 높은 편이며, 나머지 지역은 여성 비율이 높다(〈표 3-5〉 참조).

〈표 3-5〉 모집단 인구의 성별 분포

(단위: 천 명)

구분	동부				읍면부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서울	1,717	1,790	2,648	2,864	-	-	-	-
부산	381	386	1,116	1,199	14	14	58	62
대구	333	336	690	735	26	24	87	87
인천	416	399	897	938	34	32	5	5
광주	171	163	520	552	-	-	-	-
대전	242	226	474	498	-	-	-	-
울산	97	85	352	343	32	29	73	70
세종	1	1	78	83	27	23	23	22
경기	1,516	1,447	3,356	3,531	528	481	487	487
강원	133	127	297	315	178	169	106	102
충북	141	137	298	313	173	165	134	131
충남	118	108	337	346	323	309	223	216
전북	180	170	421	448	184	188	59	60
전남	99	92	272	278	309	323	146	149
경북	182	171	491	503	351	357	216	216
경남	264	242	753	766	263	273	271	275
제주	87	86	130	134	66	65	15	15
계	6,077	5,965	13,131	13,846	2,507	2,451	1,903	1,897

주: 〈표 3-4〉와 〈표 3-5〉의 총합의 차이는 자료에 따른 차이임.

한편 지역별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본 조사의 대상이 되는 50~69세의 연령 분포는 다음의 〈표 3-6〉, 〈표 3-7〉과 같다. 50~60대 인구는 1330만 2000명이며, 이 중에서 경기도가 약 22.9%로 가장 높고 그다음 서울 18.8%, 부산 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을 제외하고 50~60대 비중이 낮은 지역은 제주도 1.2%, 울산 2.3%, 광주 2.7% 등의 순이다. 동부와 읍면부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동부의 일반 지역 33.5%, 아파트 지역 46.1%로 동부 지역 전체는 79.6%이다. 읍면부의 일반 지역 15.5%, 아파트 지역 4.9%로 읍면부 지역은 20.4%이다. 즉 동부 지역의 50~60대 비중이 읍면부 지역보다 많다.

지역별 50~60대의 성별 분포는 동부의 일반 지역은 남성 16.5%, 여성 17.0%이며, 아파트 지역은 남성 22.5%, 여성 23.6%이다. 읍면부의 일반 지역은 남성 8.0%, 여성 7.6%이며, 아파트 지역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2.5%씩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지역별 성별 분포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므로 표본 규모의 산출 시 성별 차이는 고려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6〉 시도별 인구의 50~60대 분포

(단위: 천 명, %)

구분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서울	1,235 (9.3)	1,261 (9.5)	- (-)	- (-)	2,495 (18.8)
부산	433 (3.3)	555 (4.2)	14 (0.1)	23 (0.2)	1,025 (7.7)
대구	279 (2.1)	346 (2.6)	18 (0.1)	38 (0.3)	682 (5.1)
인천	278 (2.1)	437 (3.3)	28 (0.2)	1 (0.0)	744 (5.6)
광주	120 (0.9)	240 (1.8)	- (-)	- (-)	360 (2.7)
대전	152 (1.1)	226 (1.7)	- (-)	- (-)	377 (2.8)
울산	96 (0.7)	155 (1.2)	28 (0.2)	29 (0.2)	309 (2.3)
세종	- (-)	23 (0.2)	18 (0.1)	8 (0.1)	49 (0.4)
경기	907 (6.8)	1,572 (11.8)	373 (2.8)	187 (1.4)	3,039 (22.8)
강원	102 (0.8)	146 (1.1)	161 (1.2)	30 (0.2)	439 (3.3)
충북	95 (0.7)	141 (1.1)	147 (1.1)	41 (0.3)	424 (3.2)
충남	79 (0.6)	124 (0.9)	257 (1.9)	70 (0.5)	531 (4.0)
전북	120 (0.9)	207 (1.6)	151 (1.1)	17 (0.1)	495 (3.7)
전남	81 (0.6)	126 (0.9)	256 (1.9)	42 (0.3)	506 (3.8)
경북	165 (1.2)	210 (1.6)	319 (2.4)	74 (0.6)	769 (5.8)
경남	232 (1.7)	325 (2.4)	250 (1.9)	95 (0.7)	901 (6.8)
제주	73 (0.5)	37 (0.3)	47 (0.4)	1 (0.0)	159 (1.2)
계	4,449 (33.5)	6,129 (46.1)	2,067 (15.5)	657 (4.9)	13,302 (100.0)

주: ()는 %를 의미함.

〈표 3-7〉 시도별 인구의 50~60대 성별 분포

(단위: 천 명)

구분	동부				읍면부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서울	591	644	601	659	-	-	-	-
부산	207	226	263	292	7	7	10	12
대구	135	144	167	179	9	9	18	19
인천	140	138	216	221	14	14	1	1
광주	61	59	116	124	-	-	-	-
대전	76	76	111	115	-	-	-	-
울산	48	48	80	75	15	14	15	14
세종	-	-	11	12	10	9	4	4
경기	459	448	777	795	195	178	93	94
강원	51	51	71	75	83	78	15	15
충북	48	48	69	71	76	71	21	21
충남	40	39	62	62	131	126	36	34
전북	61	60	101	106	77	74	8	8
전남	41	40	64	62	131	125	22	21
경북	81	84	104	106	162	157	38	37
경남	116	117	162	162	127	123	47	48
제주	37	36	18	19	24	23	1	1
계	2,190	2,259	2,993	3,136	1,061	1,006	329	328

나. 표본 설계

1) 표본 규모의 결정

이 연구는 층화표본추출을 실시한다. 비례배분의 가정하에서 전체 표본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층화표본추출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n = \frac{\sum_{h=1}^L N_h S_h^2}{ND + \sum_{h=1}^L W_h S_h^2} \quad (\text{식 1})$$

여기서 S_h^2 은 h 층의 모집단 분산인데, 50~60대 인구 비율에 대한 배분의 경우 $S_h = \sqrt{P_h Q_h}$ 를 대입한다. W_h 는 층별 집계구 비율로 $W_h = N_h/N$ 이다. D 는 목표오차인 B 로 구성된, $D = B^2/4$ 이다.

〈표 3-8〉 목표오차별 표본 규모

(단위: %, 개)

집계구 기준	B(목표오차)	1.0	1.5	1.8	2.0	2.5
	n(표본 수)	1,779	798	556	451	289
인구수 기준	B(목표오차)	0.5	0.6	0.65	0.7	0.8
	n(표본 수)	6,769	4,796	4,115	3,567	2,753

집계구 기준으로 목표오차를 1.8~2.0%로 관리할 경우 약 500개의 표본 집계구가 필요하며, 인구수 기준으로 목표오차를 0.65~0.7%로 관리할 경우 표본 규모는 약 4000명이 필요하다.

2) 표본배분 방법

표본배분은 다음과 같이 지역별 집계구 수에 대한 제곱근 비례배분을 적용한다.⁸⁾

8) 표본배분 방법으로 ① 지역별 50~60대 인구수에 따른 비례배분, ② 층별 50~60대 인구 비율에 따른 네이만 배분을 적용한 방안도 함께 고려함. 그러나 이러한 표본배분 방법을 적용할 경우 지역별 표본 집계구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남. 따라서 실제로 지역별 50~60

$$n_h = n \times \frac{\sqrt{N_h}}{\sqrt{N}} \qquad \text{(식 2)}$$

여기서 N_h 는 h 층의 집계구 수이며, N 는 모집단 집계구 수를 의미한다. 지역별로 집계구 규모를 고려하여 집계구의 제공근에 비례하여 표본을 배분한다.

〈표 3-9〉 표본 집계구 배분(제공근 비례배분)

(단위: 개)

구분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서울	22	25	0	0	47
부산	10	16	2	4	32
대구	9	13	2	4	28
인천	10	14	3	2	29
광주	7	11	0	0	18
대전	8	11	0	0	19
울산	5	9	3	4	21
세종	1	4	2	2	9
경기	19	28	11	11	69
강원	6	8	7	5	26
충북	6	8	6	6	26
충남	5	9	9	7	30
전북	7	10	7	4	28
전남	5	8	10	6	29
경북	7	11	9	7	34
경남	8	13	9	8	38
제주	5	6	4	2	17
계	140	204	84	72	500

대 모집단 분포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최종적으로 지역별 집계구 수의 제공근 비례배분을 선택함.

지역별 집계구 수에 대한 제공근 비례배분은 지역별 표본 집계구를 골고루 배분하여 모집단의 분포를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본 집계구 500개, 표본 집계구당 8가구를 추출하여 조사하기 때문에 최종 표본가구 수는 4000가구가 된다(〈표 3-10〉 참조).

〈표 3-10〉 최종 표본 집계구 배분 결과

(단위: 개, 가구)

구분	집계구					가구				
	동부		읍면부		계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서울	22	25	0	0	47	176	200	0	0	376
부산	10	16	2	4	32	80	128	16	32	256
대구	9	13	2	4	28	72	104	16	32	224
인천	10	14	3	2	29	80	112	24	16	232
광주	7	11	0	0	18	56	88	0	0	144
대전	8	11	0	0	19	64	88	0	0	152
울산	5	9	3	4	21	40	72	24	32	168
세종	1	4	2	2	9	8	32	16	16	72
경기	19	28	11	11	69	152	224	88	88	552
강원	6	8	7	5	26	48	64	56	40	208
충북	6	8	6	6	26	48	64	48	48	208
충남	5	9	9	7	30	40	72	72	56	240
전북	7	10	7	4	28	56	80	56	32	224
전남	5	8	10	6	29	40	64	80	48	232
경북	7	11	9	7	34	56	88	72	56	272
경남	8	13	9	8	38	64	104	72	64	304
제주	5	6	4	2	17	40	48	32	16	136
계	140	204	84	72	500	1,120	1,632	672	576	4,000

3) 표본 집계구/가구 대체

조사 과정에서 응답 거부 또는 재개발 등으로 인한 집계구 소멸 등의 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동일 지역의 집계구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표본 집계구의 대체는 가능하면 설계 과정에서 통제가 가능하도록 사전에 유사 자료를 사용한 조사를 검토하여 예비 집계구를 고려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연령의 가구원이 없는 경우 비적격 가구로 제외하고, 다음 표본가구를 접촉하여 해당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조사하도록 하였다.

다. 추정 방법

1) 가중치의 계산

일반적으로 층별의 모집단 규모에 따른 비례배분을 적용한 경우 자체 가중치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모집단과 표본의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각 층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조사는 표본 집계구에서 표본가구를 선정하기 때문에 설계 가중치를 기본 가중치로 고려한 후 지역별, 조사구별, 50~60대 가구원 수별로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N : 모집단 총 집계구 수($=\sum_{h=1}^H N_h$)

N_h : h 층의 모집단 집계구 수

n_h : h 층의 표본 집계구 수

M_{hi} : h 층의 i 번째 집계구의 총 가구 수

m_{hi} : h 층의 i 번째 집계구내 표본 가구 수

x_{hij} : h 층의 i 번째 집계구내 j 번째 표본가구에서 50~60대 가구원 수

r_{hi} : h 층의 i 번째 집계구의 응답 가구 수

w_{hij} : h 층의 i 번째 집계구의 j 번째 가구의 추출 가중치

w_{hi}^r : h 층의 i 번째 집계구의 무응답 조정 가중치

w_{hij}^p : h 층의 i 번째 집계구의 j 번째 가구의 사후 가중치

W_{hij} : h 층의 i 번째 집계구의 j 번째 가구의 최종 가중치

① h 층의 j 번째 집계구의 i 번째 가구의 기본 가중치

$$w_{hij} = \frac{M_{hi}}{m_{hi}} \times x_{hij} \quad (\text{식 3})$$

② 무응답 조정 가중치

$$w_{hij}^r = w_{hij} \times \frac{m_{hi}}{r_{hi}} \quad (\text{식 4})$$

③ 최종 가중치

$$W_{hij} = w_{hi}^r \times w_{hij}^p \quad (\text{식 5})$$

2) 추정치의 계산

추정치 계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평균 소득 및 지출을 활용한다.

$$\hat{\bar{Y}} = \frac{\sum_h^L \sum_i^{n_h} \sum_j^{m_{hi}} W_{hij} y_{hij}}{W_{...}} \quad (\text{식 6})$$

여기서 $W_{...} = \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이며, h 는 층을 나타내는 첨자로서 지역

과 동부, 읍면부를 나타낸다. i 는 표본가구를 나타내는 첨자로서 $i = 1, 2, \dots, n_h$ 이다.

표본평균 \hat{Y} 의 분산 추정치는 다음과 같다.

$$\hat{V}(\hat{Y}) = \sum_{h=1}^L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 - \bar{e}_{h..})^2 \quad (\text{식 7})$$

여기서 $e_{hi.} = \left(\sum_{j=1}^{m_{hi}} W_{hij} (y_{hij} - \hat{Y}) \right) / W_{...}$ 이며, $\bar{e}_{h..} = \sum_{i=1}^{n_h} e_{hi.} / n_h$ 이다.

상대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 :RSE)는 다음과 같다.

$$RSE(\hat{Y}) = \frac{SE(\hat{Y})}{\hat{Y}} \times 100\% \quad (\text{식 8})$$

여기서 $SE(\hat{Y}) = \sqrt{\hat{V}(\hat{Y})}$ 이다.

제2절 신중년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의 기초분석 결과는 가중치를 반영하여 제시하였으며, 전체 ‘계’와 ‘소계’의 합은 반올림 등으로 일치하지 않거나 전체 ‘계’가 100.0이 아닌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전체 ‘계’를 모두 100.0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문항별로 ‘비해당’과 ‘무응답’이 있는 경우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또한 신중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비교 분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1. 응답자의 일반 특성

〈표 3-11〉은 조사에 응답한 50~69세의 일반 특성이다. 신중년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지역별 분포는 동부 80.2%, 읍면부 19.8%로 동부에 더 많이 거주하고 있다. 성별은 남성 49.6%, 여성 50.4%로 거의 차이가 없으며,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58.2세이다. 연령군별 분포는 55~59세가 34.2%로 가장 많고 그다음 50~54세 29.3%, 60~64세 19.8%, 65~69세 16.7% 순이다.

결혼 상태는 유배우자 86.4%, 무배우자 13.6%로 응답자의 대부분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가구 유형은 1인 가구 8.8%, 부부 가구 34.8%, 자녀 동거 가구 50.9%, 기타 가구 5.5%이다. 이때 부부 가구는 응답자와 배우자로 구성된 2인 가구이며, 자녀 동거 가구는 신중년(부 또는 모, 또는 부부 모두)과 그 자녀의 2세대로 구성된 가구를, 기타 가구는 그 외의 모든 유형의 가구를 의미한다. 응답자들의 평균 동거 가구원 수는 2.8명이다.

교육 수준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이하 8.0%, 중학교 13.7%, 고등학교 60.2%, 대학 이상 18.1%로 고등학교의 졸업 학력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다. 현재 취업 여부는 취업 중인 경우가 77.4%로 미취업 22.6%보다 더 많다. 가구소득은 300만 원 미만 34.4%, 300만~500만 원 미만 33.5%, 500만 원 이상 32.1%이다.

〈표 3-11〉 신중년의 일반 특성

(단위: %, 명)

	구분	비율	명
	전체	100.0	(4,006)
지역	동부	80.2	(3,211)
	읍면부	19.8	(795)
성별	남성	49.6	(1,985)
	여성	50.4	(2,021)
연령	50~54세	29.3	(1,173)
	55~59세	34.2	(1,371)
	60~64세	19.8	(793)
	65~69세	16.7	(669)
결혼 상태	유배우	86.4	(3,461)
	무배우	13.6	(545)
가구 유형	1인	8.8	(353)
	부부	34.8	(1,396)
	자녀 동거	50.9	(2,038)
	기타	5.5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8.0	(321)
	중학교	13.7	(549)
	고등학교	60.2	(2,410)
	대학 이상	18.1	(72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77.4	(3,101)
	미취업	22.6	(905)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34.4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33.5	(1,339)
	500만 원 이상	32.1	(1,283)

2. 성별 응답자의 일반 특성

성별 신중년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은 60~69세의 비율이 40.1%로 여성 32.9%보다 7.2%포인트 더 높다. 또한 남성은 여성에 비해 유배우

자(3.6%포인트), 대학 이상의 교육 수준(7.7%포인트), 현재 취업자(19.6%포인트)의 비율이 더 높다.

지역은 성별 차이가 거의 없으며, 동부 지역 거주 비율이 80.0% 수준이다. 또한 가구소득은 성별에 상관없이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표 3-12〉 신중년의 성별 특성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지역	동부	79.6	80.7
	읍면부	20.4	19.3
연령	50~54세	26.8	31.8
	55~59세	33.1	35.3
	60~64세	20.9	18.7
	65~69세	19.2	14.2
결혼 상태	유배우	88.2	84.6
	무배우	11.8	15.4
가구 유형	1인	8.3	9.3
	부부	35.3	34.4
	자녀 동거	50.2	51.5
	기타	6.2	4.8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6.7	9.3
	중학교	12.2	15.2
	고등학교	59.1	61.2
	대학 이상	22.0	14.3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87.3	67.7
	미취업	12.7	32.3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35.1	33.8
	300만~500만 원 미만	32.8	34.2
	500만 원 이상	32.1	32.0
	계	100.0	100.0

3. 연령 집단별 응답자의 일반 특성: 50대와 60대

신중년을 50대와 60대로 구분하여 연령 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13〉 참조). 50대의 경우 60대에 비해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3.2%포인트로 높고, 그 외에도 여성인 경우(7.8%포인트), 배우자가 있는 경우(5.1%포인트)의 비율이 더 높다.

〈표 3-13〉 신중년의 연령 집단별 특성

		(단위: %)	
구분		50대	60대
지역	동부	81.3	78.1
	읍면부	18.7	21.9
성별	남성	46.7	54.5
	여성	53.3	45.5
결혼 상태	유배우	88.3	83.2
	무배우	11.8	16.8
가구 유형	1인	6.9	12.1
	부부	24.5	52.9
	자녀 동거	62.6	30.5
	기타	6.0	4.5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2.8	17.0
	중학교	7.7	24.2
	고등학교	66.3	49.5
	대학 이상	23.2	9.3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81.8	69.8
	미취업	18.2	30.2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24.2	52.2
	300만~500만 원 미만	35.1	30.6
	500만 원 이상	40.6	17.2
	계	100.0	100.0

또한 50대는 60대에 비해 자녀 동거 가구인 경우(32.1%포인트),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 수준인 경우(30.7%포인트), 현재 취업 중인 경우(12.0%포인트), 가구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23.4%포인트)의 비율이 더 높다.

한편 가구 유형 측면에서 60대는 자녀의 독립 등으로 1인 및 부부 가구의 비율(65.0%)이 50대(31.4%)의 2배 이상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반면에 50대 신중년은 자녀 동거 가구가 62.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취업자 비율이 81.8%로 높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자녀와 동거하며 자녀를 부양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 가구원 수를 살펴보면, 50대 3.0명, 60대 2.4명으로 이러한 가구 구성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4. 취업 여부별 응답자의 일반 특성

신중년 집단 내에서도 취업자의 경우 읍면부 거주 비율이 21.4%로 미취업자 14.5%보다 6.9%포인트 높다(〈표 3-14〉 참조). 읍면부에 거주하는 신중년의 경우 은퇴 연령이 정해지지 않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자는 미취업자에 비해 남성(28.0%포인트), 50~54세(12.8%포인트), 유배우자(9.2%포인트), 자녀 동거 가구(12.2%포인트),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10.3%포인트) 비율이 더 높다. 반면에 취업자의 경우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비율이 29.9%로 미취업자(50.0%)보다 20.1%포인트 낮다.

즉 신중년 취업자는 남성, 50대, 고학력자, 자녀 동거 가구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신중년은 여전히 가구 내에서 주요 소득자로서 가족 부양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표 3-14〉 신중년의 취업 여부별 특성

(단위: %)

구분		취업	미취업
지역	동부	78.6	85.5
	읍면부	21.4	14.5
성별	남성	55.9	27.9
	여성	44.1	72.1
연령	50~54세	32.2	19.4
	55~59세	34.9	31.8
	60~64세	18.8	23.4
	65~69세	14.1	25.4
결혼 상태	유배우	88.5	79.3
	무배우	11.5	20.7
가구 유형	1인	7.5	13.3
	부부	33.7	38.9
	자녀 동거	53.6	41.4
	기타	5.2	6.4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6.8	12.3
	중학교	12.6	17.4
	고등학교	61.8	54.4
	대학 이상	18.8	15.9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29.9	50.0
	300만~500만 원 미만	34.8	28.9
	500만 원 이상	35.3	21.1
계		100.0	100.0

제 4 장

건강 수준 및 삶의 질

제1절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

제2절 삶의 질

제1절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

1.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

신중년의 62.1%는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주관적 건강상태는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다.

남성인 경우(7.1%포인트), 연령대가 낮을수록(18.9%포인트), 배우자가 있는 경우(17.5%포인트), 가구 유형이 자녀 동거 가구 및 부부 가구인 경우(최대 19.2%포인트: 자녀 동거 가구 65.6%, 부부 가구 62.1%, 기타 가구 54.8%, 1인 가구 46.4%),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21.9%포인트), 현재 취업 중인 경우(18.3%포인트), 가구소득이 높을수록(19.0%포인트) 건강상태가 좋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표 4-2〉에 의하면, 신중년의 89.9%는 지난 2년 동안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았고, 이러한 건강검진 참여 비율은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65~69세 94.3%, 50~54세 86.1%), 배우자가 있는 경우(90.5%) 건강검진을 받은 비율이 더 높다. 1인 가구(85.5%)는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부부 가구 91.5%, 자녀 동거 가구 89.5%, 기타 가구 90.4%) 건강검진을 받은 비율이 낮다. 미취업인 신중년이 취업 중인 신중년보다 건강검진 참여 비율이 2.4%포인트 높는데, 취업자의 경우 현

재 하고 있는 일로 시간을 내기 어려워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표 4-3〉 참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건강검진을 받은 비율이 높다.

〈표 4-1〉 신중년의 평소 건강상태

(단위: %, 명)

구분		주관적 건강상태					계 (명)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	
	전체	1.0	9.5	27.4	54.7	7.4	100.0 (4,006)
지역	동부	1.0	9.3	27.7	55.0	7.1	100.0 (3,211)
	읍면부	1.3	10.4	26.2	53.6	8.6	100.0 (795)
성별***	남성	1.0	8.3	25.1	57.5	8.2	100.0 (1,985)
	여성	1.1	10.6	29.7	52.0	6.6	100.0 (2,021)
연령***	50~54세	0.2	6.5	21.9	61.4	9.8	100.0 (1,173)
	55~59세	0.8	8.4	29.5	53.6	7.7	100.0 (1,371)
	60~64세	1.1	10.6	30.1	53.1	5.2	100.0 (793)
	65~69세	2.9	15.5	29.4	47.2	5.1	100.0 (669)
결혼 상태***	유배우	0.7	7.9	26.9	57.0	7.5	100.0 (3,461)
	무배우	3.4	19.4	30.1	40.1	6.9	100.0 (545)
가구 유형***	1인	3.9	19.5	30.1	40.1	6.3	100.0 (353)
	부부	0.9	10.2	26.8	55.6	6.5	100.0 (1,396)
	자녀 동거	0.7	6.3	27.4	57.6	8.0	100.0 (2,038)
	기타	0.9	18.3	26.1	45.8	9.0	100.0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4.7	20.8	27.6	41.6	5.3	100.0 (321)
	중학교	1.5	14.5	30.8	48.3	4.9	100.0 (549)
	고등학교	0.6	8.1	27.2	57.2	7.0	100.0 (2,410)
	대학 이상	0.4	5.4	25.3	57.3	11.5	100.0 (72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0.4	6.6	26.9	58.0	8.2	100.0 (3,101)
	미취업	3.3	19.5	29.2	43.5	4.4	100.0 (9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2.1	16.4	29.4	46.3	5.7	100.0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0.6	6.8	28.6	57.2	6.8	100.0 (1,339)
	500만 원 이상	0.3	4.8	23.8	61.3	9.7	100.0 (1,28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4-2〉 신중년의 건강검진 여부

(단위: %, 명)

	구분	건강검진 여부		계 (명)	
		예	아니요		
지역	전체	89.9	10.1	100.0	(4,006)
	동부	90.1	9.9	100.0	(3,211)
	읍면부	89.3	10.7	100.0	(795)
성별*	남성	88.8	11.2	100.0	(1,985)
	여성	91.0	9.0	100.0	(2,021)
연령***	50~54세	86.1	13.9	100.0	(1,173)
	55~59세	89.6	10.4	100.0	(1,371)
	60~64세	92.5	7.5	100.0	(793)
	65~69세	94.3	5.7	100.0	(669)
결혼 상태***	유배우	90.5	9.5	100.0	(3,461)
	무배우	85.8	14.2	100.0	(545)
가구 유형**	1인	85.5	14.5	100.0	(353)
	부부	91.5	8.5	100.0	(1,396)
	자녀 동거	89.5	10.5	100.0	(2,038)
	기타	90.4	9.6	100.0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91.8	8.2	100.0	(321)
	중학교	92.4	7.6	100.0	(549)
	고등학교	88.7	11.3	100.0	(2,410)
	대학 이상	91.1	8.9	100.0	(72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89.4	10.6	100.0	(3,101)
	미취업	91.8	8.2	100.0	(9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88.0	12.0	100.0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90.6	9.4	100.0	(1,339)
	500만 원 이상	91.3	8.7	100.0	(1,28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404명의 신중년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가 40.7%로 가장 많고, 그다음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해서’(30.2%), ‘건강에 관심이 없어서’(14.0%) 순이다. 그 외에도 ‘질병이 발견될까 두려워서’(8.3%), ‘비용이 부담되어서’(5.3%), ‘정보가 부족해서’(0.6%) 등의 응답이 있다. 신중년의 건강검진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 중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성별, 연령, 결혼 상태, 학력,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이유에서 차이가 확인된다. 여성인 경우 ‘일이 바쁘거나 시간이 없어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고(13.2%포인트), 남성은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더 많다(12.4%포인트). 이는 건강검진을 독려할 때 성별에 따라 지원 방법의 차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이 바쁘거나 시간이 없어서’라는 이유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신중년은 연령대가 낮을수록(25.1%포인트: 50~54세 47.1%, 65~69세 22.0%), 취업 중인 경우(31.9%포인트), 가구소득이 높을수록(28.1%포인트: 500만 원 이상 58.1%, 300만 원 미만 30.0%) 더 많다.

‘건강에 관심이 없어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신중년은 남성인 경우(8%포인트: 남성 17.6%, 여성 9.6%), 가구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4.5~5.1%포인트: 300만 원 미만 16.9%, 300만~500만 원 미만 11.8%, 500만 원 이상 12.4%) 두드러지게 더 높다. 반면에 연령대가 65~69세인 경우(8.5%), 교육 수준이 초등학교 이하인 경우(8.3%) 다른 연령 및 교육 수준에 비해 응답 비율이 다소 낮은 편이다.

〈표 4-3〉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건강검진 미참여 이유							계 (명)
		일이 바쁨, 시간 없음	평소 건강하다 고 생각	건강 관심 없음	질병 발견될까 두려움	비용 부담	정보 부족	기타	
지역	전체	40.7	30.2	14.0	8.3	5.3	0.6	0.8	100.0 (404)
	동부	40.4	31.0	13.4	8.1	5.8	0.7	0.6	100.0 (319)
	읍면부	41.8	27.4	16.2	9.4	3.7	0.2	1.3	100.0 (85)
성별***	남성	34.8	35.8	17.6	4.7	5.1	0.9	1.1	100.0 (223)
	여성	48.0	23.4	9.6	12.8	5.6	0.3	0.4	100.0 (182)
연령*	50~54세	47.1	24.7	16.8	6.6	3.3	0.9	0.5	100.0 (163)
	55~59세	42.0	33.3	10.7	8.5	5.0	0.0	0.5	100.0 (143)
	60~64세	32.1	23.8	17.8	13.0	9.2	1.5	2.6	100.0 (60)
	65~69세	22.0	52.5	8.5	7.8	9.0	0.1	0.0	100.0 (38)
결혼 상태*	유배우	43.1	29.7	14.2	7.8	4.4	0.0	0.7	100.0 (327)
	무배우	30.7	32.2	13.0	10.5	9.5	3.2	0.9	100.0 (77)
가구 유형	1인	31.4	28.3	12.6	12.3	11.9	2.2	1.4	100.0 (51)
	부부	43.9	23.6	17.6	8.7	5.0	0.0	1.1	100.0 (118)
	자녀 동거	41.7	34.3	11.6	7.8	4.1	0.0	0.5	100.0 (214)
	기타	36.0	30.4	21.0	2.5	3.8	6.4	0.0	100.0 (21)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24.2	33.9	8.3	21.4	8.6	3.6	0.0	100.0 (26)
	중학교	30.8	27.4	25.4	8.3	8.2	0.0	0.0	100.0 (42)
	고등학교	42.4	29.6	12.3	8.5	5.9	0.6	0.8	100.0 (272)
	대학 이상	46.5	33.3	16.4	2.4	0.0	0.0	1.4	100.0 (65)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46.6	29.8	14.2	5.2	3.5	0.2	0.5	100.0 (330)
	미취업	14.7	32.0	13.1	22.3	13.5	2.5	2.1	100.0 (7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30.0	28.0	16.9	11.1	11.6	1.5	1.0	100.0 (165)
	300만~500만 원 미만	39.7	37.0	11.8	9.8	1.0	0.0	0.7	100.0 (126)
	500만 원 이상	58.1	24.9	12.4	2.8	1.1	0.0	0.6	100.0 (112)

주: 1)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404명 기준으로 분석함.

2) * $p < 0.05$, ** $p < 0.01$, *** $p < 0.001$

신중년의 40.8%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지역,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만성질환 보유율의 차이가 있다. 특히 읍면부 지역이 동부 지역보다 만성질환 보유 비율이 높고(6.2%포인트), 연령대가 높을수록(34.9%포인트: 65~69세 61.5%, 50~54세 26.6%),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14.2%포인트)에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미취업인 신중년은 취업 중인 신중년보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15.6%포인트). 가구소득 역시 만성질환 유무와 관계가 있는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만성질환 보유 비율이 높다(23.4%포인트: 300만 원 미만 53.6%, 500만 원 이상 30.2%).

한편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신중년 1633명에게 보유하고 있는 만성질환의 개수를 질문한 결과, 평균 1.6개로 나타났다.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1개인 경우가 60.4%로 가장 많고, 그다음 2개(26.9%), 3개(9.1%), 4개 이상(3.6%) 순이며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표 4-4〉 참조).

연령대가 높을수록 만성질환의 보유 개수가 더 많다(65~69세 평균 1.8개, 50~54세 평균 1.4개). 배우자가 없는 경우(무배우자 평균 1.8개, 유배우자 평균 1.5개), 미취업인 경우(미취업 평균 1.8개, 취업 중 평균 1.5개),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초등학교 이하 평균 1.9개, 대학 이상 평균 1.5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300만 원 미만 평균 1.7개, 500만 원 이상 평균 1.5개) 앓고 있는 만성질환의 개수가 많다. 또한 가구 유형이 1인 가구인 경우(평균 1.9개)에는 다른 가구 유형(부부 및 자녀 동거 가구 평균 1.5개, 기타 가구 평균 1.6개)보다 만성질환의 보유 개수가 많다.

〈표 4-4〉 신중년의 만성질환 보유 여부 및 개수

(단위: %, 명)

구분		보유 율	만성질환 개수 ¹⁾						계 (명)	
			평균	분포						
				1개	2개	3개	4개 이상			
지역***	전체	40.8	1.6	60.4	26.9	9.1	3.6	100.0	(4,006)	
	동부	39.5	1.6	60.9	26.7	9.0	3.4	100.0	(3,211)	
	읍면부	45.7	1.6	58.6	27.4	9.7	4.4	100.0	(795)	
성별	남성	40.3	1.6	59.3	27.5	9.7	3.5	100.0	(1,985)	
	여성	41.2	1.6	61.4	26.3	8.6	3.7	100.0	(2,021)	
연령***	50~54세	26.6	1.4	67.9	22.0	8.6	1.5	100.0	(1,173)	
	55~59세	36.8	1.5	63.3	27.3	6.1	3.4	100.0	(1,371)	
	60~64세	51.0	1.5	62.0	26.5	7.3	4.2	100.0	(793)	
	65~69세	61.5	1.8	49.4	30.4	15.2	5.0	100.0	(669)	
결혼 상태***	유배우	38.8	1.5	62.8	26.7	7.9	2.7	100.0	(3,461)	
	무배우	53.0	1.8	49.3	27.7	15.1	7.8	100.0	(545)	
가구 유형***	1인	53.0	1.9	46.3	26.7	18.8	8.2	100.0	(353)	
	부부	46.7	1.5	61.5	28.1	7.3	3.0	100.0	(1,396)	
	자녀 동거	34.1	1.5	64.0	24.7	8.5	2.8	100.0	(2,038)	
	기타	45.5	1.6	54.0	34.4	7.5	4.1	100.0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64.2	1.9	48.5	26.3	18.3	7.0	100.0	(321)	
	중학교	52.6	1.7	53.0	32.8	11.2	3.0	100.0	(549)	
	고등학교	37.6	1.5	64.6	25.8	6.4	3.2	100.0	(2,410)	
	대학 이상	31.9	1.5	63.6	24.3	9.2	2.9	100.0	(72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37.2	1.5	63.4	26.3	7.6	2.6	100.0	(3,101)	
	미취업	52.8	1.8	53.1	28.2	12.8	5.9	100.0	(9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53.6	1.7	54.1	29.9	11.2	4.8	100.0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37.5	1.5	64.0	26.3	6.8	2.9	100.0	(1,339)	
	500만 원 이상	30.2	1.5	67.8	22.3	7.7	2.2	100.0	(1,283)	

주: 1) 만성질환 개수는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1633명 기준으로 분석함.

2) * p < 0.05, ** p < 0.01, *** p < 0.001: 만성질환 보유율 기준

2. 미충족 의료

지난 1년간 병의원 및 치과 진료, 검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었으나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신중년의 3.9%는 병의원, 5.8%는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5〉 참조).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병의원 및 치과 진료의 미치료 경험에서 차이가 확인된다. 특히 배우자가 없는 경우(병의원 7.9%, 치과 11.4%), 가구 유형이 1인 가구인 경우(병의원 8.2%, 치과 12.3%)에서 병의원, 치과 치료 또는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으나 받지 못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그 외에는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병의원 6.5%, 치과 7.6%), 가구소득이 낮을수록(병의원 5.3%, 치과 8.7%), 미취업인 경우(병의원 6.0%, 치과 7.0%)가 미충족 의료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병의원 미치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58명은 미치료 이유에 대해 ‘일이 바쁘거나 시간이 없어서’를 59.4%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다음으로 ‘비용이 부담되어서’(23.5%), ‘질병이 발견될까 두려워서’(13.1%), ‘건강에 관심이 없어서’(2.3%) 순이다(〈표 4-6〉 참조). 그 외에 ‘건강상의 이유로 방문이 어려워서’(0.8%), ‘정보가 부족해서’(0.2%)라는 응답도 있었다. 이러한 병의원 미치료 이유는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다.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일이 바쁘거나 시간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는 비율(50~54세 77.6%)이 높은 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비용이 부담되어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65~69세 63.1%)이 높다.

〈표 4-5〉 병의원 및 치과 미치료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병의원			치과			계 (명)	
	①	②	③	①	②	③		
	전체	3.9	86.1	10.0	5.8	79.9	14.4	100.0 (4,006)
지역	동부	3.9	85.5	10.5	5.6	79.4	14.9	100.0 (3,211)
	읍면부	4.1	88.1	7.8	6.3	81.6	12.1	100.0 (795)
성별	남성	3.6	85.8	10.7	5.9	79.3	14.8	100.0 (1,985)
	여성	4.3	86.4	9.3	5.7	80.4	13.9	100.0 (2,021)
연령***	50~54세	5.6	83.0	11.4	5.8	78.5	15.7	100.0 (1,173)
	55~59세	3.1	85.8	11.0	5.1	79.0	15.9	100.0 (1,371)
	60~64세	3.4	88.1	8.5	6.3	81.2	12.6	100.0 (793)
	65~69세	3.3	89.5	7.3	6.5	82.5	11.0	100.0 (669)
결혼 상태***	유배우	3.3	86.9	9.8	4.9	81.0	14.1	100.0 (3,461)
	무배우	7.9	80.6	11.5	11.4	72.8	15.9	100.0 (545)
가구 유형***	1인	8.2	82.2	9.5	12.3	72.1	15.6	100.0 (353)
	부부	2.9	88.0	9.1	5.1	82.9	12.0	100.0 (1,396)
	자녀 동거	4.0	85.3	10.7	5.0	79.0	16.0	100.0 (2,038)
	기타	2.8	86.7	10.6	6.8	80.7	12.6	100.0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6.5	88.1	5.4	7.6	80.0	12.4	100.0 (321)
	중학교	3.7	90.6	5.7	6.5	82.7	10.8	100.0 (549)
	고등학교	3.6	84.6	11.7	5.3	79.0	15.7	100.0 (2,410)
	대학 이상	4.0	86.6	9.4	6.0	80.5	13.5	100.0 (72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3.3	86.0	10.7	5.4	79.5	15.1	100.0 (3,101)
	미취업	6.0	86.4	7.6	7.0	81.0	12.0	100.0 (9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5.3	84.6	10.1	8.7	77.9	13.4	100.0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3.4	86.1	10.4	4.5	79.9	15.6	100.0 (1,339)
	500만 원 이상	3.0	87.6	9.4	4.0	81.9	14.1	100.0 (1,283)

주: 1) ① 예, 받지 못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 ② 아니요, 받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③ 병의원 치료 또는 검사가 필요한 적이 없었다.

2) * $p < 0.05$, ** $p < 0.01$, *** $p < 0.001$: 병의원 미치료 경험 여부 기준

〈표 4-6〉 병의원 미치료 이유

(단위: %, 명)

구분	미치료 이유							기타	계 (명)
	일 바쁨, 시간 없음	비용 부담	질병 발견될까 두려움	건강 관심 없음	건강상 이유로 방문 어려움	정보 부족			
전체	59.4	23.5	13.1	2.3	0.8	0.2	0.7	100.0	(158)
지역	동부	57.8	26.1	13.3	1.5	0.5	0.0	0.8	100.0 (125)
	읍면부	65.8	13.6	12.1	5.6	2.2	0.8	0.0	100.0 (33)
성별	남성	68.0	18.9	7.1	4.6	0.0	0.0	1.5	100.0 (71)
	여성	52.5	27.2	18.0	0.5	1.5	0.3	0.0	100.0 (87)
연령***	50~54세	77.6	14.1	4.3	2.7	0.9	0.4	0.0	100.0 (66)
	55~59세	63.8	12.1	19.8	1.9	0.0	0.0	2.4	100.0 (43)
	60~64세	40.2	32.3	23.4	4.1	0.0	0.0	0.0	100.0 (27)
	65~69세	20.0	63.1	13.7	0.0	3.3	0.0	0.0	100.0 (22)
결혼 상태***	유배우	68.9	15.1	13.2	1.7	0.0	0.2	0.9	100.0 (115)
	무배우	33.9	46.1	12.8	4.2	3.1	0.0	0.0	100.0 (43)
가구 유형*	1인	34.1	43.2	16.4	1.7	4.6	0.0	0.0	100.0 (29)
	부부	51.3	24.2	21.9	0.0	0.0	0.0	2.6	100.0 (41)
	자녀 동거	72.2	15.0	8.5	3.9	0.0	0.3	0.0	100.0 (82)
	기타	60.7	39.3	0.0	0.0	0.0	0.0	0.0	100.0 (6)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31.5	47.4	21.1	0.0	0.0	0.0	0.0	100.0 (21)
	중학교	54.8	38.7	2.9	0.0	3.6	0.0	0.0	100.0 (20)
	고등학교	64.3	13.8	15.8	4.2	0.7	0.0	1.2	100.0 (88)
	대학 이상	68.0	24.9	6.2	0.0	0.0	0.9	0.0	100.0 (29)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78.5	13.9	4.4	3.0	0.0	0.2	0.0	100.0 (104)
	미취업	22.8	41.9	29.8	1.1	2.5	0.0	1.9	100.0 (54)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36.7	40.8	17.1	2.2	1.8	0.0	1.4	100.0 (73)
	300만~500만 원 미만	66.4	12.4	17.7	2.8	0.0	0.6	0.0	100.0 (46)
	500만 원 이상	93.8	4.1	0.0	2.1	0.0	0.0	0.0	100.0 (39)

주: 1) 지난 1년간 병의원 치료 또는 검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었으나 받지 못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58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 $p < 0.05$, ** $p < 0.01$, *** $p < 0.001$

치과 치료 또는 검사를 받지 못한 231명은 그 이유에 대해 ‘비용이 부담되어서(경제적 이유)’ 46.4%, ‘일이 바쁘거나 시간이 없어서’ 45.1%로 응답하였다. 즉 치과 미치료 경험은 병의원 미치료 경험과 비교하여, ‘일이 바쁘거나 시간이 없어서’보다 ‘비용이 부담’되어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다소 높다(〈표 4-7〉 참조). 신중년은 병의원 치료보다 치과 질환 치료 또는 검사에 대해 비용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치과 치료 또는 검사를 받지 못한 그 외의 이유로 ‘정보가 부족해서(2.5)’, ‘건강에 관심이 없어서(2.2)’, ‘질병이 발견될까 봐 두려워서(2.0)’, ‘건강상의 이유로 방문이 어려웠음(0.8%)’ 등이 있다.

한편 치과 미치료 경험은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다. ‘비용이 부담되어서’ 치과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은 여성인 경우(54.2%), 연령대가 높을수록(65~69세 70.6%), 배우자가 없는 경우(66.7%), 가구 유형이 1인 가구인 경우(67.6%), 현재 미취업인 경우(66.1%), 가구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300만원 미만 64.8%) 더 많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일이 바쁘거나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은 남성인 경우(53.5%), 연령대가 낮을수록(50~54세 63.4%), 배우자가 있는 경우(53.7%), 가구 유형이 자녀 동거 가구인 경우(57.6%), 취업 중인 경우(53.7%), 가구소득이 높을수록(500만 원 이상 77.6%) 더 많다.

〈표 4-7〉 치과 미치료 이유

(단위: %, 명)

	구분	이유							기타	계 (명)
		비용 부담	일 바쁨, 시간 없음	정보 부족	건강 관심 없음	질병 발견될까 두려움	건강상 이유로 방문 어려움			
지역	전체	46.4	45.1	2.5	2.0	2.0	0.8	1.2	100.0	(231)
	동부	47.6	44.5	2.5	2.3	1.8	0.0	1.4	100.0	(181)
	읍면부	42.1	47.0	2.6	1.2	2.8	3.7	0.5	100.0	(50)
성별**	남성	38.7	53.5	1.1	4.0	2.1	0.5	0.0	100.0	(117)
	여성	54.2	36.4	3.9	0.0	1.8	1.1	2.4	100.0	(115)
연령**	50~54세	28.1	63.4	0.0	2.8	4.0	1.7	0.0	100.0	(68)
	55~59세	45.1	43.4	6.3	3.0	0.7	0.0	1.6	100.0	(70)
	60~64세	52.2	40.7	0.0	1.3	2.9	0.0	2.9	100.0	(50)
	65~69세	70.6	24.0	3.3	0.0	0.0	1.6	0.5	100.0	(44)
결혼 상태***	유배우	39.0	53.7	3.4	1.5	1.2	0.3	0.9	100.0	(169)
	무배우	66.7	21.4	0.0	3.4	4.2	2.1	2.2	100.0	(62)
가구 유형**	1인	67.6	22.9	0.0	2.9	4.5	1.6	0.5	100.0	(43)
	부부	44.1	46.0	6.3	1.7	1.8	0.0	0.1	100.0	(72)
	자녀 동거	37.7	57.6	1.3	0.8	0.7	0.6	1.4	100.0	(101)
	기타	54.9	20.0	0.0	9.0	4.6	3.9	7.6	100.0	(15)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71.6	16.1	0.0	2.7	3.8	0.0	5.7	100.0	(24)
	중학교	52.2	45.8	0.0	0.0	0.0	2.0	0.0	100.0	(36)
	고등학교	44.5	48.4	3.5	0.6	2.5	0.4	0.0	100.0	(128)
	대학 이상	33.1	50.9	3.0	7.4	1.1	1.3	3.2	100.0	(44)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38.9	53.7	0.8	2.8	2.5	0.7	0.7	100.0	(168)
	미취업	66.1	22.3	7.1	0.0	0.8	1.1	2.5	100.0	(63)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64.8	26.3	2.3	0.5	3.3	0.6	2.3	100.0	(120)
	300만~500만 원 미만	33.5	55.1	5.1	4.4	0.0	1.9	0.0	100.0	(60)
	500만 원 이상	18.3	77.6	0.0	2.7	1.3	0.0	0.1	100.0	(51)

주: 1) 지난 1년간 병원 치료 또는 검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었으나 받지 못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23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 p < 0.05, ** p < 0.01, *** p < 0.001

3. 정신적 건강 수준

신중년의 우울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의 CES-D 10(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10)을 활용하였다. CES-D 10은 Boston form으로 “노인·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미국의 CES-D 20문항 중 축약·변환되어 사용되고 있는 한국판 CES-D 10”이다(한국고용정보원, 2018, p. 51). 10개 문항은 <표 4-8>과 같고,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자주 느껴지거나 행동하였는지 각 문항별로 조사하였다.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음(1일 미만)’ 0점,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음(1~2일 정도)’ 1점, ‘자주 그런 생각이 들었음(3~4일 정도)’ 1점,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음(5~7일 정도)’ 1점으로 계산하여 총 10점이다. 문항5와 문항8은 역산하여 계산한다. 우울 판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3점 이상인 경우 우울 상태로 판정한다.⁹⁾ 우울(3~10점)은 “우울과 관련된 증상들이 유의한 수준”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면 우울 증상이 확산되고 평소에 비해 일상생활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며, 정상(0~2점)은 “우울 관련 정서적 문제를 호소하는 정도가 일반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의미이다(국립정신건강센터, 2019, p. 4).

신중년의 38.0%는 우울 상태이며,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우울 여부에 차이가 있다. 특히 배우자가 없는 경우(54.0%), 가구 유형이 1인 가구인 경우(53.4%) 우울 상태 비율이 높다. 그 외에도 연령대가 65~69세인 경우(41.4%), 교육 수

9) 국립정신건강센터(2019, p. 4)의 한국어판 단축형 CES-D(CES-D 10)의 단절 점수를 3점으로 봄. 즉 0~2점은 정상, 3~10점은 우울로 분류함.

준이 낮을수록(초등학교 이하 45.3%), 현재 미취업인 경우(44.8%),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300만 원 미만 44.8%) 우울 비율이 높다.

〈표 4-8〉 우울 수준 측정 문항(CES-D 10)

(단위: 점)

문항	점수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음 (1일 미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음 (1~2일 정도)	자주 그런 생각이 들었음 (3~4일 정도)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음 (5~7일 정도)
(1) 지난 일주일간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습니까?	0	1	1	1
(2) 지난 일주일간 마음이 슬프셨습니까?	0	1	1	1
(3) 지난 일주일간 많이 우울하시다고 생각하 셴습니까?	0	1	1	1
(4) 지난 일주일간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지 셴습니까?	0	1	1	1
(5) 지난 일주일간 비교적 잘 지내셨다고 생각 하십니까?	1	1	1	0
(6) 지난 일주일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까?	0	1	1	1
(7) 지난 일주일간 잠을 잘 이루지 못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0	1	1	1
(8) 지난 일주일간 큰 불만 없이 생활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1	1	1	0
(9) 지난 일주일간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 로움을 느끼셨습니까?	0	1	1	1
(10) 지난 일주일간 도무지 무얼 해나갈 엄두 가 나지 않으셨습니까?	0	1	1	1

주: 국립정신건강센터(2019, p. 4)는 CES-D 10의 선택 문항을 예(1점), 아니요(0점)로 계산하나, 이 연구에서는 선택 문항을 4단계로 세분하여 조사 및 계산함.

자료: 국립정신건강센터. (2019). 2019 정신건강 검진도구 및 사용에 대한 표준지침. p. 4. (https://www.ncmh.go.kr:2453/kor/data/snmhDataView2.jsp?no=8535&fno=106&menu_cd=K_04_09_00_00_00에서 2019. 10. 28. 인출)를 참조하여 연구진 작성.

〈표 4-9〉 우울 수준

(단위: %, 명)

구분		우울 여부		평균 점수	계 (명)
		예	아니요		
	전체	38.0	62.0	2.5	100.0 (4,006)
지역	동부	38.9	61.1	2.6	100.0 (3,211)
	읍면부	34.3	65.7	2.3	100.0 (795)
성별	남성	36.8	63.2	2.5	100.0 (1,985)
	여성	39.2	60.8	2.6	100.0 (2,021)
연령 ***	50~54세	35.5	64.5	2.4	100.0 (1,173)
	55~59세	39.0	61.0	2.5	100.0 (1,371)
	60~64세	37.1	62.9	2.5	100.0 (793)
	65~69세	41.4	58.6	2.8	100.0 (669)
결혼 상태***	유배우	35.5	64.5	2.3	100.0 (3,461)
	무배우	54.0	46.1	3.8	100.0 (545)
가구 유형***	1인	53.4	46.6	3.8	100.0 (353)
	부부	36.8	63.2	2.3	100.0 (1,396)
	자녀 동거	35.6	64.4	2.4	100.0 (2,038)
	기타	42.9	57.1	2.9	100.0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45.3	54.7	3.1	100.0 (321)
	중학교	41.5	58.5	2.7	100.0 (549)
	고등학교	37.4	62.6	2.5	100.0 (2,410)
	대학 이상	34.2	65.8	2.4	100.0 (72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36.0	64.0	2.4	100.0 (3,101)
	미취업	44.8	55.2	3.0	100.0 (9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44.8	55.2	3.0	100.0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38.4	61.6	2.5	100.0 (1,339)
	500만 원 이상	30.1	69.9	2.1	100.0 (1,283)

주: 1) CES-D 10의 총 10점 중 3점 이상이면 우울로 판단함.

2) * $p < 0.05$, ** $p < 0.01$, *** $p < 0.001$

대부분의 신중년(97.3%)은 자살을 하고 싶다고 생각해 본 경험이 없으며, 2.7%만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신중년 107명 중에서 약 81.3%가 상담 등의 아무

런 도움을 받지 못했으며, 12.1%는 자살 시도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생각 경험은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응답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7.9%), 가구 유형이 1인 가구인 경우(8.1%),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초등학교 이하 5.3%), 미취업인 경우(5.2%),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300만 원 미만 4.4%)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앞서 살펴본 우울 관련 조사 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배우자가 없거나 1인 가구인 경우, 가구소득이 낮고 미취업인 신중년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살 위험이 높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배우자가 없거나 1인 가구인 신중년은 정신건강 지원 정책의 목표 집단으로 설정하여 자살 예방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가구소득이 낮고 취업하지 않은 신중년은 일자리 지원 등의 대책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살 생각을 가진 사람이 계획이나 시도를 구체화하지 않도록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자살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신중년이 상담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데는 현재 취업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현재 미취업인 경우 30.3%가 상담 등의 도움을 받았으나, 취업 중인 경우 3분의 1 수준인 9.9%만이 도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즉 취업 중인 신중년은 자살 생각 경험률은 낮지만,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는 경우 도움을 받는 비율이 낮다는 점에서 사업장을 찾아가는 자살 예방 혹은 정신건강 증진 정책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4-10〉 자살 생각 경험을 및 도움, 구체적인 시도 및 계획

(단위: %, 명)

구분	자살 생각 경험				자살 생각 유경험자 ¹⁾			
	없음	있음	계 (명)		다른 사람 도움 또는 상담 경험률	구체적 시도 및 계획 경험률	계 (명)	
전체	97.3	2.7	100.0	(4,006)	18.7	12.1	100.0	(107)
지역	동부	97.3	2.7	100.0 (3,211)	18.9	12.8	100.0 (87)	
	읍면부	97.5	2.5	100.0 (795)	17.9	9.0	100.0 (20)	
성별	남성	97.4	2.6	100.0 (1,985)	19.5	9.6	100.0 (51)	
	여성	97.2	2.8	100.0 (2,021)	18.1	14.3	100.0 (57)	
연령	50~54세	97.5	2.5	100.0 (1,173)	13.5	15.8	100.0 (29)	
	55~59세	97.5	2.5	100.0 (1,371)	20.0	13.0	100.0 (34)	
	60~64세	98.0	2.0	100.0 (793)	16.2	5.3	100.0 (16)	
	65~69세	95.9	4.1	100.0 (669)	24.2	10.8	100.0 (28)	
결혼 상태***	유배우	98.1	1.9	100.0 (3,461)	22.8	9.3	100.0 (65)	
	무배우	92.1	7.9	100.0 (545)	12.7	16.2	100.0 (43)	
가구 유형***	1인	91.9	8.1	100.0 (353)	16.8	21.7	100.0 (28)	
	부부	97.8	2.2	100.0 (1,396)	28.2	16.2	100.0 (31)	
	자녀 동거	98.1	1.9	100.0 (2,038)	17.2	4.5	100.0 (38)	
	기타	95.6	4.4	100.0 (220)	0.0	0.0	100.0 (1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94.7	5.3	100.0 (321)	24.8	11.7	100.0 (17)	
	중학교	97.2	2.8	100.0 (549)	13.4	5.5	100.0 (16)	
	고등학교	97.5	2.5	100.0 (2,410)	17.4	15.2	100.0 (59)	
	대학 이상	97.8	2.2	100.0 (726)	22.7	6.9	100.0 (1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98.0	2.0	100.0 (3,101)	9.9	7.7	100.0 (61)	
	미취업	94.8	5.2	100.0 (905)	30.3	17.7	100.0 (47)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95.6	4.4	100.0 (1,378)	21.5	16.3	100.0 (61)	
	300만~500만 원 미만	98.3	1.7	100.0 (1,339)	19.5	6.2	100.0 (23)	
	500만 원 이상	98.2	1.8	100.0 (1,283)	10.7	6.8	100.0 (23)	

주: 1) 지난 1년간 자살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 107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함.

2) * $p < 0.05$, ** $p < 0.01$, *** $p < 0.001$: 자살 생각 경험 기준

제2절 삶의 질

1.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의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신중년의 53.5%가 전반적인 삶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만족 52.4%, 매우 만족 1.1%), 그다음으로 보통 42.2%, 불만족 4.3%(불만족 3.8%, 매우 불만족 0.5%)으로 나타났다. 신중년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지역,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우(58.8%), 여성인 경우(53.9%), 55~59세인 경우(56.2%), 배우자가 있는 경우(57.3%), 부부 가구 또는 기타 가구인 경우(각각 57.0%, 57.9%),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대학 이상 64.2%), 현재 취업 중인 경우(55.5%), 가구소득이 높을수록(500만 원 이상 65.7%)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다(〈표 4-11〉 참조).

특히 결혼 상태와 가구 유형에 따른 차이가 큰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 57.3%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29.6%보다 27.7%포인트 정도 전반적인 삶에 만족하는 비율이 높다. 가구 유형인 1인 가구인 경우 27.5%로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낮다(자녀 동거 가구 55.2%, 부부 가구 57.0%, 기타 가구 57.9%).

〈표 4-11〉 삶의 질 만족도: 전반적인 삶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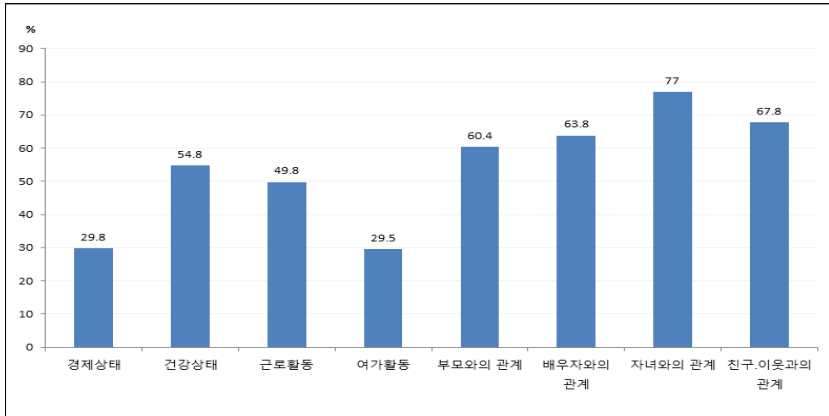
구분	만족도					계 (명)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만족 한다	매우 만족한다	
전체	0.5	3.8	42.2	52.4	1.1	100.0 (4,006)
지역**	동부	0.6	4.1	43.0	51.1	1.2 100.0 (3,211)
	읍면부	0.1	2.5	38.7	57.9	0.9 100.0 (795)
성별*	남성	0.6	4.4	41.9	51.5	1.6 100.0 (1,985)
	여성	0.4	3.2	42.5	53.3	0.6 100.0 (2,021)
연령**	50~54세	0.6	3.8	40.2	54.7	0.7 100.0 (1,173)
	55~59세	0.5	3.6	39.8	54.9	1.3 100.0 (1,371)
	60~64세	0.5	3.4	45.1	50.2	0.8 100.0 (793)
	65~69세	0.5	4.6	47.1	45.9	1.9 100.0 (669)
결혼 상태***	유배우	0.2	1.8	40.6	56.1	1.2 100.0 (3,461)
	무배우	2.3	16.0	52.1	29.0	0.6 100.0 (545)
가구 유형***	1인	2.7	16.9	53.0	27.2	0.3 100.0 (353)
	부부	0.1	2.6	40.3	55.9	1.1 100.0 (1,396)
	자녀 동거	0.5	2.0	42.4	53.9	1.3 100.0 (2,038)
	기타	0.6	6.0	35.5	56.9	1.0 100.0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2.1	7.4	50.3	40.1	0.1 100.0 (321)
	중학교	0.3	5.9	46.5	45.9	1.3 100.0 (549)
	고등학교	0.4	3.5	42.6	52.8	0.7 100.0 (2,410)
	대학 이상	0.6	1.4	33.9	61.5	2.7 100.0 (72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0.2	2.7	41.6	54.5	1.0 100.0 (3,101)
	미취업	1.6	7.5	44.3	45.3	1.3 100.0 (9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5	9.0	49.3	39.5	0.7 100.0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0.1	1.7	42.8	55.1	0.3 100.0 (1,339)
	500만 원 이상	0.0	0.3	34.0	63.3	2.4 100.0 (1,28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한편 [그림 4-1]을 통하여 경제상태, 건강상태, 근로활동, 여가활동, 부모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친구·이웃과의 관계, 전반적인 삶 등 각 영역에서 신중년의 삶의 만족도를 파악하였다. ‘만족과 매우 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경제상태 만족도는 29.8%, 건강상태 만족도 54.8%, 근로활동 만족도 49.8%, 여가활동 만족도 29.5%,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60.4%,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63.8%,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77.0%, 친구·이웃과의 관계 만족도 67.8%이다. 즉 대인관계 만족도가 상태 및 활동 만족도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특히 경제상태,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영역의 만족도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¹⁰⁾ 즉 신중년은 여가활동과 경제상태 부문에서 정책 욕구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1] 주요 영역별 삶의 만족 응답 비율(만족+매우 만족)

(단위: %)



주: ‘근로활동’은 근로활동을 하는 3101명, ‘부모와의 관계’는 부모가 있는 1573명, ‘배우자와의 관계’는 배우자가 있는 3461명, ‘자녀와의 관계’는 자녀가 있는 3770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10) 삶의 주요 영역별 만족도에 대한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교는 <부표 1>~<부표 8>을 참조하기 바람.

2. 현재 삶의 위치

〈표 4-12〉는 신중년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현재 삶의 위치를 0~10으로 질문한 결과이다. 0은 삶에서 가능한 최악의 상태, 10은 삶에서 가능한 최선의 상태를 의미한다. 즉 숫자가 높을수록 현재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신중년의 현재 삶의 위치는 평균 5.6 수준이다. 분포를 살펴보면 최선의 상태(7~10) 29.9%, 최악의 상태(0~3) 11.2%이며, 중간 수준인 4, 5, 6은 각각 10.8%, 26.8%, 21.3%로 파악된다. 이는 지역,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 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표 4-12〉 참조).

이를 최악의 상태(0~3)와 최선의 상태(7~10)로 구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악의 상태(0~3)는 동부에 거주하는 경우(11.5%), 남성인 경우(12.3%), 연령대가 높을수록(65~69세 13.5%), 배우자가 없는 경우(33.7%), 가구 유형이 1인 가구인 경우(37.3%),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초등학교 이하 20.4%), 미취업인 경우(17.3%),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300만 원 미만 22.6%) 응답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다음으로, 최선의 상태(7~10)는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우(33.0%), 여성인 경우(31.0%), 연령대가 낮을수록(50~54세 32.2%), 배우자가 있는 경우(32.3%), 가구 유형이 부부 가구인 경우(33.7%),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대학 이상 43.9%), 취업 중인 경우(30.4%),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500만 원 이상 39.7%) 응답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표 4-12〉 현재 삶의 위치

(단위: %, 명)

구분	최악의 상태 <-----> 최선의 상태					평균	계 (명)
	0~3	4	5	6	7~10		
전체	11.2	10.8	26.8	21.3	29.9	5.6	100.0 (4,006)
지역***	동부	11.5	11.1	27.4	20.7	5.6	100.0 (3,211)
	읍면부	9.8	9.6	24.3	23.4	5.8	100.0 (795)
성별*	남성	12.3	11.9	26.1	20.8	5.5	100.0 (1,985)
	여성	10.1	9.7	27.5	21.7	5.7	100.0 (2,021)
연령**	50~54세	9.9	9.3	26.7	21.8	5.7	100.0 (1,173)
	55~59세	10.2	10.7	26.8	21.9	5.6	100.0 (1,371)
	60~64세	12.9	11.8	26.1	20.4	5.5	100.0 (793)
	65~69세	13.5	12.5	27.9	19.9	5.4	100.0 (669)
결혼 상태***	유배우	7.7	10.1	27.6	22.3	5.8	100.0 (3,461)
	무배우	33.7	14.9	21.5	14.8	4.4	100.0 (545)
가구 유형***	1인	37.3	12.3	19.4	15.5	4.4	100.0 (353)
	부부	9.0	10.2	24.8	22.4	5.8	100.0 (1,396)
	자녀 동거	7.7	10.9	29.1	21.7	5.7	100.0 (2,038)
	기타	16.4	11.5	29.8	19.5	5.3	100.0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20.4	12.3	27.7	16.1	5.1	100.0 (321)
	중학교	17.2	12.1	27.6	19.8	5.3	100.0 (549)
	고등학교	10.6	11.0	27.7	22.6	5.6	100.0 (2,410)
	대학 이상	4.4	8.5	22.8	20.3	6.2	100.0 (72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9.4	10.8	27.1	22.4	5.7	100.0 (3,101)
	미취업	17.3	10.9	25.8	17.5	5.3	100.0 (9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22.6	13.6	27.0	15.0	5.0	100.0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6.9	11.0	29.0	24.3	5.7	100.0 (1,339)
	500만 원 이상	3.6	7.7	24.4	24.6	6.1	100.0 (1,28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제 5 장

경제상태

제1절 소득과 소비

제2절 가구 자산 및 부채

제1절 소득과 소비

1. 가구 소득

신중년이 속한 가구의 99.9%는 지난 한 해 동안 가구소득이 있었으며, 결혼 상태, 현재 취업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구소득이 있는 비율이 100.0%이지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99.7%로 나타났다. 현재 취업 중인 경우 가구소득이 있는 비율은 100.0%이며, 미취업인 경우에는 99.8%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신중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을 구성하는 항목별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소득의 보유 유무의 차이가 큰 항목을 살펴보았다(〈표 5-1〉 참조). 신중년 가구의 92.2%가 근로·사업소득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50~54세 97.2%), 배우자가 있는 경우(94.9%), 가구 유형이 자녀 동거 가구인 경우(98.2%),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고등학교 94.4%, 대학 이상 93.8%), 취업 중인 경우(99.8%), 가구소득이 높을수록(500만 원 이상 99.4%) 지난 한 해 동안 근로·사업소득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특히 가구 유형이 자녀 동거 가구인 경우 98.2%가 근로·사업소득이 있었지만, 1인 가구는 68.6%만이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서(부부 가구 89.8%, 기타 가구 90.1%) 가구 유형별로 큰 차이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재산소득은 금융소득과 임대수입 등을 의미한다. 지난 한 해 동안 신중년 가구의 11.5%가 재산소득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신중년의 10명 중 약 1명만이 재산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동부에 거주하는 경우(12.2%), 연령대가 높을수록(65~69세 14.6%), 배우자가 있는 경우(12.3%),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대학 이상 15.2%), 현재 미취업인 경우(15.6%), 가구소득이 높을수록(500만 원 이상 16.6%) 재산소득을 보유한 비율이 높다. 반면에 1인 가구의 경우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재산소득 유무 비율이 7.3%로 낮으며, 그다음 기타 가구(10.1%), 자녀 동거 가구(11.3%), 부부 가구(13.2%) 순으로 높다.

사적이전소득은 신중년의 31.3%가 보유하고 있으며,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우(45.1%), 여성인 경우(35.3%), 연령대가 높을수록(65~69세 43.2%), 가구 유형이 부부 가구인 경우(40.9%),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초등학교 이하 45.5%), 현재 미취업인 경우(37.1%), 가구소득이 낮을수록(300만 원 미만 35.2%) 사적이전소득 보유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앞에서 살펴본 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과 달리 사적이전소득은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우 45.1%로 동부에 거주하는 경우인 27.9%보다 17.2%포인트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등의 공적연금소득은 신중년의 21.7%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연령,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공적연금소득의 보유 비율에서 차이가 확인된다. 특히 공적연금은 제도의 특성상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유 비율이 높은데, 65~69세(65.1%), 60~64세(39.1%), 55~59세(7.4%), 50~54세(1.9%) 순이다. 지역은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우(25.3%), 가구 유형은 부부 가구인 경우(35.8%),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초등학교 이하 42.8%),

현재 미취업인 경우(32.9%), 가구소득이 낮을수록(300만 원 미만 32.4%) 공적연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높은 편이다.

〈표 5-1〉 신중년의 가구소득 항목별 보유 유무

(단위: %, 명)

	구분	가구 소득	항목별 보유 유무							(명)
			근로 사업소득	재산 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연금 소득	연금 이외 공적 이전소득	사적 연금소득	기타 소득	
지역	전체	99.9	92.2	11.5	31.3	21.7	10.6	4.9	4.9	(4,006)
	동부	100.0	91.9	12.2	27.9	20.8	9.6	5.6	4.9	(3,211)
	읍면부	99.9	93.6	8.7	45.1	25.3	14.5	2.1	4.9	(795)
성별	남성	99.9	93.0	11.0	27.3	22.2	9.6	4.8	4.4	(1,985)
	여성	100.0	91.4	12.0	35.3	21.2	11.6	5.0	5.4	(2,021)
연령	50~54세	100.0	97.2	7.5	19.9	1.9	5.0	0.8	3.4	(1,173)
	55~59세	99.9	95.5	12.8	33.0	7.4	5.4	3.3	4.9	(1,371)
	60~64세	100.0	89.8	12.7	35.3	39.1	9.7	8.1	5.2	(793)
	65~69세	100.0	79.7	14.6	43.2	65.1	32.0	11.9	7.2	(669)
결혼 상태**	유배우	100.0	94.9	12.3	31.6	22.1	7.4	5.0	4.7	(3,461)
	무배우	99.7	75.2	7.0	29.5	19.2	30.4	4.4	6.1	(545)
가구 유형	1인	99.7	68.6	7.3	31.2	20.4	28.6	3.7	4.9	(353)
	부부	100.0	89.8	13.2	40.9	35.8	11.2	7.0	5.6	(1,396)
	자녀 동거	100.0	98.2	11.3	26.0	12.4	4.2	4.1	4.5	(2,038)
	기타	99.8	90.1	10.1	19.9	19.5	36.6	1.7	3.8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100.0	82.5	8.0	45.5	42.8	37.5	4.1	6.7	(321)
	중학교	100.0	86.0	9.7	43.7	35.9	19.7	6.3	5.7	(549)
	고등학교	100.0	94.4	11.3	29.1	18.0	7.0	4.5	4.6	(2,410)
	대학 이상	99.9	93.8	15.2	23.3	13.7	3.7	5.6	4.5	(72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100.0	99.8	10.4	29.7	18.4	7.6	3.2	4.1	(3,101)
	미취업	99.8	66.3	15.6	37.1	32.9	20.8	11.0	7.6	(9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99.9	80.6	8.5	35.2	32.4	21.3	6.0	4.4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100.0	97.3	9.4	31.9	20.4	5.9	4.6	4.3	(1,339)
	500만 원 이상	100.0	99.4	16.6	26.7	11.3	4.0	4.1	6.1	(1,283)

주: 1) * $p < 0.05$, ** $p < 0.01$, *** $p < 0.001$: 가구소득 유무 기준

공적연금소득을 제외한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보훈급여, 장애인연금 등의 그 외 공적이전소득을 보유한 신중년은 10.6%이다.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우(14.5%), 여성의 경우(11.6%), 연령대가 높을수록(65~69세 32.0%), 배우자가 없는 경우(30.4%), 가구 유형이 기타 가구인 경우(36.6%),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초등학교 이하 37.5%), 현재 미취업인 경우(20.8%), 가구소득이 낮을수록(300만 원 미만 21.3%) 그 외 공적이전소득의 보유 비율이 높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의 사적연금소득이 있는 신중년은 4.9%에 불과하다. 동부에 거주하는 경우(5.6%), 연령대가 높을수록(65~69세 11.9%), 가구 유형이 부부 가구인 경우(7.0%), 현재 미취업인 경우(11.0%) 사적연금소득을 보유한 비율이 더 높다.

기타소득은 신중년의 4.9%가 보유하고 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65~69세 7.2%), 현재 미취업인 경우(7.6%), 가구소득이 높을수록(500만 원 이상 6.1%) 기타소득을 보유한 비율이 더 높다.

한편 신중년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413만 3000원(연간 4959만 3000원)이며,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424만 4000원), 연령대가 낮을수록(50~54세 476만 8000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443만 9000원), 가구 유형이 자녀 동거 가구인 경우(503만 4000원),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대학 이상 551만 원), 취업 중인 경우(434만 3000원) 가구소득이 더 많다(〈표 5-2〉 참조).¹¹⁾

소득 항목별로 살펴보면 신중년의 월평균 근로·사업소득은 369만 6000원이며, 지역,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근로·사업소득의 차이는 가구소득 결과와 동일한데, 근로·사업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1) 소득은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이하 동일함.

89.4%로 높기 때문이다.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379만 8000원), 연령대가 낮을수록(50~54세 459만 2000원, 65~69세 220만 1000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399만 6000원), 가구 유형이 자녀 동거 가구인 경우(470만 2000원),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대학 이상 500만 3000원, 초등학교 이하 216만 8000원), 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500만 원 이상 643만 4000원) 근로·사업소득이 높다. 한편 <표 5-3>과 같이 근로·사업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3694명의 월평균 근로·사업소득은 400만 9000원이다.

재산소득은 월평균 11만 9000원으로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9%이다. 재산소득은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이 해당된다. 재산소득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456명의 월평균 재산소득은 104만 5000원이다. 재산소득을 보유한 신중년 중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105만 4000원), 연령대가 50~54세인 경우(116만 2000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108만 5000원), 가구 유형이 부부 가구인 경우(115만 2000원),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대학 이상 129만 5000원), 현재 미취업인 경우(120만 4000원), 가구소득이 많은 경우(500만 원 이상 152만 1000원) 재산소득이 더 많은 경향이 있다.

사적이전소득은 월평균 6만 1000원이며,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이다. 사적이전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1255명의 월평균 사적이전소득은 19만 4000원이다. 사적이전소득의 규모는 성별, 결혼 상태, 가구 유형,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확인된다. 성별이 여성인 경우(21만 6000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23만 6000원), 가구 유형이 1인 가구(22만 4000원) 또는 자녀 동거 가구(22만 3000원)인 경우, 현재 미취업인 경우(24만 4000원), 가구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23만 3000원) 사적이전소득이 더 많다.

〈표 5-2〉 신중년의 가구소득 항목별 금액(월평균): 전체 기준

(단위: 만 원, %)

구분	가구 소득	항목별 월평균 금액							
		근로 사업소득	재산 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연금 소득	연금 이외 공적 이전소득	사적 연금소득	기타 소득	
	전체	413.3 (100.0)	369.6 (89.4)	11.9 (2.9)	6.1 (1.5)	15.9 (3.8)	3.9 (0.9)	4.2 (1.0)	1.7 (0.4)
지역	동부	424.4	379.8	12.7	5.6	16.0	3.9	4.8	1.7
***	읍면부	368.4	328.7	8.6	8.2	15.6	4.0	1.8	1.7
성별	남성	406.2	364.3	10.8	4.5	16.4	3.9	4.3	1.8
	여성	420.2	374.9	13.0	7.6	15.4	3.9	4.0	1.7
연령	50~54세	476.8	459.2	8.7	3.6	1.3	2.5	0.7	0.8
***	55~59세	443.0	406.4	13.9	6.3	8.3	2.6	2.9	2.5
	60~64세	360.6	300.0	12.7	6.8	29.4	2.9	7.6	1.8
	65~69세	303.4	220.1	12.5	9.2	41.1	10.1	8.7	1.8
결혼 상태	유배우	443.9	399.6	13.1	6.0	16.8	2.6	4.3	1.5
***	무배우	219.5	179.3	4.3	7.0	10.2	12.2	3.2	3.4
가구 유형	1인	178.0	138.1	4.8	7.0	10.6	11.9	3.9	1.7
***	부부	342.5	282.4	15.1	6.6	26.9	3.9	5.8	1.8
	자녀 동거	503.4	470.2	11.6	5.8	9.4	1.4	3.4	1.5
	기타	406.6	362.7	5.6	4.0	15.1	14.2	1.3	3.9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266.1	216.8	6.2	8.4	16.3	13.1	3.0	2.3
***	중학교	305.5	257.5	6.1	8.8	20.8	7.2	4.2	1.0
	고등학교	416.1	376.2	11.8	5.6	14.4	2.7	3.6	1.6
	대학 이상	551.0	500.3	19.4	4.6	17.1	1.4	6.5	2.4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434.3	402.5	9.9	5.2	10.9	2.3	2.5	1.0
***	미취업	341.3	257.1	18.8	9.0	33.1	9.4	10.0	4.1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86.5	144.1	4.9	6.5	18.2	8.1	2.9	1.8
***	300만~500만 원 미만	376.5	339.4	6.4	5.5	17.8	1.8	4.1	1.6
	500만 원 이상	695.2	643.4	25.2	6.2	11.4	1.6	5.6	1.8

주: 1) 전체 4006명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는 가구소득 대비 %를 의미함.

2) * $p < 0.05$, ** $p < 0.01$, *** $p < 0.001$: 가구소득 금액 기준

〈표 5-3〉 신중년의 가구소득 항목별 금액(월평균): 소득 항목별 보유자 기준

(단위: 만 원)

구분		소득 항목별 보유자 월평균 금액						
		근로· 사업소득	재산 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연금 소득	연금 이외 공적 이전소득	사적 연금소득	기타 소득
	전체	400.9	104.5	19.4	73.4	36.8	84.1	35.2
지역***	동부	413.4	105.4	20.0	77.0	40.3	84.1	35.3
	읍면부	351.2	99.4	18.1	61.5	27.4	84.0	34.5
성별	남성	391.8	99.6	16.6	74.0	40.3	89.2	39.7
	여성	410.0	109.0	21.6	72.8	34.0	79.4	31.6
연령***	50~54세	472.6	116.2	17.9	71.0	50.6	88.9	22.8
	55~59세	425.6	109.4	19.2	113.3	47.7	88.5	50.1
	60~64세	334.1	104.3	19.2	75.1	30.4	93.8	34.7
	65~69세	276.2	85.6	21.2	63.1	31.6	73.2	25.1
결혼 상태***	유배우	421.1	108.5	18.8	76.3	34.7	85.5	31.1
	무배우	238.5	61.1	23.6	52.9	40.1	74.3	55.0
가구 유형***	1인	201.2	66.1	22.4	52.2	41.7	105.6	35.0
	부부	314.6	115.2	16.2	74.9	34.6	82.6	31.2
	자녀 동거	478.9	105.0	22.3	75.8	33.2	83.0	32.5
	기타	402.4	56.1	19.9	77.3	38.9	73.5	102.5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262.7	78.1	18.5	38.1	35.0	71.9	33.6
	중학교	299.3	62.7	20.2	58.0	36.4	66.2	17.0
	고등학교	398.4	105.3	19.2	79.8	38.5	79.6	35.6
	대학 이상	533.4	129.5	19.9	125.0	36.3	115.5	52.1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403.4	97.4	17.6	59.2	30.2	77.0	25.2
	미취업	387.6	120.4	24.4	100.7	45.1	91.2	53.7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78.9	57.5	18.5	56.1	38.1	49.2	41.0
	300만~500만 원 미만	348.9	68.0	17.4	87.4	29.7	87.5	37.2
	500만 원 이상	647.3	152.1	23.3	100.9	40.1	135.8	29.2

주: 1) 근로·사업소득 보유 3694명, 재산소득 보유 456명(모름/무응답으로 응답한 5명 제외), 사적 이전소득 보유 1255명, 공적연금소득 보유 868명, 연금 이외 공적이전소득 보유 424명, 사적연금소득 보유 198명, 기타소득 보유 197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월평균 금액임.

2) * $p < 0.05$, ** $p < 0.01$, *** $p < 0.001$: 근로·사업소득 기준

공적연금소득은 월평균 15만 9000원이며, 가구소득에서 3.8%를 차지한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 등이 해당된다. 공적연금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868명의 월평균 공적연금소득은 73만 4000원이며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77만 원), 연령대가 55~59세인 경우(113만 3000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76만 3000원),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초등학교 이하 38만 1000원, 대학 이상 125만 원), 현재 미취업인 경우(100만 7000원), 가구소득이 높을수록(500만 원 이상 100만 9000원) 공적연금소득의 규모가 더 크다.

공적연금 이외의 공적이전소득은 월평균 3만 9000원이며, 가구소득의 0.9%를 차지한다. 공적연금 이외의 공적이전소득은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교육급여), 보훈급여, 장애인연금 등이다. 공적연금 이외의 공적이전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424명의 월평균 금액은 36만 8000원이다. 지역, 성별, 연령, 결혼 상태,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공적이전소득 규모의 차이가 확인된다.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40만 3000원), 남성인 경우(40만 3000원), 연령대가 낮을수록(50~54세 50만 6000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40만 1000원), 현재 미취업인 경우(45만 1000원), 가구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40만 1000원) 공적연금 이외의 공적이전소득이 더 많다.

사적연금소득은 월평균 4만 2000원이며, 가구소득에서 1.0%의 비중을 차지한다. 사적연금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신중년 198명의 사적연금소득은 월평균 84만 1000원이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적연금소득이 많은 편인데, 300만 원 미만 49만 2000원, 300만~500만 원 미만 87만 5000원, 500만 원 이상 135만 8000원 순이다.

기타소득은 월평균 1만 7000원이며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이다. 기타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197명의 월평균 기타소득은 35만

2000원이며 55~59세의 경우(50만 1000원), 가구 유형이 기타 가구인 경우(102만 5000원), 현재 미취업인 경우(53만 7000원) 기타소득의 규모가 더 크다.

2. 가구 경제상태 인식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계층을 상의 상, 상의 하, 중의 상, 중의 하, 하의 상, 하의 하의 6단계로 구분하여 질문한 결과, 신중년의 46.0%는 ‘중의 하’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그다음 중의 상 23.3%, 하의 상 17.1%, 하의 하 8.9% 순이다. ‘상’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4.8%(상의 하 4.2%, 상의 상 0.6%)에 불과하다(〈표 5-4〉 참조). 이러한 주관적 계층 인식은 지역,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특히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구 유형이 1인 가구인 경우,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 가구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하’(하의 상, 하의 하)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은 편이며, ‘중의 상’, ‘상의 하’에 대한 응답 비율은 낮은 편이다.

〈표 5-5〉는 ‘10년 전과 비교하여 현재 귀댁의 경제생활 수준은 어떻게 변화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결과이다. ‘차이가 없다’가 50.6%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이며, 그다음 ‘다소 나빠졌다’(25.0%), ‘다소 좋아졌다’(17.8%), ‘상당히 나빠졌다’(5.6%), ‘상당히 좋아졌다’(1.0%) 순이다. 지역,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경제생활 수준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년 전에 비해 가구의 경제생활 수준이 ‘좋아졌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다소 좋아졌다 19.1%, 상당히 좋아졌다 1.1%), 배우자가 없는 경우 ‘나빠졌다’는 응답이 높은(다소 나빠졌다 32.4%, 상

당히 나빠졌다 12.7%) 특성이 나타났다. 또한 가구 유형 중 1인 가구(다소 나빠졌다 33.4%, 상당히 나빠졌다 14.7%), 가구소득 중 300만 원 미만(다소 나빠졌다 33.0%, 상당히 나빠졌다 11.0%)에 속한 신중년에서는 경제생활 수준이 ‘나빠졌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특성이 확인된다.

〈표 5-4〉 신중년의 현재 주관적 계층 인식

(단위: %, 명)

구분	주관적 계층 인식							계 (명)
	상위상	상위하	중위상	중위하	하위상	하위하		
전체	0.6	4.2	23.3	46.0	17.1	8.9	100.0	(4,006)
지역**	동부	0.6	4.4	23.1	47.3	16.0	8.7	100.0 (3,211)
	읍면부	0.5	3.3	24.4	40.7	21.4	9.8	100.0 (795)
성별*	남성	0.6	4.7	24.1	44.0	16.6	9.9	100.0 (1,985)
	여성	0.5	3.6	22.5	47.9	17.5	7.9	100.0 (2,021)
연령***	50~54세	0.5	3.3	25.8	46.9	15.5	8.0	100.0 (1,173)
	55~59세	0.4	4.9	23.7	46.9	15.8	8.4	100.0 (1,371)
	60~64세	1.1	3.2	20.3	48.1	19.0	8.3	100.0 (793)
	65~69세	0.2	5.6	21.7	39.9	20.3	12.2	100.0 (669)
결혼 상태***	유배우	0.6	4.4	25.7	48.3	15.7	5.3	100.0 (3,461)
	무배우	0.5	2.7	8.2	30.8	26.2	31.5	100.0 (545)
가구 유형***	1인	0.5	1.7	7.4	29.7	27.5	33.2	100.0 (353)
	부부	0.5	4.5	24.0	45.1	19.0	6.9	100.0 (1,396)
	자녀 동거	0.7	4.3	25.0	50.3	14.5	5.2	100.0 (2,038)
	기타	0.0	5.0	29.1	37.0	12.3	16.6	100.0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0.4	4.0	8.9	42.6	22.0	22.1	100.0 (321)
	중학교	0.2	5.2	15.8	45.0	20.8	13.0	100.0 (549)
	고등학교	0.5	3.9	22.0	48.4	17.5	7.6	100.0 (2,410)
	대학 이상	1.0	4.4	39.7	40.1	10.7	4.1	100.0 (72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0.4	4.3	23.6	47.5	17.2	6.9	100.0 (3,101)
	미취업	1.0	3.8	22.5	40.5	16.6	15.7	100.0 (9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0.0	2.9	9.4	42.3	24.7	20.7	100.0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0.4	3.1	22.3	53.9	16.7	3.5	100.0 (1,339)
	500만 원 이상	1.3	6.7	39.2	41.5	9.4	1.9	100.0 (1,28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5-5〉 신중년의 10년 전과 비교한 경제생활 수준 변화

(단위: %, 명)

구분		10년 전과 비교한 변화					계 (명)
		상당히 좋아졌음	다소 좋아졌음	차이가 거의 없음	다소 나빠졌음	상당히 나빠졌음	
	전체	1.0	17.8	50.6	25.0	5.6	100.0 (4,006)
지역*	동부	1.0	17.1	50.5	25.3	6.0	100.0 (3,211)
	읍면부	1.1	20.3	51.0	23.7	3.9	100.0 (795)
성별**	남성	1.0	16.8	50.3	24.9	6.9	100.0 (1,985)
	여성	1.1	18.7	50.9	25.0	4.3	100.0 (2,021)
연령***	50~54세	1.4	21.3	51.1	21.5	4.7	100.0 (1,173)
	55~59세	0.8	19.4	50.9	23.5	5.3	100.0 (1,371)
	60~64세	1.3	15.5	49.2	28.2	5.8	100.0 (793)
	65~69세	0.6	10.8	51.0	30.2	7.5	100.0 (669)
결혼 상태***	유배우	1.1	19.1	51.5	23.8	4.5	100.0 (3,461)
	무배우	0.6	9.3	45.1	32.4	12.7	100.0 (545)
가구 유형***	1인	0.4	7.7	43.7	33.4	14.7	100.0 (353)
	부부	0.9	15.2	53.1	25.5	5.3	100.0 (1,396)
	자녀 동거	1.2	21.1	50.5	23.0	4.1	100.0 (2,038)
	기타	0.8	19.2	46.8	26.3	6.9	100.0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0.5	14.6	50.7	24.6	9.7	100.0 (321)
	중학교	0.7	12.5	47.4	32.4	7.0	100.0 (549)
	고등학교	1.3	18.6	49.6	25.5	5.0	100.0 (2,410)
	대학 이상	0.7	20.3	56.4	17.9	4.7	100.0 (72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1.1	18.9	51.6	23.5	5.0	100.0 (3,101)
	미취업	0.6	14.0	47.5	30.2	7.8	100.0 (9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0.6	9.5	45.9	33.0	11.0	100.0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1.3	16.8	52.9	24.9	4.1	100.0 (1,339)
	500만 원 이상	1.2	27.6	53.4	16.4	1.4	100.0 (1,28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10년 후 귀댁의 경제생활 수준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신중년의 58.4%는 ‘차이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다음 ‘다소 나빠질 것이다’ 25.3%, ‘다소 좋아질 것이다’ 12.3%, ‘상당히 나빠질 것이다’ 3.0%,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1.1% 순이다(〈표 5-6〉 참조).

이러한 경제생활 수준의 전망은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확인된다. 그러나 신중년의 절반 이상(55.5~64.1%)은 10년 후 경제생활 수준은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로 보고 있다. 즉 신중년은 10년 전(43.7~56.4%)보다는 10년 후의 경제생활 수준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상당히 또는 다소 좋아질 것이다’는 긍정적인 응답, ‘상당히 또는 다소 나빠질 것이다’는 부정적인 응답 기준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14.0%), 취업한 경우(14.7%) 긍정적인 전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긍정적인 전망(50~54세 18.2%), 연령대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전망(65~69세 32.4%)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은 편이다.

가구 유형이 자녀 동거 가구인 경우 긍정적(17.4%), 1인 가구인 경우 부정적(35.1%) 응답 비율이 높다. 교육 수준을 살펴보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전망(대학 이상 17.4%),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전망(중학교 34.5%)에 대한 응답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

가구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전망(300만 원 미만 33.8%, 500만 원 이상 25.4%)에 대한 응답 비율이 더 높은 편이다.

〈표 5-6〉 신중년의 10년 후 경제생활 수준 전망

(단위: %, 명)

구분		10년 후 전망					계 (명)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다소 좋아질 것이다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다소 나빠질 것이다	상당히 나빠질 것이다	
	전체	1.1	12.3	58.4	25.3	3.0	100.0 (4,006)
지역	동부	1.0	12.7	58.1	25.2	3.1	100.0 (3,211)
	읍면부	1.3	10.9	59.4	25.6	2.8	100.0 (795)
성별*	남성	1.1	11.7	56.9	26.5	3.7	100.0 (1,985)
	여성	1.0	12.9	59.7	24.0	2.3	100.0 (2,021)
연령***	50~54세	1.5	16.7	57.9	22.1	1.8	100.0 (1,173)
	55~59세	1.0	14.3	56.5	25.7	2.5	100.0 (1,371)
	60~64세	0.5	8.8	59.3	26.2	5.2	100.0 (793)
	65~69세	1.0	4.7	61.9	28.8	3.6	100.0 (669)
결혼 상태***	유배우	1.1	12.9	58.2	25.1	2.6	100.0 (3,461)
	무배우	0.6	8.5	59.1	26.2	5.5	100.0 (545)
가구 유형***	1인	0.5	6.0	58.3	28.7	6.4	100.0 (353)
	부부	1.2	8.8	61.4	26.2	2.3	100.0 (1,396)
	자녀 동거	1.2	16.2	55.7	24.1	2.9	100.0 (2,038)
	기타	0.0	8.9	64.1	24.0	3.0	100.0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0.3	9.5	59.3	26.0	4.8	100.0 (321)
	중학교	0.3	6.5	58.7	29.7	4.8	100.0 (549)
	고등학교	1.1	13.0	59.0	24.1	2.7	100.0 (2,410)
	대학 이상	1.7	15.7	55.5	25.2	1.9	100.0 (72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1.2	13.5	57.3	25.0	3.0	100.0 (3,101)
	미취업	0.6	8.1	62.1	26.0	3.1	100.0 (9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0	7.4	57.8	29.0	4.8	100.0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1.1	14.2	59.5	22.9	2.3	100.0 (1,339)
	500만 원 이상	1.1	15.5	57.9	23.6	1.8	100.0 (1,28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3. 가구 소비지출 및 소비 성향

신중년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265만 7000원이며, 지역,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에 거주하는 경우 273만 8000원으로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우(232만 9000원)보다 40만 9000원이 더 많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소비지출 규모가 더 커서 50~54세 310만 5000원, 55~59세 282만 6000원, 60~64세 229만 2000원, 65~69세 195만 7000원 순이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 규모가 크기 때문에(평균 가구원 수 50대 3.0명, 60대 2.4명), 가구 소비지출 규모가 큰 경향이 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283만 9000원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150만 1000원)보다 133만 8000원이 더 많다. 가구 유형이 자녀 동거 가구인 경우 316만 6000원으로 소비지출 규모가 가장 크고, 그다음 기타 가구 252만 2000원, 부부 가구 229만 2000원, 1인 가구 124만 4000원 순이다. 1인 가구는 가구 규모가 가장 작기 때문에 소비지출 규모 또한 작을 수 밖에 없지만, 부부 가구와의 소비지출의 차이가 매우 크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더 많은데, 대학 이상이 342만 4000원으로 초등학교 이하(172만 8000원)보다 약 2배 높은 수준이다. 현재 취업한 경우 275만 8000원으로 미취업인 경우(231만 2000원)보다 소비지출 규모가 더 크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소비지출 규모가 더 큰데, 5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370만 6000원으로 300만 원 미만(167만 9000원)보다 약 2배 더 크다.

〈표 5-7〉 신중년의 소비지출

(단위: 만 원, %, 명)

	구분	월평균 소비지출액	계 (명)
	전체	265.7	100.0 (4,006)
지역***	동부	273.8	100.0 (3,211)
	읍면부	232.9	100.0 (795)
성별	남성	268.2	100.0 (1,985)
	여성	263.2	100.0 (2,021)
연령***	50~54세	310.5	100.0 (1,173)
	55~59세	282.6	100.0 (1,371)
	60~64세	229.2	100.0 (793)
	65~69세	195.7	100.0 (669)
결혼 상태**	유배우	283.9	100.0 (3,461)
	무배우	150.1	100.0 (545)
가구 유형***	1인	124.4	100.0 (353)
	부부	229.2	100.0 (1,396)
	자녀 동거	316.6	100.0 (2,038)
	기타	252.2	100.0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172.8	100.0 (321)
	중학교	196.2	100.0 (549)
	고등학교	270.8	100.0 (2,410)
	대학 이상	342.4	100.0 (72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275.8	100.0 (3,101)
	미취업	231.2	100.0 (9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67.9	100.0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265.7	100.0 (1,339)
	500만 원 이상	370.6	100.0 (1,28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5-8〉~〈표 5-11〉은 신중년의 소비행태 및 성향을 가격 정보이용, 근접성, 온라인 이용(금융서비스, 물건 구매)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정보이용의 소비행태는 ‘가격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 후에 상품·서비스를 구매한다’에 대한 동의 수준을 질문하였으며, 그 결과 ‘그렇다(매

우 그렇다 포함’는 응답이 58.7%, ‘그렇지 않다’ 33.8%, ‘전혀 그렇지 않다’ 7.5%로 확인된다. 즉 신중년의 2명 중 1명 이상은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 전 가격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는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그렇다+매우 그렇다 61.7%), 연령대가 낮을수록(50~54세 65.2%), 배우자가 있는 경우(60.3%), 가구 유형이 자녀 동거 가구인 경우(65.3%),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대학 이상 71.9%), 현재 취업한 경우(60.2%), 가구소득이 높을수록(500만 원 이상 69.2%) 가격 정보를 수집한 후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을 투자하여 좋은 물건을 찾기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물건을 구매한다’라는 질문에는 신중년의 75.6%가 동의(그렇다 54.7%, 매우 그렇다 20.9%)하고 있다. 읍면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81.3%), 남성인 경우(77.3%), 연령대가 높을수록(65~69세 78.8%), 배우자가 없는 경우(76.3%), 가구 유형이 부부 가구인 경우(78.0%),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중학교 79.0%), 현재 취업 중인 경우(76.6%),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300만 원 미만 76.5%) 이러한 경향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즉 신중년은 가구경제 수준에 맞춰 소비지출을 계획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신중년은 41.6%(그렇다 34.2%, 매우 그렇다 7.4%), 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신중년은 이보다 조금 낮은 33.5%(그렇다 27.8%, 매우 그렇다 5.7%)로 절반을 밑도는 수준이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는 지역,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확인되는데, 특히 교육 수준과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5-8〉 신중년의 소비 전 가격 정보 수집 수준

(단위: %, 명)

구분		동의 정도				계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7.5	33.8	49.3	9.4	100.0 (4,006)
지역***	동부	6.0	32.3	52.7	9.0	100.0 (3,211)
	읍면부	13.8	39.7	35.7	10.8	100.0 (795)
성별	남성	8.0	34.8	48.5	8.7	100.0 (1,985)
	여성	7.1	32.7	50.1	10.1	100.0 (2,021)
연령***	50~54세	5.6	29.1	55.4	9.8	100.0 (1,173)
	55~59세	5.8	31.8	52.2	10.1	100.0 (1,371)
	60~64세	9.1	36.4	46.6	8.0	100.0 (793)
	65~69세	12.5	42.8	35.9	8.7	100.0 (669)
결혼 상태***	유배우	6.6	33.1	50.6	9.7	100.0 (3,461)
	무배우	13.4	38.2	41.0	7.4	100.0 (545)
가구 유형***	1인	13.4	39.0	39.7	7.9	100.0 (353)
	부부	9.9	37.0	43.9	9.2	100.0 (1,396)
	자녀 동거	4.6	30.1	55.7	9.6	100.0 (2,038)
	기타	10.0	38.4	40.4	11.2	100.0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20.3	43.1	29.5	7.0	100.0 (321)
	중학교	12.8	40.6	37.6	9.0	100.0 (549)
	고등학교	5.9	33.7	51.5	8.9	100.0 (2,410)
	대학 이상	3.5	24.6	59.6	12.3	100.0 (72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6.9	32.9	51.1	9.1	100.0 (3,101)
	미취업	9.7	36.8	43.1	10.4	100.0 (9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1.8	40.5	39.3	8.4	100.0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6.4	33.7	51.3	8.7	100.0 (1,339)
	500만 원 이상	4.2	26.6	58.1	11.1	100.0 (1,28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5-9〉 신중년의 근접성 소비행태

(단위: %, 명)

구분		동의 정도				계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3.7	20.8	54.7	20.9	100.0 (4,006)
지역***	동부	3.8	22.1	55.2	18.9	100.0 (3,211)
	읍면부	3.2	15.4	52.6	28.7	100.0 (795)
성별*	남성	3.4	19.3	57.1	20.2	100.0 (1,985)
	여성	3.9	22.3	52.3	21.5	100.0 (2,021)
연령**	50~54세	3.2	23.2	53.2	20.3	100.0 (1,173)
	55~59세	3.6	21.2	56.8	18.4	100.0 (1,371)
	60~64세	3.8	20.0	54.7	21.5	100.0 (793)
	65~69세	4.6	16.6	52.6	26.2	100.0 (669)
결혼 상태**	유배우	3.4	21.2	55.2	20.2	100.0 (3,461)
	무배우	5.3	18.4	51.2	25.1	100.0 (545)
가구 유형***	1인	5.7	18.7	51.1	24.6	100.0 (353)
	부부	3.4	18.6	55.4	22.6	100.0 (1,396)
	자녀 동거	3.4	22.8	55.3	18.5	100.0 (2,038)
	기타	4.6	19.7	49.5	26.2	100.0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5.6	16.7	49.8	27.9	100.0 (321)
	중학교	4.2	16.8	53.3	25.7	100.0 (549)
	고등학교	3.4	20.9	54.9	20.8	100.0 (2,410)
	대학 이상	3.4	25.2	56.9	14.5	100.0 (72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3.2	20.3	55.1	21.5	100.0 (3,101)
	미취업	5.4	22.5	53.1	18.9	100.0 (9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4.9	18.6	52.8	23.7	100.0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3.4	21.6	54.3	20.7	100.0 (1,339)
	500만 원 이상	2.6	22.1	57.2	18.1	100.0 (1,28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5-10〉 신중년의 온라인 금융서비스 이용

(단위: %, 명)

구분		동의 정도				계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27.7	30.7	34.2	7.4	100.0 (4,006)
지역***	동부	24.0	31.9	36.6	7.4	100.0 (3,211)
	읍면부	42.6	25.6	24.6	7.3	100.0 (795)
성별	남성	27.5	31.3	33.4	7.8	100.0 (1,985)
	여성	27.9	30.1	35.1	6.9	100.0 (2,021)
연령***	50~54세	16.0	24.7	48.6	10.7	100.0 (1,173)
	55~59세	21.4	30.1	39.2	9.4	100.0 (1,371)
	60~64세	36.5	37.1	22.8	3.5	100.0 (793)
	65~69세	50.8	34.7	12.5	2.0	100.0 (669)
결혼 상태***	유배우	25.2	31.0	36.0	7.8	100.0 (3,461)
	무배우	43.6	28.3	23.4	4.7	100.0 (545)
가구 유형***	1인	45.1	27.8	22.4	4.7	100.0 (353)
	부부	35.1	33.1	26.8	5.0	100.0 (1,396)
	자녀 동거	19.3	29.9	41.4	9.4	100.0 (2,038)
	기타	31.0	27.0	34.2	7.8	100.0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66.0	25.5	7.2	1.4	100.0 (321)
	중학교	46.8	35.4	16.0	1.9	100.0 (549)
	고등학교	23.4	32.3	36.9	7.4	100.0 (2,410)
	대학 이상	10.8	24.0	51.2	14.0	100.0 (72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25.6	29.9	36.3	8.3	100.0 (3,101)
	미취업	35.1	33.3	27.4	4.2	100.0 (9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43.7	33.1	19.2	4.1	100.0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24.4	30.9	36.5	8.2	100.0 (1,339)
	500만 원 이상	14.0	27.9	48.1	10.0	100.0 (1,28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5-11〉 신중년의 온라인 물건 구매

(단위: %, 명)

구분		동의 정도				계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31.4	35.0	27.8	5.7	100.0 (4,006)
지역***	동부	28.1	36.5	29.9	5.5	100.0 (3,211)
	읍면부	45.1	28.8	19.4	6.7	100.0 (795)
성별	남성	31.8	36.1	26.3	5.9	100.0 (1,985)
	여성	31.1	34.0	29.4	5.6	100.0 (2,021)
연령***	50~54세	18.1	30.4	42.6	8.9	100.0 (1,173)
	55~59세	26.1	35.8	30.9	7.2	100.0 (1,371)
	60~64세	40.4	40.4	16.7	2.4	100.0 (793)
	65~69세	55.2	35.0	8.8	0.9	100.0 (669)
결혼 상태***	유배우	29.1	35.6	29.4	5.9	100.0 (3,461)
	무배우	46.1	31.4	17.9	4.7	100.0 (545)
가구 유형***	1인	47.3	32.7	16.2	3.8	100.0 (353)
	부부	39.1	36.6	20.2	4.1	100.0 (1,396)
	자녀 동거	23.2	34.5	35.1	7.2	100.0 (2,038)
	기타	33.8	33.0	27.3	6.0	100.0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67.9	25.6	5.3	1.3	100.0 (321)
	중학교	50.8	36.0	11.5	1.7	100.0 (549)
	고등학교	27.8	37.7	28.9	5.6	100.0 (2,410)
	대학 이상	12.7	29.5	46.5	11.3	100.0 (72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29.1	35.4	29.1	6.4	100.0 (3,101)
	미취업	39.4	33.6	23.6	3.4	100.0 (9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46.3	35.3	15.0	3.4	100.0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28.8	34.8	30.1	6.3	100.0 (1,339)
	500만 원 이상	18.2	34.9	39.3	7.6	100.0 (1,28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온라인 금융서비스 이용의 경우 50~54세가 59.3%로 가장 높고, 그다음 55~59세(48.6%), 60~64세(26.3%), 65~69세(14.5%) 순이다. 교육 수준의 경우에는 대학 이상이 65.2%로 가장 높고, 고등학교(44.3%), 중학교(17.9%), 초등학교 이하(8.6%) 순이다.

온라인 물건 구매의 경우 이용률 격차가 조금 줄어들어서 50~54세(51.5%), 55~59세(38.1%), 60~64세(19.1%), 65~69세(9.7%) 순이다. 교육 수준별 차이는 대학 이상 57.8%로 가장 높고, 고등학교(34.5%), 중학교(13.2%), 초등학교 이하(6.6%) 순이다.

즉 신중년 내에서도 정보화 능력의 차이가 매우 크며,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교육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정보화 능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년 집단 중에서 정보화 능력이 높은 50~54세, 대학 이상의 교육 수준에서도 절반 수준만이 온라인을 이용한 금융 및 쇼핑을 하고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신중년 대상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제2절 가구 자산 및 부채

1. 가구 자산

〈표 5-12〉는 신중년 가구의 부동산 자산 보유 현황이다. 신중년의 83.4%는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중년의 평균 부동산 자산은 평균 3억 151만 원이다.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3336명의 평균 부동산금액은 이보다 조금 높은 3억 6151만 원이다.

〈표 5-12〉 신중년의 부동산 자산 보유율과 규모

(단위: %, 명, 만 원)

	구분	보유율	부동산 규모					
			전체			해당자		
			계	(명)	금액	계	(명)	금액
지역*	전체	83.4	100.0	(4,006)	30,150.7	100.0	(3,336)	36,151.1
	동부	82.8	100.0	(3,211)	32,099.3	100.0	(2,654)	38,787.2
	읍면부	86.0	100.0	(795)	22,268.7	100.0	(682)	25,891.1
성별	남성	83.2	100.0	(1,985)	30,322.1	100.0	(1,652)	36,430.6
	여성	83.6	100.0	(2,021)	29,981.9	100.0	(1,684)	35,877.0
연령**	50~54세	81.8	100.0	(1,173)	30,254.5	100.0	(958)	36,992.8
	55~59세	81.9	100.0	(1,371)	29,055.1	100.0	(1,120)	35,509.4
	60~64세	86.7	100.0	(793)	33,028.4	100.0	(685)	38,126.2
	65~69세	85.6	100.0	(669)	28,808.2	100.0	(573)	33,636.7
결혼 상태***	유배우	88.1	100.0	(3,461)	32,771.7	100.0	(3,043)	37,212.4
	무배우	53.8	100.0	(545)	13,521.1	100.0	(293)	25,130.0
가구 유형***	1인	48.9	100.0	(353)	10,484.2	100.0	(172)	21,487.6
	부부	86.3	100.0	(1,396)	28,511.3	100.0	(1,203)	33,034.1
	자녀 동거	87.7	100.0	(2,038)	35,045.8	100.0	(1,783)	39,979.0
	기타	81.0	100.0	(220)	26,753.0	100.0	(178)	33,033.6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78.3	100.0	(321)	18,022.4	100.0	(252)	23,008.9
	중학교	79.7	100.0	(549)	22,622.5	100.0	(436)	28,399.2
	고등학교	83.5	100.0	(2,410)	29,847.0	100.0	(2,007)	35,760.0
	대학 이상	88.3	100.0	(726)	42,200.6	100.0	(641)	47,813.5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84.5	100.0	(3,101)	30,039.2	100.0	(2,616)	35,563.7
	미취업	79.8	100.0	(905)	30,533.2	100.0	(720)	38,284.6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71.6	100.0	(1,378)	19,399.6	100.0	(984)	27,125.5
	300만~500만 원 미만	86.3	100.0	(1,339)	27,111.8	100.0	(1,153)	31,422.8
	500만 원 이상	93.1	100.0	(1,283)	44,729.7	100.0	(1,193)	48,056.2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부동산 자산 보유율 기준

지역,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부동산 보유 유무의 차이가 있다. 읍면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86.0%), 연령대가 높을수록(60~64세 86.7%, 65~69세 85.6%), 배우자가 있는 경우(88.1%),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고등학교 83.5%, 대학 이상 88.3%), 현재 취업 중인 경우(84.5%), 가구소득이 높을수록(500만 원 이상 93.1%) 부동산 보유 비율이 더 높다. 반면에 가구 유형이 1인 가구인 경우 부동산 자산 보유 비율이 48.9%로 부부 가구(86.3%)와 자녀 동거 가구(87.7%)보다 낮다.

부동산 자산이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볼 때, 부동산 자산의 규모는 지역,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3억 8787만 원으로 읍면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인 2억 5891만 원보다 더 크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3억 7212만 원)에도 배우자가 없는 경우(2억 5130만 원)보다 더 크다. 가구 유형에 따라 서로 부동산 자산의 규모가 다른데, 자녀 동거 가구인 경우 3억 9979만 원으로 가장 많고 1인 가구인 경우 2억 1488만 원으로 가장 적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대학 이상 4억 7814만 원), 가구소득이 높을수록(500만 원 이상 4억 8056만 원) 보유한 부동산 자산의 규모가 더 크다.

신중년의 81.4%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중년의 금융자산은 평균 5590만 원이다(〈표 5-13〉 참조). 금융자산은 전세보증금, 예·적금, 주식, 펀드 등이 해당되며, 금융자산이 있다고 응답한 3234명의 평균 금융자산 규모는 6875만 원이다.

신중년은 연령, 교육 수준, 가구소득에 따라 금융자산의 보유 비율에서 차이를 보인다. 연령대가 낮을수록(50~54세 83.4%, 65~69세 77.1%),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고등학교, 대학 이상 각 82.3%), 가구소득이 높을수록(500만 원 이상 87.0%) 금융자산 보유 비율이 더 높다.

〈표 5-13〉 신중년의 금융자산 보유율과 규모

(단위: %, 명, 만 원)

	구분	보유율	금융자산 규모					
			전체			해당자		
			계	(명)	금액	계	(명)	금액
지역	전체	81.4	100.0	(4,006)	5,589.7	100.0	(3,234)	6,875.3
	동부	80.9	100.0	(3,211)	5,796.4	100.0	(2,570)	7,181.3
	읍면부	83.7	100.0	(795)	4,760.0	100.0	(664)	5,690.1
성별	남성	81.0	100.0	(1,985)	5,708.5	100.0	(1,594)	7,056.5
	여성	81.8	100.0	(2,021)	5,473.0	100.0	(1,639)	6,699.1
연령**	50~54세	83.4	100.0	(1,173)	5,430.3	100.0	(968)	6,522.1
	55~59세	82.0	100.0	(1,371)	6,274.7	100.0	(1,122)	7,653.1
	60~64세	81.2	100.0	(793)	5,406.0	100.0	(633)	6,679.6
	65~69세	77.1	100.0	(669)	4,673.2	100.0	(511)	6,078.2
결혼 상태	유배우	81.7	100.0	(3,461)	5,803.0	100.0	(2,806)	7,110.7
	무배우	79.6	100.0	(545)	4,229.4	100.0	(428)	5,330.9
가구 유형	1인	80.4	100.0	(353)	3,971.5	100.0	(279)	4,953.7
	부부	82.6	100.0	(1,396)	5,361.9	100.0	(1,145)	6,500.1
	자녀 동거	81.4	100.0	(2,038)	5,860.0	100.0	(1,644)	7,215.0
	기타	76.5	100.0	(220)	7,116.9	100.0	(166)	9,328.4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76.1	100.0	(321)	3,463.1	100.0	(239)	4,577.0
	중학교	79.4	100.0	(549)	4,423.3	100.0	(434)	5,573.7
	고등학교	82.3	100.0	(2,410)	5,780.2	100.0	(1,966)	7,030.7
	대학 이상	82.3	100.0	(726)	6,772.0	100.0	(594)	8,236.7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82.0	100.0	(3,101)	5,626.0	100.0	(2,521)	6,872.8
	미취업	79.6	100.0	(905)	5,465.2	100.0	(712)	6,884.1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75.1	100.0	(1,378)	3,955.5	100.0	(1,022)	5,281.9
	300만~500만 원 미만	82.6	100.0	(1,339)	4,843.0	100.0	(1,094)	5,874.3
	500만 원 이상	87.0	100.0	(1,283)	8,115.3	100.0	(1,113)	9,328.8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금융자산 보유율 기준

반면에 금융자산을 보유한 경우 그 규모는 지역,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다.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7181만 원), 55~59세일 경우(7653만 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7111만 원), 가구 유형이 기타 가구인 경우(9328만 원),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대학 이상 8237만 원), 가구소득이 높을수록(500만 원 이상 9329만 원) 금융자산 규모가 더 크다.

자동차, 회원권 등의 기타자산을 보유한 신중년은 76.7%이며, 평균 기타자산 금액은 1807만 원이다(〈표 5-14〉 참조). 기타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신중년 3069명의 기타자산 보유액은 평균 2357만 원이다.

신중년은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기타자산의 보유 비율이 다르다. 남성인 경우(79.5%), 연령대가 낮을수록(50~59세 81.3%), 배우자가 있는 경우(82.0%), 가구 유형이 자녀 동거 가구인 경우(83.2%),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대학 이상 86.1%), 현재 취업 중인 경우(80.3%), 가구소득이 높을수록(500만 원 이상 88.6%) 기타자산의 보유 비율이 높다.

반면에 기타자산을 보유한 경우, 기타자산 규모의 차이는 가구 유형, 교육 수준, 가구소득에서만 차이를 보인다. 가구 유형이 기타 가구인 경우(4443만 원), 교육 수준이 중학교인 경우(3442만 원), 가구소득이 높을수록(500만 원 이상 3495만 원) 보유한 기타자산의 금액이 많다.

즉 무배우자, 1인 가구, 저학력의 특성이 있는 신중년은 자산 보유율과 규모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의 신중년은 가구소득 또한 낮은 집단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5-14〉 신중년의 기타자산 보유율과 규모

(단위: %, 명, 만 원)

	구분	보유율	기타자산 규모					
			전체			해당자		
			계	(명)	금액	계	(명)	금액
지역	전체	76.7	100.0	(4,006)	1,807.4	100.0	(3,069)	2,356.5
	동부	76.2	100.0	(3,211)	1,740.6	100.0	(2,443)	2,284.3
	읍면부	78.7	100.0	(795)	2,077.0	100.0	(626)	2,638.2
성별 ***	남성	79.5	100.0	(1,985)	2,035.2	100.0	(1,576)	2,561.5
	여성	74.0	100.0	(2,021)	1,583.3	100.0	(1,492)	2,140.0
연령 ***	50~54세	81.3	100.0	(1,173)	2,172.5	100.0	(952)	2,673.3
	55~59세	81.3	100.0	(1,371)	2,015.0	100.0	(1,114)	2,478.8
	60~64세	75.1	100.0	(793)	1,433.1	100.0	(592)	1,910.8
	65~69세	61.3	100.0	(669)	1,184.8	100.0	(410)	1,932.6
결혼 상태 ***	유배우	82.0	100.0	(3,461)	1,982.7	100.0	(2,833)	2,418.5
	무배우	43.2	100.0	(545)	696.2	100.0	(236)	1,611.2
가구 유형 ***	1인	37.4	100.0	(353)	611.2	100.0	(132)	1,634.5
	부부	77.9	100.0	(1,396)	1,641.5	100.0	(1,087)	2,107.6
	자녀 동거	83.2	100.0	(2,038)	1,978.0	100.0	(1,692)	2,378.2
	기타	72.4	100.0	(220)	3,209.4	100.0	(158)	4,443.1
교육 수준 ***	초등학교 이하	54.1	100.0	(321)	677.5	100.0	(174)	1,253.4
	중학교	62.5	100.0	(549)	2,151.3	100.0	(343)	3,442.1
	고등학교	80.2	100.0	(2,410)	1,803.7	100.0	(1,930)	2,250.4
	대학 이상	86.1	100.0	(726)	2,061.0	100.0	(622)	2,395.4
현재 취업 여부 ***	취업 중	80.3	100.0	(3,101)	1,956.9	100.0	(2,488)	2,436.4
	미취업	64.3	100.0	(905)	1,294.6	100.0	(580)	2,014.0
가구 소득 ***	300만 원 미만	58.7	100.0	(1,378)	821.8	100.0	(808)	1,400.5
	300만~500만 원 미만	83.9	100.0	(1,339)	1,594.0	100.0	(1,120)	1,901.4
	500만 원 이상	88.6	100.0	(1,283)	3,096.8	100.0	(1,135)	3,494.6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5-15〉의 주택 점유 형태를 살펴보면, 신중년의 대다수인 80.7%는 자가에 거주하고 있다. 그 외에 전세 10.2%, 월세 7.9%, 기타(무상주택, 사택 등) 1.2%이다. 이들은 지역,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주택 점유 형태의 차이를 보인다.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우(83.2%), 60대의 경우(60~69세 82.7~84.7%), 배우자가 있는 경우(85.5%), 가구 유형이 부부 가구(83.4%) 및 자녀 동거 가구(85.4%)인 경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대학 이상 85.2%), 현재 취업 중인 경우(81.6%), 가구소득이 높을수록(500만 원 이상 90.1%) 자가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결혼 상태와 가구 유형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와 1인 가구인 경우 전·월세 거주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세 26.7%, 전세 17.7%이며, 1인 가구의 경우 월세 33.0%, 전세 17.5%이다. 즉 무배우자, 1인 가구 신중년의 경우 주거 안정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신중년 본인 및 배우자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여 저축, 민간보험 등에 가입한 비율을 살펴보면, 건강·요양 90.6%, 사망 43.4%, 노후소득 준비 37.6%로 확인된다(〈표 5-16〉 참조). 즉 신중년은 건강·요양의 위험에 대비하여 저축 및 민간보험을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건강·요양에 대비한 민간보험은 질병(암), 실손보험(진료비 본인부담), 교통상해 사고 대비, 간병보험, 실버보험 등이며, 사망 대비는 종신보험, 상호회사 가입 등이다. 노후소득보장은 은행, 보험, 증권회사 등에서 가입하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의미한다.

〈표 5-15〉 신중년의 주택 점유 형태

(단위: %, 명)

	구분	주택 점유 형태				계 (명)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전체	80.7	10.2	7.9	1.2	100.0 (4,006)
지역**	동부	80.1	10.9	8.0	1.0	100.0 (3,211)
	읍면부	83.2	7.5	7.3	2.1	100.0 (795)
성별	남성	80.4	10.1	8.3	1.3	100.0 (1,985)
	여성	81.0	10.4	7.4	1.2	100.0 (2,021)
연령***	50~54세	78.4	13.3	7.4	1.0	100.0 (1,173)
	55~59세	79.4	10.7	8.9	1.0	100.0 (1,371)
	60~64세	84.7	7.5	6.5	1.2	100.0 (793)
	65~69세	82.7	7.1	8.3	2.0	100.0 (669)
결혼 상태***	유배우	85.5	9.0	4.9	0.6	100.0 (3,461)
	무배우	50.2	17.7	26.7	5.4	100.0 (545)
가구 유형***	1인	44.9	17.5	33.0	4.6	100.0 (353)
	부부	83.4	9.0	6.9	0.7	100.0 (1,396)
	자녀 동거	85.4	10.1	3.9	0.5	100.0 (2,038)
	기타	76.7	7.5	10.1	5.6	100.0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75.0	5.6	17.3	2.0	100.0 (321)
	중학교	77.6	8.2	11.8	2.4	100.0 (549)
	고등학교	80.8	11.7	6.6	0.9	100.0 (2,410)
	대학 이상	85.2	9.0	4.7	1.1	100.0 (726)
현재 취업 여부 ***	취업 중	81.6	10.8	6.7	0.9	100.0 (3,101)
	미취업	77.6	8.2	11.9	2.3	100.0 (9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68.9	12.6	16.0	2.5	100.0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83.6	10.6	5.1	0.6	100.0 (1,339)
	500만 원 이상	90.1	7.3	2.1	0.5	100.0 (1,28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5-16〉 신중년의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한 저축, 민간보험 가입률(본인 및 배우자)

(단위: %, 명)

구분		가입률			계 (명)
		건강·요양	사망	노후소득보장	
	전체	90.6	43.4	37.6	100.0 (4,006)
지역*	동부	91.1	45.5	40.1	100.0 (3,211)
	읍면부	88.4	34.8	27.7	100.0 (795)
성별	남성	89.8	41.5	36.2	100.0 (1,985)
	여성	91.4	45.3	39.0	100.0 (2,021)
연령***	50~54세	94.9	50.9	43.4	100.0 (1,173)
	55~59세	92.6	47.8	42.8	100.0 (1,371)
	60~64세	89.2	36.3	33.0	100.0 (793)
	65~69세	80.7	29.7	22.3	100.0 (669)
결혼 상태***	유배우	93.2	46.6	40.3	100.0 (3,461)
	무배우	73.8	23.4	20.4	100.0 (545)
가구 유형***	1인	71.3	21.8	19.3	100.0 (353)
	부부	89.2	39.4	34.2	100.0 (1,396)
	자녀 동거	95.6	50.3	43.9	100.0 (2,038)
	기타	84.4	39.9	30.6	100.0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72.7	23.5	14.2	100.0 (321)
	중학교	86.3	31.9	25.7	100.0 (549)
	고등학교	92.5	45.9	38.9	100.0 (2,410)
	대학 이상	95.5	52.6	52.7	100.0 (72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93.8	45.8	39.2	100.0 (3,101)
	미취업	79.8	35.3	32.2	100.0 (9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80.4	24.9	21.9	100.0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94.0	46.2	39.0	100.0 (1,339)
	500만 원 이상	98.0	60.4	53.1	100.0 (1,28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건강·요양, 노후소득보장 기준

이처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저축 및 민간보험의 가입률은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차이가 확인되는데, 동부 지역에 거주할 경우, 연령대가 낮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구 유형이 자녀 동거 가구인 경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현재 취업 중인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입률

이 더 높다. 다만 건강·요양, 노후소득보장과 달리 사망 대비 저축 및 민간 보험 가입률은 성별에서도 차이가 나타나, 응답자가 여성(45.3%)인 경우 남성(41.5%)보다 가입률이 조금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표 5-16〉 참조).

즉 저소득, 1인 가구의 경우 미래 불확실성을 대비한 민간 부문의 준비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집단의 경우 현재 경제 수준 또한 취약하므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2. 가구 부채

신중년의 27.9%는 부채가 있으며, 이들의 부채 규모는 평균 2550만원이다.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신중년 1115명의 부채 규모는 평균 9154만원이다. 여기서 부채는 주택융자금,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 그 밖의 빌린 돈 등이 해당된다. 부채 보유율은 지역,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다. 동부에 거주하는 경우(29.1%), 연령대가 낮을수록(50~54세 38.0%), 배우자가 있는 경우(29.0%), 가구 유형이 자녀 동거 가구 또는 기타 가구인 경우(34.7%, 32.7%),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대학 이상 37.3%), 현재 취업 중인 경우(30.5%), 가구소득이 높을수록(500만 원 이상 35.6%) 부채 보유 비율이 더 높다. 특히 50대(50~54세 38.0%, 55~59세 30.0%)와 대학 이상의 교육 수준(37.3%), 500만 원 이상의 가구소득(35.6%)의 신중년은 부채를 보유한 비율이 높은 편이다.

부채를 보유한 신중년 1115명의 부채 규모는 결혼 상태,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확인된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9559만 원), 대학 이상의 교육 수준(1억 1712만 원), 미취업인 경우(1억 2371만 원), 가구소득이 500만 원 이상(1억 1157만 원)인 신중년은 보유한 부채 금액이 많은 편이다.

〈표 5-17〉 신중년의 부채 보유율과 규모

(단위: %, 명, 만 원)

구분	보유율	부채 규모					
		전체			해당자		
		계	(명)	금액	계	(명)	금액
전체		27.9	100.0	(4,006)	2550.2	100.0	(1,115) 9,153.6
지역***	동부	29.1	100.0	(3,211)	2662.4	100.0	(933) 9,157.2
	읍면부	23.0	100.0	(795)	2096.8	100.0	(182) 9,135.4
성별	남성	28.8	100.0	(1,985)	2787.0	100.0	(570) 9,690.0
	여성	27.0	100.0	(2,021)	2317.7	100.0	(545) 8,592.2
연령***	50~54세	38.0	100.0	(1,173)	3988.9	100.0	(444) 10,520.3
	55~59세	30.0	100.0	(1,371)	2534.1	100.0	(411) 8,446.1
	60~64세	20.1	100.0	(793)	1632.0	100.0	(159) 8,139.5
	65~69세	15.2	100.0	(669)	1152.1	100.0	(101) 7,622.9
결혼 상태***	유배우	29.0	100.0	(3,461)	2765.8	100.0	(1,001) 9,558.5
	무배우	21.1	100.0	(545)	1179.7	100.0	(114) 5,612.0
가구 유형***	1인	16.2	100.0	(353)	744.5	100.0	(57) 4,606.1
	부부	20.2	100.0	(1,396)	1848.9	100.0	(282) 9,149.9
	자녀 동거	34.7	100.0	(2,038)	3344.5	100.0	(704) 9,663.2
	기타	32.7	100.0	(220)	2545.8	100.0	(72) 7,782.4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19.4	100.0	(321)	1413.7	100.0	(62) 7,292.9
	중학교	19.1	100.0	(549)	1488.6	100.0	(104) 7,814.6
	고등학교	28.2	100.0	(2,410)	2395.7	100.0	(678) 8,509.0
	대학 이상	37.3	100.0	(726)	4366.0	100.0	(271) 11,711.6
현재 여부***	취업 중	30.5	100.0	(3,101)	2601.7	100.0	(942) 8,560.6
	미취업	19.2	100.0	(905)	2373.6	100.0	(174) 12,371.2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8.5	100.0	(1,378)	1150.1	100.0	(253) 6,261.1
	300만~500만 원 미만	30.2	100.0	(1,339)	2632.3	100.0	(403) 8,738.1
	500만 원 이상	35.6	100.0	(1,283)	3974.5	100.0	(457) 11,157.4

주: 1) 부채가 있는 1118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 p < 0.05, ** p < 0.01, *** p < 0.001: 부채 규모 전체 기준

부채를 지게 된 주된 이유는 ‘거주 주택 마련’이 35.0%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사업자금 마련’(26.8%), ‘거주 주택 이외의 부동산 마련’(8.9%), ‘생활비 마련’(7.8%), ‘전·월세 보증금 마련’(7.1%), ‘교육비 마련’(5.1%) 등이다. 특히 지역,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부채를 지게 된 주된 이유가 다르다.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신중년은 ‘거주 주택’이나 ‘거주 주택 이외의 부동산 마련’을 위해서,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서와 같이 주거 및 부동산 관련 이유에서 높은 응답률을, 읍면부 지역에 거주하는 신중년은 ‘사업자금 마련’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성별의 경우 남성은 상대적으로 ‘사업자금 마련’, ‘교육비 마련’이라는 이유가 많은 편이며, 여성은 ‘거주 주택’이나 ‘거주 주택 이외의 부동산 마련’이라는 이유가 많다. 연령을 살펴보면, 연령대가 낮은 50~54세는 ‘교육비 마련’, 연령대가 높은 65~69세는 ‘사업자금 마련’, ‘생활비 마련’으로 부채를 진 이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의 경우 유배우자는 ‘거주 주택 마련’, 무배우자는 ‘생활비 마련’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가구 유형 중 1인 가구는 ‘생활비 마련’, ‘전·월세 보증금 마련’, 자녀 동거 가구는 ‘거주 주택 마련’에서 상대적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초등학교 이하, 중학교)에는 ‘생활비 마련’, 교육 수준이 높은 경우(고등학교, 대학 이상)에는 ‘거주 주택 마련’과 ‘교육비 마련’이라는 이유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현재 취업 중인 경우에는 ‘사업자금 마련’, 미취업인 경우에는 ‘거주 주택 이외의 부동산 마련’과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부채를 지게 되었다는 응답이 많다.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소득 수준이 낮은 300만 원 미만의 경우 ‘생활비 마련’, ‘전·월세 보증금 마련’이라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소득 수준이 높은 500만 원 이상의 경우 ‘거주 주택 마련’, ‘거주 주택 이외의 부동산 마련’이라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5-18〉 신중년의 부채를 진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이유								계 (명)
	거주 주택 마련	사업 자금 마련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마련	생활비 마련	전세/ 월세 보증금 마련	교육비 마련	기타		
전체	35.0	26.8	8.9	7.8	7.1	5.1	9.3	100.0	(1,118)
지역***	동부	37.1	23.2	9.4	8.8	7.6	4.7	9.2	100.0 (936)
	읍면부	24.4	44.9	6.2	3.0	4.3	7.4	9.8	100.0 (183)
성별***	남성	33.9	30.2	5.5	8.2	6.3	6.3	9.5	100.0 (573)
	여성	36.2	23.2	12.4	7.4	7.9	3.9	9.0	100.0 (546)
연령***	50~54세	37.4	26.3	8.1	7.7	6.6	8.4	5.5	100.0 (446)
	55~59세	36.1	25.6	10.5	6.4	6.6	4.6	10.3	100.0 (412)
	60~64세	33.7	25.5	6.2	7.2	10.6	0.2	16.5	100.0 (159)
	65~69세	22.4	35.8	10.1	14.9	5.6	0.8	10.4	100.0 (102)
결혼 상태***	유배우	36.4	26.8	9.2	6.5	6.8	5.5	8.7	100.0 (1,003)
	무배우	23.3	26.4	6.1	19.1	9.6	1.6	14.0	100.0 (115)
가구 유형***	1인	14.9	32.8	6.1	20.6	15.2	1.7	8.7	100.0 (57)
	부부	26.9	28.8	9.4	6.6	10.7	2.7	14.9	100.0 (282)
	자녀 동거	40.9	24.3	9.4	7.0	5.4	6.3	6.9	100.0 (708)
	기타	25.5	38.5	4.2	10.5	3.3	6.5	11.5	100.0 (72)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25.0	30.6	9.9	13.7	9.5	1.9	9.5	100.0 (62)
	중학교	23.3	36.8	7.0	14.8	5.9	1.9	10.3	100.0 (105)
	고등학교	34.8	27.4	8.7	7.9	6.2	5.5	9.4	100.0 (680)
	대학 이상	42.4	20.4	9.8	3.5	9.3	6.1	8.4	100.0 (271)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34.9	29.9	7.4	7.6	6.2	5.5	8.5	100.0 (945)
	미취업	35.7	9.5	17.1	9.1	11.7	3.4	13.7	100.0 (174)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21.3	28.6	6.1	14.6	9.3	2.6	17.7	100.0 (254)
	300만~500만 원 미만	38.4	26.9	8.0	8.5	5.9	6.5	5.9	100.0 (405)
	500만 원 이상	39.9	25.3	11.3	3.6	6.9	5.4	7.6	100.0 (457)

주: 1) 부채가 있는 1118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 $p < 0.05$, ** $p < 0.01$, *** $p < 0.001$

제 6 장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제1절 경제활동 실태 및 욕구

제2절 사회참여 실태 및 욕구

6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

제1절 경제활동 실태 및 욕구

1. 생애 주된 일자리 경험

신중년의 95.0%는 소득을 목적으로 일을 해 본 경험이 있으며, 성별, 연령, 가구 유형, 교육 수준에 따라 생애 근로활동 경험 여부의 차이가 확인된다(〈표 6-1〉 참조).

특히 남성 99.3%, 여성 90.9%가 생애 근로활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대부분의 남성은 근로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별 근로활동 경험을 살펴보면 50~54세가 96.7%로 가장 높은 반면 65~69세는 92.3%로 가장 낮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근로활동 경험 비율이 낮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

가구 유형별 차이는 크지 않지만, 자녀 동거 가구(96.1%)와 기타 가구(96.5%)는 다른 가구 유형(1인 가구 93.2%, 부부 가구 93.7%)에 비해 생애 주된 일자리 경험 비율이 높다. 교육 수준별로 살펴보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생애 근로활동을 경험한 비율이 높은데, 초등학교 이하 92.8%, 중학교 93.4%, 고등학교 95.4%, 대학 이상 96.2% 순이다.

생애 근로활동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신중년 3807명을 대상으로 가장 오랫동안 했던 일, 즉 생애 주된 일자리 유형을 살펴보았다(〈표 6-2〉 참조). 그 결과, 서비스 종사자가 25.8%로 가장 많고, 그다음 판매 종사자(22.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15.2%), 사무 종사자(13.2%), 단

순노무 종사자(5.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4.7%), 농림어업 숙련종사자(4.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4.5%), 관리자(3.9%), 군인(0.1%) 순이다. 즉 전문가 및 관리자 등 고위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은 낮은 반면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의 비율은 높다.

〈표 6-1〉 신중년의 생애 근로활동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생애 근로활동 경험 여부		계 (명)
		예	아니요	
전체		95.0	5.0	100.0 (4,006)
지역	동부	94.8	5.2	100.0 (3,211)
	읍면부	96.1	3.9	100.0 (795)
성별***	남성	99.3	0.7	100.0 (1,985)
	여성	90.9	9.1	100.0 (2,021)
연령***	50~54세	96.7	3.3	100.0 (1,173)
	55~59세	95.9	4.1	100.0 (1,371)
	60~64세	93.3	6.7	100.0 (793)
	65~69세	92.3	7.7	100.0 (669)
결혼 상태	유배우	95.3	4.7	100.0 (3,461)
	무배우	93.6	6.4	100.0 (545)
가구 유형**	1인	93.2	6.8	100.0 (353)
	부부	93.7	6.3	100.0 (1,396)
	자녀 동거	96.1	3.9	100.0 (2,038)
	기타	96.5	3.5	100.0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92.8	7.2	100.0 (321)
	중학교	93.4	6.6	100.0 (549)
	고등학교	95.4	4.6	100.0 (2,410)
	대학 이상	96.2	3.8	100.0 (726)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94.0	6.0	100.0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95.1	4.9	100.0 (1,339)
	500만 원 이상	96.1	3.9	100.0 (1,28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6-2〉 신중년의 생애 주된 일자리(가장 오래 했던 일) 유형

(단위: %, 명)

구분		일자리 유형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사무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장차·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전체	25.8	22.2	15.2	13.2	5.8	4.7
지역***	동부	26.6	22.3	15.6	14.1	5.8	4.9
	읍면부	22.9	21.7	13.7	9.6	6.2	4.0
성별***	남성	16.3	18.0	23.5	15.0	4.6	7.0
	여성	36.1	26.6	6.3	11.2	7.2	2.3
연령***	50~54세	26.7	23.0	13.4	16.7	3.8	4.9
	55~59세	27.2	22.1	15.9	13.7	4.9	3.6
	60~64세	23.5	23.6	16.1	10.5	6.8	5.8
	65~69세	24.2	19.0	16.1	8.8	10.6	5.5
결혼 상태***	유배우	25.3	23.1	15.0	14.1	4.5	4.8
	무배우	29.2	16.3	17.0	7.3	14.7	4.5
가구 유형***	1인	26.3	18.8	15.9	8.3	15.5	4.7
	부부	25.7	21.1	16.6	12.9	5.7	5.1
	자녀 동거	26.4	23.6	14.1	14.5	4.2	4.6
	기타	21.0	21.5	16.7	10.4	7.0	3.3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20.4	18.5	17.0	1.5	17.3	3.8
	중학교	26.8	17.9	20.5	4.1	12.2	6.5
	고등학교	28.8	25.6	16.1	11.6	4.3	5.3
	대학 이상	17.7	15.6	7.7	29.9	1.3	1.8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25.5	19.1	18.4	9.1	10.7	5.3
	300만~500만 원 미만	27.8	24.6	14.6	12.4	4.1	4.7
	500만 원 이상	24.2	22.8	12.6	18.1	2.6	4.2

주: 1) 생애 주된 일자리 경험이 있는 3807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6-2〉 신중년의 생애 주된 일자리(가장 오래 했던 일) 유형(계속)

(단위: %, 명)

구분	일자리 유형				계 (명)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관리자	군인		
전체	4.5	4.5	3.9	0.1	100.0	(3,807)
지역***	동부	1.3	5.1	4.4	0.1	100.0 (3,043)
	읍면부	17.4	2.3	1.8	0.4	100.0 (764)
성별***	남성	4.6	4.5	6.1	0.3	100.0 (1,971)
	여성	4.4	4.4	1.4	0.0	100.0 (1,836)
연령***	50~54세	2.8	5.3	3.4	0.1	100.0 (1,135)
	55~59세	3.2	4.3	5.0	0.2	100.0 (1,314)
	60~64세	5.8	4.5	3.3	0.2	100.0 (741)
	65~69세	9.1	3.5	3.0	0.1	100.0 (618)
결혼 상태***	유배우	4.4	4.7	4.1	0.2	100.0 (3,297)
	무배우	5.5	3.0	2.5	0.0	100.0 (510)
가구 유형***	1인	5.4	2.4	2.7	0.0	100.0 (328)
	부부	6.9	3.5	2.5	0.2	100.0 (1,308)
	자녀 동거	2.0	5.6	4.8	0.1	100.0 (1,958)
	기타	11.7	3.4	4.8	0.2	100.0 (212)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18.4	1.6	1.5	0.0	100.0 (298)
	중학교	9.0	1.5	1.5	0.0	100.0 (512)
	고등학교	2.7	2.5	2.9	0.1	100.0 (2,299)
	대학 이상	1.2	14.5	9.9	0.3	100.0 (698)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7.5	2.5	1.8	0.1	100.0 (1,295)
	300만~500만 원 미만	3.9	4.0	3.5	0.3	100.0 (1,274)
	500만 원 이상	2.1	7.1	6.4	0.0	100.0 (1,232)

주: 1) 생애 주된 일자리 경험이 있는 3807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 p < 0.05, ** p < 0.01, *** p < 0.00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생애 주된 일자리 유형의 차이가 확인되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각각 36.1%, 26.6%)가 높은 반면 남성의 경우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23.5%)의 비율이 가장 높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50~54세 3.8%, 55~59세 4.9%, 60~64세 6.8%, 65~69세 10.6%). 교육 수준별로는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의 경우 사무 종사자(29.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4.5%), 관리자(9.9%)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초등학교 이하 저학력자의 경우 단순노무 종사자(17.3%)와 농림어업 숙련종사자(18.4%)의 비율이 높다. 가구소득별 특성 또한 교육 수준별 특성과 유사하다.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상대적으로 사무 종사자(18.1%)와 관리자(6.4%)의 비율이 높고,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단순노무 종사자(10.7%), 농림어업 숙련종사자(7.5%)의 비율이 높다.

지금까지 가장 오래 했던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상용직 임금근로자와 단독 자영업자의 비율이 각각 38.9%, 37.7%로 매우 높다(<표 6-3> 참조). 특히 지역,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생애 주된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의 차이가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 지역 거주자의 경우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41.0%로 가장 높은 반면, 읍면부 지역 거주자의 경우 단독 자영업자의 비율이 40.4%로 가장 높다. 성별에 따른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남성은 상용직 임금근로자(43.5%), 단독 자영업자(39.3%), 고용주(9.6%) 순으로 높고, 여성은 단독 자영업자(35.9%), 상용직 임금근로자(34.0%), 임시직 임금근로자(9.8%) 순으로 높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54세 연령층은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율(45.4%)이 가장 높은 반면 65~69세 연령층은 단독 자영업자의 비율(42.7%)이 가장 높다. 결혼 유무와 가구 유형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대학 이상

고학력자의 경우 단독 자영업자에 비해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2배 이상 높아서(각각 24.5%, 58.9%) 다른 학력수준과 큰 차이가 있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고용주의 비율이 높고,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임시직 및 일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다.

〈표 6-3〉 신중년의 생애 주된 일자리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구분		종사상 지위						(명)
		상용직 임금 근로자	임시직 임금 근로자	일용직 임금 근로자	고용주	단독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전체	38.9	6.4	3.9	8.4	37.7	4.7	(3,807)
지역***	동부	41.0	6.6	3.6	8.3	37.0	3.3	(3,043)
	읍면부	30.4	5.4	4.9	8.8	40.4	10.1	(764)
성별***	남성	43.5	3.2	3.9	9.6	39.3	0.5	(1,971)
	여성	34.0	9.8	3.9	7.2	35.9	9.2	(1,836)
연령***	50~54세	45.4	5.4	2.3	8.4	34.2	4.3	(1,135)
	55~59세	37.3	6.7	3.8	9.4	38.7	4.1	(1,314)
	60~64세	36.7	7.2	5.2	7.7	36.9	6.3	(741)
	65~69세	33.0	6.6	5.5	7.4	42.7	4.7	(618)
결혼 상태***	유배우	39.6	5.6	3.0	8.4	38.5	5.0	(3,297)
	무배우	34.5	11.9	9.7	8.6	32.3	2.9	(510)
가구 유형***	1인	32.8	11.7	11.5	7.3	34.1	2.5	(328)
	부부	38.2	6.8	3.9	7.3	37.2	6.5	(1,308)
	자녀 동거	40.6	5.3	2.7	8.9	38.7	3.8	(1,958)
	기타	36.5	6.2	3.4	12.6	36.1	5.1	(212)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23.4	10.0	12.5	5.8	36.5	11.8	(298)
	중학교	31.2	11.9	6.7	8.1	34.6	7.5	(512)
	고등학교	36.5	6.0	2.6	8.4	42.5	3.9	(2,299)
	대학 이상	58.9	2.2	2.3	10.0	24.5	2.1	(698)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34.5	9.7	7.0	6.6	36.6	5.7	(1,295)
	300만~500만 원 미만	40.1	5.8	3.1	7.6	39.0	4.4	(1,274)
	500만 원 이상	42.3	3.5	1.5	11.3	37.4	4.0	(1,232)

주: 1) 생애 주된 일자리 경험이 있는 3807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 $p < 0.05$, ** $p < 0.01$, *** $p < 0.001$

신중년의 27.0%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30년 이상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10년 미만 단기 종사한 경우도 13.3%에 달한다(〈표 6-4〉 참조). 생애 주된 일자리 종사 기간은 지역,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확인된다.

30년 이상 기준으로 살펴보면, 동부 지역 거주자는 24.2%로 읍면부 지역 거주자 38.1%에 비해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종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지역과 유사하게 성별의 경우도 남성(36.5%)에 비해 여성(16.8%)의 종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3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의 비율이 높고 10년 미만 단기 종사한 비율이 낮다(65~69세 기준 각각 49.6%, 6.7%). 결혼 상태와 가구 유형별 생애 주된 일자리 종사 기간은 다른 특성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교육 수준별 및 가구소득별 종사 기간을 살펴보면,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30년 이상 장기 종사한 비율이 높다.

〈표 6-5〉에 의하면 신중년의 63.0%는 가장 오랫동안 종사했던 일자리에서 현재도 일을 하고 있다.¹²⁾ 생애 주된 일자리에 현재도 종사하고 있는 신중년은 지역,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읍면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70.1%), 남성인 경우(65.1%), 연령대가 낮을수록(50~54세 71.7%), 배우자가 있는 경우(64.8%), 가구 유형이 자녀 동거 가구인 경우(68.4%), 교육 수준이 고등학교 이상인 경우(고등학교 65.8%, 대학 이상 61.8%), 가구소득이 높을수록(500만 원 이상 73.8%) 상대적으로 생애 가장 오래 했던 주된 일자리를 현재까지 유지하는 비율이 높다.

12) 신중년 전체 응답자 4006명 기준 59.9%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음.

〈표 6-4〉 신중년의 생애 주된 일자리 종사 기간

(단위: %, 명)

구분		종사 기간 분포				계 (명)
		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년 이상	
	전체	13.3	28.2	31.4	27.0	100.0 (3,807)
지역***	동부	14.3	29.7	31.7	24.2	100.0 (3,043)
	읍면부	9.3	22.3	30.3	38.1	100.0 (764)
성별***	남성	3.6	21.4	38.5	36.5	100.0 (1,971)
	여성	23.7	35.6	23.8	16.8	100.0 (1,836)
연령***	50~54세	15.3	37.7	35.7	11.2	100.0 (1,135)
	55~59세	15.3	27.4	33.1	24.2	100.0 (1,314)
	60~64세	12.3	22.1	28.3	37.3	100.0 (741)
	65~69세	6.7	20.0	23.8	49.6	100.0 (618)
결혼 상태**	유배우	13.0	27.4	31.9	27.7	100.0 (3,297)
	무배우	15.5	33.4	28.8	22.3	100.0 (510)
가구 유형***	1인	13.0	35.4	29.0	22.6	100.0 (328)
	부부	13.4	23.0	28.7	34.9	100.0 (1,308)
	자녀 동거	13.1	31.1	33.5	22.3	100.0 (1,958)
	기타	15.7	22.7	33.4	28.1	100.0 (212)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11.3	22.4	22.5	43.8	100.0 (298)
	중학교	15.0	20.8	23.2	40.9	100.0 (512)
	고등학교	13.4	30.9	32.7	23.0	100.0 (2,299)
	대학 이상	12.6	27.4	37.2	22.8	100.0 (698)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3.9	27.7	27.8	30.6	100.0 (1,295)
	300만~500만 원 미만	14.0	30.3	29.7	26.0	100.0 (1,274)
	500만 원 이상	12.2	26.4	37.2	24.2	100.0 (1,232)

주: 1) 생애 주된 일자리 경험이 있는 3807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6-5〉 생애 주된 일자리 현재 종사 여부 및 그만둔 당시 연령

(단위: %, 세, 명)

구분		현재 종사 여부 ¹⁾	그만둔 당시 연령 ²⁾						(명)
			평균	분포					
				45세 미만	45~50세 미만	50~55세 미만	55~60세 미만	60세 이상	
전체		63.0	50.5	19.7	17.2	23.6	22.0	17.6	(1,409)
지역 ***	동부	61.2	50.2	20.8	17.8	23.0	21.6	16.8	(1,180)
	읍면부	70.1	52.2	14.1	14.1	26.3	23.9	21.6	(229)
성별 ***	남성	65.1	52.8	13.3	16.2	23.7	25.0	21.8	(688)
	여성	60.8	48.3	25.7	18.2	23.4	19.1	13.5	(721)
연령 ***	50~54세	71.7	43.1	43.0	33.2	23.8	0.0	0.0	(321)
	55~59세	65.5	48.8	19.2	21.7	30.9	28.2	0.0	(453)
	60~64세	57.1	53.3	12.1	7.4	20.8	32.9	26.8	(318)
	65~69세	48.8	57.7	4.3	4.3	15.7	24.4	51.2	(316)
결혼 상태 ***	유배우	64.8	50.3	20.3	16.8	23.2	23.2	16.5	(1,160)
	무배우	51.3	51.3	16.6	19.3	25.3	16.5	22.4	(248)
가구 유형 ***	1인	48.6	51.3	17.7	21.1	21.4	15.3	24.5	(169)
	부부	58.9	52.2	14.9	11.4	24.3	25.6	23.8	(537)
	자녀 동거	68.4	48.9	24.4	20.6	24.2	19.3	11.6	(619)
	기타	60.5	49.5	19.7	21.9	18.8	32.1	7.5	(84)
교육 수준 ***	초등학교 이하	52.1	53.5	13.9	10.9	18.9	21.6	34.7	(143)
	중학교	58.7	54.8	8.1	8.3	24.2	26.3	33.1	(212)
	고등학교	65.8	49.2	23.1	18.7	25.6	19.4	13.2	(787)
	대학 이상	61.8	49.2	21.7	23.4	19.7	26.3	8.9	(267)
가구 소득 ***	300만 원 미만	50.7	52.9	13.3	12.0	25.4	24.0	25.3	(638)
	300만~500만 원 미만	65.0	49.2	23.0	21.0	24.0	19.8	12.1	(446)
	500만 원 이상	73.8	47.6	27.8	22.5	19.4	21.1	9.2	(323)

주: 1) 생애 주된 일자리 경험이 있는 3807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생애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1409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3) * $p < 0.05$, ** $p < 0.01$, *** $p < 0.001$: 현재 종사 여부 기준

가장 오랫동안 종사했던 일을 그만둘 당시 연령은 평균 50.5세이며, 지역, 성별, 연령, 가구 유형, 교육 수준, 가구소득에 따라 평균 연령의 차이

가 있다. 특히 성별과 연령 집단별 차이를 주목할 만하다. 성별의 경우, 남성 52.8세, 여성 48.3세로 남성이 상대적으로 늦은 시점까지 생애 주된 일자리에 머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늦은 시점까지 생애 주된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근로 활동을 오래한 고령 근로자이므로 평균 종사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50~54세 43.1세, 65~69세 57.7세). 그럼에도 연령대가 낮을수록 45세 미만 시점에 일자리를 그만둔 사람의 비율이 높은 특성이 확인된다(50~54세 43.0%, 65~69세 4.3%).

〈표 6-6〉과 같이 신중년이 생애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는 ‘일거리가 없어서(사업 부진, 조업 중단 포함)’가 21.9%로 가장 높고, 그다음 ‘건강이 좋지 않아서’(17.7%), ‘정년퇴직’(12.2%), ‘일을 그만둘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해서’(11.2%),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10.4%), ‘가족을 돌보기 위해’(10.2%), ‘직장의 휴업, 폐업’(7.5%) 순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또는 여가를 즐기기 위해’ 일자리를 그만둔 비율은 2.1%에 불과하다.

생애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는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확인된다. 특히 성별과 가구 유형, 교육 수준, 가구소득에서의 응답 차이가 두드러진다. 성별에 따른 생애 주된 일자리의 중단 이유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일거리가 없어서(사업 부진, 조업 중단 포함)’ 24.5%, ‘정년퇴직’ 21.5%,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 15.9%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 ‘건강이 좋지 않아서’ 20.9%, ‘일거리가 없어서(사업 부진, 조업 중단 포함)’ 19.5%,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18.5% 순으로 높다. 또한 배우자가 없는 경우(35.3%), 가구 유형이 1인 가구인 경우(36.1%), 교육 수준이 낮

을수록(초등학교 이하 37.6%), 가구소득이 낮을수록(300만 원 미만 26.0%) '건강이 좋지 않아서' 생애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은 특성이 있다.

〈표 6-6〉 생애 주된 일자리 그만둔 이유

(단위: %, 명)

구분		이유				
		일거리가 없어서 (사업 부진, 조업 중단)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정년 퇴직	일을 그만둘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전체	21.9	17.7	12.2	11.2	10.4
지역	동부	21.9	17.2	12.2	10.9	10.6
	읍면부	22.0	19.8	12.2	12.9	9.1
성별***	남성	24.5	14.3	21.5	7.7	15.9
	여성	19.5	20.9	3.3	14.5	5.1
연령***	50~54세	27.0	16.1	0.3	7.9	10.6
	55~59세	25.9	18.5	4.8	11.0	11.8
	60~64세	17.6	15.0	19.0	11.2	12.6
	65~69세	15.6	20.8	27.9	14.9	5.8
결혼 상태***	유배우	21.7	13.9	13.4	11.8	11.2
	무배우	23.0	35.3	6.4	8.3	6.3
가구 유형***	1인	25.1	36.1	7.0	8.4	6.6
	부부	17.4	14.4	18.8	11.5	12.2
	자녀 동거	25.9	15.0	8.2	12.1	8.8
	기타	15.3	21.0	9.4	8.7	17.2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20.8	37.6	6.4	11.4	4.3
	중학교	21.8	26.2	14.8	14.8	6.4
	고등학교	22.7	15.4	11.2	10.5	9.5
	대학 이상	20.5	6.9	16.0	10.3	19.2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21.2	26.0	13.7	10.5	9.0
	300만~500만 원 미만	23.8	11.8	10.4	13.4	11.8
	500만 원 이상	20.9	9.5	11.7	9.6	10.6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6-6〉 생애 주된 일자리 그만둔 이유(계속)

(단위: %, 명)

구분		이유				계 (명)
		가족을 돌보기 위해	직장의 휴업, 폐업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서, 여가를 즐기기 위해	기타	
	전체	10.2	7.5	2.1	6.8	100.0 (1,409)
지역	동부	10.6	7.6	2.1	7.0	100.0 (1,180)
	읍면부	8.4	7.2	2.2	6.2	100.0 (229)
성별***	남성	1.5	9.7	0.7	4.1	100.0 (688)
	여성	18.5	5.3	3.5	9.4	100.0 (721)
연령***	50~54세	19.2	8.1	2.7	8.0	100.0 (321)
	55~59세	8.5	8.5	1.9	9.1	100.0 (453)
	60~64세	8.3	8.0	2.0	6.4	100.0 (318)
	65~69세	5.4	4.9	1.9	2.9	100.0 (316)
결혼 상태***	유배우	10.6	7.9	2.1	7.3	100.0 (1,160)
	무배우	8.5	5.4	2.1	4.6	100.0 (248)
가구 유형***	1인	3.2	7.0	3.1	3.3	100.0 (169)
	부부	8.4	7.1	2.7	7.4	100.0 (537)
	자녀 동거	13.0	7.9	1.6	7.5	100.0 (619)
	기타	15.3	7.8	0.0	5.4	100.0 (84)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10.9	4.9	2.8	0.9	100.0 (143)
	중학교	5.7	4.3	0.4	5.6	100.0 (212)
	고등학교	10.4	10.0	2.1	8.2	100.0 (787)
	대학 이상	12.7	3.9	3.3	7.2	100.0 (267)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6.0	6.3	1.8	5.6	100.0 (638)
	300만~500만 원 미만	13.4	8.2	1.3	6.0	100.0 (446)
	500만 원 이상	14.3	9.0	3.9	10.6	100.0 (32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가장 오랫동안 종사했던 일을 그만두기 전과 후를 비교하여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와 가족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조사하였다(〈표 6-7〉~〈표 6-10〉 참조). 먼저, 배우자와의 관계 변화에 대한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변화 없다’ 72.9%, ‘좋아졌다’ 15.0%, ‘나빠졌다’ 10.3%, ‘매우 좋아졌다’ 1.4%로 전체적으로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아지는 경험을 한 사람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생애 주된 일자리 중단 이후 배우자와의 관계 변화는 성별,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특히 성별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남성과 여성의 응답 비율이 상반된다. 남성의 경우 ‘나빠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16.9%(나빠졌다 16.3%, 매우 나빠졌다 0.6%)로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 13.0%(좋아졌다 12.0%, 매우 좋아졌다 1.0%)보다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19.7%(좋아졌다 17.8%, 매우 좋아졌다 1.9%)로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 4.5%(나빠졌다 4.4%, 매우 나빠졌다 0.1%)보다 더 높게 나타나 남성과 여성의 인식에 큰 차이를 보인다.

〈표 6-8〉의 가장 오랫동안 종사했던 일을 그만두기 전과 후 자녀와의 관계 변화에 대한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변화 없다’ 78.6%, ‘좋아졌다’ 13.2%, ‘나빠졌다’ 4.9%, ‘매우 좋아졌다’ 2.7%, ‘매우 나빠졌다’ 0.7%로 전체적으로 변화가 없거나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지는 경험을 한 사람들의 비율이 악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성의 경우 관계가 좋아지는 경험을 한 사람의 비율과 악화되는 경험을 한 사람의 비율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관계가 좋아지는 경험을 한 사람이 20.4%(악화되는 경험을 한 사람의 비율 1.5%)로 생애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후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가구 유형, 결혼

상태, 가구소득, 교육 수준에 따라 생애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후 자녀와의 관계 변화에 차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16.6%), 가구 유형이 자녀 동거 가구인 경우(19.1%),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500만 원 이상 20.4%) 생애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후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교육 수준과는 U자 관계로, 생애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후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응답 비율이 초등학교 이하 20.4%, 중학교 12.7%, 고등학교 14.0%, 대학 이상 21.0%이다.

〈표 6-7〉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변화: 배우자와의 관계

(단위: %, 명)

구분		변화					계 (명)
		매우 나빠졌다	나빠졌다	변화없다	좋아졌다	매우 좋아졌다	
전체		0.4	10.3	72.9	15.0	1.4	100.0 (1,160)
지역	동부	0.4	10.7	72.7	14.8	1.5	100.0 (972)
	읍면부	0.5	8.4	74.1	15.9	1.2	100.0 (188)
성별***	남성	0.6	16.3	70.0	12.0	1.0	100.0 (574)
	여성	0.1	4.4	75.8	17.8	1.9	100.0 (586)
연령	50~54세	0.5	12.1	69.1	16.5	1.8	100.0 (267)
	55~59세	0.2	11.7	72.7	13.8	1.7	100.0 (390)
	60~64세	0.6	10.2	72.3	16.4	0.4	100.0 (274)
	65~69세	0.4	6.0	78.5	13.4	1.7	100.0 (229)
가구 유형	부부	0.4	9.7	74.9	14.2	0.8	100.0 (537)
	자녀 동거	0.4	10.6	72.1	14.8	2.1	100.0 (571)
	기타	0.0	12.5	62.4	25.1	0.0	100.0 (53)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1.1	8.5	71.3	17.4	1.7	100.0 (89)
	중학교	0.9	12.0	73.9	12.5	0.7	100.0 (160)
	고등학교	0.3	9.5	75.6	13.6	1.0	100.0 (670)
	대학 이상	0.0	12.1	65.4	19.4	3.1	100.0 (241)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0.5	11.7	73.8	14.0	0.1	100.0 (440)
	300만~500만 원 미만	0.6	11.4	72.6	13.4	2.1	100.0 (405)
	500만 원 이상	0.0	7.0	72.1	18.4	2.5	100.0 (31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6-8〉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변화: 자녀와의 관계

(단위: %, 명)

구분		변화					계 (명)
		매우 나빠졌다	나빠졌다	변화없다	좋아졌다	매우 좋아졌다	
전체		0.7	4.9	78.6	13.2	2.7	100.0 (1,288)
지역	동부	0.8	5.1	78.5	12.9	2.9	100.0 (1,075)
	읍면부	0.2	3.9	79.4	14.7	1.7	100.0 (212)
성별 ***	남성	1.1	9.1	79.1	8.8	1.9	100.0 (605)
	여성	0.3	1.2	78.2	17.0	3.4	100.0 (682)
연령	50~54세	0.9	4.1	73.7	17.6	3.8	100.0 (286)
	55~59세	0.1	6.0	78.6	12.1	3.1	100.0 (398)
	60~64세	0.7	5.2	81.3	10.6	2.2	100.0 (300)
	65~69세	1.2	3.8	80.7	13.0	1.4	100.0 (303)
결혼 상태 ***	유배우	0.3	4.4	78.8	13.7	2.9	100.0 (1,123)
	무배우	3.4	8.0	77.6	9.6	1.3	100.0 (165)
가구 유형 ***	1인	3.8	11.1	76.9	7.3	0.9	100.0 (108)
	부부	0.1	4.5	81.7	12.3	1.4	100.0 (500)
	자녀 동거	0.6	3.9	76.4	15.5	3.6	100.0 (619)
	기타	0.0	7.4	78.9	7.2	6.5	100.0 (61)
교육 수준 **	초등학교 이하	0.8	4.3	74.5	18.9	1.5	100.0 (127)
	중학교	0.5	6.7	80.1	10.0	2.7	100.0 (196)
	고등학교	0.3	5.1	80.5	12.1	1.9	100.0 (719)
	대학 이상	1.9	3.1	74.0	15.7	5.3	100.0 (247)
가구 소득 ***	300만 원 미만	1.2	6.3	79.0	12.5	1.0	100.0 (538)
	300만~500만 원 미만	0.5	5.3	78.7	12.3	3.2	100.0 (428)
	500만 원 이상	0.0	1.9	77.7	15.5	4.9	100.0 (320)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6-9〉의 가장 오랫동안 종사했던 일을 그만두기 전과 후 부모와의 관계 변화에 대한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변화 없다’ 85.5%, ‘좋아졌다’ 8.7%, ‘나빠졌다’ 3.4%, ‘매우 좋아졌다’ 2.0%, ‘매우 나빠졌다’ 0.4%로 전체적으로 변화가 없거나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지는 경험을 한 사람들의 비율이 악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성별, 결혼 상태별, 가구 유형별, 가구소득별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여성인 경우(8.1%포인트), 배우자가 없는 경우(7.6%포인트), 가구 유형이 기타 가구인 경우(20.5%포인트)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가장 오랫동안 종사했던 일을 그만두기 전과 후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변화 없다’ 68.9%, ‘좋아졌다’ 15.8%, ‘나빠졌다’ 12.0%, ‘매우 나빠졌다’ 2.1% ‘매우 좋아졌다’ 1.2%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다(〈표 6-10〉 참조). 즉 신중년은 생애 주된 일자리를 그만두기 전과 후 가족과의 관계 개선에 비해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의 개선 수준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성별,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가구소득에 따라 생애 주된 일자리를 그만두기 전과 후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의 변화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확인된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나빠졌다(20.0%)’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 ‘좋아졌다(21.2%)’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결혼 상태별 특성을 살펴보면 유배우자의 경우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10.7%)에 비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18.3%)이 높은 반면 무배우자의 경우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29.9%)이 높다. 그리고 가구 유형이 1인 가구인 경우(33.9%), 가구소득 수준이 낮을수록(300만 원 미만 19.6%)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6-9〉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변화: 부모와의 관계

(단위: %, 명)

구분	변화					계 (명)	
	매우 나빠졌다	나빠졌다	변화없다	좋아졌다	매우 좋아졌다		
전체	0.4	3.4	85.5	8.7	2.0	100.0	(531)
지역	동부	0.5	3.7	85.4	8.7	1.8	100.0 (468)
	읍면부	0.0	1.4	86.4	8.5	3.7	100.0 (63)
성별 ***	남성	0.9	5.4	87.5	5.3	0.8	100.0 (235)
	여성	0.0	1.9	83.9	11.3	2.9	100.0 (296)
연령	50~54세	1.1	4.4	87.5	5.8	1.2	100.0 (188)
	55~59세	0.0	2.7	81.5	12.6	3.2	100.0 (228)
	60~64세	0.0	4.7	92.1	3.2	0.0	100.0 (80)
	65~69세	0.0	0.0	86.1	11.0	2.9	100.0 (35)
결혼 상태 ***	유배우	0.3	2.1	88.0	7.6	2.0	100.0 (458)
	무배우	1.1	11.5	70.2	15.2	2.0	100.0 (73)
가구 유형 ***	1인	2.0	11.6	84.0	1.3	1.1	100.0 (41)
	부부	0.0	2.5	84.9	11.2	1.4	100.0 (138)
	자녀 동거	0.5	2.6	88.8	5.4	2.7	100.0 (287)
	기타	0.0	3.8	73.4	22.1	0.8	100.0 (66)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0.0	5.2	84.1	6.4	4.2	100.0 (24)
	중학교	0.0	1.2	88.1	10.2	0.6	100.0 (36)
	고등학교	0.7	4.1	88.0	6.5	0.7	100.0 (312)
	대학 이상	0.0	2.3	80.3	12.9	4.5	100.0 (159)
가구 소득 *	300만 원 미만	0.5	6.0	81.7	10.6	1.2	100.0 (170)
	300만~500만 원 미만	0.7	4.2	86.5	7.9	0.7	100.0 (190)
	500만 원 이상	0.0	0.0	88.1	7.6	4.3	100.0 (170)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6-10〉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변화: 전반적인 생활만족

(단위: %, 명)

구분		변화					계 (명)
		매우 나빠졌다	나빠졌다	변화없다	좋아졌다	매우 좋아졌다	
	전체	2.1	12.0	68.9	15.8	1.2	100.0 (1,409)
지역	동부	2.2	12.7	68.4	15.5	1.3	100.0 (1,180)
	읍면부	1.6	8.7	71.8	17.1	0.9	100.0 (229)
성별 ***	남성	3.3	16.7	67.6	11.6	0.9	100.0 (688)
	여성	0.9	7.6	70.2	19.7	1.5	100.0 (721)
연령	50~54세	2.6	12.7	63.4	19.4	1.9	100.0 (321)
	55~59세	1.9	13.8	68.6	14.9	0.7	100.0 (453)
	60~64세	2.3	10.8	73.2	12.6	1.0	100.0 (318)
	65~69세	1.5	10.0	70.7	16.4	1.3	100.0 (316)
결혼 상태 ***	유배우	0.9	9.8	71.1	16.9	1.4	100.0 (1,160)
	무배우	7.6	22.3	59.0	10.7	0.4	100.0 (248)
가구 유형 ***	1인	9.5	24.4	58.3	7.1	0.7	100.0 (169)
	부부	1.1	11.0	71.7	15.4	0.8	100.0 (537)
	자녀 동거	1.0	9.4	70.6	17.5	1.5	100.0 (619)
	기타	1.6	13.2	60.2	22.6	2.3	100.0 (84)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3.5	16.7	67.6	10.8	1.3	100.0 (143)
	중학교	1.3	16.0	66.5	14.8	1.4	100.0 (212)
	고등학교	1.9	10.8	71.1	15.4	0.8	100.0 (787)
	대학 이상	2.5	9.9	65.2	20.4	2.0	100.0 (267)
가구 소득 ***	300만 원 미만	3.7	15.9	66.8	13.2	0.4	100.0 (638)
	300만~500만 원 미만	0.9	11.3	69.6	16.3	1.9	100.0 (446)
	500만 원 이상	0.4	5.3	72.2	20.3	1.8	100.0 (32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2. 현재 일자리 및 인식

〈표 6-11〉은 생애 주된 일자리 경험이 있는 신중년 3807명을 대상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한 결과이다. 신중년의 81.4%는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며, 18.5%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 즉 신중년 10명 중 약 8명은 아직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신중년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신중년의 66.4%는 생애 가장 오랫동안 했던 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일을 하고 있으며, 15.0%는 생애 주된 일자리와 다른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다.¹³⁾

현재 근로활동 여부는 지역,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확인된다. 읍면부 지역에 거주하거나(6.6%포인트), 남성인 경우(13.4%포인트), 연령대가 낮을수록(16.9%포인트: 50~54세 87.9%, 65~69세 71.0%), 배우자가 있는 경우(13.0%포인트), 가구 유형이 자녀 동거 가구인 경우(14.4%포인트: 자녀 동거 가구 85.0%, 1인 가구 70.6%),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12.8%포인트: 대학 이상 83.4%, 초등학교 이하 70.6%), 가구소득이 높을수록(17.2%포인트: 500만 원 이상 88.6%, 300만 원 미만 71.4%)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

〈표 6-12〉에 제시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3101명의 신중년을 대상으로 현재 일자리 유형을 살펴보면, 서비스 종사자(29.5%), 판매 종사자(24.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13.2%), 단순노무 종사자(8.3%), 사무 종사자(7.9%), 농림어업 숙련종사자(5.5%),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4.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3.6%), 관리자(3.4%)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13) 이 조사에 응답한 신중년 4006명 전체를 기준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비율은 77.4%이며, 생애 가장 오랫동안 했던 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일을 하고 있는 비율은 63.1%임.

〈표 6-11〉 신중년의 현재 근로활동 여부

(단위: %, 명)

구분		현재 근로활동 여부			계 (명)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며, 가장 오랫동안 했던 일과 다른 일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며, 가장 오랫동안 했던 동일/유사한 일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음	
	전체	15.0	66.4	18.5	100.0 (3,807)
지역***	동부	15.2	65.0	19.9	100.0 (3,043)
	읍면부	14.5	72.3	13.2	100.0 (764)
성별***	남성	18.7	69.2	12.1	100.0 (1,971)
	여성	11.0	63.5	25.5	100.0 (1,836)
연령***	50~54세	12.8	75.1	12.1	100.0 (1,135)
	55~59세	13.7	68.7	17.6	100.0 (1,314)
	60~64세	17.3	61.2	21.5	100.0 (741)
	65~69세	19.1	51.9	28.9	100.0 (618)
결혼 상태***	유배우	15.1	68.1	16.8	100.0 (3,297)
	무배우	14.6	55.6	29.8	100.0 (510)
가구 유형***	1인	16.9	53.7	29.4	100.0 (328)
	부부	18.3	61.5	20.2	100.0 (1,308)
	자녀 동거	12.8	72.2	15.0	100.0 (1,958)
	기타	13.0	63.3	23.6	100.0 (212)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12.9	57.7	29.4	100.0 (298)
	중학교	14.9	61.5	23.7	100.0 (512)
	고등학교	14.2	69.2	16.6	100.0 (2,299)
	대학 이상	18.9	64.5	16.6	100.0 (698)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7.4	54.0	28.6	100.0 (1,295)
	300만~500만 원 미만	15.1	69.6	15.3	100.0 (1,274)
	500만 원 이상	12.4	76.2	11.4	100.0 (1,232)

주: 1) 생애 근로 경험이 있는 3807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6-12〉 신중년의 현재 일자리 유형

(단위: %, 명)

구분		일자리 유형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사무 종사자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전체	29.5	24.4	13.2	8.3	7.9	5.5
지역 ***	동부	30.5	24.5	14.0	8.6	8.6	1.4
	읍면부	25.9	24.0	10.1	7.2	5.3	20.8
성별 ***	남성	20.8	20.2	20.0	8.3	9.1	6.1
	여성	40.5	29.8	4.5	8.4	6.3	4.8
연령 ***	50~54세	30.0	25.3	12.6	4.2	12.6	3.0
	55~59세	32.0	23.6	14.4	5.9	9.3	4.3
	60~64세	26.5	26.3	12.5	12.5	2.0	8.1
	65~69세	26.2	22.1	12.3	18.0	1.5	11.0
결혼 상태 ***	유배우	29.2	25.2	13.0	7.3	8.2	5.6
	무배우	31.9	18.1	14.5	16.1	5.6	5.3
가구 유형 ***	1인	29.5	19.7	13.7	18.5	5.8	4.5
	부부	29.7	23.4	13.2	10.4	4.9	9.1
	자녀 동거	29.8	25.7	13.5	5.8	9.7	2.5
	기타	25.0	24.7	8.4	5.8	10.6	15.4
교육 수준 ***	초등학교 이하	19.9	19.1	12.9	21.0	0.5	20.1
	중학교	29.2	17.0	14.4	20.1	1.3	11.8
	고등학교	32.5	28.1	14.6	6.1	5.0	4.0
	대학 이상	23.4	19.0	7.6	3.2	24.5	1.2
가구 소득 ***	300만 원 미만	29.5	21.5	13.2	16.7	3.2	9.2
	300만~500만 원 미만	31.7	26.6	13.3	6.1	7.9	5.2
	500만 원 이상	27.4	24.5	13.0	3.2	11.9	2.8

주: 1) 현재 근로활동에 참여 중인 310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6-12〉 신중년의 현재 일자리 유형(계속)

(단위: %, 명)

구분		일자리 유형				계 (명)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관리자	군인	
	전체	4.2	3.6	3.4	0.0	100.0 (3,101)
지역 ***	동부	4.3	4.2	3.9	0.0	100.0 (2,438)
	읍면부	4.0	1.5	1.3	0.1	100.0 (664)
성별 ***	남성	6.7	3.8	5.0	0.0	100.0 (1,733)
	여성	1.1	3.5	1.2	0.0	100.0 (1,368)
연령 ***	50~54세	5.0	4.4	3.0	0.0	100.0 (998)
	55~59세	3.4	3.0	4.1	0.0	100.0 (1,083)
	60~64세	4.1	4.1	4.0	0.0	100.0 (582)
	65~69세	4.9	2.8	1.3	0.0	100.0 (439)
결혼 상태 ***	유배우	4.2	3.7	3.6	0.0	100.0 (2,743)
	무배우	4.1	2.7	1.8	0.0	100.0 (358)
가구 유형 ***	1인	5.2	2.0	1.2	0.0	100.0 (232)
	부부	4.0	2.7	2.5	0.0	100.0 (1,044)
	자녀 동거	4.4	4.5	4.0	0.0	100.0 (1,664)
	기타	2.2	2.4	5.2	0.3	100.0 (162)
교육 수준 ***	초등학교 이하	3.5	1.1	1.8	0.0	100.0 (210)
	중학교	4.1	0.7	1.5	0.0	100.0 (391)
	고등학교	4.9	2.2	2.7	0.0	100.0 (1,918)
	대학 이상	2.4	11.2	7.4	0.1	100.0 (582)
가구 소득 ***	300만 원 미만	3.9	1.7	1.0	0.0	100.0 (926)
	300만~500만 원 미만	4.2	2.4	2.6	0.0	100.0 (1,078)
	500만 원 이상	4.5	6.4	6.1	0.0	100.0 (1,092)

주: 1) 현재 근로활동에 참여 중인 310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 p < 0.05, ** p < 0.01, *** p < 0.00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지역,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먼저 동부 지역은 서비스 종사자(30.5%), 읍면부 지역은 농림어업 숙련종사자(20.8%)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성별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서비스 종사자의 비율이 40.5%로 다른 일자리 유형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남성의 경우 서비스 종사자(20.8%), 판매 종사자(20.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20.0%)의 비율이 다른 일자리 유형에 비해 높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65~69세 18.0%)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율이 높고, 그 외에 특성으로 1인 가구(18.5%), 무배우자(16.1%), 가구소득이 낮을수록(300만 원 미만 16.7%)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교육 수준별 특성을 살펴보면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초등학교 이하 21.0%)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관리자 및 전문가의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표 6-13〉은 신중년의 현재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이다. 신중년의 60.7%는 현재 비임금 근로자이며, 이 중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가 46.0%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는 지역,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다.

먼저 동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상용직 임금근로자(29.0%)의 비율이 높고, 읍면부 지역은 무급가족종사자(11.5%)의 비율이 높다. 성별에 따른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여성 신중년의 경우 임시직 임금근로자(10.5%)와 무급가족종사자(10.9%)로 근로하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표 6-13〉 신중년의 현재 일자리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구분		종사상 지위						계 (명)
		상용직 임금 근로자	임시직 임금 근로자	일용직 임금 근로자	고용주	단독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전체	27.0	8.1	4.2	9.5	46.0	5.2	100.0 (3,101)
지역***	동부	29.0	8.4	4.2	9.3	45.7	3.5	100.0 (2,438)
	읍면부	19.9	7.2	4.2	10.0	47.2	11.5	100.0 (664)
성별***	남성	31.3	6.2	4.1	10.6	47.1	0.8	100.0 (1,733)
	여성	21.7	10.5	4.2	8.1	44.6	10.9	100.0 (1,368)
연령***	50~54세	36.4	5.3	3.0	9.1	41.4	4.9	100.0 (998)
	55~59세	28.0	6.2	4.4	10.0	46.9	4.5	100.0 (1,083)
	60~64세	18.0	12.9	4.6	8.9	48.6	7.0	100.0 (582)
	65~69세	15.4	12.9	5.7	9.8	50.9	5.3	100.0 (439)
결혼 상태***	유배우	27.4	7.1	3.4	9.7	46.6	5.9	100.0 (2,743)
	무배우	24.5	16.1	9.9	7.4	41.8	0.4	100.0 (358)
가구 유형***	1인	23.1	16.6	11.7	5.8	42.8	0.0	100.0 (232)
	부부	23.0	9.6	4.7	8.6	46.7	7.4	100.0 (1,044)
	자녀 동거	30.5	6.0	3.0	10.1	45.9	4.4	100.0 (1,664)
	기타	22.5	7.8	1.9	13.6	47.4	6.8	100.0 (162)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12.2	14.3	9.7	8.0	43.2	12.5	100.0 (210)
	중학교	21.0	15.0	7.6	9.7	38.9	7.8	100.0 (391)
	고등학교	24.2	7.2	3.6	9.2	51.2	4.5	100.0 (1,918)
	대학 이상	45.7	4.1	1.9	10.7	34.5	3.2	100.0 (582)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9.1	13.0	8.1	6.9	47.1	5.7	100.0 (926)
	300만~500만 원 미만	28.1	7.7	3.5	8.7	46.7	5.3	100.0 (1,078)
	500만 원 이상	32.8	4.4	1.5	12.4	44.3	4.6	100.0 (1,092)

주: 1) 현재 근로활동에 참여 중인 310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 p < 0.05, ** p < 0.01, *** p < 0.001

연령대가 높을수록 단독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65~69세 50.9%, 50~54세 41.4%),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65~69세 15.4%, 50~54세 36.4%)이 있다.

교육 수준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면,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의 경우 상용직 임금근로자(45.7%)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저학력자의 경우 단독 자영업자, 임시직 임금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순으로 높다(초등학교 이하 기준 각각 43.2%, 14.3%, 12.5%).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은 신중년일수록 현재 상용직으로 임금근로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데, 300만 원 미만 19.1%, 300만~500만 원 미만 28.1%, 500만 원 이상 32.8%이다.

〈표 6-14〉에 제시된 신중년의 현재 일자리 종사 기간을 분석한 결과, 평균 18.4년이며 현업에 종사한 기간이 20년 이상으로 장기 근속한 신중년의 비율은 50.8%이다. 지역,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가구소득에 따라 현재 일자리 종사 기간의 차이가 있다.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신중년은 읍면부 지역에 거주하는 신중년에 비해 현업의 종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3년), 남성에 비해 여성(3.7년), 기타 가구에 비해 1인 가구(5.1년),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5.3년) 종사 기간이 짧은 것으로 확인된다. 결혼 상태와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다.

연령이 낮을수록 종사 기간이 짧은 편인데, 이는 연령에 따른 차이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며 신중년이 완전히 은퇴한 이후 종사 기간을 통해 비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달리 말해 연령이 낮은 신중년은 상대적으로 앞으로 근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더 긴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6-14〉 현재 일자리 종사 기간

(단위: %, 년, 명)

구분	종사 기간 분포					평균	계 (명)	
	2년 미만	2~5년 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년 이상			
전체	5.0	10.2	10.9	23.1	50.8	18.4	100.0	(3,101)
지역***								
동부	5.4	10.5	11.4	23.8	48.9	17.7	100.0	(2,438)
읍면부	3.7	9.2	9.1	20.4	57.6	20.7	100.0	(664)
성별***								
남성	4.3	10.7	8.9	18.4	57.8	20.0	100.0	(1,733)
여성	6.0	9.6	13.4	29.0	41.9	16.3	100.0	(1,368)
연령***								
50~54세	4.3	9.1	11.7	27.5	47.4	16.5	100.0	(998)
55~59세	4.3	9.2	12.4	22.7	51.3	18.2	100.0	(1,083)
60~64세	6.6	13.3	7.5	19.2	53.3	19.6	100.0	(582)
65~69세	6.3	11.0	9.8	19.2	53.6	21.5	100.0	(439)
결혼 상태***								
유배우	4.8	9.9	10.4	22.8	52.0	18.6	100.0	(2,743)
무배우	6.7	12.3	14.6	25.3	41.1	16.2	100.0	(358)
가구 유형***								
1인	7.1	12.9	14.5	25.2	40.3	15.7	100.0	(232)
부부	6.1	11.7	10.8	19.1	52.4	19.2	100.0	(1,044)
자녀 동거	4.4	8.9	10.3	25.8	50.7	18.0	100.0	(1,664)
기타	1.9	10.5	13.0	18.0	56.6	20.8	100.0	(162)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9.7	7.5	9.8	14.5	58.5	22.5	100.0	(210)
중학교	3.8	13.5	11.0	18.2	53.6	20.0	100.0	(391)
고등학교	4.4	10.0	10.4	25.7	49.5	17.9	100.0	(1,918)
대학 이상	6.3	9.7	12.9	20.9	50.2	17.2	100.0	(582)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7.7	13.1	11.3	21.7	46.2	17.8	100.0	(926)
300만~500만 원 미만	4.8	10.6	11.3	24.6	48.7	18.0	100.0	(1,078)
500만 원 이상	2.9	7.4	10.2	22.7	56.7	19.2	100.0	(1,092)

주: 1) 현재 근로활동에 참여 중인 310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6-15〉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신중년의 평소 생각을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하고 싶다”(현업 지속 의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현업 불안감)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동의 수준을 확인하였다.

신중년의 89.5%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응답함으로써(그렇다 59.3%, 매우 그렇다 30.2%) 현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업 지속 의지는 지역, 연령, 가구 유형, 교육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 즉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아도 전체적으로 신중년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현업 지속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현업에 대한 불안감 정도를 살펴보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신중년의 약 3분의 1 수준인 26.8%가 현업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된다(그렇다 21.8%, 매우 그렇다 5.0%).¹⁴⁾ 현업 불안감은 지역,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다. 특히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신중년일수록(4.8%포인트), 남성의 경우(4.8%포인트), 연령대가 높을수록(2.9%포인트), 배우자가 없는 경우(7.4%포인트), 가구 유형이 1인 가구인 경우(10.8%포인트: 기타 가구 24.8%),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5.6%포인트), 가구소득이 낮을수록(10.5%포인트: 300만 원 미만 31.5%, 500만 원 이상 21.0%) 현업 유지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현업 지속 의지의 경우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모든 집단에서 강한 현업 지속 의지를 보여 현업에 대한 불안감은 특정 집단에서 더욱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14) 보통이다 30.2%, 그렇지 않다 33.8%, 전혀 그렇지 않다 9.2%임.

〈표 6-15〉 신중년의 현재 일자리 안정성 인식

(단위: %, 명)

구분		안정성 인식		계 (명)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하고 싶다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	
	전체	89.5	26.8	100.0 (3,101)
지역***	동부	89.1	27.8	100.0 (2,438)
	읍면부	91.0	23.0	100.0 (664)
성별	남성	90.5	28.9	100.0 (1,733)
	여성	88.3	24.1	100.0 (1,368)
연령**	50~54세	89.6	26.8	100.0 (998)
	55~59세	89.0	24.3	100.0 (1,083)
	60~64세	88.8	29.2	100.0 (582)
	65~69세	91.4	29.7	100.0 (439)
결혼 상태	유배우	89.4	25.9	100.0 (2,743)
	무배우	90.8	33.3	100.0 (358)
가구 유형*	1인	91.6	35.6	100.0 (232)
	부부	88.9	26.5	100.0 (1,044)
	자녀 동거	89.5	26.0	100.0 (1,664)
	기타	90.6	24.8	100.0 (162)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91.3	29.2	100.0 (210)
	중학교	91.4	24.7	100.0 (391)
	고등학교	89.1	27.9	100.0 (1,918)
	대학 이상	88.9	23.6	100.0 (582)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89.5	31.5	100.0 (926)
	300만~500만 원 미만	88.3	28.7	100.0 (1,078)
	500만 원 이상	89.2	21.0	100.0 (1,092)

주: 1) 현재 근로활동에 참여 중인 310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 p < 0.05, ** p < 0.01, *** p < 0.001: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하고 싶다 기준

〈표 6-16〉 현재 일자리 퇴직 시 대비

(단위: %, 명)

구분		퇴직 대비			
		필요성 느끼나, 준비 실질적 못함	필요성 느끼며, 준비 안 함	취미· 여가 개발	창업 준비
	전체	48.4	37.6	9.3	1.9
지역**	동부	49.4	36.2	9.2	2.0
	읍면부	44.7	42.9	9.6	1.4
성별***	남성	51.4	35.6	7.9	2.1
	여성	44.6	40.2	11.0	1.6
연령***	50~54세	49.8	36.4	9.1	2.2
	55~59세	49.2	35.0	10.2	2.8
	60~64세	46.8	39.8	8.5	0.5
	65~69세	45.1	44.1	8.4	0.6
결혼 상태*	유배우	47.6	37.9	9.8	1.8
	무배우	53.9	35.6	4.8	2.5
가구 유형*	1인	55.5	33.2	5.5	3.1
	부부	49.1	37.5	9.8	1.0
	자녀 동거	47.6	37.9	9.1	2.4
	기타	41.5	42.3	12.7	0.3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40.1	50.1	6.3	0.4
	중학교	46.5	43.4	7.1	1.2
	고등학교	49.2	37.4	9.7	0.9
	대학 이상	49.8	29.8	10.4	5.9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49.4	37.6	7.8	1.3
	300만~500만 원 미만	50.9	35.2	9.0	1.8
	500만 원 이상	45.0	40.1	10.5	2.4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6-16〉 현재 일자리 퇴직 시 대비(계속)

(단위: %, 명)

구분		퇴직 대비			계 (명)
		직업 교육 참여	구직 위한 네트워크 관리	기타	
	전체	1.4	1.3	0.2	100.0 (3,101)
지역**	동부	1.6	1.5	0.1	100.0 (2,438)
	읍면부	0.5	0.6	0.4	100.0 (664)
성별***	남성	1.6	1.3	0.2	100.0 (1,733)
	여성	1.2	1.3	0.1	100.0 (1,368)
연령***	50~54세	1.5	1.0	0.0	100.0 (998)
	55~59세	1.0	1.4	0.4	100.0 (1,083)
	60~64세	2.2	2.1	0.0	100.0 (582)
	65~69세	1.1	0.7	0.0	100.0 (439)
결혼 상태*	유배우	1.4	1.3	0.1	100.0 (2,743)
	무배우	1.4	1.5	0.3	100.0 (358)
가구 유형*	1인	1.3	1.4	0.0	100.0 (232)
	부부	1.4	0.9	0.3	100.0 (1,044)
	자녀 동거	1.4	1.6	0.1	100.0 (1,664)
	기타	1.2	1.7	0.3	100.0 (162)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1.7	1.4	0.0	100.0 (210)
	중학교	0.8	1.0	0.0	100.0 (391)
	고등학교	1.3	1.3	0.2	100.0 (1,918)
	대학 이상	2.1	1.7	0.2	100.0 (582)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6	1.9	0.2	100.0 (926)
	300만~500만 원 미만	1.6	1.3	0.1	100.0 (1,078)
	500만 원 이상	1.0	0.8	0.2	100.0 (1,092)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6-16〉은 신중년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둘 경우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근로활동에 참여 중인 신중년 3101명 중 86.0%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둘 경우를 대비하여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중 48.4%는 근로활동 중단에 따른 대비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나 준비를 못하고 있으며, 37.6%는 필요성을 못 느껴 별다른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 일자리 퇴직 시 준비하는 것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살펴보면, 취미 및 여가 개발(9.3%), 창업 준비(1.9%), 직업교육 참여(1.4%), 구직을 위한 네트워크 관리(1.3%)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 분석 결과를 통해 신중년이 일자리를 상실하거나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후의 준비가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일자리 퇴직 시 대비 상황은 신중년의 지역,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가구소득별로 차이가 있다.

신중년의 제 특성별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49.4%), 남성인 경우(51.4%), 연령대가 낮을수록(50~54세 49.8%), 배우자가 없는 경우(53.9%), 가구 유형이 1인 가구인 경우(55.5%),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대학 이상 49.8%) 현재 일을 그만둘 경우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이러한 집단의 경우 소득활동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더욱 높을 수 있는 집단임을 고려할 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 부족이 노후 준비 부재로 연결될 가능성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신중년이 안정적으로 노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일자리 퇴직 대비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고 구체적인 대비 방법의 안내와 홍보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17〉에서 신중년이 희망하는 근로활동 참여 연령을 살펴본 결과, 평균 69.2세이다. 근로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연령의 분포를 살펴보면, 70세 이상까지 근로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비율(59.9%)이 절반이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법정 정년인 60세 이상까지 근로활동을 지속하기 원하는 신중년은 98.5%이다. 즉 신중년의 경우 전반적으로 법정 정년보다 더 늦은 나이까지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로활동 지속 희망 연령은 지역,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확인된다. 신중년의 인구사회학적 주요 특성별로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인 경우(70.2세), 연령대가 높을수록(65~69세 이상 73.5세), 배우자가 없는 경우(70.1세),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초등학교 이하 72.2세), 가구소득이 낮을수록(300만 원 미만 70.9세) 근로활동 지속을 희망하는 연령이 높다. 지역과 가구소득별 차이는 크지 않다.

노후 근로활동 희망 이유를 살펴보면, 신중년의 절반이 넘는 58.1%가 ‘소득을 위해’라고 응답하고 있다(〈표 6-18〉 참조). 즉 신중년이 늦은 나이까지의 근로활동을 희망하는 이유는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6-18〉 참조).

노후 근로활동 희망 이유는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확인된다. 특히 배우자가 없는 경우(71.5%), 가구 유형이 1인 가구인 경우(70.0%),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초등학교 이하 67.0%), 가구소득이 낮을수록(300만 원 미만 65.7%) 소득을 위해 노후 근로활동의 참여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활동 지속 희망 연령이 가장 높은 집단의 특성과도 동일하다.

〈표 6-17〉 근로활동 지속 희망 연령

(단위: %, 명)

구분		연령 분포					평균	계 (명)	
		60세 미만	60~65세 미만	65~70세 미만	70~75세 미만	75세 이상			
	전체	1.4	10.0	28.6	38.6	21.3	69.2	100.0	(3,101)
지역***	동부	1.3	10.0	28.9	40.4	19.4	69.0	100.0	(2,438)
	읍면부	2.1	10.0	27.6	32.0	28.3	69.9	100.0	(664)
성별***	남성	0.3	6.5	25.6	41.6	25.9	70.2	100.0	(1,733)
	여성	2.8	14.4	32.5	34.7	15.6	68.0	100.0	(1,368)
연령***	50~54세	3.4	20.1	36.6	27.9	12.0	66.8	100.0	(998)
	55~59세	1.0	9.5	35.7	38.4	15.4	68.6	100.0	(1,083)
	60~64세	0.0	1.2	20.1	50.7	28.0	71.1	100.0	(582)
	65~69세	0.0	0.0	4.4	47.1	48.6	73.5	100.0	(439)
결혼 상태***	유배우	1.5	10.3	29.1	38.5	20.6	69.1	100.0	(2,743)
	무배우	0.9	7.9	25.2	39.2	26.8	70.1	100.0	(358)
가구 유형***	1인	0.4	4.7	23.9	45.0	26.2	70.5	100.0	(232)
	부부	1.0	6.0	23.6	42.7	26.7	70.2	100.0	(1,044)
	자녀 동거	1.6	13.2	32.9	35.6	16.7	68.3	100.0	(1,664)
	기타	3.9	10.6	24.4	33.0	28.0	69.4	100.0	(162)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0.5	3.5	13.8	39.6	42.5	72.2	100.0	(210)
	중학교	0.6	3.1	21.7	43.1	31.5	71.1	100.0	(391)
	고등학교	1.3	9.9	30.4	39.6	18.8	68.9	100.0	(1,918)
	대학 이상	2.6	17.4	32.9	31.8	15.4	67.8	100.0	(582)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0.4	5.2	21.1	42.7	30.6	70.9	100.0	(926)
	300만~500만 원 미만	1.7	9.4	30.0	39.8	19.1	68.9	100.0	(1,078)
	500만 원 이상	2.0	14.7	33.7	33.7	15.8	68.0	100.0	(1,092)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6-18〉 노후 근로활동 희망 이유

(단위: %, 명)

구분	이유							기타	계 (명)
	소득을 위해	건강을 위해	자기 발전을 위해	여가시간 활용을 위해	노후 일을 원하지 않음	사회·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전체	58.1	16.8	11.6	7.1	5.6	0.7	0.1	100.0 (3,101)
지역	동부	58.9	16.6	11.5	6.9	5.3	0.7	0.1	100.0 (2,438)
	읍면부	55.2	17.7	12.2	7.9	6.6	0.5	0.0	100.0 (664)
성별***	남성	58.5	19.1	11.3	6.2	4.4	0.5	0.0	100.0 (1,733)
	여성	57.6	14.0	12.0	8.3	7.0	0.9	0.1	100.0 (1,368)
연령**	50~54세	56.2	14.9	14.5	7.4	6.1	1.0	0.0	100.0 (998)
	55~59세	60.7	14.8	11.1	7.5	5.3	0.5	0.2	100.0 (1,083)
	60~64세	56.8	20.5	10.5	6.1	5.5	0.6	0.0	100.0 (582)
	65~69세	57.9	21.4	8.1	7.2	5.0	0.4	0.0	100.0 (439)
결혼 상태***	유배우	56.4	17.6	12.1	7.5	5.9	0.6	0.0	100.0 (2,743)
	무배우	71.5	11.2	8.1	4.6	3.3	0.9	0.5	100.0 (358)
가구 유형***	1인	70.0	11.3	9.4	4.9	3.9	0.5	0.0	100.0 (232)
	부부	56.3	20.4	11.4	6.7	4.6	0.5	0.0	100.0 (1,044)
	자녀 동거	57.5	15.7	12.3	7.7	6.1	0.6	0.0	100.0 (1,664)
	기타	58.7	13.5	9.1	6.9	8.8	2.3	0.7	100.0 (162)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67.0	14.2	5.8	5.5	7.3	0.1	0.0	100.0 (210)
	중학교	65.5	16.9	6.4	5.4	5.7	0.1	0.0	100.0 (391)
	고등학교	57.2	17.7	11.6	7.3	5.7	0.4	0.0	100.0 (1,918)
	대학 이상	52.9	14.9	17.4	8.3	4.2	2.1	0.2	100.0 (582)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65.7	13.8	8.8	6.0	4.7	0.9	0.1	100.0 (926)
	300만~500만 원 미만	59.7	18.2	11.1	5.4	5.1	0.6	0.0	100.0 (1,078)
	500만 원 이상	50.1	18.3	14.4	9.8	6.7	0.6	0.1	100.0 (1,092)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이와 같이 근로활동의 지속 희망 연령이 가장 높은 집단이 소득을 위해 노후 근로활동을 희망한다는 점에서, 이들 집단은 근로활동에 대한 욕구가 경제적 측면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년의 3분의 1이 조금 넘는 36.2%는 ‘건강을 위해’(16.8%), ‘자기발전을 위해’(11.6%), ‘여가시간 활용을 위해’(7.1%), ‘사회나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0.7%) 노후 근로활동을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노후 일자리 정책 개발에 있어 소득 보전뿐 아니라 자기발전 및 사회적 공헌 등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측면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50대와 고소득가구의 신중년은 상대적으로 ‘건강을 위해’ 노후 근로활동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사회참여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3. 일자리 참여 욕구

한편 신중년 전체를 대상으로, 다음 2가지 일자리 유형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살펴보았다(〈표 6-19〉 참조). 우선 첫 번째 일자리 유형(파트타임)은 1주일에 2~3회, 1일에 4시간 정도 일하면서 한 달에 약 50만 원의 소득을 받는 일자리(예: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및 노인일자리 사업과 같은 정부지원 일자리, 지역사회 환경개선, 공공의료 및 복지시설 관리 지원, 취약계층의 일상생활활동과 같은 단순 지원 등)이며, 이러한 일자리에 기회가 될 경우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신중년의 약 48.3%가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트타임 유형의 일자리에 참여 의향은 지역,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교육 수준,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읍면부 중심의 농어촌 지역 거주자(51.5%)가 동부 지역 거주자(47.5%)보다 참여

의향이 높다. 그리고 여성인 경우(53.0%), 연령대가 높을수록(65~69세 51.4%, 50~54세 45.6%), 배우자가 없는 경우(53.3%),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초등학교 이하 53.0%, 대학 이상 41.8%), 가구소득이 낮을수록(300만 원 미만 53.5%, 500만 원 이상 41.3%) 이러한 파트타임 일자리의 참여 의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두 번째 일자리 유형(전일제)은 1주일에 4~5회, 1일에 8시간 가까이 일하면서 한 달에 약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받는 일자리이며, 이러한 일자리에 기회가 될 경우 근로를 희망하는지 살펴본 결과, 신중년의 약 58.3%가 참여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참여 의향의 차이가 있다. 남성의 경우(64.3%), 연령대가 낮을수록(50~54세 62.7%, 65~69세 49.3%), 가구 유형이 자녀 동거 가구인 경우(61.6%), 교육 수준이 고등학교 이상인 경우(고등학교 60.1%, 대학 이상 58.5%), 현재 취업 중인 경우(63.9%) 이러한 전일제 일자리의 참여 의향이 높다.

따라서 신중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일자리 유형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표 6-20〉에서 제시된 노후 삶에 있어서 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신중년의 83.6%가 노후 근로활동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중요하다 67.0%, 매우 중요하다 16.6%).

노후 삶에서 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성별, 가구 유형, 현재 취업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특히 여성에 비해 남성(8.6%포인트)이, 현재 미취업자에 비해 취업자(21.6%포인트)가 노후 삶에서 일에 대한 중요성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근로 활동 지속 희망 연령과 노후 근로활동 희망 이유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6-19〉 일자리 유형별 근로 참여 의향

(단위: %, 명)

구분		참여 의향		계 (명)
		1주일 2~3회, 1일 4시간 정도 일하며 월 약 50만 원 (파트타임 유형)	1주일 4~5회, 1일 8시간 가까이 일하며 월 150만 원 이상 (전일제 유형)	
	전체	48.3	58.3	100.0 (4,006)
지역*	동부	47.5	58.7	100.0 (3,211)
	읍면부	51.5	57.0	100.0 (795)
성별***	남성	43.5	64.3	100.0 (1,985)
	여성	53.0	52.5	100.0 (2,021)
연령*	50~54세	45.6	62.7	100.0 (1,173)
	55~59세	47.7	60.3	100.0 (1,371)
	60~64세	50.7	56.1	100.0 (793)
	65~69세	51.4	49.3	100.0 (669)
결혼 상태*	유배우	47.5	57.8	100.0 (3,461)
	무배우	53.3	61.7	100.0 (545)
가구 유형	1인	51.8	58.9	100.0 (353)
	부부	49.3	54.4	100.0 (1,396)
	자녀 동거	47.2	61.6	100.0 (2,038)
	기타	46.9	51.9	100.0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53.0	53.2	100.0 (321)
	중학교	48.7	53.3	100.0 (549)
	고등학교	49.5	60.1	100.0 (2,410)
	대학 이상	41.8	58.5	100.0 (72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48.5	63.9	100.0 (3,101)
	미취업	47.6	39.4	100.0 (9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53.5	59.4	100.0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49.6	62.4	100.0 (1,339)
	500만 원 이상	41.3	52.9	100.0 (1,28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1주일 2~3회, 월 약 50만 원 일자리 기준

〈표 6-20〉 신중년의 노후 삶에서 근로활동의 중요도

(단위: %, 명)

구분		근로활동 중요도					계 (명)
		전혀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체	0.2	1.7	14.5	67.0	16.6	100.0 (4,006)
지역	동부	0.2	1.7	14.3	67.0	16.8	100.0 (3,211)
	읍면부	0.4	1.5	15.3	66.9	16.0	100.0 (795)
성별***	남성	0.2	1.4	10.4	68.4	19.5	100.0 (1,985)
	여성	0.2	2.0	18.5	65.6	13.7	100.0 (2,021)
연령	50~54세	0.4	1.3	14.8	66.6	16.9	100.0 (1,173)
	55~59세	0.2	1.4	13.6	67.5	17.3	100.0 (1,371)
	60~64세	0.1	2.4	13.1	67.3	17.1	100.0 (793)
	65~69세	0.2	2.1	17.3	66.4	13.9	100.0 (669)
결혼 상태	유배우	0.2	1.7	14.7	66.8	16.5	100.0 (3,461)
	무배우	0.1	1.4	13.0	68.2	17.3	100.0 (545)
가구 유형**	1인	0.2	1.5	12.7	70.5	15.1	100.0 (353)
	부부	0.3	2.1	16.2	67.5	13.9	100.0 (1,396)
	자녀 동거	0.1	1.5	13.3	66.5	18.6	100.0 (2,038)
	기타	0.5	1.1	17.5	63.3	17.7	100.0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0.0	1.9	17.8	68.9	11.5	100.0 (321)
	중학교	0.5	2.3	12.9	68.2	16.1	100.0 (549)
	고등학교	0.2	1.5	15.1	66.2	16.9	100.0 (2,410)
	대학 이상	0.0	1.7	12.3	67.8	18.2	100.0 (72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0.2	1.2	10.1	70.1	18.4	100.0 (3,101)
	미취업	0.1	3.5	29.5	56.5	10.4	100.0 (9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0.2	2.1	14.5	67.3	15.9	100.0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0.3	1.7	14.4	65.1	18.5	100.0 (1,339)
	500만 원 이상	0.1	1.1	14.7	68.8	15.3	100.0 (1,28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제2절 사회참여 실태 및 욕구

이 절은 신중년의 사회참여를 여가활동, 자원봉사 및 평생교육, 사회참여 인식으로 구분하여 실태와 욕구를 파악한다.

1. 여가활동

신중년이 최근 1개월간 주로 참여한 여가활동 1순위를 파악한 결과, ‘TV 시청’이 42.0%로 가장 많고, 그다음 ‘등산’ 7.4%, ‘산책’ 6.5%, ‘이웃/친구와 대화하기·전화 통화’ 6.1%, ‘친목단체·사교활동’ 4.9%, ‘국내외 여행, 소풍, 나들이 등’ 4.1%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신중년은 ‘종교활동(3.7%)’, ‘목욕, 사우나, 찜질방(3.3%)’, ‘헬스(3.0%)’, ‘컴퓨터 검색 등(2.1%)’, ‘수영(2.0%)’ 등의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다(〈표 6-21〉 참조).

신중년의 여가활동을 1~3순위로 응답한 결과에서도 1순위 결과와 유사하게 TV 시청이 가장 높고(70.5%), 이웃/친구와 대화하기·전화 통화(34.7%), 산책(32.5%), 친목단체·사교활동(21.4%), 등산(18.9%) 등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부표 9〉 참조).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여가활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1순위 기준으로 동부 지역의 경우 읍면부 지역에 비해 등산(2.3%포인트), 국내외 여행, 소풍, 나들이 등(1.9%포인트), 종교활동(1.8%포인트)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읍면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이웃/친구와 대화하기·전화 통화(4.3%포인트)를 여가활동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

성별의 경우 남성은 등산(6.7%포인트), 컴퓨터 검색 등(2.0%포인트)의 참여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은 산책(1.7%포인트), 이웃/친구와 대화하

기·전화 통화(2.5%포인트), 종교활동(2.5%포인트)에 참여하는 비율이 더 높다.

연령대별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TV 시청 비율이 증가하고 국내외 여행, 소풍, 나들이 등과 헬스에 참여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65~69세의 경우 TV 시청(46.5%), 이웃/친구와 대화하기·전화 통화(6.7%)로 5060세대 중에서 가장 높고, 국내외 여행, 소풍, 나들이 등 1.7%, 헬스 1.6%로 가장 낮다.

결혼 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등산(5.3%포인트), 친목단체·사교활동(1.2%포인트)의 참여 비율이 높은 반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 TV 시청(13.4%포인트), 이웃/친구와 대화하기·전화 통화(1.8%포인트)의 참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가구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1인 가구의 경우 TV 시청 비율이 54.6%로 가장 높고, 부부 가구의 경우 산책(8.3%)과 친목단체·사교활동(5.7%), 자녀 동거 가구의 경우 등산(8.2%)과 종교활동(4.0%), 기타 가구의 경우 이웃/친구와 대화하기·전화 통화(7.9%)와 헬스(4.9%)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

신중년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TV 시청 비율이 낮고(대학 이상 29.0%), 국내외 여행, 소풍, 나들이 등(대학 이상 5.9%)과 종교활동(6.0%), 컴퓨터 검색 등(4.0%)의 비율은 높은 특성이 있다. 또한 신중년의 현재 취업 여부로 살펴보면, 현재 취업 중인 경우 등산(8.4%)과 컴퓨터 검색 등(2.4%)의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 미취업인 경우 산책(9.5%)과 종교활동(5.0%)의 응답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가구소득별 특성을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TV 시청(500만 원 이상 34.1%)이 낮고, 국내외 여행, 소풍, 나들이 등(500만 원 이상 6.0%)이 높은 특성이 있다.

따라서 신중년 집단 내에서 고연령, 1인 가구, 저학력, 저소득 특성의 신중년은 TV 시청 등 정적인 여가활동에 주로 참여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표 6-21〉 신중년의 현재 여가활동: 1순위 기준

(단위: %, 명)

구분	여가활동						
	TV 시청	등산	산책	이웃/친구와 대화하기·전화 통화	친목단체·사회활동	국내외 여행·소풍·나들이 등	종교 활동
전체	42.0	7.4	6.5	6.1	4.9	4.1	3.7
지역***	동부	40.2	7.9	6.6	5.2	5.0	4.5
	읍면부	49.3	5.6	6.2	9.5	4.8	2.6
성별***	남성	40.4	10.8	5.7	4.8	5.2	4.4
	여성	43.6	4.1	7.4	7.3	4.7	3.9
연령***	50~54세	40.2	5.6	5.9	6.6	4.4	5.3
	55~59세	39.9	8.9	6.3	6.0	4.9	4.2
	60~64세	44.6	8.6	7.5	4.9	4.8	4.3
	65~69세	46.5	6.1	7.0	6.7	6.0	1.7
결혼 상태***	유배우	40.2	8.1	6.6	5.8	5.1	4.2
	무배우	53.6	2.8	6.1	7.6	3.9	3.4
가구 유형***	1인	54.6	3.5	6.0	7.3	3.6	3.8
	부부	40.8	7.7	8.3	5.8	5.7	3.9
	자녀 동거	40.7	8.2	5.4	5.8	4.7	4.6
	기타	41.7	4.5	6.8	7.9	3.9	1.6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54.7	6.0	5.8	8.8	3.4	0.9
	중학교	51.7	3.7	8.1	5.5	4.3	1.8
	고등학교	42.0	7.9	6.9	6.0	5.3	4.5
	대학 이상	29.0	9.4	4.4	5.3	4.9	5.9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42.3	8.4	5.7	6.2	5.1	4.3
	미취업	41.1	3.9	9.5	5.6	4.3	3.6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49.1	5.4	6.9	6.3	4.3	2.5
	300만~500만 원 미만	42.3	8.9	5.3	5.2	5.7	4.1
	500만 원 이상	34.1	8.1	7.4	6.7	4.8	6.0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6-21〉 신중년의 현재 여가활동: 1순위 기준(계속)

(단위: %, 명)

구분		여가활동					계 (명)	
		목욕, 사우나, 찜질방	헬스	컴퓨터 검색 등	수영	기타		
	전체	3.3	3.0	2.1	2.0	14.9	100.0	(4,006)
지역***	동부	3.5	3.3	2.2	2.1	15.5	100.0	(3,211)
	읍면부	2.3	1.8	1.5	1.5	12.7	100.0	(795)
성별***	남성	2.0	3.1	3.1	1.0	17.2	100.0	(1,985)
	여성	4.5	2.9	1.1	2.9	12.7	100.0	(2,021)
연령***	50~54세	3.6	4.3	3.7	1.3	15.8	100.0	(1,173)
	55~59세	3.6	3.2	1.9	2.0	14.8	100.0	(1,371)
	60~64세	2.5	1.9	1.3	2.0	14.1	100.0	(793)
	65~69세	2.8	1.6	0.6	2.9	14.7	100.0	(669)
결혼 상태***	유배우	3.3	3.3	2.1	2.1	15.4	100.0	(3,461)
	무배우	3.1	1.1	2.0	1.3	12.0	100.0	(545)
가구 유형***	1인	3.8	1.4	1.8	1.4	10.2	100.0	(353)
	부부	3.2	3.3	0.7	1.5	15.3	100.0	(1,396)
	자녀 동거	3.3	2.8	3.0	2.2	15.3	100.0	(2,038)
	기타	2.9	4.9	3.2	3.7	16.9	100.0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2.7	0.6	1.2	1.6	10.6	100.0	(321)
	중학교	4.1	1.9	0.7	2.6	12.9	100.0	(549)
	고등학교	3.0	3.0	2.0	1.9	14.2	100.0	(2,410)
	대학 이상	3.6	4.7	4.0	1.8	21.0	100.0	(72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3.1	2.8	2.4	1.3	15.1	100.0	(3,101)
	미취업	3.7	3.6	1.2	4.1	14.3	100.0	(9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3.4	2.0	1.2	1.7	13.3	100.0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3.1	2.9	2.6	1.9	14.6	100.0	(1,339)
	500만 원 이상	3.3	4.1	2.5	2.4	16.9	100.0	(1,28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6-22〉에 의하면, 신중년은 여가활동 참여 빈도가 ‘주 2회 이상’인 경우가 64.8%로 가장 많고, 그다음 ‘주 1회(20.8%)’, ‘월 1회(6.2%)’, ‘2주에 1회(4.9%)’, ‘월 1회 미만(3.3%)’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 참여 빈도는 지역,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인구학적 제 특성별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읍면부에서 주 2회 이상(6.5%포인트), 동부에서 주 1회(6.5%포인트)에 응답한 비율이 높은 편이다. 성별의 경우 여성은 주 2회 이상(8.4%포인트), 남성은 주 1회(4.2%포인트)의 응답 비율이 높다. 연령대가 높을수록(65~69세 72.4%), 배우자가 없는 경우(71.5%),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초등학교 이하 75.1%), 현재 미취업인 경우(75.3%), 가구소득이 낮을수록(300만 원 미만 68.0%) ‘주 2회 이상’ 여가활동에 참여한다는 신중년이 많다.

신중년은 여가활동에 혼자 참여하는 경우가 36.4%이며, 친구와 함께하는 경우 31.3%, 가족과 함께하는 경우 28.0% 순이다(〈표 6-23〉 참조). 그 외에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여가활동을 한다는 응답도 4.2%로 나타났다. 여가활동 동반자는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러한 특성별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성별은, 여성의 경우 친구와 함께한다는 응답이 남성에 비해 6.1%포인트 높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가족과 함께하는 비율이 높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혼자 한다는 비율이 높다. 결혼 상태에 따라 여가활동 동반자의 차이가 매우 큰데,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비해 혼자서 한다는 응답이 26.2%포인트로 높고 가족과 함께한다는 응답이 26.9%포인트 낮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의 경우 혼자서 한다는 응답이 다른 가구 유형보다 높은 60.3%

인 반면, 부부 가구와 자녀 동거 가구는 가족과 함께한다는 응답이 각각 30.9%와 31.5%로 다른 가구 유형보다 높다.

〈표 6-22〉 신중년의 현재 여가활동 참여 빈도

(단위: %, 명)

구분		참여 빈도					계 (명)
		주 2회 이상	주 1회	2주에 1회	월 1회	월 1회 미만	
	전체	64.8	20.8	4.9	6.2	3.3	100.0 (3,988)
지역***	동부	63.5	22.1	5.1	6.3	2.9	100.0 (3,193)
	읍면부	70.0	15.6	3.8	5.6	5.0	100.0 (795)
성별***	남성	60.6	22.9	5.7	7.2	3.6	100.0 (1,977)
	여성	69.0	18.7	4.1	5.2	3.1	100.0 (2,011)
연령**	50~54세	63.6	20.7	5.4	6.4	3.9	100.0 (1,169)
	55~59세	63.1	22.1	5.6	6.7	2.6	100.0 (1,363)
	60~64세	63.1	21.3	4.4	7.3	3.8	100.0 (789)
	65~69세	72.4	17.7	3.1	3.5	3.2	100.0 (666)
결혼 상태*	유배우	63.8	21.6	5.0	6.3	3.4	100.0 (3,446)
	무배우	71.5	15.8	4.2	5.6	3.0	100.0 (542)
가구 유형	1인	70.6	17.4	3.8	5.4	2.8	100.0 (350)
	부부	64.8	20.8	5.4	5.9	3.1	100.0 (1,389)
	자녀 동거	63.0	22.1	4.6	6.7	3.7	100.0 (2,031)
	기타	72.9	14.5	5.3	4.9	2.4	100.0 (218)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75.1	13.7	3.4	3.1	4.7	100.0 (320)
	중학교	73.5	18.6	2.9	3.1	2.0	100.0 (546)
	고등학교	61.8	22.3	5.5	7.0	3.3	100.0 (2,400)
	대학 이상	63.6	20.6	4.8	7.2	3.7	100.0 (721)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61.8	22.6	5.5	6.5	3.7	100.0 (3,089)
	미취업	75.3	14.5	2.8	5.3	2.1	100.0 (899)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68.0	17.8	4.3	6.2	3.7	100.0 (1,370)
	300만~500만 원 미만	63.5	21.3	5.6	6.8	2.7	100.0 (1,339)
	500만 원 이상	63.0	23.4	4.6	5.5	3.5	100.0 (1,272)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6-23〉 신중년의 현재 여가활동 동반자

(단위: %, 명)

	구분	동반자					계 (명)
		혼자서	친구와 함께	가족과 함께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기타	
지역	전체	36.4	31.3	28.0	4.2	0.1	100.0 (4,006)
	동부	36.8	31.4	27.2	4.5	0.1	100.0 (3,211)
	읍면부	34.4	31.1	31.3	3.2	0.0	100.0 (795)
성별***	남성	37.0	28.2	29.7	4.9	0.1	100.0 (1,985)
	여성	35.8	34.3	26.3	3.6	0.0	100.0 (2,021)
연령**	50~54세	34.5	28.8	32.0	4.7	0.1	100.0 (1,173)
	55~59세	34.5	32.6	27.5	5.2	0.1	100.0 (1,371)
	60~64세	38.7	32.9	25.5	2.8	0.0	100.0 (793)
	65~69세	40.5	31.1	24.9	3.3	0.2	100.0 (669)
결혼 상태***	유배우	32.8	31.2	31.7	4.3	0.1	100.0 (3,461)
	무배우	59.0	32.0	4.8	3.9	0.3	100.0 (545)
가구 유형***	1인	60.3	32.9	1.9	4.4	0.5	100.0 (353)
	부부	33.4	31.8	30.9	3.9	0.0	100.0 (1,396)
	자녀 동거	33.8	30.2	31.5	4.5	0.1	100.0 (2,038)
	기타	40.9	36.0	19.4	3.7	0.0	100.0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48.0	28.5	21.8	1.5	0.2	100.0 (321)
	중학교	41.2	29.3	27.1	2.3	0.1	100.0 (549)
	고등학교	35.0	33.1	28.0	3.9	0.0	100.0 (2,410)
	대학 이상	32.2	28.2	31.4	7.9	0.3	100.0 (72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34.8	30.7	30.5	4.1	0.1	100.0 (3,101)
	미취업	41.8	33.5	19.6	4.9	0.2	100.0 (9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44.0	29.3	23.6	2.9	0.2	100.0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33.5	30.2	30.8	5.4	0.0	100.0 (1,339)
	500만 원 이상	31.1	34.6	29.7	4.5	0.0	100.0 (1,28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혼자서 여가활동을 하는 비율이 48.0%로 높은 반면,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여가활동을 하는 비율은 1.5%로 낮은 경향이 있다. 현재 취업 중인 경우 가족과 함께한다는 비율이 30.5%로 높은 반면, 혼자서 한다는 비율은 34.8%로 낮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여가활동을 혼자서 한다는 응답이 31.1%로 낮고, 친구와 함께한다는 응답이 34.6%로 높은 특성이 확인된다.

〈표 6-24〉에 제시된 신중년의 노후 여가활동 선호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순위 기준으로 신중년이 노후에 가장 즐기고 싶은 여가는 ‘국내외 여행, 소풍, 나들이 등(31.2%)’, 등산(11.7%), TV 시청(9.1%), 산책(7.2%), 친목단체·사교활동(5.5%), 수영(5.1%) 등의 순이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 1순위 기준에서의 결과(‘TV 시청’ 42.0%, ‘등산’ 7.4%, ‘산책’ 6.5%, ‘이웃/친구와 대화하기·전화 통화’ 6.1%, ‘친목단체·사교활동’ 4.9%, ‘국내외 여행, 소풍, 나들이 등’ 4.1%)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즉 신중년은 현재와 비교하여 노후에 국내외 여행, 소풍, 나들이 등을 하고 싶은 욕구가 높고,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등산, 산책, 수영 등 보다 활동적인 여가활동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노후 여가활동 선호도를 1~3순위로 응답한 결과도 국내외 여행, 소풍, 나들이 등(59.8%), 산책(30.6%), 등산(27.2%), 친목단체·사교활동(26.1%), TV 시청(23.7%) 등으로 응답한 1순위 결과와 큰 차이가 없다(〈부표 10〉 참조).

한편 신중년의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노후에 선호하는 여가활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지역,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동부 지역에서 등산(3.5%포인트)과 종교활동(1.7%포인트), 읍면부 지역에서 TV 시청(4.0%포인트)과 이웃/친구와 대화하기·전화 통화(2.9%포인트)라는 응답이 더 많다.

〈표 6-24〉 신중년의 노후 선호하는 여가활동: 1순위 기준

(단위: %, 명)

구분		여가활동					
		국내외 여행·소풍· 나들이 등	등산	TV 시청	산책	친목단체· 사교활동	수영
	전체	31.2	11.7	9.1	7.2	5.5	5.1
지역***	동부	31.2	12.4	8.3	7.1	5.4	5.1
	읍면부	31.0	8.9	12.3	7.9	5.9	5.0
성별***	남성	29.8	18.2	9.4	6.8	5.3	2.2
	여성	32.5	5.3	8.7	7.7	5.7	7.8
연령***	50~54세	32.7	10.3	8.9	5.4	6.0	4.6
	55~59세	32.1	13.4	6.3	5.9	5.4	6.4
	60~64세	32.4	11.3	10.1	9.7	5.2	3.7
	65~69세	25.1	11.0	13.9	10.4	5.3	4.8
결혼 상태***	유배우	31.6	12.2	8.3	6.9	5.6	5.3
	무배우	28.7	8.2	14.1	9.3	5.0	3.4
가구 유형***	1인	29.7	8.4	14.5	9.9	5.4	3.0
	부부	30.9	10.5	10.3	8.6	5.6	4.4
	자녀 동거	31.7	13.0	7.1	5.9	5.7	6.1
	기타	30.4	12.5	11.0	6.5	3.9	3.2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22.5	9.1	20.4	11.2	5.5	3.0
	중학교	28.5	9.1	14.3	10.9	3.9	4.6
	고등학교	33.3	12.8	7.6	6.8	6.2	5.7
	대학 이상	30.1	10.8	5.0	4.3	4.5	4.1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32.5	13.2	8.2	6.4	5.7	4.6
	미취업	26.4	6.5	12.2	10.2	5.0	6.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28.3	9.9	13.7	9.1	5.0	3.4
	300만~500만 원 미만	33.5	12.6	6.9	6.1	5.0	5.6
	500만 원 이상	31.9	12.6	6.5	6.3	6.4	6.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6-24〉 신중년의 노후 선호하는 여가활동: 1순위 기준(계속)

(단위: %, 명)

구분		여가활동				계 (명)
		음악 활동	종교 활동	이웃/친구와 대화하기· 전화 통화	기타	
전체		4.6	4.2	3.2	18.3	100.0 (4,006)
지역***	동부	4.8	4.6	2.6	18.6	100.0 (3,211)
	읍면부	3.9	2.9	5.5	16.9	100.0 (795)
성별***	남성	3.4	2.8	2.6	19.3	100.0 (1,985)
	여성	5.8	5.6	3.7	17.2	100.0 (2,021)
연령***	50~54세	5.5	3.5	3.0	20.2	100.0 (1,173)
	55~59세	3.7	4.0	2.5	20.3	100.0 (1,371)
	60~64세	4.7	5.5	3.1	14.3	100.0 (793)
	65~69세	4.9	4.5	4.8	15.3	100.0 (669)
결혼 상태***	유배우	4.5	4.1	2.9	18.6	100.0 (3,461)
	무배우	5.2	4.9	4.8	16.3	100.0 (545)
가구 유형***	1인	5.1	3.9	3.3	16.9	100.0 (353)
	부부	4.6	4.3	3.4	17.5	100.0 (1,396)
	자녀 동거	4.3	4.5	2.8	19.0	100.0 (2,038)
	기타	7.3	1.9	4.9	18.3	100.0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6.1	4.2	6.1	11.8	100.0 (321)
	중학교	3.1	4.8	5.2	15.7	100.0 (549)
	고등학교	4.3	3.4	2.5	17.4	100.0 (2,410)
	대학 이상	6.2	6.6	2.5	25.8	100.0 (72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4.5	4.0	3.0	17.9	100.0 (3,101)
	미취업	5.1	4.8	3.8	19.5	100.0 (9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4.1	4.5	4.6	17.4	100.0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4.9	3.9	2.6	18.8	100.0 (1,339)
	500만 원 이상	4.9	4.2	2.1	18.7	100.0 (1,28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등산(12.9%포인트), 여성의 경우 수영(5.6%포인트)을 노후에 선호하는 여가활동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구 유형이 1인 가구인 경우,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현재 미취업인 경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TV 시청, 산책 등과 같은 정적인 여가활동에 노후에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이 확인된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현재 참여하는 여가활동과도 동일한 경향이다. 따라서 고연령, 1인 가구, 저학력, 저소득의 특성이 있는 신중년은 여가활동 관련 취약집단으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표 6-25〉에서 신중년의 84.9%(중요하다 66.7%, 매우 중요하다 18.2%) 현재 삶에서, 신중년의 91.9%(중요하다 65.2%, 매우 중요하다 26.7%)는 노후 삶에서 여가활동이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신중년은 현재보다 노후 삶에서 여가활동의 중요도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0%포인트).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현재 및 노후 삶에서 여가활동의 중요도 차이가 확인되는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가구인 경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가구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현재 및 노후 삶에서 여가활동의 중요도를 더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부부 가구, 고학력, 고소득의 신중년은 향후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강한 집단으로, 현재 노년층과 다른 여가활동 정책 욕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노인 여가복지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공공 인프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신중년의 노년인구 편입으로 정책 수요자가 확대되고 욕구 또한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인 여가복지의 공공과 민간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25〉 신중년의 현재 및 노후 삶에서 여가활동의 중요도

(단위: %, 명)

구분		현재					노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전체	0.2	2.1	12.8	66.7	18.2	0.1	0.7	7.3	65.2	26.7
지역	동부	0.1	2.1	12.4	67.7	17.7	0.1	0.6	7.1	65.8	26.4
	읍면부	0.3	2.2	14.7	62.7	20.1	0.1	1.1	8.1	62.8	27.9
성별	남성	0.2	2.3	13.6	65.6	18.4	0.1	0.6	8.0	64.5	26.7
	여성	0.2	2.0	12.1	67.8	18.0	0.1	0.8	6.6	65.9	26.6
연령	50~54세	0.2	2.2	12.8	67.0	17.7	0.2	0.5	6.0	66.4	26.9
	55~59세	0.1	2.1	12.3	66.7	18.7	0.0	0.7	7.1	64.8	27.3
	60~64세	0.1	2.8	12.0	67.1	18.0	0.0	1.0	6.6	66.2	26.1
	65~69세	0.2	1.1	14.9	65.6	18.1	0.1	0.9	10.8	62.8	25.5
결혼 상태***	유배우	0.2	1.8	12.0	67.1	18.9	0.0	0.6	6.4	65.2	27.7
	무배우	0.1	4.3	17.8	63.8	14.0	0.6	1.5	13.1	65.0	19.8
가구 유형***	1인	0.2	4.5	17.5	65.8	11.9	0.2	1.9	13.1	67.5	17.3
	부부	0.0	2.2	12.3	67.5	18.0	0.0	0.7	6.5	66.6	26.1
	자녀 동거	0.2	1.5	12.5	66.5	19.3	0.0	0.5	6.8	64.3	28.4
	기타	0.5	3.2	12.0	64.8	19.5	0.9	1.0	8.0	61.0	29.2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0.2	2.4	23.5	63.6	10.3	0.0	1.8	15.8	65.9	16.5
	중학교	0.1	1.2	16.2	68.7	13.8	0.2	0.7	9.7	67.8	21.6
	고등학교	0.2	2.5	12.0	66.2	19.0	0.1	0.7	6.6	64.8	27.8
	대학 이상	0.1	1.3	8.3	68.2	22.1	0.0	0.5	4.2	64.2	31.1
현재 여부	취업 취업 중	0.2	2.4	12.6	66.7	18.2	0.0	0.7	6.8	65.5	27.0
	미취업	0.1	1.1	13.7	66.8	18.3	0.3	0.8	9.2	64.3	25.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0.2	3.1	15.6	65.2	15.9	0.2	1.0	10.9	63.8	24.1
	300만~500만 원 미만	0.2	1.7	12.5	66.7	18.9	0.0	0.5	6.5	65.8	27.3
	500만 원 이상	0.2	1.5	10.3	68.1	20.0	0.0	0.6	4.4	66.3	28.8

주: 1)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2) * $p < 0.05$, ** $p < 0.01$, *** $p < 0.001$: 현재 삶에서 여가활동의 중요도 기준

2. 자원봉사 및 평생교육

신중년의 자원봉사활동(사회공헌활동 포함) 참여 경험을 살펴본 결과, 16.3%가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26〉 참조). 이 중 11.4%는 자원봉사단체에 소속되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4.9%는 자원봉사단체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즉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신중년의 약 3분의 2는 단체에 소속되어 자원봉사활동을 하며, 약 3분의 1은 개인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신중년의 20.6%는 과거에 자원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하고 있지 않고, 신중년의 대다수인 63.1%는 평생 자원봉사활동을 해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가구소득별로 신중년의 현재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의 차이가 확인된다.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우(19.7%), 여성인 경우(16.7%), 연령대가 낮을수록(50~54세 18.1%), 배우자가 있는 경우(17.1%),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대학 이상 20.8%), 가구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500만 원 이상 19.4%) 현재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반면에 가구 유형이 1인 가구인 경우(9.8%)에는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현재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율이 낮다.

신중년의 45.8%는 노후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27〉 참조). 이 중 24.3%는 단체에 소속되어, 21.5%는 단체에 소속되지 않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생각이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46.4%), 여성인 경우(49.0%), 연령대가 낮을수록(50~54세 49.9%), 배우자가 있는 경우(47.8%), 자녀 동거 가구인 경우(49.3%),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대학 이상

60.2%), 현재 취업 중인 경우(47.1%), 가구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500만원 이상 50.2%) 노후에 자원봉사활동 참여 의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6-26〉 신중년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

(단위: %, 명)

구분		현재 참여	참여 경험			평생 미참여	계(명)
			자원 봉사 단체 소속	개인	과거 참여, 현재 미참여		
	전체	16.3	11.4	4.9	20.6	63.1	100.0 (4,006)
지역***	동부	15.5	10.7	4.8	22.0	62.6	100.0 (3,211)
	읍면부	19.7	14.2	5.5	14.9	65.5	100.0 (795)
성별**	남성	15.9	10.6	5.3	18.7	65.4	100.0 (1,985)
	여성	16.7	12.2	4.5	22.4	60.9	100.0 (2,021)
연령*	50~54세	18.1	12.1	6.0	20.3	61.6	100.0 (1,173)
	55~59세	16.3	11.0	5.3	23.0	60.8	100.0 (1,371)
	60~64세	15.9	11.7	4.2	17.6	66.5	100.0 (793)
	65~69세	13.7	10.6	3.1	19.7	66.7	100.0 (669)
결혼 상태***	유배우	17.1	11.9	5.2	21.1	61.8	100.0 (3,461)
	무배우	10.8	8.0	2.8	17.3	71.9	100.0 (545)
가구 유형***	1인	9.8	7.1	2.7	16.7	73.5	100.0 (353)
	부부	17.2	12.7	4.5	18.2	64.6	100.0 (1,396)
	자녀 동거	17	11.5	5.5	22.5	60.5	100.0 (2,038)
	기타	14.7	9.2	5.5	24.2	61.0	100.0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11.7	6.2	5.5	12.9	75.3	100.0 (321)
	중학교	16.3	11.9	4.4	16.1	67.7	100.0 (549)
	고등학교	15.5	11.3	4.2	20.0	64.4	100.0 (2,410)
	대학 이상	20.8	13.5	7.3	29.2	50.0	100.0 (72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16.1	11.2	4.9	19.9	63.9	100.0 (3,101)
	미취업	16.8	11.9	4.9	22.7	60.4	100.0 (9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4.3	9.7	4.6	18.0	67.7	100.0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15.5	10.7	4.8	22.6	61.9	100.0 (1,339)
	500만 원 이상	19.4	14.0	5.4	21.1	59.5	100.0 (1,28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6-27〉 신중년의 노후 자원봉사활동 참여 의향

(단위: %, 명)

구분		참여 의향				계 (명)
		참여하고 싶다			참여하고 싶지 않다	
			단체 소속	단체 비소속		
	전체	45.8	24.3	21.5	54.2	100.0 (4,006)
지역*	동부	46.4	24.0	22.4	53.6	100.0 (3,211)
	읍면부	43.3	25.5	17.8	56.7	100.0 (795)
성별***	남성	42.6	20.9	21.7	57.5	100.0 (1,985)
	여성	49.0	27.6	21.4	51.0	100.0 (2,021)
연령***	50~54세	49.9	25.4	24.5	50.1	100.0 (1,173)
	55~59세	47.7	25.2	22.5	52.3	100.0 (1,371)
	60~64세	42.7	24.2	18.5	57.2	100.0 (793)
	65~69세	38.3	20.6	17.7	61.7	100.0 (669)
결혼 상태***	유배우	47.8	25.4	22.4	52.2	100.0 (3,461)
	무배우	33.2	17.3	15.9	66.8	100.0 (545)
가구 유형***	1인	31.0	16.1	14.9	69.0	100.0 (353)
	부부	44.8	23.9	20.9	55.2	100.0 (1,396)
	자녀 동거	49.3	26.1	23.2	50.7	100.0 (2,038)
	기타	42.8	22.9	19.9	57.1	100.0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31.2	14.4	16.8	68.8	100.0 (321)
	중학교	40.8	21.3	19.5	59.2	100.0 (549)
	고등학교	44.5	22.9	21.6	55.5	100.0 (2,410)
	대학 이상	60.2	35.5	24.7	39.8	100.0 (72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47.1	24.1	23.0	52.9	100.0 (3,101)
	미취업	41.4	25.0	16.4	58.6	100.0 (9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38.8	19.9	18.9	61.1	100.0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48.6	24.8	23.8	51.4	100.0 (1,339)
	500만 원 이상	50.2	28.2	22.0	49.8	100.0 (1,28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현재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신중년은 5.1%이다. 평생교육은 대학, 도서관, 사이버대학 등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중년의 대다수인 85.2%는 평생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전혀 없으며, 신중년의 9.7%는 과거에 평생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보면, 읍면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6.3%(동부 4.8%), 여성인 경우 5.9%(남성 4.2%), 가구 유형이 기타 가구인 경우 7.2%(1인 가구 4.8%, 부부 가구 5.5%, 자녀 동거 가구 4.6%), 현재 미취업인 경우 7.2%(취업 중인 경우 4.5%)로 현재 평생교육 참여율이 높은 특성이 확인된다. 또한 교육 수준을 살펴보면, 대학 이상 8.8%, 중학교 4.6%, 고등학교 4.4%, 초등학교 이하 2.9%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평생교육 참여율도 높은 경향이 있다. 가구소득별로는 평생교육 참여율이 500만 원 이상은 5.7%, 300만~500만 원 미만 4.9%, 300만 원 미만 4.7% 순으로 나타나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평생교육 참여율이 높다.

한편 신중년의 48.8%는 노후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싶은 의향이 있다.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노후 평생교육 참여 의향이 다르다. 여성의 경우 53.5%(남성 44.0%), 연령대가 낮을수록(50~54세 52.3%, 65~69세 41.8%), 배우자가 있는 경우 50.5%(배우자가 없는 경우 38.2%), 가구 유형이 자녀 동거 가구인 경우 52.6%,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대학 이상 58.1%, 초등학교 이하 31.3%), 현재 취업 중인 경우 50.1%(미취업 44.4%), 가구소득이 높을수록(500만 원 이상 53.3%) 노후 평생교육 참여 의향이 높다(〈표 6-29〉 참조).

〈표 6-28〉 신중년의 평생교육 참여 경험

(단위: %, 명)

구분		참여 경험			계 (명)
		현재 참여	과거 참여, 현재 미참여	평생 미참여	
	전체	5.1	9.7	85.2	100.0 (4,006)
지역*	동부	4.8	10.2	85.0	100.0 (3,211)
	읍면부	6.3	7.5	86.2	100.0 (795)
성별***	남성	4.2	7.1	88.6	100.0 (1,985)
	여성	5.9	12.2	81.9	100.0 (2,021)
연령	50~54세	5.4	9.7	84.8	100.0 (1,173)
	55~59세	3.9	11.0	85.1	100.0 (1,371)
	60~64세	6.0	8.9	85.0	100.0 (793)
	65~69세	5.9	7.7	86.3	100.0 (669)
결혼 상태	유배우	5.1	9.9	85.0	100.0 (3,461)
	무배우	5.0	8.2	86.8	100.0 (545)
가구 유형*	1인	4.8	7.3	87.9	100.0 (353)
	부부	5.5	8.1	86.4	100.0 (1,396)
	자녀 동거	4.6	11.0	84.4	100.0 (2,038)
	기타	7.2	11.6	81.2	100.0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2.9	4.7	92.4	100.0 (321)
	중학교	4.6	7.9	87.5	100.0 (549)
	고등학교	4.4	10.0	85.6	100.0 (2,410)
	대학 이상	8.8	12.2	79.0	100.0 (72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4.5	9.3	86.2	100.0 (3,101)
	미취업	7.2	10.9	81.9	100.0 (9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4.7	7.7	87.6	100.0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4.9	10.3	84.7	100.0 (1,339)
	500만 원 이상	5.7	11.0	83.3	100.0 (1,28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6-29〉 신중년의 노후 평생교육 참여 의향

(단위: %, 명)

구분		참여 의향		계 (명)
		예	아니요	
	전체	48.8	51.2	100.0 (4,006)
지역	동부	49.5	50.5	100.0 (3,211)
	읍면부	46.1	53.9	100.0 (795)
성별***	남성	44.0	56.0	100.0 (1,985)
	여성	53.5	46.5	100.0 (2,021)
연령***	50~54세	52.3	47.7	100.0 (1,173)
	55~59세	50.7	49.3	100.0 (1,371)
	60~64세	46.4	53.6	100.0 (793)
	65~69세	41.8	58.2	100.0 (669)
결혼 상태***	유배우	50.5	49.5	100.0 (3,461)
	무배우	38.2	61.8	100.0 (545)
가구 유형***	1인	36.9	63.1	100.0 (353)
	부부	46.4	53.6	100.0 (1,396)
	자녀 동거	52.6	47.4	100.0 (2,038)
	기타	48.3	51.7	100.0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31.3	68.7	100.0 (321)
	중학교	43.2	56.8	100.0 (549)
	고등학교	49.6	50.4	100.0 (2,410)
	대학 이상	58.1	41.9	100.0 (72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50.1	49.9	100.0 (3,101)
	미취업	44.4	55.6	100.0 (9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41.9	58.1	100.0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51.6	48.4	100.0 (1,339)
	500만 원 이상	53.3	46.7	100.0 (1,28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3. 사회참여 인식

신중년은 노후에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희망하는 노후의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신중년이 노후에 희망하는 활동 1순위로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생활을 하면서’가 가장 높은 응답(52.8%)을 얻었다. 그 외에 ‘소득 창출을 위한 일을 하면서’ 13.1%, ‘학습 등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10.3%, ‘자원봉사와 같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6.2%, ‘종교활동을 하면서’ 6.0%, ‘가사 및 손자녀 양육을 하면서’ 2.7% 등으로 노후를 보내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하게 지내고 싶다’고 응답한 신중년도 8.3%이다. 즉 대부분의 신중년은 취미생활, 자기계발, 자원봉사 등을 통해 활동적인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지만, 일부의 경우 이러한 활동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노후 희망하는 활동은 지역,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다. 먼저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동부의 경우 ‘종교활동을 하면서(2.6%포인트)’, 읍면부의 경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하게 지내고 싶다(2.4%포인트)’라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성별에서는 남성의 경우 ‘소득 창출을 위한 일을 하면서(7.5%포인트)’, 여성의 경우 ‘종교활동을 하면서(4.6%포인트)’와 ‘가사 및 손자녀 양육을 하면서(3.1%포인트)’라는 응답이 많다.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생활을 하면서(50~54세 56.8%, 65~69세 46.5%)’, 연령대가 높을수록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하게 지내고 싶다(65~69세 13.6%, 55~59세 6.1%)’라는 비율이 더 많다. 결혼 상태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생활을 하면서(6.7%포인트)’, 배우자가 없는 경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하게 지내고 싶다(6.8%포인트)’와 ‘소득 창출을 위한 일자리(5.3%포인트)’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다.

가구 유형별 차이를 살펴보면, 1인 가구의 경우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어서 하지 못한 취미생활을 하면서(45.9%)'라는 응답 비율은 낮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하게 지내고 싶다(16.1%)'는 응답 비율이 높은 특성이 확인된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학습 등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대학 이상 16.4%, 초등학교 이하 6.3%)'에 더 높은 응답을,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하게 지내고 싶다(초등학교 이하 15.4%, 대학 이상 5.4%)'와 '가사 및 손자녀 양육을 하면서(초등학교 이하 6.3%, 대학 이상 1.6%)'에 더 높은 응답을 보인다.

현재 취업 여부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면, 취업 중인 경우 상대적으로 '짧아서 하지 못한 취미생활을 하면서(10.9%포인트)'와 '소득 창출을 위한 일을 하면서(7.3%포인트)', 미취업 중인 경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하게 지내고 싶다(5.6%포인트)'와 '종교활동을 하면서(4.1%포인트)', '가사 및 손자녀 양육을 하면서(3.8%포인트)'의 응답 비율이 높다.

가구소득별 차이를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짧아서 하지 못한 취미생활을 하면서(500만 원 이상 57.2%, 300만 원 미만 48.3%)'라는 응답이 높은 반면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창출을 위한 일을 하면서(300만 원 미만 16.3%, 500만 원 이상 9.4%)'라는 응답이 높다.

즉 신중년 집단 내에서 고연령, 1인 가구, 저학력, 저소득 특성의 신중년은 현재 및 노후 여가활동이 매우 정적인 경향이 있었는데, 이러한 경향성은 희망하는 노후 활동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하게 지내고 싶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점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표 6-30〉 신중년의 희망 노후 활동: 1순위 기준

(단위: %, 명)

구분		희망 노후 활동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생활	소득 창출을 위한 일	학습 등 자기계발 활동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하게	자원봉사 같은 의미 있는 일
	전체	52.8	13.1	10.3	8.3	6.2
지역***	동부	53.1	12.8	10.7	7.8	6.1
	읍면부	51.6	14.2	8.5	10.2	6.6
성별***	남성	53.3	16.8	9.6	9.6	5.1
	여성	52.3	9.3	10.9	7.0	7.3
연령***	50~54세	56.8	11.1	10.5	7.0	6.7
	55~59세	52.4	14.8	11.2	6.1	6.8
	60~64세	52.9	12.3	10.2	9.6	4.9
	65~69세	46.5	13.7	8.2	13.6	5.8
결혼 상태***	유배우	53.7	12.3	10.7	7.4	6.5
	무배우	47.0	17.6	7.8	14.2	4.3
가구 유형***	1인	45.9	18.7	8.6	16.1	3.5
	부부	54.6	12.3	10.2	8.1	5.8
	자녀 동거	53.0	12.8	10.8	6.8	7.0
	기타	51.0	11.7	8.7	10.6	6.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38.4	20.4	6.3	15.4	4.0
	중학교	51.3	12.6	6.9	12.4	6.0
	고등학교	55.6	13.1	9.7	7.3	6.3
	대학 이상	50.9	10.1	16.4	5.4	6.8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55.3	14.7	9.5	7.0	5.9
	미취업	44.4	7.4	12.8	12.6	7.1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48.3	16.3	7.8	12.3	5.1
	300만~500만 원 미만	53.1	13.4	11.5	6.6	6.1
	500만 원 이상	57.2	9.4	11.7	5.8	7.4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6-30〉 신중년의 희망 노후 활동: 1순위 기준(계속)

(단위: %, 명)

구분		희망 노후 활동			계 (명)
		종교 활동	가사 및 손자녀 양육	기타	
	전체	6.0	2.7	0.7	100.0 (4,006)
지역***	동부	6.5	2.2	0.8	100.0 (3,211)
	읍면부	3.9	4.6	0.5	100.0 (795)
성별***	남성	3.7	1.1	0.8	100.0 (1,985)
	여성	8.3	4.2	0.6	100.0 (2,021)
연령***	50~54세	4.7	2.7	0.6	100.0 (1,173)
	55~59세	5.9	2.1	0.8	100.0 (1,371)
	60~64세	5.9	3.5	0.7	100.0 (793)
	65~69세	8.8	2.6	0.9	100.0 (669)
결혼 상태***	유배우	5.9	2.8	0.8	100.0 (3,461)
	무배우	6.9	1.8	0.3	100.0 (545)
가구 유형***	1인	5.7	1.1	0.5	100.0 (353)
	부부	5.6	2.7	0.8	100.0 (1,396)
	자녀 동거	6.3	2.6	0.8	100.0 (2,038)
	기타	6.9	5.2	0.0	100.0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8.5	6.3	0.7	100.0 (321)
	중학교	5.7	4.5	0.6	100.0 (549)
	고등학교	5.3	2.1	0.6	100.0 (2,410)
	대학 이상	7.5	1.6	1.2	100.0 (72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5.1	1.8	0.6	100.0 (3,101)
	미취업	9.2	5.6	1.0	100.0 (9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6.0	3.5	0.9	100.0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6.2	2.2	0.9	100.0 (1,339)
	500만 원 이상	5.9	2.3	0.4	100.0 (1,28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따라서 정부의 신중년 및 노년 대상 사회참여 지원 정책은 이들 집단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사회참여를 원하지 않는 집단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의 사회참여 정책은 신중년 및 노년의 적극적인 사회적 공헌과 기여를 크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회참여에 대한 의지와 욕구가 있는 경우 다양한 취미 여가 활동이나 소득 창출을 위한 일, 자기계발활동 등에 대한 정보 제공과 기회 마련 등에서 역할을 하되, 쉼과 휴식을 원하는 경우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강요하지는 않는 사회 분위기 조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한편 신중년은 현재 및 노후 삶에서 사회참여 활동의 중요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표 6-31〉 참조). 먼저 신중년의 76.6%는 현재 삶에서 사회참여 활동이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회참여 활동은 여가활동, 자원봉사활동, 평생교육, 친목단체 활동, 지역사회활동 등을 의미한다.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현재 삶에서 사회참여 활동의 중요도 평가에 차이가 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77.6%), 부부 가구(78.1%) 또는 자녀 동거 가구(76.9%)인 경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대학 이상 83.9%, 초등학교 이하 66.5%), 현재 취업 중인 경우(77.2%), 가구소득이 높을수록(500만 원 이상 81.0%, 300만 원 미만 72.3%) 현재 삶에서 사회참여 활동의 중요도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신중년의 83.2%는 노후에 사회참여 활동이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현재보다 향후 사회참여 활동이 삶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커질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노후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84.1%),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대학 이상 89.3%, 초등학교 이하 73.6%), 현재 취업 중인 경우(84.6%), 가구소득이 높을수록(500만 원 이상 87.9%, 300만 원 미만 78.6%) 노후 사회참여 활동의 중

요도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반면에 가구 유형이 1인 가구인 경우 (75.7%) 다른 가구 유형(83.1~84.2%)에 비해 노후 사회참여 활동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

〈표 6-31〉 신중년의 현재 및 노후 삶에서 사회참여의 중요도

(단위: %, 명)

구분		현재					노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전체	0.3	4.2	18.8	64.4	12.2	0.2	2.7	14.0	65.5	17.7
지역	동부	0.3	4.4	18.8	64.8	11.8	0.1	2.6	14.3	65.7	17.2
	읍면부	0.6	3.8	19.2	62.7	13.6	0.3	3.3	12.6	64.4	19.5
성별	남성	0.2	4.8	19.4	63.0	12.5	0.1	2.9	14.4	64.9	17.7
	여성	0.4	3.7	18.3	65.7	11.9	0.2	2.6	13.6	66.1	17.6
연령	50~54세	0.4	4.3	20.1	63.6	11.6	0.1	2.6	13.8	65.9	17.7
	55~59세	0.1	4.3	16.9	65.8	12.9	0.0	2.6	11.6	68.1	17.5
	60~64세	0.4	4.0	19.4	65.1	11.0	0.2	2.9	14.7	64.5	17.7
	65~69세	0.6	4.3	19.8	61.8	13.4	0.5	2.8	18.3	60.5	17.9
결혼 상태***	유배우	0.2	3.9	18.3	65.1	12.5	0.0	2.6	13.3	66.1	18.0
	무배우	1.2	6.5	22.0	59.9	10.3	1.0	3.6	18.2	61.7	15.5
가구 유형***	1인	1.9	8.1	21.0	60.6	8.4	1.5	4.2	18.6	60.2	15.5
	부부	0.1	4.5	17.2	66.8	11.3	0.1	2.9	13.6	66.7	16.8
	자녀 동거	0.2	3.5	19.4	63.2	13.7	0.0	2.3	13.5	65.6	18.6
	기타	0.0	3.3	20.6	65.5	10.7	0.0	3.6	13.3	65.6	17.5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1.6	7.5	24.4	61.0	5.5	1.0	6.1	19.3	62.6	11.0
	중학교	1.1	4.6	23.5	63.1	7.7	0.4	2.8	18.1	65.0	13.7
	고등학교	0.1	4.2	18.7	64.2	12.8	0.0	2.6	13.8	65.1	18.5
	대학 이상	0.1	2.8	13.2	67.4	16.5	0.0	1.6	9.1	68.4	20.9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0.2	4.0	18.5	65.1	12.1	0.1	2.2	13.1	66.5	18.1
	미취업	0.7	5.0	20.0	61.8	12.5	0.5	4.4	16.9	62.1	16.0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0.6	6.3	20.8	61.6	10.7	0.4	4.2	16.8	62.0	16.6
	300만~500만 원 미만	0.3	3.9	19.0	64.7	12.1	0.1	2.5	14.1	65.5	17.9
	500만 원 이상	0.0	2.4	16.6	67.1	13.9	0.0	1.3	10.9	69.3	18.6

주: 1)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2) * $p < 0.05$, ** $p < 0.01$, *** $p < 0.001$: 현재 삶에서 사회참여 중요도 기준

제 7 장

가족·사회관계 및 부양 수준

제1절 가족 현황 및 사회관계

제2절 부모와의 부양 교환

제3절 자녀와의 부양 교환

7

가족·사회관계 및 부양 수준 <<

이 장은 신중년의 부모 및 자녀와의 관계, 부양 교환 수준을 파악한 후, 사회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사회관계 및 부양 수준을 분석하기 전, 본인 및 배우자의 생존 부모, 자녀 수 및 동거 여부 등의 가족 현황을 짚어 보고, 연락과 만남, 병원 동행, 집안일 도움, 손자녀 돌봄, 경제적 교환금액, 부담수준 등을 중점으로 가족과의 부양 교환을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밀감을 느끼는 친구 수와 접촉 빈도를 파악한다.

제1절 가족 현황 및 사회관계

1. 가족 현황

신중년의 가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표 7-1>과 같이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생존 여부, 자녀 여부, 자녀와의 동거 현황 등을 살펴본다. 부모의 생존 여부는 부모 중 1명 이상이 살아 있는 경우의 비율이며, 본인 부모의 경우 39.3%로 배우자 부모 38.8%보다 높다. 즉 본인 부모 중 1명 이상이 살아 있는 신중년은 10명 중 4명 수준이며, 본인 부모의 생존 비율이 배우자 부모의 생존 비율보다 조금 더 높다. 그리고 신중년의 53.7%는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중 1명 이상이 생존해 있다.

부모의 생존 여부는 신중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차이가 있는데, 본인 부모 생존율의 경우 지역,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다르며, 배우자 부모 생존율의 경우 성

별,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다르다. 특히 부모 생존율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구분 없이 - 연령대가 낮을수록(50~54세 55.9~56.1%),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대학 이상 49.9~57.6%), 가구소득이 높을수록(500만 원 이상 48.0~50.0%) 부모 중 1명 이상이 살아 있는 비율이 높다.

신중년의 5.9%만 자녀가 없으며, 대부분의 신중년(94.1%)은 자녀가 있다. 우선 자녀가 없는 비율(무자녀 비율)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특히 결혼 상태와 가구 유형에서 차이가 큰데, 배우자가 없는 경우 무자녀 비율이 30.6%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2.0%보다 15배 이상 차이가 난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가 35.1%로 가장 크고, 기타 가구 20.4%, 부부 가구 4.9% 순이다. 결혼 상태 및 가구 유형별 차이보다는 작지만, 가구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12.5%, 300만~500만 원 미만 3.7%, 500만 원 이상 1.2%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무자녀 비율이 높은 특성이 있다. 하위 소득집단과 1인 가구는 무자녀 비율이 높아 자녀로부터 경제적 및 도구적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들 집단에 대한 공적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

신중년의 평균 자녀 수는 1.9명이고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큰 차이가 없다.¹⁵⁾ 이는 신중년은 가족계획 및 출산 선택에서 2자녀 규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신중년 3690명 중 56.5%(신중년 4006명 기준 53.2%)가 자녀와 동거하고 있다. 신중년이 동거하는 평균 자녀 수는 0.8명, 비동거하는 평균 자녀 수는 1.1명으로 비동거하는 자녀가 조금 더 많은 편이다.

15) 자녀 수, 동거 자녀 수, 비동거 자녀 수는 신중년의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그 차이가 매우 작음. 따라서 자세한 특성별 비교 분석을 생략함.

〈표 7-1〉 부모 및 자녀 현황

(단위: %, 명)

구분		부모 생존 ¹⁾		자녀				계(명)
		본인	배우자 ²⁾	무자녀 비율	자녀 수	동거	비동거	
지역**	전체	39.3	38.8	5.9	1.9	0.8	1.1	100.0 (4,006)
	동부	40.5	38.4	6.0	1.9	0.9	1.0	100.0 (3,211)
	읍면부	34.4	40.2	5.6	2.0	0.6	1.4	100.0 (795)
성별	남성	38.2	42.1	7.9	1.8	0.8	1.0	100.0 (1,985)
	여성	40.3	35.4	3.9	1.9	0.8	1.1	100.0 (2,021)
연령***	50~54세	56.1	55.9	7.1	1.8	1.3	0.5	100.0 (1,173)
	55~59세	46.6	41.2	7.4	1.8	0.9	0.9	100.0 (1,371)
	60~64세	24.2	26.5	4.0	1.9	0.5	1.4	100.0 (793)
	65~69세	12.6	15.8	2.9	2.1	0.3	1.8	100.0 (669)
결혼 상태***	유배우	40.1	-	2.0	2.0	0.9	1.1	100.0 (3,461)
	무배우	34.0	-	30.6	1.3	0.3	1.0	100.0 (545)
가구 유형***	1인	28.1	-	35.1	1.3	0.0	1.3	100.0 (353)
	부부	28.5	28.4	4.9	1.9	0.0	1.9	100.0 (1,396)
	자녀 동거	45.4	44.8	-	2.0	1.6	0.4	100.0 (2,038)
	기타	68.6	58.3	20.4	1.6	0.7	0.9	100.0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18.4	23.6	8.8	2.1	0.4	1.8	100.0 (321)
	중학교	21.2	22.8	5.7	2.0	0.5	1.5	100.0 (549)
	고등학교	40.6	40.2	5.6	1.8	0.9	1.0	100.0 (2,410)
	대학 이상	57.6	49.9	5.8	1.8	1.2	0.6	100.0 (72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40.7	40.8	5.2	1.9	0.9	1.0	100.0 (3,101)
	미취업	34.5	31.1	8.5	1.8	0.6	1.2	100.0 (9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28.9	27.8	12.5	1.8	0.4	1.4	100.0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39.5	38.1	3.7	1.9	0.8	1.1	100.0 (1,339)
	500만 원 이상	50.0	48.0	1.2	2.0	1.3	0.7	100.0 (1,283)

주: 1) 본인과 배우자로 구분하여 부모 중 1명 이상 생존한 비율을 의미함.

2)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3094명을 분석 대상으로 함.

3) '-'는 해당 없음을 의미함.

4) * p < 0.05, ** p < 0.01, *** p < 0.001: 본인 부모 생존 기준

〈표 7-2〉는 신중년의 부모 생존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신중년의 부모 생존을 부모 모두 생존, 아버지만 생존, 어머니만 생존, 부모 모두 사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신중년의 11.8%는 본인 부모, 11.3%는 배우자 부모가 모두 생존한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배우자 부모는 현재 결혼 상태가 유배우자인 3094명의 신중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부모 중 1명만 생존한 경우는 어머니의 생존 비율이 더 높아서 본인 및 배우자 어머니 각각 25.4%, 24.7%이다. 아버지만 생존한 비율은 10분의 1 수준으로 본인 아버지 2.1%, 배우자 아버지 2.8%이다. 따라서 앞으로 살펴볼 신중년이 경험하는 부모와의 관계 및 부양 실태는 고령 여성 노인과의 관계와 관련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부모가 모두 사망한 비율이 본인 및 배우자 부모 각각 60.7%, 61.2%이다.

생존한 부모의 연령은 80대 초반이며, 본인 부모의 평균 연령이 배우자 부모의 평균 연령보다 약 1세 높다(본인 부 82.9세, 본인 모 82.1세, 배우자 부 81.4세, 배우자 모 81.5세).

부모와의 동거 여부는 본인 부모 8.1%, 배우자 부모 4.6%로 신중년의 부모와의 동거 비율은 낮은 편이다.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구분 없이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은 8.9%이다(신중년 4006명 기준 4.8%).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구조와 달리 부모와의 비동거가 일반적인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은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표 7-2〉 신중년의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생존, 연령, 동거 여부

(단위: %, 세)

구분		본인	배우자 ¹⁾
부모 생존	부모 모두 생존	11.8	11.3
	아버지만 생존	2.1	2.8
	어머니만 생존	25.4	24.7
	부모 모두 사망	60.7	61.2
부모 평균 연령 ²⁾	부	82.9	81.4
	모	82.1	81.5
부모 동거 여부 ³⁾	동거	8.1	4.6
	비동거	91.9	95.4
계		100.0	100.0
(명)		(4,006)	(3,094)

주: 1)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3094명을 분석 대상으로 함.

2) 본인의 경우 아버지 생존 516명, 어머니 생존 1400명 대상이며, 배우자의 경우 아버지 생존 447명, 어머니 생존 1137명 대상임.

3) 본인 부모 중 1명 이상이 생존해 있는 1489명, 배우자 부모 중 1명 이상이 생존해 있는 1298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사회관계

가족과 더불어 친구는 신중년 개인의 삶에서 시간 활용, 정서적인 지지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친밀감을 느끼는 친구의 규모와 접촉 빈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신중년의 대부분인 90.1%는 문제나 걱정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며, 이들은 평균적으로 3.8명의 친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표 7-3〉 참조).

신중년의 고민거리 상담 가능한 친구 유무는 지역,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다. 지역별로 동부 거주자(91.4%)가 읍면부

거주자(84.7%)보다 상담 가능한 친구가 있다는 비율이 높고, 성별로는 여성(91.6%)이 남성(88.5%)보다 상담 가능한 친구가 있다는 비율이 높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체로 고민 상담이 가능한 친구가 있다는 비율이 감소하여 50~54세는 고민 상담이 가능한 친구가 있다는 비율이 91.7%인 반면 65~69세는 87.5%이다.

결혼 상태별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90.9%)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85.0%)에 비해 고민 상담이 가능한 친구가 있다는 비율이 높다.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민 상담이 가능한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자녀 동거 가구(92.7%)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부부 가구(88.6%), 기타 가구(85.3%), 1인 가구(84.1%) 순이다. 또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고민 상담이 가능한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초등학교 이하 79.6%, 대학 이상 94.2%). 현재 취업 여부별로는 취업자(90.9%)가 미취업(87.3%)에 비해 고민 상담이 가능한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고민 상담이 가능한 친구가 있다는 응답이 높다(300만 원 미만 84.5%, 500만 원 이상 94.4%).

이와 같이 인구학적 제 특성별 신중년의 친구 규모는 상대적으로 읍면부 지역 거주, 무배우자, 1인 가구, 저학력, 저소득인 경우 ‘없음’ 비율이 높은 편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성의 신중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상태가 취약하고, 사회참여가 활발하지 않은 특성 또한 함께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관심이 높은 집단으로 볼 수 있다.

고민거리 상담이 가능한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신중년 3609명의 친구 수는 4인 이상이 35.5%로 가장 높고, 그다음 3인 27.5%, 2인 27%, 1인 9.9% 순이다. 즉 신중년은 대체로 원활한 사회관계를 유지하며 다수의 친구와 본인의 문제나 걱정거리를 이야기하는 등 친밀감을 유지하고 있다.

〈표 7-3〉 친밀감을 느끼는 친구 유무 및 규모

(단위: %, 명)

구분	있음	친구 규모 ¹⁾						계 (명)
		1인	2인	3인	4인 이상	평균		
전체	90.1	9.9	27.0	27.5	35.5	3.8	100.0	(3,609)
지역***	동부	91.4	9.6	27.2	27.9	35.3	3.7	100.0 (2,936)
	읍면부	84.7	11.3	26.5	25.7	36.6	4.0	100.0 (673)
성별***	남성	88.5	9.0	27.8	25.6	37.6	4.0	100.0 (1,758)
	여성	91.6	10.8	26.3	29.3	33.6	3.6	100.0 (1,851)
연령*	50~54세	91.7	9.9	25.9	28.1	36.1	3.7	100.0 (1,075)
	55~59세	90.6	9.0	27.5	28.7	34.8	3.7	100.0 (1,241)
	60~64세	89.2	8.6	30.2	25.2	35.9	3.8	100.0 (707)
	65~69세	87.5	13.5	24.5	26.5	35.5	4.0	100.0 (585)
결혼 상태***	유배우	90.9	9.1	26.8	27.8	36.4	3.8	100.0 (3,145)
	무배우	85.0	15.7	29.0	25.5	29.9	3.6	100.0 (463)
가구 유형***	1인	84.1	16.3	31.7	25.1	26.9	3.4	100.0 (296)
	부부	88.6	10.2	27.2	26.9	35.7	3.7	100.0 (1,236)
	자녀 동거	92.7	8.3	26.7	28.4	36.6	3.9	100.0 (1,888)
	기타	85.3	14.3	22.4	26.3	37.0	3.9	100.0 (188)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79.6	9.7	28.9	28.0	33.4	3.7	100.0 (256)
	중학교	84.8	12.2	29.6	26.3	31.9	3.6	100.0 (465)
	고등학교	91.5	10.2	27.2	28.0	34.6	3.8	100.0 (2,204)
	대학 이상	94.2	7.6	24.1	26.5	41.8	4.1	100.0 (684)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90.9	9.1	27.1	28.5	35.2	3.7	100.0 (2,819)
	미취업	87.3	12.7	26.9	23.8	36.5	3.9	100.0 (790)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84.5	13.7	31.0	24.0	31.3	3.6	100.0 (1,164)
	300만~500만 원 미만	91.7	8.3	26.8	28.7	36.2	3.7	100.0 (1,229)
	500만 원 이상	94.4	8.1	23.6	29.4	39.0	4.0	100.0 (1,210)

주: 1) 고민거리 상담 가능한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3609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 p < 0.05, ** p < 0.01, *** p < 0.001: 친구 있음 기준

고민거리 상담이 가능한 친구의 수는 성별,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다. 남성의 경우 평균 4명으로 여성 3.6명보다 많고, 가구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4명으로 300만 원 미만의 3.6명보다 많다. 친구 수의 분포에서도 이러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7-4〉는 신중년이 친밀한 친구와 접촉하는 빈도를 보여 준다. 신중년이 친밀한 친구와 접촉하는 빈도는 ‘주 2회 이상’이 39.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 1회(22.9%)’, ‘월 1회(19.5%)’, ‘2주에 1회(10.8%)’, ‘월 1회 미만(7.3%)’ 순이다. 신중년이 친밀감을 느끼는 친구와 접촉하는 빈도는 지역,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다.

신중년의 특성별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주 2회 이상’을 기준으로 읍면부의 경우(15.3%포인트), 여성의 경우(9.7%포인트), 배우자가 없는 경우(6.7%포인트), 가구 유형이 1인 가구인 경우(9.7%포인트: 1인 가구 47.5%, 부부 가구 37.8%),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13.7%포인트: 중학교 이하 47.6%, 대학 이상 33.9%), 미취업인 경우(6.3%포인트) 응답 비율이 더 높다. 연령별 차이는 크지 않다.

가구소득별로는 300만 원 미만(4.0%포인트) 또는 500만 원 이상(3.6%포인트)이 300만~500만 원 미만보다 ‘주 2회 이상’이라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의 신중년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고립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표 7-4〉 친구와의 접촉 빈도

(단위: %, 명)

구분		접촉 빈도					계 (명)
		주 2회 이상	주 1회	2주에 1회	월 1회	월 1회 미만	
	전체	39.5	22.9	10.8	19.5	7.3	100.0 (3,609)
지역***	동부	36.6	24.3	11.3	20.1	7.6	100.0 (2,936)
	읍면부	51.9	17.0	8.3	16.6	6.2	100.0 (673)
성별***	남성	34.5	23.8	11.0	21.8	8.8	100.0 (1,758)
	여성	44.2	22.1	10.5	17.3	5.9	100.0 (1,851)
연령*	50~54세	39.2	22.8	10.2	19.0	8.9	100.0 (1,075)
	55~59세	40.3	23.0	10.7	17.6	8.3	100.0 (1,241)
	60~64세	38.1	22.5	12.3	22.4	4.6	100.0 (707)
	65~69세	39.9	23.5	10.2	20.7	5.7	100.0 (585)
결혼 상태***	유배우	38.6	22.5	10.7	20.3	7.8	100.0 (3,145)
	무배우	45.3	25.6	11.0	14.2	3.8	100.0 (463)
가구 유형***	1인	47.5	25.3	10.0	13.6	3.6	100.0 (296)
	부부	37.8	24.6	10.1	21.0	6.4	100.0 (1,236)
	자녀 동거	39.3	21.1	11.3	19.5	8.8	100.0 (1,888)
	기타	40.1	26.1	11.0	18.7	4.1	100.0 (188)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47.6	20.3	9.8	13.3	8.8	100.0 (256)
	중학교	47.6	21.7	11.2	12.9	6.7	100.0 (465)
	고등학교	38.6	24.0	10.4	19.8	7.2	100.0 (2,204)
	대학 이상	33.9	21.3	12.0	25.1	7.7	100.0 (684)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38.1	22.9	11.3	20.0	7.7	100.0 (2,819)
	미취업	44.4	22.9	8.8	17.7	6.2	100.0 (790)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41.0	25.5	9.2	17.9	6.4	100.0 (1,164)
	300만~500만 원 미만	37.0	21.4	11.7	22.1	7.8	100.0 (1,229)
	500만 원 이상	40.6	22.1	11.2	18.4	7.8	100.0 (1,210)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제2절 부모와의 부양 교환

1. 부모와의 정서적 및 도구적 부양 교환

신중년이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본인 부모나 배우자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부양 교환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부양 교환을 접촉 빈도, 청소·식사 준비(장보기, 반찬 제공 등)·세탁 등 집안일, 간병이나 수발·병원 동행 등 경제적인 부양으로 구분하여 파악한다. 여기서 접촉 빈도는 신중년이 부모를 방문하거나 부모가 신중년을 방문하는 경우, 전화·문자·편지 등에 의한 상호 연락을 모두 포함한다.

“지난 1년간 따로 살고 있는 부모와 얼마나 자주 연락하거나 만났는지” 질문한 결과, 본인 부모와의 접촉 빈도는 ‘주 2회 이상’이 26.7%로 가장 높고, 그다음 ‘주 1회’ 26.0%, ‘월 1회’ 17.8%, ‘2주에 1회’ 17.5%, ‘월 1회 미만’ 12.0% 순이다(〈표 7-5〉 참조). 반면에 신중년과 배우자 부모와의 접촉 빈도는 ‘월 1회’가 25.9%로 가장 높고 그다음 ‘월 1회 미만’ 24.6%, ‘주 1회’ 18.5%, ‘주 2회 이상’ 15.5%, ‘2주에 1회’ 15.5% 순이다. 따라서 신중년은 배우자의 부모보다 본인의 부모와 연락하거나 만나는 빈도가 더 높다(〈표 7-6〉 참조).

신중년은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본인 부모와의 접촉 빈도에 차이가 있다. 본인 부모와 월 1회 이하로 접촉한다는 응답이 높은 집단을 살펴보면, 연령대가 65~69세(44.5%), 가구 유형이 1인 가구(40.0%), 중학교 이하 교육 수준(초등학교 이하 39.0%, 중학교 36.8%)으로 확인된다. 신중년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배우자 부모와의 접촉 빈도 차이는 본인 부모와의 접촉 빈도 차이보다 크지 않지만, 성별, 연령,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에 따라 접촉 빈도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배우자

부모와의 접촉 빈도가 높는데, 주 2회 이상 접촉하는 경우가 초등학교 이하 33.6%, 중학교 23.2%, 고등학교 14.9%, 대학 이상 12.1% 순이다.

〈표 7-5〉 본인 부모와의 연락 및 만남 빈도

(단위: %, 명)

구분		빈도					계 (명)
		주 2회 이상	주 1회	2주에 1회	월 1회	월 1회 미만	
	전체	26.7	26.0	17.5	17.8	12.0	100.0 (1,446)
지역	동부	26.8	26.3	17.8	18.1	11.0	100.0 (1,200)
	읍면부	26.5	24.4	16.1	16.2	16.8	100.0 (246)
성별**	남성	22.2	27.7	17.7	18.6	13.8	100.0 (668)
	여성	30.6	24.5	17.4	17.1	10.4	100.0 (778)
연령*	50~54세	29.1	25.9	17.3	18.5	9.2	100.0 (618)
	55~59세	23.7	28.5	18.0	16.1	13.7	100.0 (583)
	60~64세	29.2	22.4	17.7	18.5	12.2	100.0 (171)
	65~69세	24.8	14.5	16.2	23.9	20.6	100.0 (74)
결혼 상태**	유배우	25.7	27.2	17.8	17.7	11.6	100.0 (1,305)
	무배우	36.5	14.0	15.2	19.3	14.9	100.0 (141)
가구 유형**	1인	31.4	15.5	13.0	21.6	18.4	100.0 (99)
	부부	26.6	25.1	16.5	18.2	13.6	100.0 (398)
	자녀 동거	25.6	27.9	18.7	17.5	10.3	100.0 (925)
	기타 ¹⁾	52.1	9.5	11.3	6.8	20.3	100.0 (24)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26.5	11.7	22.9	21.7	17.3	100.0 (51)
	중학교	20.6	21.1	21.5	23.9	12.9	100.0 (106)
	고등학교	27.2	24.3	18.4	16.9	13.3	100.0 (904)
	대학 이상	27.3	33.1	13.8	17.8	7.9	100.0 (385)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24.7	26.3	18.6	18.3	12.0	100.0 (1,164)
	미취업	34.9	24.4	13.1	15.9	11.7	100.0 (282)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27.5	21.9	16.1	17.1	17.5	100.0 (351)
	300만~500만 원 미만	24.8	29.8	17.7	17.3	10.4	100.0 (489)
	500만 원 이상	28.0	25.2	18.4	18.3	10.1	100.0 (602)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2)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7-6〉 배우자 부모와의 연락 및 만남 빈도

(단위: %, 명)

구분		빈도					계 (명)
		주 2회 이상	주 1회	2주에 1회	월 1회	월 1회 미만	
전체		15.5	18.5	15.5	25.9	24.6	100.0 (1,298)
지역	동부	15.2	18.8	15.3	26.9	23.8	100.0 (1,043)
	읍면부	16.6	17.1	16.7	21.6	28.1	100.0 (255)
성별***	남성	12.2	14.5	14.9	26.2	32.2	100.0 (721)
	여성	19.6	23.4	16.3	25.6	15.2	100.0 (578)
연령*	50~54세	16.8	20.9	14.1	26.8	21.4	100.0 (560)
	55~59세	13.5	18.7	17.5	24.4	25.9	100.0 (486)
	60~64세	15.5	14.8	13.8	30.0	26.0	100.0 (178)
	65~69세	18.4	7.2	17.5	19.2	37.7	100.0 (74)
결혼 상태	유배우	15.5	18.7	15.5	25.9	24.4	100.0 (1,282)
	무배우 ¹⁾	17.8	0.0	16.4	23.1	42.7	100.0 (16)
가구 유형	1인 ¹⁾	8.4	0.0	26.2	14.2	51.3	100.0 (6)
	부부	18.2	18.5	14.5	24.1	24.7	100.0 (396)
	자녀 동거	14.7	18.4	16.3	26.6	24.1	100.0 (868)
	기타 ¹⁾	3.2	24.3	4.8	33.2	34.5	100.0 (28)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33.6	13.7	14.6	12.7	25.4	100.0 (48)
	중학교	23.2	18.4	12.9	17.6	27.8	100.0 (96)
	고등학교	14.9	17.6	16.1	25.9	25.5	100.0 (827)
	대학 이상	12.1	21.2	14.9	30.3	21.4	100.0 (328)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15.2	16.9	15.6	26.4	26.0	100.0 (1,079)
	미취업	17.0	26.2	15.3	23.6	18.0	100.0 (220)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7.7	13.4	14.6	25.5	28.9	100.0 (265)
	300만~500만 원 미만	14.3	19.8	16.5	25.9	23.6	100.0 (452)
	500만 원 이상	15.4	19.5	15.3	26.2	23.6	100.0 (579)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2) * p < 0.05, ** p < 0.01, *** p < 0.001

신중년은 지난 1년간 따로 사는 부모와 집안일, 간병·병원 동행 도움과 같은 도구적인 부양 교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표 7-7〉 참조). 본인의 비동거 부모에게 신중년의 약 61.0%가 집안일 도움을 제공하고, 18.5%가 본인의 부모로부터 집안일 도움을 수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중년이 배우자의 비동거 부모와 집안일 도움을 교환한 비율은 이보다 조금 낮아서 제공 56.3%, 수혜 17.5%이다. 집안일 도움 제공은 ‘월 1회(본인 부모 15.3%, 배우자 부모 12.4%)’ 또는 ‘3개월에 1회(본인 부모 13.5%, 배우자 부모 14.5%)’라는 응답이 높다.

신중년의 41.8%는 본인의 부모에게 간병·병원 동행을 제공하고, 본인의 부모로부터 5.8%가 간병·병원 동행 도움을 받았다. 배우자의 부모와는 간병·병원 동행 도움의 제공 36.4%, 수혜 5.7%로 나타났다. 즉 신중년은 본인 및 배우자의 비동거 부모에게 도구적인 도움을 주로 주는 편이며, 집안일 도움이 간병·병원 동행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연령, 현재 취업 여부에 따라 신중년이 비동거 본인 부모에게 집안일 도움을 제공하는 비율이 다르다(〈표 7-8〉 참조). 여성(67.5%)인 경우 남성(53.4%)에 비해, 미취업(71.7%)인 경우 취업 중(58.4%)에 비해 집안일 도움의 제공률이 높은 편이다. 연령 별로는 65~69세의 경우 45.5%로 다른 연령에 비해 본인 부모에게 집안일을 제공하는 비율이 낮다.

신중년이 비동거 본인 부모로부터 집안일 도움을 받는 비율은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다. 특히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30.5%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17.2%보다 비동거하는 부모로부터의 집안일 도움 수혜율이 높다. 또한 가구 유형이 1인 가구의 경우 29.0%로 집안일 도움의 수혜율이 가장 높은 반면, 기타 가구의 경우 2.5%로 매우 낮다.

신중년이 본인 부모에게 간병·병원 동행 도움을 제공하는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특성 차이가 없다.

〈표 7-7〉 신중년의 비동거 본인 및 배우자 부모와의 도구적 부양 교환 빈도

(단위: %, 명)

구분		본인	배우자
집안일 도움 제공	주 4회 이상	1.9	0.7
	주 2~3회	2.5	1.6
	주 1회	5.9	3.4
	2주에 1회	5.4	4.4
	월 1회	15.3	12.4
	3개월에 1회	13.5	14.5
	6개월에 1회	9.5	10.9
	연 1회 이하	7.0	8.4
	미제공	39.0	43.7
집안일 도움 수혜	주 4회 이상	0.4	0.3
	주 2~3회	0.8	0.4
	주 1회	1.4	0.9
	2주에 1회	0.5	0.6
	월 1회	3.7	2.1
	3개월에 1회	3.2	3.3
	6개월에 1회	2.9	3.3
	연 1회 이하	5.5	6.7
	미수혜	81.5	82.5
간병· 병원 동행 도움 제공	주 4회 이상	0.9	0.1
	주 2~3회	1.3	1
	주 1회	1.5	1
	2주에 1회	2.5	1.6
	월 1회	9.6	6.3
	3개월에 1회	9.1	7.6
	6개월에 1회	8.1	9.4
	연 1회 이하	8.8	9.4
	미제공	58.2	63.6
간병· 병원 동행 도움 수혜	수혜	5.9	5.7
	미수혜	94.1	94.3
계 (명)		100.0 (1,446)	100.0 (1,298)

〈표 7-8〉 신중년의 비동거 본인 부모와의 도구적 부양 교환

(단위: %, 명)

구분		집안일 도움		간병·병원 동행 도움 제공률
		제공률	수혜율	
	전체	61.0	18.5	41.8
지역	동부	60.9	19.5	40.8
	읍면부	61.2	13.6	46.9
성별***	남성	53.4	17.0	41.5
	여성	67.5	19.7	42.1
연령*	50~54세	62.2	22.2	37.3
	55~59세	59.0	14.6	42.8
	60~64세	69.6	20.9	52.8
	65~69세	45.5	12.1	46.1
결혼 상태	유배우	61.2	17.2	41.5
	무배우	58.6	30.5	44.6
가구 유형	1인	55.2	29.0	38.6
	부부	63.7	16.1	48.9
	자녀 동거	60.7	18.8	39.4
	기타	49.4	2.5	30.9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58.9	18.6	37.7
	중학교	57.1	16.7	42.5
	고등학교	60.6	18.3	40.8
	대학 이상	63.0	19.3	44.5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58.4	18.2	41.2
	미취업	71.7	19.6	44.2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62.2	17.4	45.2
	300만~500만 원 미만	61.4	18.2	42.2
	500만 원 이상	60.1	19.5	39.8

주: 1) 비동거하는 본인 부모가 있다고 응답한 1351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5$, ** $p < 0.01$, *** $p < 0.001$: 집안일 도움 제공률 기준

〈표 7-9〉 신중년의 비동거 배우자 부모와의 도구적 부양 교환

(단위: %, 명)

	구분	집안일 도움		간병·병원 동행 도움 제공률
		제공률	수혜율	
	전체	56.3	17.5	36.4
지역	동부	55.9	18.3	35.4
	읍면부	57.9	14.6	40.6
성별***	남성	48.3	18.2	31.0
	여성	66.3	16.7	43.2
연령	50~54세	56.5	18.2	32.2
	55~59세	56.7	16.5	39.3
	60~64세	56.5	18.9	40.5
	65~69세	51.8	16.0	39.7
결혼 상태	유배우	56.5	17.6	36.5
	무배우	42.7	9.2	29.2
가구 유형	1인	66.0	14.0	42.2
	부부	57.3	16.4	43.9
	자녀 동거	55.5	18.1	33.1
	기타	65.4	16.3	31.4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53.8	8.9	27.4
	중학교	53.7	20.8	42.7
	고등학교	57.8	18.1	36.2
	대학 이상	53.7	16.3	36.5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54.4	18.1	35.3
	미취업	65.5	14.8	42.0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57.6	16.5	42.0
	300만~500만 원 미만	54.3	14.8	37.8
	500만 원 이상	57.4	20.3	32.9

주: 1) 비동거하는 배우자 부모가 있다고 응답한 1197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5$, ** $p < 0.01$, *** $p < 0.001$: 집안일 도움 제공률 기준

〈표 7-9〉는 비동거 배우자 부모에게 집안일 도움을 제공하는 신중년의 비율이 성별, 현재 취업 여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준다. 여성(66.3%)인 경우 남성(48.3%)에 비해, 미취업(65.5%)인 경우 취업 중(54.4%)에 비해 집안일 도움의 제공률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본인 및 배우자 부모와의 집안일 도움은 여성, 미취업인 경우에 보다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신중년 여성은 가사활동에서 남성보다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중년이 비동거 배우자 부모로부터 집안일 도움을 받는 비율은 가구소득에 따라 다른데, 소득 수준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20.3%로 300만 원 미만 16.5%, 300만~500만 원 미만 14.8%보다 높다.

〈표 7-10〉에서는 비동거 부모에게 도구적 도움을 주고 있는 경우, 도구적 부양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였다. 그 결과 신중년의 본인 부모의 경우 10.8%가 부담스러워 하고 있으며(부담+매우 부담), 41.3%는 보통, 48.0%(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포함)는 부담스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경향성은 배우자 부모의 경우에도 비슷하여, ‘부담스럽다’ 10.1%, ‘보통이다’ 40.2%, ‘부담스럽지 않다’ 49.7%이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비교해보면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신중년의 11.8%가 본인 부모에게 제공하는 도구적 지원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읍면부 지역에 거주하는 신중년의 6.4%보다 느끼는 부담감이 크다. 가구 유형의 경우 기타 가구(26.3%)가 다른 가구 유형(1인 가구 12.5%, 자녀 동거 가구 10.7%, 부부 가구 10.0%)에 비해 본인 부모에게 제공하는 도구적 지원의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

배우자 부모의 경우 지역, 성별,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에 따라 도구적 지원의 부담 정도에 차이가 있다. 특히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부담스럽다는 응답 비율이 11.5%로 읍면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4.8%보다 높고, 여성의 경우도 13.0%로 남성의 7.0%보다 높다. 또한 현재 미취업인 경우 배우자 부모에게 제공하는 도구적 지원이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18.2%로 취업 중인 경우 8.1%보다 높다.

〈표 7-10〉 신중년의 비동거 본인 및 배우자 부모에 대한 도구적 도움 제공 부담 정도

(단위: %)

구분		본인 ¹⁾					배우자 ²⁾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전체	0.9	9.9	41.3	35.2	12.8	0.5	9.6	40.2	36.6	13.1
지역***	동부	1.0	10.8	43.5	33.5	11.3	0.7	10.8	41.7	34.9	12.0
	읍면부	0.6	5.8	30.6	43.1	19.9	0.0	4.8	34.5	43.3	17.4
성별	남성	1.2	9.5	40.8	33.6	14.9	0.2	6.8	37.2	38.9	16.9
	여성	0.7	10.1	41.6	36.3	11.3	0.8	12.2	43.0	34.5	9.5
연령	50~54세	0.3	9.8	36.0	39.9	14.0	0.3	9.1	40.9	35.5	14.2
	55~59세	1.1	10.1	45.5	31.8	11.6	0.3	12.0	39.5	35.7	12.5
	60~64세	2.6	7.9	42.4	31.6	15.5	1.9	6.1	40.3	38.5	13.1
	65~69세	0.0	15.1	51.4	29.7	3.8	0.0	5.6	39.4	46.2	8.8
결혼 상태	유배우	1.0	9.3	42.2	35.3	12.3	0.5	9.6	40.2	36.7	13.0
	무배우 ³⁾	0.4	15.7	32.5	33.4	18.0	0.0	5.9	45.8	29.0	19.3
가구 유형**	1인 ⁵⁾	0.6	11.9	36.3	39.3	11.9	0.0	10.4	49.6	21.9	18.0
	부부	1.4	8.6	44.6	34.2	11.2	0.8	9.8	38.8	40.1	10.5
	자녀 동거	0.8	9.9	40.7	35.9	12.8	0.4	9.9	40.9	34.8	14.1
	기타 ⁴⁾	0.0	26.3	20.7	3.0	49.9	0.0	0.0	38.4	41.5	20.1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⁵⁾	0.0	0.1	49.7	37.0	13.2	0.0	8.0	38.2	46.1	7.6
	중학교	0.0	8.8	43.0	36.2	12.0	0.0	11.2	50.7	23.8	14.3
	고등학교	1.1	10.2	37.3	37.7	13.8	0.4	9.3	35.5	41.3	13.5
	대학 이상	0.8	10.7	48.9	28.9	10.7	1.1	10.0	49.9	26.5	12.4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0.7	8.6	41.5	36.4	12.8	0.1	8.0	41.4	37.0	13.5
	미취업	1.6	14.6	40.4	30.7	12.8	2.1	16.1	35.4	35.0	11.4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0.2	13.4	38.2	33.4	14.9	0.0	13.8	36.9	37.7	11.7
	300만~500만 원 미만	1.1	8.4	43.0	37.0	10.4	0.8	6.6	45.5	36.9	10.2
	500만 원 이상	1.2	9.1	41.7	34.5	13.5	0.6	9.9	37.9	35.7	16.0

주: 1) 비동거하는 본인 부모에게 도구적 부양을 제공한 959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비동거하는 배우자 부모에게 도구적 부양을 제공한 794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3) ① 매우 부담스럽다, ② 부담스럽다, ③ 보통이다, ④ 부담스럽지 않다, ⑤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4) 본인 부모의 경우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5) 배우자 부모의 경우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6) * p < 0.05, ** p < 0.01, *** p < 0.001: 본인 부모 기준

신중년이 배우자 부모에게 간병·병원 동행 도움을 제공하는 비율은 성별, 가구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여성의 경우 43.2%로 남성의 31.0%보다 높고, 가구 유형이 부부 가구(43.9%) 또는 1인 가구(42.2%)인 경우 높은 편이다(자녀 동거 가구 33.1%, 기타 가구 31.4%).

2. 부모와의 경제적 부양 교환

비동거 부모와 신중년의 경제적인 부양 교환을 살펴보면, 신중년의 81.0%(본인 부모 81.0%, 배우자 부모 81.6%)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와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받고 있으며 본인이 부모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부모로부터 받는 금액보다 더 많다(〈표 7-11〉 참조). 현금 지원은 용돈, 생활비, 병원비, 부동산 구매 등이며, 현물 지원은 여행 및 관광, 건강용품, 생활용품, 전자제품, 외식 및 음식물, 상품권 등이 포함된다. 본인 부모의 경우 본인이 부모에게 제공하는 경제적인 도움은 연간 189만 원이며, 본인이 부모로부터 받는 경제적인 지원은 10분의 1 수준인 연간 18만 원이다. 배우자 부모의 경우에도 본인이 배우자 부모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은 연간 155만 원이며, 본인이 배우자 부모로부터 받는 경제적 지원은 연간 20만 원이다. 경제적인 지원은 현금 지원뿐 아니라 현물 지원도 포함된다.

신중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에 따라 본인 부모와의 경제적인 도움 교환 여부의 차이가 확인된다. 결혼 상태별로 유배우자의 경우 본인 부모와 경제적 부양을 교환하는 빈도가 82.8%인 반면 무배우자는 63.8%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가구 유형별로는 부부 가구(87.3%)와 자녀 동거 가구(80.9%)의 경제적 부양 교환 비율이 높은 반면, 1인 가구(60.5%)와 기타 가구(63.5%)는 낮다. 교육 수준별로 학력이 높을수록 본인 부모와의 경

제적 부양 교환 비율이 높아져 초등학교 이하의 경우 67.6%인 반면 대학 이상은 87.7%로 차이가 크다. 현재 취업 여부별로는 취업자(82.2%)의 경우 미취업자(75.7%)보다 부모와의 경제적 부양 교환이 더 활발하다.¹⁶⁾

한편 본인 부모와 경제적 부양 교환이 있다고 응답한 1171명을 대상으로 연간 경제적 부양 규모를 분석한 결과, 남성인 경우(215만 원), 55~59세의 경우(214만 원), 가구소득이 높을수록(300만 원 미만 132만 원, 300만~500만 원 미만 172만 원, 500만 원 이상 233만 원) 본인 부모에게 제공한 경제적인 도움의 지원 금액이 더 크다. 교육 수준별로는 초등학교 이하가 388만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본인 부모에게 제공하였고, 그 다음 대학 이상 216만 원, 고등학교 172만 원, 중학교 135만 원 순이다.

배우자 부모와 경제적 부양 교환이 있다고 응답한 1059명의 경우, 성별,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의 차이가 확인된다. 여성인 경우(177만 원) 남성(136만 원)보다 경제적 지원 금액이 더 많고, 현재 미취업 중인 경우에는(205만 원) 취업 중인 경우(145만 원)보다 더 많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지원 규모가 더 커서, 300만 원 미만(110만 원), 300만~500만 원 미만(146만 원), 500만 원 이상(184만 원) 순으로 배우자 부모에게 지원하는 경제적 지원 금액이 많다.

반면에 신중년이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지원받는 경제적 금액은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이는 신중년이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금액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는 자신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년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두기 때문일 것으로 유추된다. 아쉽게도 이 연구는 신중년 부모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파악하지 않기 때문에 실증적인 확인은 추후 연구로 남겨둔다.

16) 배우자 부모의 경우 결혼 상태에 따라 경제적 도움 교환 여부의 차이가 있으나,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7-11〉 신중년의 비동거 본인 및 배우자 부모와 경제적 도움 교환 유무 및 금액

(단위: %, 만 원)

구분		본인 ¹⁾			배우자 ²⁾		
		교환율	연간 금액		교환율	연간 금액	
			본인→부모	부모→본인		본인→부모	부모→본인
	전체	81.0	188.6	18.3	81.6	154.8	19.8
지역	동부	80.4	193.4	16.6	81.1	152.4	16.7
	읍면부	83.5	165.9	26.0	83.4	164.4	31.8
성별*	남성	83.6	215.1	22.6	80.9	136.3	16.2
	여성	78.7	164.5	14.3	82.5	177.4	24.1
연령	50~54세	81.5	171.3	21.4	79.6	165.6	26.0
	55~59세	81.6	213.8	16.6	83.5	156.7	19.5
	60~64세	80.7	179.7	19.5	79.9	135.3	7.6
	65~69세	72.5	150.8	0.5	88.2	111.3	4.8
결혼 상태***	유배우	82.8	190.7	19.0	82.0	155.4	19.9
	무배우 ⁴⁾	63.8	163.3	9.1	51.9	80.5	4.2
가구 유형***	1인 ³⁾⁴⁾	60.5	167.6	9.7	72.1	101.8	0.0
	부부	87.3	165.6	14.8	83.6	136.6	20.2
	자녀 동거	80.9	199.2	20.9	80.6	160.8	20.1
	기타 ⁴⁾	63.5	272.1	0.0	85.8	240.3	6.1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⁴⁾	67.6	387.7	15.8	83.7	157.5	1.1
	중학교	74.9	135.1	3.3	84.3	137.7	7.0
	고등학교	79.6	172.4	15.8	80.1	145.7	15.2
	대학 이상	87.7	215.5	27.3	84.1	181.2	37.2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82.2	189.2	19.8	81.9	144.8	22.4
	미취업	75.7	186.2	11.2	80.1	204.9	6.4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79.4	131.9	7.8	85.1	110.3	8.1
	300만~500만 원 미만	80.7	171.6	12.5	81.7	145.5	9.4
	500만 원 이상	82.3	233.4	28.9	80.1	184.0	33.7

주: 1) 비동거 본인 부모가 있는 144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간 금액은 비동거 본인 부모와 경제적 도움 교환이 있다고 응답한 1171명을 대상으로 산출함.

2) 비동거 배우자 부모가 있는 1298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간 금액은 비동거 배우자 부모와 경제적 도움 교환이 있다고 응답한 1059명을 대상으로 산출함.

3) 본인 부모의 경우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4) 배우자 부모의 경우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5) * $p < 0.05$, ** $p < 0.01$, *** $p < 0.001$: 본인 부모 교환율 기준

〈표 7-12〉와 같이 신중년이 본인 부모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면서 느끼는 부담감은 ‘보통이다’가 40.1%로 가장 높고, 그다음 ‘부담스럽지 않다’(34.0%), ‘부담스럽다’(14.8%),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10.2%), ‘매우 부담스럽다’(0.9%) 순이다.

배우자 부모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보통이다’(39.4%), ‘부담스럽지 않다’(36.8%), ‘부담스럽다’(13.6%),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9.4%), ‘매우 부담스럽다’(0.9%) 순이다. 즉 신중년의 약 15%(본인 부모 15.7%, 배우자 부모 14.5%)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도구적인 지원에 대한 부담(본인 부모 10.8%, 배우자 부모 10.1%)보다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더 높은 수준이다.

신중년이 본인 부모에게 경제적 부양 제공 시 경험하는 부담의 정도는 지역, 결혼 상태, 교육 수준, 가구소득별로 다르다. 특히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16.5%), 배우자가 없는 경우(23.9%) 본인 부모에게 경제적 부양을 제공하는 데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

한편 신중년이 배우자 부모에게 느끼는 경제적인 도움의 부담 정도는 지역, 성별, 연령, 가구 유형,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특히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15.8%), 여성인 경우(19.7%), 연령대가 낮을수록(50~54세 15.8%, 65~69세 5.4%) 경제적인 도움의 부담 정도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된다.

비동거 부모가 생존해 있는 신중년을 대상으로 따로 살고 있는 부모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편인지 혹은 도움을 받는 편인지 살펴본 결과, 신중년 본인이 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편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경제적인 부양 지원 금액의 분석과 유사한 결과이다. 부모와의 경제적 부양 교환 시, 신중년이 ‘부모님에게 도움을 주는 편’이라는 응답이 본인 부모의 경우 87.1%, 배우자 부모의 경우 84.7%이다(〈표 7-13〉 참조).

〈표 7-12〉 신중년의 비동거 본인 및 배우자 부모에 대한 경제적 도움 제공 부담 정도

(단위: %, 명)

구분		본인 ¹⁾					배우자 ²⁾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전체	0.9	14.8	40.1	34.0	10.2	0.9	13.6	39.4	36.8	9.4
지역***	동부	1.0	15.5	41.7	33.4	8.4	1.1	14.7	40.5	36.4	7.3
	읍면부	0.5	11.2	32.6	36.8	18.9	0.2	9.0	35.0	38.2	17.6
성별	남성	1.2	14.9	38.3	35.5	10.1	0.8	9.5	37.8	39.4	12.5
	여성	0.6	14.6	41.8	32.7	10.3	1.1	18.6	41.2	33.6	5.5
연령	50~54세	0.8	13.3	42.0	35.0	9.0	1.0	14.8	39.6	36.7	7.9
	55~59세	1.0	14.9	40.1	33.0	11.0	1.0	14.6	42.9	31.5	10.0
	60~64세	1.0	17.7	33.0	36.1	12.2	1.1	10.6	33.6	45.8	8.8
	65~69세	0.0	20.1	41.6	29.1	9.2	0.0	5.4	27.7	50.2	16.7
결혼 상태*	유배우	0.9	14.0	40.8	34.3	9.8	0.9	13.7	39.4	36.6	9.4
	무배우 ⁴⁾	0.4	23.5	31.5	30.0	14.7	1.5	0.0	39.8	51.2	7.6
가구 유형	1인 ⁴⁾	0.6	23.0	34.1	32.3	9.9	2.6	0.0	44.3	39.2	13.8
	부부	0.9	15.1	42.8	30.7	10.6	0.4	12.9	38.3	36.9	11.5
	자녀 동거	0.9	14.3	39.4	35.7	9.7	0.9	14.2	39.6	36.7	8.6
	기타 ⁴⁾⁵⁾	0.0	0.0	39.4	34.0	26.6	8.2	8.8	45.2	37.8	0.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0.0	11.0	43.7	26.1	19.2	3.8	10.1	46.8	27.2	12.1
	중학교	0.0	14.3	32.6	37.7	15.3	1.4	12.4	34.5	37.4	14.2
	고등학교	0.7	17.1	38.0	34.7	9.5	0.8	15.4	38.0	37.2	8.6
	대학 이상	1.7	10.2	46.1	32.4	9.6	0.8	10.1	43.0	36.9	9.3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0.9	14.1	42.0	33.4	9.6	0.9	12.2	40.1	37.4	9.4
	미취업	1.0	17.9	31.5	36.8	12.8	1.3	20.3	35.7	33.6	9.1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0.8	16.4	35.0	31.6	16.1	0.1	11.9	38.6	33.0	16.4
	300만~500만 원 미만	0.2	18.9	39.0	31.7	10.1	0.5	16.9	37.9	36.4	8.2
	500만 원 이상	1.4	10.3	44.1	37.2	7.0	1.7	11.8	41.0	38.7	6.8

주: 1) 비동거하는 본인 부모에게 경제적 부양을 제공한 1165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비동거하는 배우자 부모에게 경제적 부양을 제공한 1049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3) ① 매우 부담스럽다, ② 부담스럽다, ③ 보통이다, ④ 부담스럽지 않다, ⑤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4) 배우자 부모의 경우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5) 본인 부모의 경우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6) * p < 0.05, ** p < 0.01, *** p < 0.001: 본인 부모 기준

〈표 7-13〉 신중년의 비동거 본인 및 배우자 부모에 대한 경제적 도움 교환 실태

(단위: %, 명)

구분		본인 ¹⁾				배우자 ²⁾			
		무교환	도움 주는 편	받는 편	비슷한 정도	무교환	도움 주는 편	받는 편	비슷한 정도
전체		6.7	87.1	1.6	4.6	9.5	84.7	1.9	3.9
지역**	동부	5.7	87.6	1.6	5.1	8.4	85.4	1.8	4.3
	읍면부	11.3	85.0	1.6	2.0	13.8	81.7	2.2	2.3
성별	남성	7.0	87.4	0.9	4.8	11.0	82.2	1.5	5.3
	여성	6.4	87.0	2.3	4.4	7.6	87.8	2.3	2.2
연령	50~54세	6.5	85.5	1.9	6.1	8.7	84.2	3.4	3.7
	55~59세	6.6	87.7	1.7	3.9	10.7	84.0	1.0	4.4
	60~64세	8.6	87.3	0.9	3.2	7.7	88.8	0.7	2.7
	65~69세	3.1	96.9	0.0	0.0	11.3	83.2	0.0	5.5
결혼 상태	유배우	6.3	87.3	1.6	4.8	9.5	84.7	1.9	3.9
	무배우 ³⁾	10.4	85.6	1.5	2.5	6.3	85.3	0.0	8.4
가구 유형	1인 ³⁾	13.7	83.5	1.2	1.6	0.0	90.8	0.0	9.2
	부부	7.4	89.0	0.9	2.7	10.4	86.1	1.3	2.1
	자녀 동거	5.9	86.3	2.0	5.8	9.3	83.6	2.2	4.9
	기타 ³⁾⁴⁾	0.0	100.0	0.0	0.0	5.5	94.5	0.0	0.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5.8	89.0	0.6	4.6	12.7	85.2	0.0	2.1
	중학교	9.3	89.8	0.4	0.5	10.4	83.7	1.7	4.2
	고등학교	6.9	86.4	1.6	5.1	9.7	84.5	1.2	4.6
	대학 이상	5.6	87.9	2.0	4.5	8.2	85.4	3.9	2.5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6.4	87.0	1.4	5.2	8.5	84.7	2.3	4.5
	미취업	7.6	88.0	2.6	1.8	14.5	84.5	0.0	1.0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1.2	83.0	0.7	5.1	15.3	78.7	1.4	4.7
	300만~500만 원 미만	5.3	88.2	1.5	5.0	7.8	87.8	1.1	3.4
	500만 원 이상	5.2	88.6	2.2	4.0	8.0	85.1	2.8	4.0

주: 1) 비동거하는 본인 부모에게 경제적 부양을 제공한 1165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비동거하는 배우자 부모에게 경제적 부양을 제공한 1049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3) 배우자 부모의 경우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4) 본인 부모의 경우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5) * $p < 0.05$, ** $p < 0.01$, *** $p < 0.001$: 본인 부모 기준

경제적인 부양 지원 금액이 비슷한 정도라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 부모의 경우 4.6%, 배우자 부모의 경우 3.9%로 나타나, 일부 신중년 가구의 경우 부모와의 경제적 교환 금액에서 살펴본 결과와 일치한다. 즉 신중년과 부모 간의 부양 교환은 객관적인 측면(금액)이든 주관적인 측면(부담감)이든, 신중년이 부모를 부양하는 주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중년의 특성별로 주 제공자의 차이를 살펴보면, 본인 부모의 경우 지역과 가구소득에 따라, 배우자 부모의 경우 성별과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르다. 본인 부모와 경제적인 도움을 거의 주고받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읍면부 지역은 11.3%로 동부 지역의 5.7%보다 높고, 가구소득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님에게 도움을 주는 편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다(300만 원 미만 83.0%, 300만~500만 원 미만 88.2%, 500만 원 이상 88.6%). 또한 배우자 부모와 경제적인 도움을 거의 주고받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남성인 경우(11.0%), 미취업 중인 경우(14.5%),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300만 원 미만 15.3%) 상대적으로 더 높다.

제3절 자녀와의 부양 교환

본 절에서 자녀와의 부양 교환은 만 19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신중년을 대상으로 파악한 내용이며,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과 만남 빈도, 도구적 도움 교환 및 부담 정도, 경제적 도움 교환 및 부담 정도를 파악한다. 동거 자녀의 경우에는 경제적 도움과 부담 정도를 살펴본다.

1. 자녀와의 정서적 및 도구적 부양 교환

신중년이 비동거 자녀와 연락하거나 만나는 빈도는 ‘주 2회 이상’이 47.8%로 가장 높고, 그다음 ‘주 1회’ 22.6%, ‘월 1회’ 13.3%, ‘2주에 1회’ 9.2%, ‘월 1회 미만’ 7.2% 순이다(〈표 7-14〉 참조).

신중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여성일 경우(54.6%), 연령대가 낮을수록(50~54세 52.1%, 65~69세 44.3%), 배우자가 있는 경우(49.0%), 가구소득이 높을수록(500만 원 이상 53.0%, 300만 원 미만 44.2%) ‘주 2회 이상’ 비동거 자녀와 접촉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표 7-15〉에 제시된 신중년과 비동거 자녀의 도구적 부양 교환 실태를 살펴보면, 신중년이 자녀에게 집안일 도움을 제공한 비율은 41.5%, 신중년이 자녀로부터 집안일 도움을 받은 비율은 40.2%이다. 부양 교환 빈도 측면에서는 신중년이 자녀에게 집안일 도움을 제공하는 빈도는 ‘3개월에 1회’(10.2%), ‘월 1회’(9.9%)에서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 자녀로부터 집안일 도움을 받는 빈도는 ‘6개월에 1회’(10.2%), ‘3개월에 1회’(9.0%)에서 응답 비율이 높다. 즉 신중년은 자녀에게 도구적 도움을 받는 것보다 더 자주 자녀에게 도구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손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신중년(1878명)의 28.8%는 손자녀 돌봄에 도움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중년이 비동거 자녀의 집안일에 도움을 주는 비율은 성별, 결혼 상태, 가구 유형, 현재 취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신중년의 집안일 도움 제공을 제 특성별로 자세히 비교하면, 여성인 경우(46.6%), 배우자가 있는 경우(43.1%), 가구 유형이 자녀 동거 가구

(45.7%) 또는 부부 가구(41.7%)인 경우, 현재 미취업 중인 경우(46.9%) 비동거 자녀에 대한 집안일 도움 제공률이 더 높다(〈표 7-16〉 참조).

〈표 7-14〉 신중년의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 및 만남 빈도

(단위: %, 명)

구분		빈도					계 (명)
		주 2회 이상	주 1회	2주에 1회	월 1회	월 1회 미만	
	전체	47.8	22.6	9.2	13.3	7.2	100.0 (2,509)
지역	동부	49.1	22.2	9.3	12.3	7.2	100.0 (1,630)
	읍면부	43.9	24.0	8.7	16.3	7.1	100.0 (879)
성별***	남성	39.8	24.7	12.0	14.5	9.0	100.0 (1,133)
	여성	54.6	20.8	6.7	12.2	5.7	100.0 (1,374)
연령*	50~54세	52.1	20.9	6.6	14.6	5.9	100.0 (424)
	55~59세	48.1	24.8	9.5	11.7	5.9	100.0 (716)
	60~64세	47.9	22.2	10.1	13.3	6.5	100.0 (796)
	65~69세	44.3	21.3	9.4	14.4	10.6	100.0 (573)
결혼 상태***	유배우	49.0	23.2	9.3	12.7	5.9	100.0 (1,973)
	무배우	39.8	18.5	8.1	17.3	16.3	100.0 (536)
가구 유형***	1인	37.2	18.6	8.2	18.1	17.9	100.0 (420)
	부부	50.6	22.3	8.7	12.1	6.2	100.0 (1,308)
	자녀 동거	46.0	24.5	10.2	14.2	5.0	100.0 (667)
	기타 ²⁾	47.4	21.6	9.0	10.8	11.1	100.0 (114)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46.7	21.2	10.2	13.6	8.3	100.0 (340)
	중학교	42.1	23.4	10.8	15.7	8.0	100.0 (513)
	고등학교	49.3	22.6	8.4	12.6	7.2	100.0 (1,360)
	대학 이상	50.5	22.6	9.3	12.5	5.0	100.0 (29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47.0	23.6	10.0	13.2	6.1	100.0 (1,864)
	미취업	50.4	19.4	6.6	13.3	10.4	100.0 (64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44.2	20.8	9.0	15.5	10.5	100.0 (1,212)
	300만~500만 원 미만	48.6	22.0	9.3	14.1	5.9	100.0 (803)
	500만 원 이상	53.0	26.8	9.0	8.1	3.1	100.0 (492)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7-15〉 신중년의 비동거 자녀와의 도구적 부양 교환 빈도

(단위: %)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집안일 도움 제공 ¹⁾	주 4회 이상	1.5	주 4회 이상	0.5	
	주 2~3회	1.7	주 2~3회	0.7	
	주 1회	3.5	주 1회	1.6	
	2주에 1회	4.7	2주에 1회	1.1	
	월 1회	9.9	월 1회	7.8	
	3개월에 1회	10.2	3개월에 1회	9.0	
	6개월에 1회	4.8	6개월에 1회	10.2	
	연 1회 이하	5.1	연 1회 이하	9.3	
	미제공	58.5	미수혜	59.8	
손자녀 돌봄 제공 ²⁾	제공	28.8			
	미제공	71.2			
계		100.0	계		100.0

주: 1) 비동거하는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2509명을 대상으로 함.

2) 비동거하는 자녀의 손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1878명을 대상으로 함.

반면 신중년은 성별, 연령, 교육 수준별로 집안일 도움 수혜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성별 차이는 크지 않고(남성 38.5%, 여성 41.7%), 연령대가 높을수록(50~54세 30.5%, 65~69세 45.7%),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초등학교 이하 49.2%, 대학 이상 32.7%) 집안일 도움 수혜율이 더 높다.

손자녀 돌봄 제공률은 지역,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현재 취업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31.6%), 여성인 경우(32.5%), 배우자가 있는 경우(30.0%), 미취업인 경우(40.6%) 신중년의 손자녀 돌봄 제공률이 더 높다. 또한 연령대가 높을수록 손자녀 돌봄 제공률이 높아서, 65~69세 32.2%로 50~54세(15.3%)보다 약 2배 높은 수준이다. 가구 유형이 자녀 동거 가구인 경우

손자녀 돌봄 제공률이 32.6%로 다른 가구 유형(1인 가구 17.8%, 부부 가구 29.0%, 기타 가구 26.4%)보다 높다.

〈표 7-16〉 신중년의 비동거 자녀와의 도구적 부양 교환

(단위: %, 명)

구분		집안일 도움 ¹⁾		손자녀 돌봄 제공률 ²⁾
		제공률	수혜율	
전체		41.5	40.3	28.8
지역	동부	42.0	39.3	31.6
	읍면부	39.7	43.4	20.6
성별***	남성	35.5	38.5	24.1
	여성	46.6	41.7	32.5
연령	50~54세	41.6	30.5	15.3
	55~59세	41.9	41.9	28.8
	60~64세	40.4	39.6	30.8
	65~69세	42.0	45.7	32.2
결혼 상태***	유배우	43.1	40.7	30.0
	무배우	30.2	37.3	21.2
가구 유형***	1인	28.5	38.9	17.8
	부부	41.7	40.8	29.0
	자녀 동거	45.7	41.3	32.6
	기타	37.3	29.2	26.4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37.9	49.2	26.0
	중학교	39.5	42.7	28.1
	고등학교	42.9	39.4	29.4
	대학 이상	41.0	32.7	30.2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39.7	40.6	24.6
	미취업	46.9	39.2	40.6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39.2	39.7	25.6
	300만~500만 원 미만	40.2	40.7	30.2
	500만 원 이상	47.3	40.8	33.1

주: 1) 비동거하는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2509명을 대상으로 함.

2) 비동거하는 자녀의 손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1878명을 대상으로 함.

3) * $p < 0.05$, ** $p < 0.01$, *** $p < 0.001$: 집안일 도움 제공률 기준

〈표 7-17〉 신중년의 비동거 자녀와의 도구적 도움 제공 부담 정도

(단위: %, 명)

구분	부담 정도					계 (명)
	매우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	보통이다	부담스럽지 않다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전체	0.5	6.4	34.7	36.8	21.7	100.0 (1,044)
지역**	동부	0.6	6.7	36.9	36.1	19.7 100.0 (806)
	읍면부	0.0	5.4	27.2	38.9	28.5 100.0 (238)
성별	남성	0.4	5.0	32.5	38.0	24.2 100.0 (416)
	여성	0.5	7.4	36.1	36.0	20.0 100.0 (628)
연령*	50~54세	0.8	3.8	31.0	44.9	19.5 100.0 (170)
	55~59세	0.3	4.6	37.3	31.2	26.6 100.0 (345)
	60~64세	0.3	9.0	37.7	34.7	18.3 100.0 (270)
	65~69세	0.6	7.9	30.4	41.0	20.1 100.0 (258)
결혼 상태	유배우	0.5	6.7	34.4	37.0	21.3 100.0 (947)
	무배우	0.0	3.6	37.0	34.4	25.0 100.0 (97)
가구 유형*	1인	0.0	1.8	37.6	37.1	23.5 100.0 (69)
	부부	0.5	7.7	35.5	36.8	19.5 100.0 (586)
	자녀 동거	0.1	4.6	32.8	36.0	26.5 100.0 (346)
	기타	2.5	11.6	33.7	42.0	10.1 100.0 (43)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0.0	9.5	32.7	38.7	19.1 100.0 (104)
	중학교	1.5	3.8	35.4	38.3	21.0 100.0 (183)
	고등학교	0.3	7.5	35.0	36.8	20.4 100.0 (623)
	대학 이상	0.0	2.9	33.6	32.9	30.6 100.0 (134)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0.2	4.0	33.7	38.5	23.5 100.0 (749)
	미취업	1.1	12.5	37.1	32.3	17.0 100.0 (29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0.6	7.8	33.6	38.9	19.2 100.0 (411)
	300만~500만 원 미만	0.3	7.2	36.4	32.9	23.2 100.0 (353)
	500만 원 이상	0.5	3.6	33.8	38.7	23.5 100.0 (278)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신중년이 비동거 자녀에게 도구적 도움을 제공하면서 느끼는 부담 수준은 ‘부담스럽지 않다’가 36.8%로 가장 높고, 그다음 ‘보통이다’ 34.7%,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21.7%, ‘부담스럽다’ 6.4%, ‘매우 부담스럽다’ 0.5% 순이다(〈표 7-17〉 참조). 즉 신중년의 6.9%만이 비동거 자녀에게 제공하는 도구적 도움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신중년의 지역, 연령, 가구 유형, 현재 취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부담감을 느낀다는 응답(부담스럽다+매우 부담스럽다)을 기준으로, 동부 지역에 거주하거나(7.3%), 60대인 경우(60~64세 9.3%, 65~69세 8.5%), 가구 유형이 기타 가구인 경우(14.1%), 미취업 중인 경우(13.6%) 부담감을 느끼는 비율이 더 높다.

2. 자녀와의 경제적 부양 교환

〈표 7-18〉에 제시된 자녀와의 경제적 부양 교환을 살펴보면 신중년의 65.0~66.0%가 자녀와 경제적 도움을 주고받으며(비동거 자녀 66.4%, 동거 자녀 65.1%), 신중년이 자녀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자녀로부터 지원 받는 금액보다 더 많다. 비동거 자녀의 경우 신중년은 연간 196만 원을 자녀에게 지원하고, 자녀로부터 145만 원을 받는다. 반면 동거 자녀의 경우 신중년은 연간 533만 원을 자녀에게 지원하고, 동거 자녀로부터 108만 원을 받는다. 즉 신중년은 동거 자녀에게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자녀와 동거하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신중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비교하면, 지역, 성별, 가구 유형, 교육 수준에 따라 비동거 자녀와의 경제적인 도움의 교환 여부에서 차이가 확인된다. 지역별로는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우 77.5%로 동부에 거주하

는 경우인 62.8%보다 높다. 성별로는 여성인 경우(68.5%), 가구 유형이 부부 가구인 경우(68.6%) 비동거 자녀와의 경제적 도움의 교환 비율이 높다.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는 특별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비동거 자녀와 경제적 부양 교환이 있다고 응답한 1579명을 대상으로 연간 경제적 부양 규모를 분석한 결과,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50~54세 413만 원, 65~69세 94만 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211만 원),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대학 이상 341만 원, 중학교 90만 원), 취업 중인 경우(218만 원), 가구소득이 높을수록(500만 원 이상 356만 원, 300만 원 미만 102만 원) 비동거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 금액이 많다. 반면 가구 유형이 1인 가구인 경우(98만 원) 다른 가구 유형(자녀 동거 가구 137만 원, 기타 가구 213만 원, 부부 가구 241만 원)보다 비동거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 금액이 적다.

비동거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신중년은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의 차이가 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50~54세 86만 원, 65~69세 197만 원), 무배우자일 경우(191만 원), 가구 유형이 1인 가구인 경우(190만 원), 교육 수준이 중학교 이하인 경우(초등학교 이하 152만 원, 중학교 188만 원), 미취업인 경우(194만 원), 가구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163만 원) 비동거 자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많다.

한편 동거 자녀와의 경제적 부양 교환율을 살펴보면, 신중년의 연령, 가구소득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르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 동거 자녀와 경제적 부양 교환이 있다고 응답한 1310명을 대상으로 연간 경제적 부양 규모를 살펴보면,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다.

〈표 7-18〉 신중년의 동거 및 비동거 자녀와 경제적 도움 교환 유무 및 금액

(단위: %, 만 원)

구분		비동거 ¹⁾			동거 ²⁾		
		교환율	연간 금액		교환율	연간 금액	
			본인→자녀	자녀→본인		본인→자녀	자녀→본인
지역***	전체	66.4	196.4	144.8	65.1	533.2	108.4
	동부	62.8	197.8	144.9	64.7	542.5	107.7
	읍면부	77.5	192.6	144.8	67.2	478.1	112.5
성별*	남성	63.9	203.1	137.2	63.6	617.3	79.8
	여성	68.5	191.0	150.9	66.4	458.1	134.0
연령	50~54세	64.2	412.8	85.6	71.8	787.3	64.3
	55~59세	67.1	212.3	125.1	63.1	419.2	124.7
	60~64세	63.7	134.7	157.4	52.0	253.2	151.6
	65~69세	69.9	94.3	197.3	64.7	134.9	199.6
결혼 상태	유배우	66.8	210.8	138.7	64.8	556.9	102.5
	무배우	63.5	90.1	190.5	69.3	216.6	186.5
가구 유형*	1인	61.0	97.6	189.9	-	-	-
	부부	68.6	241.3	141.2	-	-	-
	자녀 동거	65.1	136.6	134.3	-	-	-
	기타	59.3	213.4	177.6	-	-	-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72.8	111.1	152.2	66.7	162.2	133.0
	중학교	68.9	89.6	188.9	66.9	160.4	173.2
	고등학교	63.8	217.8	136.8	63.7	505.9	113.7
	대학 이상	69.0	340.5	107.6	67.9	807.7	65.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65.9	217.8	128.5	64.6	576.1	95.8
	미취업	67.9	132.3	193.7	67.2	350.0	162.3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65.5	101.7	162.5	57.8	345.5	116.7
	300만~500만 원 미만	65.8	198.7	131.3	69.2	513.1	102.1
	500만 원 이상	68.7	355.7	134.5	64.5	607.3	110.4

주: 1) 비동거 자녀가 있는 250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간금액은 비동거 자녀와 경제적 도움 교환이 있는 1579명을 대상으로 산출함.

2) 동거 자녀가 있는 2014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간금액은 동거 자녀와 경제적 도움 교환이 있는 1310명을 대상으로 산출함.

3) “-”는 해당 없음 의미함.

4) * $p < 0.05$, ** $p < 0.01$, *** $p < 0.001$: 비동거 자녀 교환율 기준

남성인 경우(617만 원), 연령대가 낮을수록(50~54세 787만 원, 65~69세 135만 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557만 원),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대학 이상 808만 원, 중학교 160만 4000원), 취업 중인 경우(576만 원), 가구소득이 높을수록(500만 원 이상 607만 원, 300만 원 미만 346만 원) 동거 자녀에게 제공한 경제적 지원 금액이 많다.

동거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신중년은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에 따라 지원 금액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다. 여성인 경우(134만 원), 연령대가 높을수록(50~54세 64만 원, 65~69세 200만 원), 무배우자일 경우(187만 원), 미취업 중(162만 원)인 신중년은 동거 자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많다. 반면 교육 수준이 대학 이상인 경우 65만 6000원으로 고등학교 이하의 경우(초등학교 이하 133만 원, 중학교 173만 원, 고등학교 114만 원)보다 경제적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적다.

신중년이 비동거 자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면서 느끼는 부담감은 ‘부담스럽지 않다’가 42.1%로 가장 높고 ‘보통이다’ 30.4%,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13.5%, ‘부담스럽다’ 11.5%, ‘매우 부담스럽다’ 2.5% 순이다(〈표 7-19〉 참조). 즉 신중년의 14.0%가 비동거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반면 앞에서 살펴본 경제적인 부양의 지원 금액 분석에서 신중년이 동거 자녀에게 지원한 금액이 큰 만큼(비동거 자녀 196만 원, 동거 자녀 533만 원) ‘부담스럽다’는 응답 또한 비동거 자녀 경우와 비교하여 약 3배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신중년이 동거 자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면서 느끼는 부담감은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37.8%로 가장 높고 ‘보통이다’(29%), ‘부담스럽지 않다’(21.4%), ‘매우 부담스럽다’(7.5%),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4.2%) 순이다.

〈표 7-19〉 신중년의 동거 및 비동거 자녀에 대한 경제적 도움 제공 부담 정도

(단위: %, 명)

구분		비동거 ¹⁾					동거 ²⁾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지역***	전체	2.5	11.5	30.4	42.1	13.5	7.5	37.8	29.0	21.4	4.2
	동부	2.3	11.4	33.4	42.7	10.2	7.6	38.8	30.8	19.5	3.3
	읍면부	2.8	11.8	23.6	41.0	20.9	7.2	32.5	19.0	32.0	9.4
성별***	남성	2.4	13.5	29.0	40.2	15.0	7.0	43.5	27.3	18.2	3.9
	여성	2.6	10.0	31.4	43.8	12.3	8.1	31.7	30.8	24.8	4.6
연령***	50~54세	5.8	22.2	32.5	31.6	7.9	9.8	44.7	26.7	15.9	2.9
	55~59세	3.1	11.4	32.5	39.9	13.1	6.0	33.5	31.1	23.7	5.6
	60~64세	1.4	9.0	31.6	44.5	13.5	5.1	22.8	38.9	27.8	5.5
	65~69세	0.0	5.6	23.7	51.8	18.8	0.3	26.2	21.1	46.5	5.9
결혼 상태	유배우	2.6	11.3	30.0	42.7	13.3	7.7	37.9	29.2	21.3	3.9
	무배우	1.1	13.5	33.5	37.0	14.9	5.0	37.1	25.6	22.6	9.7
가구 유형	1인	1.3	11.6	35.0	36.6	15.5	-	-	-	-	-
	부부	2.4	11.2	28.2	44.0	14.3	-	-	-	-	-
	자녀 동거	2.6	10.6	34.0	41.3	11.4	-	-	-	-	-
	기타	5.3	22.9	26.1	31.9	13.8	-	-	-	-	-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0.8	6.7	22.3	50.8	19.3	1.2	28.1	37.2	25.5	8.0
	중학교	1.0	8.2	27.1	45.4	18.2	2.1	26.9	32.3	37.6	1.1
	고등학교	2.8	14.2	31.8	40.1	11.2	8.0	37.0	27.5	22.4	5.2
	대학 이상	4.5	9.7	35.4	38.8	11.5	8.5	43.3	30.8	15.0	2.5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2.4	11.6	30.0	42.5	13.5	7.1	39.0	28.1	21.5	4.2
	미취업	2.7	11.4	31.6	40.7	13.6	9.9	30.9	34.3	20.5	4.3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5	10.0	26.8	45.3	16.3	4.6	46.1	23.0	22.3	3.9
	300만~500만 원 미만	3.4	10.9	30.1	42.1	13.5	11.6	37.2	28.8	18.1	4.3
	500만 원 이상	2.7	14.4	35.2	37.9	9.7	5.2	36.2	30.7	23.6	4.3

주: 1) 비동거하는 자녀에게 경제적 부양을 제공한 976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동거하는 자녀에게 경제적 부양을 제공한 869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3) ① 매우 부담스럽다, ② 부담스럽다, ③ 보통이다, ④ 부담스럽지 않다, ⑤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4) “-”는 해당 없음을 의미함.

5) * $p < 0.05$, ** $p < 0.01$, *** $p < 0.001$: 비동거 자녀 기준

한편 신중년이 비동거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경우 느끼는 부담 수준은 지역, 연령, 교육 수준, 가구소득별로 다르다. 특히 연령대별 부담 수준이 크게 달라서 ‘부담스럽다(매우 부담스럽다 포함)’는 응답이 50~54세에서 28.0%로 가장 높고, 그다음 55~59세(14.5%), 60~64세(10.4%), 65~69세(5.6%) 순이다.

신중년이 동거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경우 느끼는 부담 수준은 지역,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비동거 자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령대별 부담 수준이 다른데 ‘부담스럽다(매우 부담스럽다 포함)’는 응답 비율이 50~54세에서 54.5%로 가장 높고, 그다음 55~59세(39.5%), 60~64세(27.9%), 65~69세(26.5%) 순이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부담을 느끼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담 수준의 차이는 대학 이상이 51.8%로 중학교 이하인 29.0%보다 높다. 반면 지역별, 가구소득별 부담 수준의 차이는 크지 않다.

제 8 장

노후 가치관 및 정책 인지도

제1절 노후 가치관

제2절 정책 인지도 및 욕구

8

노후 가치관 및 정책 인지도 <<

이 장에서는 노후 가치관과 정책 인지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신중년층이 노후의 삶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신중년층 또는 노년층을 위한 정책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활용할 의사가 있는지 등은 실제 노후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제1절 노후 가치관

1. 노후 가치관

〈표 8-1〉은 신중년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이다. 신중년의 86.4%가 노후 생활비는 ‘본인 및 배우자’가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다음 ‘정부 차원에서 보장’(12.6%), ‘자녀 또는 친척 지원’(0.9%) 등의 의견도 있었다. 한편, 이는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이를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비교해 보면, 먼저 지역별, 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다.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본인 및 배우자라는 응답 비율이 낮은 반면(50~54세 89.5%, 55~59세 88.2%, 60~64세 85.1%, 65~69세 79.2%), 정부 차원에서의 보장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50~54

세 9.8%, 55~59세 11.2%, 60~64세 13.8%, 65~69세 18.7%). 이는 신중년 집단 내에서도 노후 생활비 마련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으며,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스스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반면에 60대의 경우 노동시장에 은퇴하여 미처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한 경우 국가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결혼 상태별로는 유배우자가 무배우자에 비해 본인 및 배우자라는 응답이 높은 반면(유배우자 89.9%, 무배우자 64.8%), 정부 차원에서의 보장은 응답이 낮다(유배우자 9.5%, 무배우자 32.2%). 가구 유형별로는 세대 규모가 커질수록 본인 및 배우자라는 응답이 높아지는 반면(1인 가구 63.5%, 부부 가구 87.9%, 자녀 동거 가구 89.9%), 정부 차원에서의 보장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1인 가구 34.0%, 부부 가구 11.1%, 자녀 동거 가구 11.1%).

교육 수준별로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본인 및 배우자라는 응답이 높은 반면(초등학교 이하 68.5%, 대학 이상 93.4%), 정부 차원에서의 보장은 응답 비율이 낮다(초등학교 이하 28.8%, 대학 이상 6.2%). 현재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 중인 신중년은 미취업에 비해 본인 및 배우자라는 응답이 높고(취업 중 89.2%, 미취업 76.9%), 정부 차원에서의 보장이라는 응답은 낮다(취업 중 10.0%, 미취업 21.2%).

가구소득별로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본인 및 배우자라는 응답이 높고(300만 원 미만 76.5%, 300만~500만 원 미만 88.8%, 500만 원 이상 94.6%), 정부 차원에서의 보장 응답 비율은 낮은 경향을 보인다(300만 원 미만 21.9%, 300만~500만 원 미만 10.3%, 500만 원 이상 4.9%).

〈표 8-1〉 바람직한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

(단위: %, 명)

구분		마련 방법				계 (명)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또는 친척 지원	정부 차원에서 보장	기타	
	전체	86.4	0.9	12.6	0.0	100.0 (4,006)
지역	동부	86.1	1.0	12.8	0.1	100.0 (3,211)
	읍면부	87.8	0.6	11.5	0.0	100.0 (795)
성별**	남성	87.2	0.5	12.2	0.1	100.0 (1,985)
	여성	85.7	1.4	12.9	0.0	100.0 (2,021)
연령***	50~54세	89.5	0.7	9.8	0.0	100.0 (1,173)
	55~59세	88.2	0.5	11.2	0.1	100.0 (1,371)
	60~64세	85.1	1.1	13.8	0.1	100.0 (793)
	65~69세	79.2	2.0	18.7	0.0	100.0 (669)
결혼 상태***	유배우	89.9	0.7	9.5	0.0	100.0 (3,461)
	무배우	64.8	2.8	32.2	0.2	100.0 (545)
가구 유형***	1인	63.5	2.1	34.0	0.4	100.0 (353)
	부부	87.9	0.9	11.1	0.0	100.0 (1,396)
	자녀 동거	89.9	0.7	11.1	0.0	100.0 (2,038)
	기타	82.1	1.4	16.5	0.0	100.0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68.5	2.6	28.8	0.1	100.0 (321)
	중학교	81.0	2.0	17.0	0.0	100.0 (549)
	고등학교	88.0	0.7	11.3	0.0	100.0 (2,410)
	대학 이상	93.4	0.2	6.2	0.2	100.0 (72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89.2	0.7	10.0	0.0	100.0 (3,101)
	미취업	76.9	1.7	21.2	0.2	100.0 (9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76.5	1.5	21.9	0.1	100.0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88.8	0.9	10.3	0.0	100.0 (1,339)
	500만 원 이상	94.6	0.5	4.9	0.0	100.0 (1,28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신중년이 생각하는 자녀 부양의 적정 기간은 ‘결혼할 때까지’가 31.5%, ‘학업을 마칠 때까지’ 31.0%, ‘직장이 생길 때까지’ 30.2% 등으로 나타났다(〈표 8-2〉 참조). 학업, 직장, 결혼으로 이어지는 생애 단계에서 그 이전과 이후는 제외하고 개별 가구가 처한 경제적 형편 등을 감안하여 자녀 부양 기간을 적절히 선택하고 있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자녀 부양 기간 인식은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이를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비교해 보면, 먼저 지역별, 결혼 상태별, 현재 취업 여부별로는 큰 차이가 없거나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업을 마칠 때까지’라는 응답이 조금 높은 반면(남성 32.5%, 여성 29.6%), ‘결혼할 때까지’라는 응답은 다소 낮다(남성 29.7%, 여성 33.3%).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학업을 마칠 때까지라는 응답이 낮은 반면(50~54세 35.4%, 55~59세 30.6%, 60~64세 28.2%, 65~69세 27.6%), 결혼할 때까지라는 응답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50~54세 27.4%, 55~59세 31.6%, 60~64세 34.3%, 65~69세 35.2%). 이는 신중년 집단 내에서 자녀 부양의 적정 기간이 결혼에서 학업 종료로 단축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전통적인 자녀 부양관의 변화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젊은 신중년은 자녀의 결혼보다 이른 시점인 학업 종료까지를 자녀 부양의 적정 기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최근 자녀의 교육기간 증가와 더불어 자녀의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신중년이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기간은 증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가능성이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그 외에도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37.7%), 가구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34.0%)에서 ‘학업을 마칠 때까지’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

교육 수준별로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을 마칠 때까지라는 응답이 높아지는 경향성이 있다(초등학교 이하 22.8%, 대학 이상 33.9%).

〈표 8-2〉 부모의 자녀 부양 적정 기간

(단위: %, 명)

구분	부양 적정 기간							계 (명)
	성년이 되는 만 19세까지	학업을 마칠 때까지	직장이 생길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손자녀 양육 시까지	주거가 마련될 때까지	기타	
전체	4.5	31.0	30.2	31.5	0.9	1.4	0.3	100.0 (4,006)
지역	동부	4.8	31.4	29.3	31.9	1.0	1.3	100.0 (3,211)
	읍면부	3.6	29.7	33.6	30.1	0.7	1.9	100.0 (795)
성별**	남성	5.0	32.5	30.8	29.7	0.7	1.0	100.0 (1,985)
	여성	4.1	29.6	29.5	33.3	1.2	1.8	100.0 (2,021)
연령***	50~54세	4.9	35.4	30.0	27.4	0.2	1.6	100.0 (1,173)
	55~59세	4.7	30.6	30.9	31.6	0.6	1.0	100.0 (1,371)
	60~64세	5.2	28.2	29.2	34.3	1.2	1.6	100.0 (793)
	65~69세	2.7	27.6	30.1	35.2	2.4	1.7	100.0 (669)
결혼 상태***	유배우	4.1	30.7	30.6	32.1	1.0	1.4	100.0 (3,461)
	무배우	7.1	33.3	27.3	28.1	0.8	1.7	100.0 (545)
가구 유형***	1인	7.4	37.7	25.0	27.0	1.0	1.3	100.0 (353)
	부부	4.4	29.3	31.1	32.8	1.2	1.0	100.0 (1,396)
	자녀 동거	4.1	31.6	30.4	31.4	0.8	1.6	100.0 (2,038)
	기타	4.9	25.9	31.1	31.7	0.7	3.0	100.0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4.6	22.8	31.8	36.5	1.0	3.1	100.0 (321)
	중학교	3.0	25.9	31.0	36.8	1.0	1.8	100.0 (549)
	고등학교	4.8	32.4	29.5	30.7	1.0	1.3	100.0 (2,410)
	대학 이상	4.9	33.9	31.2	28.2	0.7	0.8	100.0 (72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4.7	31.5	30.9	30.6	0.8	1.4	100.0 (3,101)
	미취업	4.0	29.4	27.7	34.8	1.5	1.7	100.0 (9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5.0	29.4	29.8	32.2	1.2	1.7	100.0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4.4	29.9	32.2	31.5	0.7	1.2	100.0 (1,339)
	500만 원 이상	4.1	34.0	28.4	30.9	0.9	1.5	100.0 (1,28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신중년이 생각하는 노인의 연령 기준은 70~75세 미만인 52.6%로 가장 많고, 그다음 75~80세 미만 20.8%, 65~70세 미만 15.7% 순이며, 지역,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표 8-3〉 참조).

지역별로 읍면부가 동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80세 이상이라는 응답이 높고(읍면부 11.1%, 동부 7.9%), 70~75세 미만이라는 응답은 낮다(읍면부 48.4%, 동부 53.7%).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75~80세 미만, 80세 이상이라는 응답이 높은 반면, 65세 미만, 65~70세 미만이라는 응답은 낮는데, 이는 현재 취업 여부에 따라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70~75세 미만이라는 응답이 낮은 반면(50~54세 55.3%, 55~59세 53.0%, 60~64세 54.9%, 65~69세 44.3%), 75~80세 미만이라는 응답이 높다(50~54세 18.0%, 55~59세 20.3%, 60~64세 21.4%, 65~69세 25.7%). 즉 연령대가 높을수록 노인 연령 기준을 보다 높게 응답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연령이 높아지면서 자신이 노인에 속하지 않고 싶은 욕구가 표현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결혼 상태별로는 유배우자가 무배우자에 비해 70~75세 미만, 75~80세 미만이라는 응답이 높은 반면, 65세 미만, 65~70세 미만이라는 응답은 낮다. 가구 유형별로도 부부 가구, 자녀 동거 가구는 1인 가구에 비해 70~75세 미만, 75~80세 미만이라는 응답이 높은 반면, 65세 미만, 65~70세 미만이라는 응답은 낮다.

교육 수준별로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노인 연령 기준이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는데, 초등학교 이하는 65세 미만, 65~70세 미만, 고등학교는 70~75세 미만, 대학 이상은 75~80세 미만에서 상대적으로 응답 비율이 높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70~75세 미만, 75~80세 미만이라는 응답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65세 미만, 65~70세 미만, 8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응답이 높다.

〈표 8-3〉 노인의 연령 기준

(단위: %, 명)

구분		연령 기준 분포					계 (명)
		65세 미만	65~70세 미만	70~75세 미만	75~80세 미만	80세 이상	
	전체	2.4	15.7	52.6	20.8	8.5	100.0 (4,006)
지역*	동부	2.4	15.7	53.7	20.3	7.9	100.0 (3,211)
	읍면부	2.5	15.6	48.4	22.5	11.1	100.0 (795)
성별**	남성	1.7	15.1	51.8	22.5	8.9	100.0 (1,985)
	여성	3.2	16.2	53.4	19.0	8.2	100.0 (2,021)
연령**	50~54세	2.6	15.8	55.3	18.0	8.3	100.0 (1,173)
	55~59세	2.7	15.8	53.0	20.3	8.2	100.0 (1,371)
	60~64세	1.7	14.0	54.9	21.4	7.9	100.0 (793)
	65~69세	2.4	17.2	44.3	25.7	10.4	100.0 (669)
결혼 상태**	유배우	2.2	15.0	53.2	21.2	8.4	100.0 (3,461)
	무배우	3.7	20.2	48.9	17.9	9.3	100.0 (545)
가구 유형	1인	4.0	19.7	49.5	18.3	8.5	100.0 (353)
	부부	2.5	15.1	51.8	21.1	9.4	100.0 (1,396)
	자녀 동거	2.1	15.0	53.6	21.4	7.9	100.0 (2,038)
	기타	2.4	18.9	53.9	16.1	8.7	100.0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3.6	18.5	47.3	19.0	11.7	100.0 (321)
	중학교	1.7	15.5	49.1	22.5	11.2	100.0 (549)
	고등학교	2.7	15.7	54.1	19.4	8.2	100.0 (2,410)
	대학 이상	1.7	14.5	52.7	24.8	6.3	100.0 (72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2.2	14.5	52.1	22.3	8.9	100.0 (3,101)
	미취업	3.1	19.7	54.4	15.6	7.1	100.0 (9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3.8	17.2	49.3	19.9	9.9	100.0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2.0	16.0	53.8	20.3	7.9	100.0 (1,339)
	500만 원 이상	1.4	13.8	54.7	22.3	7.8	100.0 (1,28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2. 노후생활에 대한 태도

신중년의 최근 관심사는 ‘본인의 건강’이 36.3%로 가장 많고, 그다음 ‘노후 준비(18.5%)’, ‘자녀 결혼(15.3%)’, ‘생계비 마련(9.0%)’ 순이며,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표 8-4〉 참조).

이를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비교해 보면, 먼저 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녀의 결혼’에서 응답 비율이 약간 높은 반면(남성 12.8%, 여성 17.8%), ‘생계비 마련’에서는 약간 낮은 경향을 보인다(남성 10.2%, 여성 7.9%).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본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모습을 보이며(50~54세 22.7%, 55~59세 33.3%, 60~64세 44.9%, 65~69세 55.8%), 다른 연령대에 비해 50~54세 연령군은 생계비 마련, 자녀의 취업, 자녀 교육에 대해, 55~59세 연령군은 노후 준비, 자녀의 결혼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신중년 집단 내에서도 50대는 아직 자녀가 독립하기 전이라는 생애주기상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혼 상태별로는 유배우자는 무배우자에 비해 노후 준비, 자녀의 결혼, 자녀의 취업, 자녀 교육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은 반면, 본인의 건강, 생계비 마련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다. 가구 유형별로는 가구 규모가 작을수록 본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고(1인 가구 53.5%, 부부 가구 48.6%, 자녀 동거 가구 25.5%),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1인 가구는 생계비 마련, 부부 가구는 노후 준비, 자녀 동거 가구는 자녀의 결혼, 자녀의 취업, 자녀 교육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인다. 자녀와 동거하는 신중년은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기 때

문으로, 앞에서 신증년-자녀의 부양 교환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8-4〉 최근 관심사

(단위: %, 명)

	구분	관심사							계 (명)
		본인의 건강	노후 준비	자녀의 결혼	생계비 마련	자녀의 취업	자녀 교육	기타	
지역	전체	36.3	18.5	15.3	9.0	7.5	5.6	7.8	100.0 (4,006)
	동부	35.2	19.0	15.5	9.2	7.8	5.6	7.7	100.0 (3,211)
	읍면부	40.5	16.7	14.5	8.6	6.5	5.4	7.8	100.0 (795)
성별***	남성	35.1	19.1	12.8	10.2	8.1	6.6	8.1	100.0 (1,985)
	여성	37.4	18.0	17.8	7.9	7.0	4.5	7.4	100.0 (2,021)
연령***	50~54세	22.7	16.8	13.0	11.2	13.3	14.6	8.4	100.0 (1,173)
	55~59세	33.3	20.1	19.8	7.6	8.7	2.9	7.5	100.0 1,371)
	60~64세	44.9	19.4	15.0	8.9	2.7	1.3	7.6	100.0 (793)
	65~69세	55.8	17.1	10.6	8.4	0.6	0.2	7.3	100.0 (669)
결혼 상태***	유배우	34.5	18.8	16.4	8.0	8.4	6.1	7.7	100.0 (3,461)
	무배우	47.6	16.4	8.5	15.7	2.1	2.0	7.9	100.0 (545)
가구 유형***	1인	53.5	18.5	4.3	15.2	0.2	0.8	7.4	100.0 (353)
	부부	48.6	21.2	10.3	7.5	2.5	1.7	8.2	100.0 (1,396)
	자녀 동거	25.5	16.7	21.2	8.7	12.6	9.0	6.3	100.0 (2,038)
	기타	30.7	17.8	10.2	12.4	3.9	5.9	19.1	100.0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60.1	12.9	8.2	9.9	2.6	0.5	5.9	100.0 (321)
	중학교	51.6	13.1	12.8	13.1	1.6	2.1	5.7	100.0 (549)
	고등학교	33.0	19.7	17.4	8.7	8.2	5.6	7.5	100.0 (2,410)
	대학 이상	25.1	21.3	13.6	6.7	12.1	10.4	10.8	100.0 (72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33.3	19.1	15.0	9.6	8.5	6.2	8.3	100.0 (3,101)
	미취업	46.4	16.5	16.5	7.2	4.1	3.4	5.9	100.0 (9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45.0	19.2	10.7	12.0	2.8	3.1	7.3	100.0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33.3	18.8	14.8	9.5	8.4	6.7	8.5	100.0 (1,339)
	500만 원 이상	30.0	17.6	20.8	5.5	11.7	6.9	7.5	100.0 (1,28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교육 수준별로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본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낮은 반면(초등학교 이하 60.1%, 대학 이상 25.1%),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은 높은 경향을 보인다(초등학교 이하 12.9%, 대학 이상 21.3%). 현재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 중이 미취업에 비해 본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낮은 반면(취업 중 33.3%, 미취업 46.4%),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은 높은 경향을 보인다(취업 중 19.1%, 미취업 16.5%).

가구소득별로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본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낮은 반면(300만 원 미만 45.0%, 300만~500만 원 미만 33.3%, 500만 원 이상 30.0%), 자녀의 결혼에 대한 관심은 높은 경향이 있다(300만 원 미만 10.7%, 300만~500만 원 미만 14.8%, 500만 원 이상 20.8%). 그리고 다른 가구소득 유형에 비해 300만 원 미만은 생계비 마련, 500만 원 이상은 자녀의 취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다.

〈표 8-5〉에 의하면, 신중년의 다수인 77.4%는 노후 희망 동거인으로 ‘배우자’를 꼽고 있었으며 그다음 ‘혼자(19.0%)’, ‘자녀(3.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는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표 8-5〉 참조).

이를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비교해 보면, 먼저 연령별로는 뚜렷한 경향성이 없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배우자와 살고 싶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남성 82.0%, 여성 72.8%), 혼자 살고 싶다는 응답은 낮은 경향을 보인다(남성 15.5%, 여성 22.5%). 결혼 상태별로는 유배우자는 배우자와 살고 싶다는 응답이 88.7%로 가장 높긴 하지만, 혼자 살고 싶다는 응답도 8.9%이다. 무배우자는 혼자 살고 싶다는 응답이 83.3%로 가장 높긴 하지만, ‘자녀와 살고 싶다’(8.9%), ‘배우자와 살고 싶다’(5.1%) 등의 응답도 있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의 경우 다른 가구 유형과 달리 혼자 살고 싶다(88.4%)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 노후 희망 동거인은 현재 배우자 유

무 및 가구 유형에 상관없이 응답할 수 있지만, 1인 가구의 경우 현재의 가구 유형이 유지될 것으로 보는 경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자녀 동거 가구의 경우 자녀와 살고 싶다는 응답은 4.1%에 불과하여 자녀의 독립을 기다리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교육 수준별로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와 살고 싶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초등학교 이하 64.6%, 대학 이상 84.1%), 혼자 살고 싶다는 응답은 낮은 경향을 보인다(초등학교 이하 28.8%, 대학 이상 14.4%). 현재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 중이 미취업에 비해 배우자와 살고 싶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취업 중 79.0%, 미취업 71.6%), 혼자 살고 싶다는 응답은 낮은 편이다(취업 중 17.9%, 미취업 22.9%).

가구소득별로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와 살고 싶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300만 원 미만 64.7%, 300만~500만 원 미만 81.5%, 500만 원 이상 86.6%), 혼자 살고 싶다는 응답은 낮은 경향을 보인다(300만 원 미만 31.1%, 300만~500만 원 미만 15.3%, 500만 원 이상 10.0%).

〈표 8-6〉에 의하면, 신중년이 노후 생활에서 가장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건강 및 기능 악화’가 53.0%로 가장 많고, 그다음 ‘경제적 어려움(29.8%)’, ‘소일거리 없음(6.3%)’, ‘소외 및 고독감(5.8%)’ 순이며, 지역,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 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이를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비교해 보면, 먼저 교육 수준별로는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지역별로 동부가 읍면부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약간 높고(동부 30.7%, 읍면부 25.8%), ‘건강 및 기능 악화’에 대해서는 약간 낮다(동부 51.7%, 읍면부 57.9%).

〈표 8-5〉 노후 희망 동거인

(단위: %, 명)

구분		희망 동거인				계 (명)
		자녀와 살고 싶다	배우자와 살고 싶다	혼자 살고 싶다	기타	
	전체	3.1	77.4	19.0	0.5	100.0 (4,006)
지역	동부	3.4	76.9	19.2	0.5	100.0 (3,211)
	읍면부	2.1	79.3	18.3	0.3	100.0 (795)
성별***	남성	2.1	82.0	15.5	0.4	100.0 (1,985)
	여성	4.1	72.8	22.5	0.6	100.0 (2,021)
연령***	50~54세	3.2	77.5	18.6	0.7	100.0 (1,173)
	55~59세	2.5	78.0	19.0	0.6	100.0 (1,371)
	60~64세	1.9	79.8	18.1	0.2	100.0 (793)
	65~69세	5.9	72.9	20.9	0.3	100.0 (669)
결혼 상태***	유배우	2.2	88.7	8.9	0.1	100.0 (3,461)
	무배우	8.9	5.1	83.3	2.7	100.0 (545)
가구 유형***	1인	4.3	5.5	88.4	1.8	100.0 (353)
	부부	1.3	91.6	7.1	0.0	100.0 (1,396)
	자녀 동거	4.1	81.6	14.1	0.2	100.0 (2,038)
	기타	3.8	62.6	30.1	3.5	100.0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6.4	64.6	28.8	0.2	100.0 (321)
	중학교	4.8	71.1	23.7	0.4	100.0 (549)
	고등학교	2.9	78.4	18.1	0.6	100.0 (2,410)
	대학 이상	1.1	84.1	14.4	0.4	100.0 (72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2.6	79.0	17.9	0.4	100.0 (3,101)
	미취업	4.8	71.6	22.9	0.7	100.0 (9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3.5	64.7	31.1	0.7	100.0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3.0	81.5	15.3	0.2	100.0 (1,339)
	500만 원 이상	2.8	86.6	10.0	0.5	100.0 (1,28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건강 및 기능 악화라는 응답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50~54세 49.5%, 55~59세 50.5%, 60~64세 56.6%, 65~69세 59.7%), 다른 연령군에 비해 55~59세 연령군은 경제적 어려움, 소일거리 없음의 응답이 높다.

결혼 상태별로는 유배우자가 무배우자에 비해 건강 및 기능 악화(53.8%)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인 반면, 경제적 어려움(29.1%), 소외 및 고독감(5.1%)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을 보인다. 가구 유형별로는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1인 가구는 경제적 어려움(34.5%)과 소외 및 고독감(10.9%), 부부 가구(57.7%)와 기타 가구(58.3%)는 건강 및 기능 악화에 대해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현재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 중이 미취업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응답이 높은 반면(취업 중 31.0%, 미취업 25.7%), 건강 및 기능 악화에 대한 응답은 낮다(취업 중 51.2%, 미취업 58.9%). 가구소득별로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 및 기능 악화에 대한 응답이 높은 반면(300만 원 미만 49.5%, 300만~500만 원 미만 52.7%, 500만 원 이상 56.9%),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응답은 낮은 경향을 보인다(300만 원 미만 35.6%, 300만~500만 원 미만 29.7%, 500만 원 이상 23.6%).

〈표 8-7〉은 신중년이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보여 준다. 신중년이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는 것은 건강이 48.4%로 가장 많고, 그다음 경제적인 안정과 여유 44.2%, 가족의 화목과 평안 4.0%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이를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비교해 보면, 먼저 가구 유형별, 가구소득별로는 큰 차이가 없거나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표 8-6〉 노후 생활의 예상되는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예상 어려움							계 (명)
	건강 및 기능 약화	경제적 어려움	소일거리 없음	소외 및 고독감	배우자 와의 관계	자녀 와의 관계	기타	
전체	53.0	29.8	6.3	5.8	1.9	1.7	1.7	100.0 (4,006)
지역*	동부	51.7	30.7	6.1	5.9	2.1	1.6	100.0 (3,211)
	읍면부	57.9	25.8	6.9	5.1	1.1	1.8	100.0 (795)
성별	남성	51.5	30.9	7.0	5.8	1.9	1.3	100.0 (1,985)
	여성	54.4	28.7	5.6	5.8	1.9	2.0	100.0 (2,021)
연령**	50~54세	49.5	30.6	6.7	7.5	1.7	2.4	100.0 (1,173)
	55~59세	50.5	31.6	7.0	5.4	2.1	1.2	100.0 (1,371)
	60~64세	56.6	28.6	5.4	5.0	1.6	1.3	100.0 (793)
	65~69세	59.7	26.0	5.0	4.4	2.2	1.7	100.0 (669)
결혼 상태***	유배우	53.8	29.1	6.6	5.1	2.2	1.7	100.0 (3,461)
	무배우	47.7	34.0	4.3	10.1	0.1	1.7	100.0 (545)
가구 유형***	1인	47.7	34.5	4.0	10.9	0.0	0.6	100.0 (353)
	부부	57.7	25.6	6.4	5.1	2.4	1.1	100.0 (1,396)
	자녀 동거	50.0	32.1	6.7	5.3	2.1	2.1	100.0 (2,038)
	기타	58.3	26.7	4.9	6.3	0.2	3.4	100.0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55.3	31.4	6.0	3.7	0.5	1.3	100.0 (321)
	중학교	60.0	27.7	3.7	5.4	0.4	1.4	100.0 (549)
	고등학교	52.0	30.3	6.7	5.6	2.2	1.5	100.0 (2,410)
	대학 이상	49.8	28.8	7.0	7.6	2.7	2.6	100.0 (72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51.2	31.0	6.6	5.7	2.2	1.7	100.0 (3,101)
	미취업	58.9	25.7	5.1	6.0	0.9	1.4	100.0 (9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49.5	35.6	5.0	5.5	0.8	1.4	100.0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52.7	29.7	7.0	5.1	2.4	1.7	100.0 (1,339)
	500만 원 이상	56.9	23.6	6.9	6.9	2.6	1.9	100.0 (1,28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8-7〉 노후 만족의 중요 요소: 1순위 기준

(단위: %, 명)

구분	노후 만족 요소					기타	계 (명)
	건강	경제적인 안정과 여유	가족의 화목과 평안	자녀의 성공			
전체	48.4	44.2	4.0	0.9	2.4	100.0	(4,006)
지역**	동부	46.8	45.7	4.1	1.0	2.4	100.0 (3,211)
	읍면부	54.8	38.2	4.0	0.5	2.6	100.0 (795)
성별	남성	47.5	45.2	4.0	0.6	2.7	100.0 (1,985)
	여성	49.4	43.2	4.1	1.2	2.1	100.0 (2,021)
연령***	50~54세	44.3	47.5	4.6	1.0	2.6	100.0 1,173)
	55~59세	45.5	47.2	3.8	0.8	2.7	100.0 (1,371)
	60~64세	52.6	40.5	3.7	1.5	1.7	100.0 (793)
	65~69세	56.8	40.5	3.8	0.3	2.4	100.0 (669)
결혼 상태*	유배우	48.8	43.5	4.4	1.0	2.3	100.0 (3,461)
	무배우	46.2	48.4	2.1	0.4	2.9	100.0 (545)
가구 유형***	1인	48.2	47.4	1.1	0.2	3.0	100.0 (353)
	부부	53.0	39.4	4.4	0.8	2.4	100.0 (1,396)
	자녀 동거	45.1	47.3	4.2	1.1	2.4	100.0 (2,038)
	기타	50.7	41.5	5.1	0.9	1.9	100.0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56.6	37.8	2.4	0.6	2.5	100.0 (321)
	중학교	52.4	40.9	4.3	0.9	1.5	100.0 (549)
	고등학교	47.2	46.0	4.0	0.9	1.9	100.0 (2,410)
	대학 이상	45.7	43.6	4.7	1.1	4.9	100.0 (72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46.8	45.6	4.1	1.0	2.5	100.0 (3,101)
	미취업	54.0	39.3	3.8	0.6	2.3	100.0 (9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49.9	43.0	3.7	0.5	2.9	100.0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46.5	46.7	3.6	0.6	2.6	100.0 (1,339)
	500만 원 이상	49.0	42.7	4.9	1.7	1.7	100.0 (1,28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지역별로 읍면부가 동부에 비해 건강이라는 응답이 약간 높고(읍면부 54.8%, 동부 46.8%), 경제적인 안정과 여유라는 응답은 약간 낮다(읍면부 38.2%, 동부 45.7%).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건강이라는 응답이 높은 반면(50~54세 44.3%, 55~59세 45.5%, 60~64세 52.6%, 65~69세 56.8%), 경제적인 안정과 여유라는 응답은 낮다(50~54세 47.5%, 55~59세 47.2%, 60~64세 40.5%, 65~69세 40.5%). 결혼 상태별로 유배우자는 무배우자에 비해 건강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유배우자 48.8%, 무배우자 46.2%), 경제적인 안정과 여유는 낮은 응답을 보인다(유배우자 43.5%, 무배우자 48.4%).

교육 수준별로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이라는 응답이 낮은 경향이 있다(초등학교 이하 56.6%, 대학 이상 45.7%). 현재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 중이 미취업에 비해 경제적인 안정과 여유라는 응답이 높은 반면(취업 중 45.6%, 미취업 39.3%), 건강이라는 응답은 낮다(취업 중 46.8%, 미취업 54.0%).

제2절 정책 인지도 및 욕구

1. 신중년층 대상 정책

이 절은 신중년층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정책 이용 의향을 살펴본다. 신중년은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 16.6%가 인지하고 있고, ‘들어본 적도 없다(55.3%)’,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28.1%)’로 응답하여 인지도가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사회

공헌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666명 중 이용 경험은 6.6%이다. 전체 신중년 응답자 중 향후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3.1%이다. 여기서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은 퇴직한 신중년에게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단체 등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신중년은 월 최대 120시간, 1일 4시간 이상 참여하며 활동 일수에 비례하여 일비 9000원(식비 및 교통비)과 시간당 2000원의 참여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지역,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인구 사회학적 특성별로 자세히 비교해 보면,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우(18.2%), 남성인 경우(18.1%), 연령대가 낮을수록(50~54세 17.8%), 유 배우자인 경우(17.2%), 가구 유형이 자녀 동거 가구인 경우(17.3%),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대학 이상 22.2%), 취업 중인 경우(17.3%),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500만 원 이상 19.0%)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다.

이용 경험에 있어서는 65~69세 연령군(13.4%)이 다른 연령군에 비해 높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이다. 그 외 특성별로는 이용 경험에 대한 차이가 없다.

향후 이용 의향에 있어서는 지역, 연령,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동부에 거주하는 경우(24.0%), 가구 유형이 자녀 동거 가구인 경우(25.2%),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대학 이상 29.2%), 취업 중인 경우(23.9%)가 상대적으로 이용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69세인 경우(19.0%) 다른 연령군에 비해 이용 의향이 낮다.

〈표 8-8〉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인지도,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

(단위: %, 명)

구분	인지도				향후 이용 의향		계 (명)	
	알고 있음	이용 경험 있음 ¹⁾	들어본 적 있으나, 잘 모름	들어본 적 없음	있음	없음		
전체	16.6	6.6	28.1	55.3	23.1	76.9	100.0 (4,006)	
지역***	동부	16.2	7.1	30.0	53.8	24.0	76.0	100.0 (3,211)
	읍면부	18.2	5.1	20.4	61.4	19.5	80.5	100.0 (795)
성별***	남성	18.1	7.1	30.3	51.5	22.9	77.1	100.0 (1,985)
	여성	15.2	6.0	25.8	59.0	23.4	76.6	100.0 (2,021)
연령*	50~54세	17.8	6.6	30.0	52.2	24.5	75.5	100.0 (1,173)
	55~59세	16.8	4.7	28.7	54.5	23.3	76.7	100.0 (1,371)
	60~64세	16.5	5.0	27.3	56.2	24.3	75.7	100.0 (793)
	65~69세	14.5	13.4	24.3	61.2	19.0	81.0	100.0 (669)
결혼 상태***	유배우	17.2	6.6	29.0	53.8	23.3	76.7	100.0 (3,461)
	무배우	13.1	6.9	22.2	64.7	21.9	78.1	100.0 (545)
가구 유형***	1인	12.9	8.0	19.8	67.3	22.8	77.2	100.0 (353)
	부부	16.0	6.2	25.4	58.6	20.6	79.4	100.0 (1,396)
	자녀 동거	17.3	7.2	31.5	51.2	25.2	74.8	100.0 (2,038)
	기타	20.4	2.9	27.3	52.4	20.2	79.8	100.0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13.0	9.4	24.8	62.3	19.0	81.0	100.0 (321)
	중학교	12.8	6.8	21.3	65.8	20.7	79.3	100.0 (549)
	고등학교	16.3	6.2	29.4	54.3	22.4	77.6	100.0 (2,410)
	대학 이상	22.2	7.0	30.2	47.5	29.2	70.8	100.0 (72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17.3	7.1	29.1	53.7	23.9	76.1	100.0 (3,101)
	미취업	14.5	4.8	24.7	60.8	20.3	79.7	100.0 (9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4.7	4.3	22.4	62.9	22.9	77.1	100.0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16.4	7.8	29.4	54.1	23.4	76.6	100.0 (1,339)
	500만 원 이상	19.0	7.6	32.5	48.5	22.9	77.1	100.0 (1,283)

주: 1) 이용 경험은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666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 p < 0.05, ** p < 0.01, *** p < 0.001: 인지도 기준

〈표 8-9〉에 의하면, 신중년은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 대해 17.8%가 알고 있고, ‘들어본 적도 없다(50.9%)’,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31.4%)’로 응답하여 인지도가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712명 중에서 이용 경험률은 6.0%에 불과하다. 아울러 전체 응답자 중 향후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4%이다.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노사발전재단, 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등에서 주로 운영하는 40세 이상의 일자리 지원 종합 기관으로 생애설계, 채용업 및 창업, 사회참여 기회 등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신중년의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 대한 인지도는 지역,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인구학적 제 특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성인 경우(18.9%), 50~54세인 경우(21.0%), 유배우자인 경우(18.7%), 가구 유형이 자녀 동거 가구인 경우(19.9%), 교육 수준이 높을 수록(대학 이상 26.1%), 현재 취업 중인 경우(18.1%), 소득 수준이 높을 수록(500만 원 이상 22.7%)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다.

반면에 지역별 인지율은 차이가 거의 없지만, 들어본 적도 없다는 응답 비율이 읍면부의 경우 61.8%로 동부(48.1%)보다 13.7%포인트 높다. 그 외에도 신중년 집단 내에서 읍면부, 고연령, 1인 가구, 저학력, 저소득 특성의 신중년은 상대적으로 ‘들어본 적도 없다’는 응답이 높다. 이러한 경향성은 이후 살펴보게 될 정책 인지도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의 신중년을 대상으로 정책 인지도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용 경험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저조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지만, 교육 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된다. 고등학교 교육 수준의 이용 경험률은 8.1%로 다른 교육 수준에 비해 3.5~5.8%포인트 높다.

〈표 8-9〉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인지도,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

(단위: %, 명)

구분	인지도				향후 이용 의향		계 (명)	
	알고 있음	이용 경험 있음 ¹⁾	들어본 적 있으나, 잘 모름	들어본 적 없음	있음	없음		
전체	17.8	6.0	31.4	50.9	34.4	65.6	100.0	(4,006)
지역***	동부	17.9	5.5	34.0	48.1	36.1	63.9	100.0 (3,211)
	읍면부	17.2	8.0	20.9	61.8	27.8	72.2	100.0 (795)
성별**	남성	18.9	5.8	33.1	48.0	35.0	65.0	100.0 (1,985)
	여성	16.7	6.2	29.7	53.6	33.8	66.2	100.0 (2,021)
연령***	50~54세	21.0	7.1	32.7	46.4	39.1	60.9	100.0 (1,173)
	55~59세	17.1	5.8	34.3	48.5	36.7	63.3	100.0 (1,371)
	60~64세	18.1	7.6	29.3	52.6	31.4	68.6	100.0 (793)
	65~69세	13.2	0.7	25.4	61.4	25.1	74.9	100.0 (669)
결혼 상태***	유배우	18.7	6.0	32.2	49.1	34.7	65.3	100.0 (3,461)
	무배우	11.8	5.6	26.0	62.2	32.8	67.2	100.0 (545)
가구 유형***	1인	11.4	5.8	24.5	64.1	33.4	66.6	100.0 (353)
	부부	16.3	8.1	27.4	56.3	29.5	70.5	100.0 (1,396)
	자녀 동거	19.9	5.1	34.9	45.2	38.3	61.7	100.0 (2,038)
	기타	18.0	3.2	34.7	47.3	31.4	68.6	100.0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10.2	3.6	27.5	62.3	24.6	75.4	100.0 (321)
	중학교	13.1	4.6	22.4	64.5	29.9	70.1	100.0 (549)
	고등학교	17.4	8.1	33.1	49.5	36.3	63.7	100.0 (2,410)
	대학 이상	26.1	2.3	34.1	39.8	36.0	64.0	100.0 (72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18.1	6.6	32.9	49.0	36.1	63.9	100.0 (3,101)
	미취업	16.6	3.7	26.1	57.3	28.5	71.5	100.0 (9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4.4	5.1	24.9	60.7	33.2	66.8	100.0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16.6	6.4	34.9	48.5	37.4	62.6	100.0 (1,339)
	500만 원 이상	22.7	6.3	34.4	42.8	32.5	67.5	100.0 (1,283)

주: 1) 이용 경험은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712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 p < 0.05, ** p < 0.01, *** p < 0.001: 인지도 기준

향후 이용 의향에 있어서는 지역, 연령,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서 차이가 있다. 동부에 거주하는 경우(36.1%), 연령대가 낮을수록(50~54세 39.1%, 65~69세 25.1%), 가구 유형이 자녀 동거 가구인 경우(38.3%),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고등학교 36.3%, 대학 이상 36.0%), 취업 중인 경우(36.1%), 가구소득이 300만~500만 원 미만일 경우(37.4%) 상대적으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이용 의향이 높다.

〈표 8-10〉은 신중년의 6.3%가 생애경력설계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고, ‘들어본 적도 없다(73.4%)’,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20.3%)’로 응답하여 인지도가 낮은 편이다. 그리고 생애경력설계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신중년 252명 중 이용 경험은 2.2%로 미미한 수준이다. 아울러 전체 응답자 중 향후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9.1%이다.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하나로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미래를 위한 경력관리, 능력개발 등을 지원한다.

한편 신중년의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인지도는 지역, 성별, 연령, 가구 유형, 교육 수준,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비교해 보면, 지역 간 차이는 매우 작고 남성인 경우(7.4%), 배우자가 있는 경우(6.6%),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대학 이상 10.7%),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500만 원 이상 7.3%)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다. 반면에 연령군이 65~69세인 경우(4.1%), 가구 유형이 1인 가구인 경우(4.5%)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다.

〈표 8-10〉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인지도,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

(단위: %, 명)

구분	인지도				향후 이용 의향		계(명)	
	알고 있음	이용 경험 있음 ¹⁾	들어본 적 있으나, 잘 모름	들어본 적 없음	있음	없음		
전체	6.3	2.2	20.3	73.4	19.1	80.9	100.0 (4,006)	
지역*	동부	6.3	1.7	21.1	72.7	20.3	79.7	100.0 (3,211)
	읍면부	6.4	4.4	17.1	76.5	14.0	86.0	100.0 (795)
성별**	남성	7.4	2.6	21.3	71.4	17.9	82.1	100.0 (1,985)
	여성	5.3	1.7	19.3	75.4	20.2	79.8	100.0 (2,021)
연령***	50~54세	6.3	3.4	24.0	69.7	20.5	79.5	100.0 (1,173)
	55~59세	6.9	1.1	18.9	74.1	20.8	79.2	100.0 (1,371)
	60~64세	7.1	3.7	17.7	75.1	17.0	83.0	100.0 (793)
	65~69세	4.1	0.0	19.5	76.4	15.5	84.5	100.0 (669)
결혼 상태	유배우	6.6	1.4	20.6	72.9	18.9	81.1	100.0 (3,461)
	무배우	4.5	10.1	18.5	77.0	19.9	80.1	100.0 (545)
가구 유형*	1인	4.5	7.4	17.0	78.5	21.3	78.7	100.0 (353)
	부부	6.3	1.8	18.3	75.5	14.9	85.1	100.0 (1,396)
	자녀 동거	6.5	2.2	21.8	71.7	21.7	78.3	100.0 (2,038)
	기타	7.9	0.0	24.3	67.8	17.2	82.8	100.0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4.7	0.0	19.7	75.6	13.6	86.4	100.0 (321)
	중학교	5.1	1.9	16.3	78.6	18.6	81.4	100.0 (549)
	고등학교	5.5	3.9	20.4	74.1	19.0	81.0	100.0 (2,410)
	대학 이상	10.7	0.0	23.1	66.1	22.0	78.0	100.0 (72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6.3	2.9	21.0	72.7	19.8	80.2	100.0 (3,101)
	미취업	6.2	0.0	17.8	76.0	16.5	83.5	100.0 (9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4.9	0.0	16.7	78.4	19.3	80.7	100.0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6.8	4.0	20.7	72.5	19.5	80.5	100.0 (1,339)
	500만 원 이상	7.3	2.1	23.7	69.0	18.4	81.6	100.0 (1,283)

주: 1) 이용 경험은 생애경력설계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252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 $p < 0.05$, ** $p < 0.01$, *** $p < 0.001$: 인지도 기준

이용 경험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저조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고,¹⁷⁾ 향후 이용 의향에 있어서는 지역, 연령,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동부에 거주하는 경우(20.3%), 연령군이 50대인 경우(50~54세 20.5%, 55~59세 20.8%), 가구 유형이 자녀 동거 가구인 경우(21.7%),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대학 이상 22.0%), 취업 중인 경우(19.8%) 상대적으로 이용 의향이 높다.

〈표 8-11〉에 의하면, 신중년은 고령자 인재은행에 대해 6.7%가 알고 있고, ‘들어본 적도 없다(72.0%)’,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21.3%)’로 응답하였다. 고령자 인재은행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267명 중 실제 이용 경험은 1.3%에 불과하다. 전체 응답자 중 향후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7%이다.

고령자 인재은행은 50세 이상 구직자를 대상으로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에서 제공하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이다. 여성발전센터, 사회복지관, YWCA 등 전국 44개소가 고령자 인재은행으로 지정받아 운영되고 있다.

고령자 인재은행 인지도는 지역,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비교해 보면, 읍면부의 경우 들어본 적도 없다는 응답이 76.1%로 동부 지역보다 5.1%포인트 높다. 그리고 남성인 경우(7.7%), 배우자가 있는 경우(7.0%),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대학 이상 11.0%), 현재 취업 중인 경우(7.0%),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500만 원 이상 8.2%)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다. 반면에 연령군이 65~69세인 경우(4.9%), 가구 유형이 1인 가구인 경우(4.1%)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다.

이용 경험에 있어서는 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서, 여성인 경우(2.7%) 남성(0.3%)보다 높다.¹⁸⁾

17) 결혼 상태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사례 수가 작아서 통계적인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유배우자 228명, 무배우자 25명).

〈표 8-11〉 고령자 인재은행: 인지도,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

(단위: %, 명)

구분		인지도				향후 이용 의향		계(명)
		알고 있음	이용 경험 있음 ¹⁾	들어본 적 있으나 모름	들어본 적 없음	있음	없음	
	전체	6.7	1.3	21.3	72.0	20.7	79.3	100.0 (4,006)
지역**	동부	6.7	0.9	22.3	71.0	22.5	77.5	100.0 (3,211)
	읍면부	6.8	2.9	17.1	76.1	13.7	86.3	100.0 (795)
성별*	남성	7.7	0.3	22.0	70.4	19.5	80.5	100.0 (1,985)
	여성	5.7	2.7	20.7	73.6	21.9	78.1	100.0 (2,021)
연령*	50~54세	6.9	3.1	24.2	68.9	23.5	76.5	100.0 (1,173)
	55~59세	7.3	1.0	21.1	71.5	22.2	77.8	100.0 (1,371)
	60~64세	6.7	0.0	18.9	74.5	17.4	82.6	100.0 (793)
	65~69세	4.9	0.0	19.6	75.5	16.8	83.2	100.0 (669)
결혼 상태**	유배우	7.0	0.4	21.9	71.1	20.8	79.2	100.0 (3,461)
	무배우	4.8	9.5	17.7	77.5	20.2	79.8	100.0 (545)
가구 유형***	1인	4.1	3.4	16.9	79.0	21.9	78.1	100.0 (353)
	부부	6.5	0.0	19.8	73.6	15.6	84.4	100.0 (1,396)
	자녀 동거	6.8	2.2	23.3	70.0	24.1	75.9	100.0 (2,038)
	기타	10.8	0.0	19.7	69.5	19.9	80.1	100.0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5.3	0.0	18.4	76.3	14.7	85.3	100.0 (321)
	중학교	4.8	2.6	16.6	78.6	17.2	82.8	100.0 (549)
	고등학교	6.0	2.0	21.6	72.4	20.3	79.7	100.0 (2,410)
	대학 이상	11.0	0.0	25.1	63.9	27.4	72.6	100.0 (72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7.0	1.3	22.1	70.9	21.6	78.4	100.0 (3,101)
	미취업	5.7	1.3	18.6	75.7	17.8	82.2	100.0 (9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5.8	2.2	16.2	78.0	18.1	81.9	100.0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6.1	0.6	22.8	71.1	20.9	79.1	100.0 (1,339)
	500만 원 이상	8.2	1.2	25.2	66.6	23.3	76.7	100.0 (1,283)

주: 1) 이용 경험은 고령자 인재은행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267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 p < 0.05, ** p < 0.01, *** p < 0.001: 인지도 기준

18) 결혼 상태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사례 수가 작아서 통계적인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유배우자 241명, 무배우자 26명).

향후 이용 의향에 있어서는 지역, 연령,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서 차이가 있다. 동부에 거주하는 경우(22.5%), 연령대가 낮을수록(50~54세 23.5%, 55~59세 22.2%), 가구 유형이 자녀 동거 가구인 경우(24.1%),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대학 이상 27.4%), 현재 취업 중인 경우(21.6%),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500만 원 이상 23.3%) 상대적으로 이용 의향이 높다.

〈표 8-12〉는 신중년의 노후 준비 서비스의 인지도,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을 보여 준다. 신중년의 13.9%는 노후 준비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고, ‘들어본 적도 없다’ 54.7%,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 31.3%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559명의 이용 경험률은 4.7%이다. 전체 응답자 중 향후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6.7%이다.

노후 준비 서비스는 노후생활의 4대 영역인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국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 노후 준비 수준 진단, 상담, 교육,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후 준비 서비스 인지도는 지역,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비교해 보면, 연령별 뚜렷한 경향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 외에 동부에 거주하는 경우(14.4%), 남성인 경우(15.6%), 배우자가 있는 경우(14.4%), 교육 수준이 대학 이상인 경우(18.7%), 취업 중인 경우(14.3%), 소득 수준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17.0%)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다. 반면에 가구 유형이 1인 가구인 경우(10.8%), 교육 수준이 중학교인 경우(8.6%)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다.

〈표 8-12〉 노후 준비 서비스: 인지도,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

(단위: %, 명)

구분		인지도				향후 이용 의향		계(명)
		알고 있음	이용 경험 있음 ¹⁾	들어본 적 있으나, 잘 모름	들어본 적 없음	있음	없음	
	전체	13.9	4.7	31.3	54.7	36.7	63.3	100.0 (4,006)
지역*	동부	14.4	4.7	31.7	53.9	38.6	61.4	100.0 (3,211)
	읍면부	12.0	4.5	29.7	58.3	29.2	70.8	100.0 (795)
성별***	남성	15.6	4.4	32.9	51.5	35.7	64.3	100.0 (1,985)
	여성	12.3	5.0	29.8	57.9	37.8	62.2	100.0 (2,021)
연령***	50~54세	14.7	6.9	35.1	50.2	39.1	60.9	100.0 (1,173)
	55~59세	13.3	2.4	31.5	55.1	37.9	62.1	100.0 (1,371)
	60~64세	14.8	3.0	30.0	55.3	35.2	64.8	100.0 (793)
	65~69세	12.9	7.3	25.8	61.3	32.0	68.0	100.0 (669)
결혼 상태***	유배우	14.4	4.5	32.1	53.4	37.5	62.5	100.0 (3,461)
	무배우	10.8	6.4	26.2	62.9	31.8	68.2	100.0 (545)
가구 유형***	1인	10.8	9.9	24.9	64.3	33.4	66.6	100.0 (353)
	부부	13.6	5.3	29.1	57.3	33.0	67.0	100.0 (1,396)
	자녀 동거	14.7	4.1	33.6	51.7	40.4	59.6	100.0 (2,038)
	기타	14.2	0.0	34.6	51.2	32.1	67.9	100.0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13.3	3.1	23.8	63.0	25.1	74.9	100.0 (321)
	중학교	8.6	5.5	26.0	65.4	27.0	73.0	100.0 (549)
	고등학교	13.8	6.7	32.4	53.8	39.6	60.4	100.0 (2,410)
	대학 이상	18.7	0.0	35.0	46.3	39.8	60.2	100.0 (72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14.3	4.1	32.6	53.0	38.0	62.0	100.0 (3,101)
	미취업	12.6	6.9	26.7	60.7	32.4	67.6	100.0 (9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2.4	5.9	26.6	60.9	35.2	64.8	100.0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12.4	3.2	33.6	53.9	38.8	61.2	100.0 (1,339)
	500만 원 이상	17.0	4.5	33.9	49.1	36.1	63.9	100.0 (1,283)

주: 1) 이용 경험은 노후 준비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559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 p < 0.05, ** p < 0.01, *** p < 0.001: 인지도 기준

이용 경험은 교육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며, 교육 수준이 중학교(5.5%) 및 고등학교(6.7%)인 경우 이용 경험이 조금 높다. 그러나 신중년의 노후 준비 서비스 이용 경험이 전반적으로 저조하기 때문에 해석에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이용 의향에 있어서는 지역,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다. 동부에 거주하는 경우(38.6%), 연령대가 낮을수록(50~54세 39.1%), 배우자가 있는 경우(37.5%), 가구 유형이 자녀 동거 가구인 경우(40.4%),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대학 이상 39.8%), 취업 중인 경우(38.0%), 소득 수준이 300만~500만 원 미만인 경우(38.8%) 상대적으로 이용 의향이 높다.

〈표 8-13〉은 귀농귀촌종합센터의 인지도,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에 대한 내용이다. 신중년은 ‘귀농귀촌종합센터에 대해 알고 있다’ 26.4%, ‘들어본 적도 없다’ 38.8%,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 34.8%로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귀농귀촌종합센터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1056명 중에서 이용 경험률은 6.4%에 불과하다. 전체 응답자 중 향후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4%이다.

귀농귀촌종합센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방문·전화상담·온라인 상담, 귀농설계, 컨설팅, 1:1 맞춤형 귀농 닥터 연계 등 귀농귀촌을 위한 종합상담과 농업농촌 현장 사례 중심의 귀농귀촌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한다. 귀농귀촌종합센터는 신중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아니지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서 점진적으로 은퇴과정에서 인생3모작의 하나로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정책 인지도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8-13〉 귀농귀촌종합센터: 인지도,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

(단위: %, 명)

구분	인지도				향후 이용 의향		계(명)	
	알고 있음	이용 경험 있음 ¹⁾	들어본 적 있으나, 모름	들어본 적 없음	있음	없음		
전체	26.4	6.4	34.8	38.8	20.4	79.6	100.0 (4,006)	
지역***	동부	24.6	7.0	36.2	39.1	21.3	78.7	100.0 (3,211)
	읍면부	33.4	4.3	28.9	37.7	16.6	83.4	100.0 (795)
성별**	남성	28.5	5.9	34.7	36.8	23.7	76.3	100.0 (1,985)
	여성	24.3	6.9	34.9	40.8	17.1	82.9	100.0 (2,021)
연령	50~54세	26.9	8.5	36.2	36.9	21.4	78.6	100.0 (1,173)
	55~59세	26.8	4.9	35.4	37.8	20.8	79.2	100.0 (1,371)
	60~64세	27.8	4.5	32.5	39.6	22.7	77.3	100.0 (793)
	65~69세	22.8	8.1	33.7	43.5	15.1	84.9	100.0 (669)
결혼 상태***	유배우	27.4	6.2	35.6	37.0	21.2	78.8	100.0 (3,461)
	무배우	19.9	7.5	29.8	50.3	14.9	85.1	100.0 (545)
가구 유형***	1인	17.0	6.5	29.1	53.8	14.9	85.1	100.0 (353)
	부부	27.7	6.7	32.3	40.0	18.8	81.2	100.0 (1,396)
	자녀 동거	26.4	6.3	37.5	36.2	22.4	77.6	100.0 (2,038)
	기타	33.1	5.1	34.6	32.3	20.5	79.5	100.0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24.5	2.1	28.3	47.2	10.6	89.4	100.0 (321)
	중학교	20.2	5.6	30.9	48.9	13.2	86.8	100.0 (549)
	고등학교	26.4	7.9	35.5	38.1	21.8	78.2	100.0 (2,410)
	대학 이상	31.7	3.9	38.4	29.9	25.3	74.7	100.0 (72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27.5	6.6	36.3	36.2	22.1	77.9	100.0 (3,101)
	미취업	22.5	5.2	29.7	47.8	14.5	85.5	100.0 (9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22.6	4.7	31.6	45.8	18.4	81.6	100.0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26.1	6.1	34.6	39.4	21.5	78.5	100.0 (1,339)
	500만 원 이상	30.5	7.9	38.6	30.9	21.1	78.9	100.0 (1,283)

주: 1) 이용 경험은 귀농귀촌종합센터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1,056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 p < 0.05, ** p < 0.01, *** p < 0.001

귀농귀촌종합센터의 인지도는 지역, 성별, 결혼 상태,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비교해 보면,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우(33.4%), 남성인 경우(28.5%), 배우자가 있는 경우(27.4%), 가구 유형이 기타 가구인 경우(33.1%), 교육 수준이 대학 이상인 경우(31.7%), 현재 취업 중인 경우(27.5%),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500만 원 이상 30.5%)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다.

이용 경험에 있어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향후 이용 의향은 지역,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동부에 거주하는 경우(21.3%), 남성인 경우(23.7%), 연령군이 60~64세인 경우(22.7%), 배우자가 있는 경우(21.2%), 가구 유형이 자녀 동거 가구인 경우(22.4%),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대학 이상 25.3%), 현재 취업 중인 경우(22.1%), 소득 수준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300만 ~500만 원 미만 21.5%, 500만 원 이상 21.1%) 상대적으로 이용 의향이 높다.

2. 노후생활 지원 정책

신중년은 주택(농지)연금에 대해 90.0%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인지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며, 향후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3%이다. 주택(농지)연금 인지도는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향후 이용 의향은 이와 더불어 지역, 성별 간에도 차이가 있다.

주택(농지)연금에 대한 인지도를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비교해 보면, 연령군이 55~59세인 경우(92.1%), 배우자가 있는 경우(91.3%), 가구 유형이 부부 가구 또는 자녀 동거 가구인 경우(91.1%), 교육 수준이 높을수

록(대학 이상 95.0%, 초등학교 이하 79.7%), 현재 취업 중인 경우(90.6%),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500만 원 이상 93.8%)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다.

〈표 8-14〉 주택(농지)연금: 인지도, 향후 이용 의향

(단위: %, 명)

구분		인지도		향후 이용 의향				계(명)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생각해 본 적 없음	현재 주택(농지) 없음		
지역	전체	90.0	10.0	24.3	35.1	31.2	9.3	100.0	(4,006)
	동부	90.1	9.9	25.1	34.2	30.8	9.9	100.0	(3,211)
	읍면부	89.7	10.3	21.1	38.9	33.0	7.0	100.0	(795)
성별	남성	89.9	10.1	22.6	36.8	30.8	9.8	100.0	(1,985)
	여성	90.0	10.0	26.0	33.5	31.7	8.8	100.0	(2,021)
연령**	50~54세	89.6	10.4	25.7	31.9	32.6	9.9	100.0	(1,173)
	55~59세	92.1	7.9	27.8	32.3	30.0	9.9	100.0	(1,371)
	60~64세	87.9	12.1	21.9	38.9	31.4	7.8	100.0	(793)
	65~69세	88.8	11.2	17.8	42.2	31.2	8.8	100.0	(669)
결혼 상태***	유배우	91.3	8.7	25.7	36.7	31.4	6.2	100.0	(3,461)
	무배우	81.8	18.2	15.8	25.2	30.2	28.8	100.0	(545)
가구 유형***	1인	81.0	19.0	16.0	24.7	27.0	32.2	100.0	(353)
	부부	91.1	8.9	20.9	40.0	31.6	7.5	100.0	(1,396)
	자녀 동거	91.1	8.9	28.6	33.8	31.3	6.3	100.0	(2,038)
	기타	87.6	12.4	20.2	32.9	35.0	11.9	100.0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79.7	20.3	14.8	35.1	35.1	15.0	100.0	(321)
	중학교	84.6	15.4	16.3	38.4	31.8	13.5	100.0	(549)
	고등학교	91.1	8.9	27.0	33.7	31.1	8.2	100.0	(2,410)
	대학 이상	95.0	5.0	25.7	37.4	29.7	7.3	100.0	(72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90.6	9.4	25.1	35.3	31.4	8.2	100.0	(3,101)
	미취업	87.8	12.2	21.6	34.7	30.7	13.0	100.0	(9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85.8	14.2	21.0	33.6	27.8	17.6	100.0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90.6	9.4	27.0	36.0	30.8	6.2	100.0	(1,339)
	500만 원 이상	93.8	6.2	25.0	35.8	35.5	3.7	100.0	(1,28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향후 주택(농지)연금의 이용 의향은 동부에 거주하는 경우(25.1%), 여성인 경우(26.0%) 상대적으로 주택(농지)연금을 이용할 의향이 높다. 그 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주택(농지)연금 인지도의 결과와 유사하다.

한편 향후 이용 의향의 경우 현재 주택(농지)이 없어 주택(농지)연금 제도 자체를 이용할 수 없다는 응답이 있는데, 배우자가 없는 경우(유배우자 6.2%, 무배우자 28.8%), 가구 유형이 1인 가구인 경우(1인 가구 32.2%, 부부 가구 7.5%, 자녀 동거 가구 6.3%, 기타 가구 11.9%),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초등학교 이하 15.0%, 대학 이상 7.3%), 미취업인 경우(취업 중 8.2%, 미취업 13.0%),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300만 원 미만 17.6%, 500만 원 이상 3.7%) 응답 비율이 높다. 이러한 집단은 신중년 중에서 경제상태가 취약한 계층의 특성과 유사하다.

〈표 8-15〉에 의하면, 신중년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89.3%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인지도가 높은 수준이며, 향후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64.4%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지도는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비교해 보면, 여성인 경우(90.9%), 배우자가 있는 경우(90.3%), 가구 유형이 부부 가구인 경우(90.4%),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대학 이상 92.0%), 현재 취업 중인 경우(90.2%),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500만 원 이상 92.0%)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그 외 특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다.

향후 이용 의향에 있어서는 성별, 연령,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여성인 경우(66.4%),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300만 원 미만 68.2%) 상대적으로 이용 의향이 높다. 반면에 연령군이 50~54세(60.3%)인 경우 다른 연령에 비해 이용 의향이 낮는데, 생애주기상 다른 연령에 비해 건강상태가 좋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표 8-1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지도, 향후 이용 의향

(단위: %, 명)

구분		인지도		향후 이용 의향			계 (명)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생각해 본 적 없음	
지역	전체	89.3	10.7	64.4	11.4	24.3	100.0 (4,006)
	동부	89.3	10.7	63.8	11.9	24.4	100.0 (3,211)
	읍면부	89.3	10.7	67.0	9.2	23.8	100.0 (795)
성별***	남성	87.6	12.4	62.3	11.6	26.1	100.0 (1,985)
	여성	90.9	9.1	66.4	11.1	22.4	100.0 (2,021)
연령*	50~54세	89.8	10.2	60.3	10.7	29.0	100.0 (1,173)
	55~59세	90.7	9.3	66.1	10.8	23.2	100.0 (1,371)
	60~64세	88.0	12.0	64.6	13.2	22.2	100.0 (793)
	65~69세	86.9	13.1	67.9	11.6	20.6	100.0 (669)
결혼 상태***	유배우	90.3	9.7	64.7	11.2	24.1	100.0 (3,461)
	무배우	82.6	17.4	62.6	12.2	25.1	100.0 (545)
가구 유형***	1인	81.8	18.2	63.3	12.3	24.4	100.0 (353)
	부부	90.4	9.6	65.8	12.2	22.0	100.0 (1,396)
	자녀 동거	89.9	10.1	63.9	10.8	25.2	100.0 (2,038)
	기타	87.9	12.1	61.4	9.4	29.1	100.0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83.1	16.9	66.4	10.7	22.9	100.0 (321)
	중학교	86.6	13.4	64.3	12.9	22.8	100.0 (549)
	고등학교	89.9	10.1	64.1	11.2	24.7	100.0 (2,410)
	대학 이상	92.0	8.0	64.5	11.2	24.3	100.0 (72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90.2	9.8	64.2	10.7	25.0	100.0 (3,101)
	미취업	86.1	13.9	64.9	13.5	21.6	100.0 (9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86.0	14.0	68.2	11.6	20.2	100.0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89.9	10.1	62.8	11.3	25.9	100.0 (1,339)
	500만 원 이상	92.0	8.0	62.0	11.0	27.0	100.0 (1,28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신중년의 58.7%가 공적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고 있는 상태이고, '가입하지 않았다' 23.4%, '현재 연금(조기연금)을 받고 있다' 15.0%, '가입했으나 돈을 내지 못하고 있다' 3.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중년의 공적연금 가입 현황은 지역,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지역별로는 읍면부가 동부에 비해 공적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응답이 낮고(읍면부 53.4%, 동부 60.0%),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높다(읍면부 26.5%, 동부 22.6%).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응답이 높고(남성 60.8%, 여성 56.6%),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낮은 경향을 보인다(남성 16.5%, 여성 30.2%).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공적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응답이 높고(50~54세 78.1%, 65~69세 9.5%),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미 공적연금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높다(50~54세 0.5%, 65~69세 53.6%). 이는 60대 이후 공적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되기 때문에 나타난 경향으로 보인다.

연령별 특성과 관련하여 주목할 지점은 연령이 높을수록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50~54세 17.0%, 65~69세 36.5%). 이는 공적연금의 도입 시기 및 활성화 시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도입되어, 노년 및 신중년 집단에서는 아직 제도의 적용 대상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차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하면서 향후 공적연금 가입률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60대 신중년층의 경우 노후소득보장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는 비율이 결코 낮지 않다는 점은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지점이다.

〈표 8-16〉 공적연금 가입 여부

(단위: %, 명)

	구분	가입 여부				계 (명)
		가입했으며, 납부 중	가입했으나, 미납 중	미가입	현재 연금 (조기연금) 수혜	
지역***	전체	58.7	3.0	23.4	15.0	100.0 (4,006)
	동부	60.0	3.2	22.6	14.2	100.0 (3,211)
	읍면부	53.4	2.2	26.5	18.0	100.0 (795)
성별***	남성	60.8	3.1	16.5	19.6	100.0 (1,985)
	여성	56.6	2.8	30.2	10.4	100.0 (2,021)
연령***	50~54세	78.1	4.3	17.0	0.5	100.0 (1,173)
	55~59세	75.5	3.8	19.2	1.5	100.0 (1,371)
	60~64세	42.4	1.7	29.0	26.9	100.0 (793)
	65~69세	9.5	0.4	36.5	53.6	100.0 (669)
결혼 상태***	유배우	62.3	2.5	20.2	14.9	100.0 (3,461)
	무배우	35.5	5.9	43.4	15.2	100.0 (545)
가구 유형***	1인	32.8	5.5	44.0	17.7	100.0 (353)
	부부	48.9	1.9	25.0	24.2	100.0 (1,396)
	자녀 동거	70.1	2.9	18.7	8.3	100.0 (2,038)
	기타	56.7	6.3	23.7	13.3	100.0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22.6	1.4	44.8	31.2	100.0 (321)
	중학교	33.7	4.2	37.1	24.9	100.0 (549)
	고등학교	63.7	2.9	21.5	11.9	100.0 (2,410)
	대학 이상	76.7	2.9	10.1	10.4	100.0 (72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65.2	3.0	18.4	13.5	100.0 (3,101)
	미취업	36.4	2.9	40.6	20.0	100.0 (9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38.2	4.2	33.9	23.7	100.0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63.5	2.8	20.5	13.2	100.0 (1,339)
	500만 원 이상	75.5	1.8	15.2	7.4	100.0 (1,28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결혼 상태별로는 유배우자가 무배우자에 비해 공적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유배우자 62.3%, 무배우자 35.5%),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낮은 경향을 보인다(유배우자 20.2%, 무배우자 43.4%).

가구 유형별로는 가구 규모가 커질수록 공적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1인 가구 32.8%, 부부 가구 48.9%, 자녀 동거 가구 70.1%),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낮은 경향을 보인다(1인 가구 44.0%, 부부 가구 25.0%, 자녀 동거 가구 18.7%).

교육 수준별로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공적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초등학교 이하 22.6%, 대학 이상 76.7%),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낮은 경향을 보인다(초등학교 이하 44.8%, 대학 이상 10.1%). 현재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 중이 미취업에 비해 공적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취업 중 65.2%, 미취업 36.4%),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낮은 경향을 보인다(취업 중 18.4%, 미취업 40.6%).

가구소득별로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공적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300만 원 미만 38.2%, 300만~500만 원 미만 63.5%, 500만 원 이상 75.5%),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낮은 경향을 보인다(300만 원 미만 33.9%, 300만~500만 원 미만 20.5%, 500만 원 이상 15.2%).

3. 웰다잉(Well-dying) 정책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웰다잉(Well-dying)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웰다잉 정책은 연명의료 결정제도, 호스피스제도, 죽음 준비 교육이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행위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위해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환자 자신이 말기 또는 임종기에 들어섰을 때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신중년의 77.5%는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해 알고 있고, 신중년의 48.4%는 향후 연명의료 중단을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8-17〉 참조).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인지도는 지역,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특성별로 비교해 보면, 동부에 거주하는 경우(78.7%), 배우자가 있는 경우(78.7%), 가구 유형이 부부 가구 및 자녀 동거 가구인 경우(각각 79.0%, 78.5%),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대학 이상 85.3%), 현재 취업 중인 경우(78.0%),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500만 원 이상 81.7%)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그 외 특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다.

신중년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향후 작성 의향은 교육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대학 이상 55.0%, 초등학교 이하 41.2%) 향후 작성 의향이 높다.

한편 호스피스제도는 말기 암 환자 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를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의료제도이다.

신중년의 90.0%가 호스피스제도에 대해 알고 있으며, 40.6%가 향후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8-18〉 참조). 호스피스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지역,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가구 유형, 교육 수준, 가구 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표 8-17〉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인지도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향후 작성 의향

(단위: %, 명)

	구분	인지도		향후 작성 의향			계 (명)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생각해 본 적 없음	
지역***	전체	77.5	22.5	48.4	18.5	33.1	100.0 (4,006)
	동부	78.7	21.3	48.9	17.9	33.2	100.0 (3,211)
	읍면부	72.7	27.3	46.2	21.1	32.7	100.0 (795)
성별	남성	77.1	22.9	47.9	17.5	34.6	100.0 (1,985)
	여성	77.9	22.1	48.9	19.5	31.6	100.0 (2,021)
연령	50~54세	76.9	23.1	49.2	17.0	33.8	100.0 (1,173)
	55~59세	79.3	20.7	48.9	18.9	32.2	100.0 (1,371)
	60~64세	77.6	22.4	46.0	18.0	36.0	100.0 (793)
	65~69세	74.7	25.3	48.8	21.1	30.2	100.0 (669)
결혼 상태***	유배우	78.7	21.3	49.1	18.2	32.8	100.0 (3,461)
	무배우	69.6	30.4	44.1	20.8	35.1	100.0 (545)
가구 유형***	1인	68.6	31.4	42.1	22.3	35.6	100.0 (353)
	부부	79.0	21.0	47.6	19.9	32.5	100.0 (1,396)
	자녀 동거	78.5	21.5	50.1	16.8	33.1	100.0 (2,038)
	기타	73.0	27.0	48.2	19.6	32.2	100.0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66.6	33.4	41.2	23.0	35.8	100.0 (321)
	중학교	74.3	25.7	47.3	21.3	31.5	100.0 (549)
	고등학교	77.3	22.7	47.6	18.7	33.7	100.0 (2,410)
	대학 이상	85.3	14.7	55.0	13.9	31.1	100.0 (72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78.0	22.0	48.2	18.7	33.1	100.0 (3,101)
	미취업	75.6	24.4	49.1	18.0	32.9	100.0 (9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74.0	26.0	46.0	20.4	33.6	100.0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77.0	23.0	48.4	18.1	33.4	100.0 (1,339)
	500만 원 이상	81.7	18.3	50.9	16.8	32.3	100.0 (1,28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인지도 기준

〈표 8-18〉 호스피스제도 인지도 및 향후 이용 의향

(단위: %, 명)

구분		인지도		향후 이용 의향			계 (명)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생각해 본 적 없음	
지역**	전체	90.0	10.0	40.6	19.1	40.3	100.0 (4,006)
	동부	90.7	9.3	41.1	18.9	40.0	100.0 (3,211)
	읍면부	87.3	12.7	38.5	19.9	41.5	100.0 (795)
성별*	남성	88.8	11.2	37.6	20.5	42.0	100.0 (1,985)
	여성	91.2	8.8	43.6	17.8	38.7	100.0 (2,021)
연령	50~54세	90.2	9.8	39.6	18.3	42.1	100.0 (1,173)
	55~59세	91.4	8.6	43.4	17.9	38.7	100.0 (1,371)
	60~64세	88.6	11.4	39.5	18.8	41.7	100.0 (793)
	65~69세	88.6	11.4	38.0	23.4	38.6	100.0 (669)
결혼 상태***	유배우	90.9	9.1	40.9	18.6	40.5	100.0 (3,461)
	무배우	84.5	15.5	38.6	22.4	39.0	100.0 (545)
가구 유형**	1인	85.3	14.7	36.3	22.9	40.8	100.0 (353)
	부부	91.0	9.0	38.9	20.0	41.1	100.0 (1,396)
	자녀 동거	90.5	9.5	42.3	17.1	40.6	100.0 (2,038)
	기타	87.1	12.9	42.5	25.5	32.0	100.0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77.2	22.8	35.1	23.2	41.7	100.0 (321)
	중학교	86.1	13.9	36.0	21.8	42.3	100.0 (549)
	고등학교	91.3	8.7	41.3	18.0	40.6	100.0 (2,410)
	대학 이상	94.2	5.8	44.1	18.8	37.1	100.0 (726)
현재 여부	취업	90.4	9.6	40.5	18.8	40.8	100.0 (3,101)
	미취업	88.6	11.4	41.0	20.3	38.7	100.0 (9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85.9	14.1	39.7	20.6	39.7	100.0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90.6	9.4	40.2	18.5	41.3	100.0 (1,339)
	500만 원 이상	93.8	6.2	41.8	18.1	40.1	100.0 (1,28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인지도 기준

〈표 8-19〉 죽음 준비 교육 이용 의향

(단위: %, 명)

	구분	이용 의향		계(명)
		예	아니요	
지역*	전체	27.7	72.3	100.0 (4,006)
	동부	28.4	71.6	100.0 (3,211)
	읍면부	24.7	75.3	100.0 (795)
성별***	남성	23.6	76.4	100.0 (1,985)
	여성	31.7	68.3	100.0 (2,021)
연령	50~54세	27.0	73.0	100.0 (1,173)
	55~59세	29.5	70.5	100.0 (1,371)
	60~64세	25.9	74.1	100.0 (793)
	65~69세	27.4	72.6	100.0 (669)
결혼 상태	유배우	28.3	71.7	100.0 (3,461)
	무배우	24.2	75.8	100.0 (545)
가구 유형	1인	25.1	74.9	100.0 (353)
	부부	27.2	72.8	100.0 (1,396)
	자녀 동거	29.0	71.0	100.0 (2,038)
	기타	23.0	77.0	100.0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23.9	76.1	100.0 (321)
	중학교	21.7	78.3	100.0 (549)
	고등학교	27.6	72.4	100.0 (2,410)
	대학 이상	34.2	65.8	100.0 (72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27.1	72.9	100.0 (3,101)
	미취업	29.6	70.4	100.0 (9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24.5	75.5	100.0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28.1	71.9	100.0 (1,339)
	500만 원 이상	30.6	69.4	100.0 (1,28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호스피스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비교해 보면, 동부에 거주하는 경우(90.7%), 여성인 경우(91.2%), 연령군이 55~59세인 경우(91.4%), 배우자가 있는 경우(90.9%), 가구 유형이 부부 가구 또는 자녀 동거 가구인 경우(각각 91.0%, 90.5%),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대학 이상 94.2%),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500만 원 이상 93.8%)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인지도가 높다.

한편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향후 이용 의향을 살펴보면, 여성인 경우(43.6%), 연령군이 55~59세인 경우(43.4%), 가구 유형이 자녀 동거 가구 또는 기타 가구인 경우(42.3~42.5%),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대학 이상 44.1%, 초등학교 이하 35.1%)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이용 의향이 높다.

신중년은 죽음 준비 교육에 대해 27.7%만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72.3%는 이용 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8-19〉 참조). 죽음 준비 교육의 이용 의향을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비교해 보면, 동부에 거주하는 경우(28.4%), 여성인 경우(31.7%),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대학 이상 34.2%, 중학교 21.7%),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500만 원 이상 30.6%)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이용 의향이 높다.

4. 정보 습득 경로

신중년이 현재 정부의 사업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는 주된 경로는 1순위 기준으로 TV가 71.3%이며, 그다음 인터넷, 유튜브 등(10.6%), 가족·친구·이웃 등 주변 사람(9.6%)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부의 사업 및 서비스 정보 습득 경로는 지역, 성별, 연령, 가구 유형, 교육 수준, 현재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지역별로는 읍면부가 동부에 비해, 그리고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TV, 가족·친구·이웃 등 주변 사람,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의 게시물이 높고, 인터넷, 유튜브 등은 낮다.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TV라는 응답이 높은 반면(50~54세 64.9%, 55~59세 69.1%, 60~64세 77.7%, 65~69세 79.4%), 인터넷, 유튜브 등이라는 응답은 낮은 경향을 보인다(50~54세 15.8%, 55~59세 12.7%, 60~64세 6.3%, 65~69세 2.5%). 가구 유형별로는 자녀 동거 가구의 경우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그리고 현재 취업 여부별로는 취업 중이 미취업에 비해 인터넷, 유튜브 등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고, TV라는 응답은 낮다.

교육 수준별로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TV라는 응답이 낮은 반면(초등학교 이하 84.2%, 중학교 78.3%, 고등학교 72.9%, 대학 이상 55.1%), 인터넷, 유튜브 등이라는 응답은 높은 경향을 보인다(초등학교 이하 1.7%, 중학교 3.0%, 고등학교 9.5%, 대학 이상 24.3%). 가구소득별로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TV라는 응답이 낮은 반면(300만 원 미만 77.1%, 300만~500만 원 미만 69.9%, 500만 원 이상 66.6%), 인터넷, 유튜브 등이라는 응답은 높은 경향을 보인다(300만 원 미만 5.3%, 300만~500만 원 미만 11.3%, 500만 원 이상 15.7%).

앞서 신중년 집단 내에서 읍면부, 고연령, 1인 가구, 저학력, 저소득 특성의 신중년은 상대적으로 정책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러한 특성의 신중년은 정보 습득 경로에서 인터넷, 유튜브 등 정보기기를 통한 비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들 신중년의 경우 정보화 역량 강화를 통해 정책 인지도 제고 및 정보 습득 경로 다양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8-20〉 정부 정책 및 서비스 정보 습득 경로: 1순위 기준

(단위: %, 명)

구분	정보 습득 경로							계 (명)
	TV	인터넷, 유튜브 등	가족·친구·이웃 등 주변 사람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의 게시물	각종 홍보 우편물	기타		
전체	71.3	10.6	9.6	2.0	1.8	4.7	100.0	(4,006)
지역***	동부	70.2	12.1	9.2	1.7	1.8	4.9	100.0 (3,211)
	읍면부	75.7	4.6	11.3	3.1	1.7	3.5	100.0 (795)
성별***	남성	70.1	13.1	7.1	1.8	2.0	6.0	100.0 (1,985)
	여성	72.5	8.2	12.1	2.2	1.6	3.4	100.0 (2,021)
연령***	50~54세	64.9	15.8	10.2	2.1	2.2	4.8	100.0 (1,173)
	55~59세	69.1	12.7	10.0	2.1	1.8	4.3	100.0 (1,371)
	60~64세	77.7	6.3	8.3	2.0	0.9	4.8	100.0 (793)
	65~69세	79.4	2.5	9.5	1.4	2.1	5.1	100.0 (669)
결혼 상태	유배우	70.5	11.1	9.7	2.0	1.8	4.9	100.0 (3,461)
	무배우	76.4	7.8	8.8	1.7	2.0	3.3	100.0 (545)
가구 유형***	1인	75.5	6.8	10.3	1.5	2.3	3.6	100.0 (353)
	부부	77.0	5.4	9.5	2.1	1.4	4.7	100.0 (1,396)
	자녀 동거	66.0	15.0	10.2	2.2	2.0	4.7	100.0 (2,038)
	기타	78.0	9.9	3.9	0.6	1.7	5.9	100.0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84.2	1.7	10.4	0.6	0.2	2.9	100.0 (321)
	중학교	78.3	3.0	12.1	1.5	1.3	3.8	100.0 (549)
	고등학교	72.9	9.5	9.7	2.0	1.9	4.0	100.0 (2,410)
	대학 이상	55.1	24.3	7.0	3.1	2.3	8.1	100.0 (72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69.7	12.0	9.3	2.1	2.2	4.7	100.0 (3,101)
	미취업	76.7	6.1	10.5	1.6	0.5	4.6	100.0 (9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77.1	5.3	9.6	1.5	2.2	4.3	100.0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69.9	11.3	10.4	2.5	1.3	4.6	100.0 (1,339)
	500만 원 이상	66.6	15.7	8.8	2.0	1.9	5.0	100.0 (1,28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제 9 장

주요 결과 및 정책 제언

제1절 신중년의 주요 특성

제2절 전기 신중년(50대)의 특성 변화

제3절 정책 제언

9

주요 결과 및 정책 제언 <<

이 연구는 전국에 거주하는 50~69세의 신중년 4000명을 대상(4006명 완료)으로 이들의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방법은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을 활용한 대면면접조사이며, 선행연구 검토와 10여 차례의 학계·현장전문가 자문, 신중년 대상 집단인터뷰 등을 통해 조사 문항을 개발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IRB 승인 제2019-46호). 모집단은 2017년 통계청 집계구 분포를 분석하여 지역·연령별 비례 할당, 층화표본추출, 제곱근 비례배분을 통해 표본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조사 결과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제1절 신중년의 주요 특성

1. 건강 수준 및 삶의 만족도

신중년의 건강 수준을 살펴보면, 신중년의 62.1%는 스스로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40.8%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만성질환 평균 1.6개). 신중년의 대다수인 89.9%는 지난 2년간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로 ‘일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40.7%)’,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해서(30.2%)’, ‘건강에 관심이 없어서(14.0%)’ 등을 꼽고 있었다. 지난 1년간 병원 및 치과 진료, 검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었으나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신중년의 3.9%는 병원 미치료, 5.8%는 치과 미치료라고 응답하였다. 주된 이유

는 ‘일(가사, 직장 등)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비용이 부담되어서(경제적 이유)’로 확인되었다.

정신적인 건강을 살펴본 결과, 신중년의 38.0%는 우울 상태이며, 신중년의 2.7%는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다.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신중년 107명 중에서 약 81.3%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 등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신중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신중년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만족 및 매우 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이 53.5%(주요 영역별: 경제상태 29.8%, 건강상태 54.8%, 근로활동 48.6%, 여가활동 29.5%, 부모와의 관계 60.4%, 배우자와의 관계 63.8%, 자녀와의 관계 77.0%, 친구·이웃과의 관계 67.8%)로 조사되었다.

2. 경제상태 및 소비생활

신중년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413만 3000원(연간 4959만 3000원)이며, 이중 근로·사업소득이 369만 6000원으로 가구소득의 89.4%를 차지하였다. 그 외 소득은 재산소득 11만 9000원(2.9%), 사적이전소득 6만 1000원(1.5%), 공적연금소득 15만 9000원(3.8%), 공적연금 이외 공적이전소득 3만 9000원(0.9%), 사적연금소득 4만 2000원(1.0%), 기타소득 1만 7000원(0.4%)이다. 신중년의 주관적 계층 인식을 살펴보면, ‘중의 하’라는 응답이 46.0%로 가장 높았다(중의 상 23.3%, 하의 상 17.1%, 하의 하 8.9%, 상의 하 4.2%, 상의 상 0.6%). 10년 전과 후를 비교하여, 경제생활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파악한 결과, 약 절반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10년 전 50.6%, 향후 10년 후 58.4%). 즉 신중년은 자신의 소득 수준에 대해 중간 혹은 그보다 조금 나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고, 이러한 경제생활 수준의 변화는 크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다.

신중년 가구는 월평균 266만 원을 소비하고 있었다. 소비행태 및 성향을 살펴본 결과, 가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후 구매하는 행태에 58.7%, 가까운 곳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성향에 75.6% 동의하였다. 온라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중년은 41.6%이며, 온라인 물건 구매를 이용하는 신중년은 이보다 조금 낮은 33.5%이다.

신중년 가구의 자산 및 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부동산 보유 83.4%(보유자 평균 3억 6151만 원), 금융자산 보유 81.4%(보유자 평균 6875만 원), 기타자산 보유 76.7%(보유자 평균 2357만 원), 부채 보유 27.9%(보유자 평균 9154만 원)이다. 부채를 지게 된 주된 이유는 ‘거주 주택 마련(35.0%)’, ‘사업자금 마련(26.8%)’, ‘거주 주택 이외의 부동산 마련(8.9%)’, ‘생활비 마련(7.8%)’으로 확인되었다.

3.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신중년의 대부분인 95.0%는 생애 근로활동 경험(남성 99.3%, 여성 90.9%)이 있고, 가장 오랫동안 종사했던 일을 그만둘 당시 평균 50.5세였다. 또한 신중년의 약 2분의 1은 일거리가 없어서, 사업 부진 및 조업 중단, 정년퇴직·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 직장의 휴업 및 폐업 등과 같은 사유로 생애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신중년의 77.4%는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며, 현재 일자리는 서비스 종사자(29.5%), 판매 종사자(24.4%),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13.2%) 순으로 높았다. 현재 종사상 지위는 단독 자영업자가 46.0%로 가장 많고, 그다음 상용직 임금근로자(27.0%), 고용주(9.5%), 임시직 임금근로자(8.1%) 등이다. 신중년의 현재 일자리 종사 기간은 평균 18.4년이며, 신중년의 83.6%는 노후 경제활동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현재 근로활동 중인 신중년의 89.5%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응답하여 일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의 약 3분의 1에 가까운 신중년은 현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둘 경우를 대비해 86.0%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일자리를 상실하거나 노동시장에서의 은퇴 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중년이 노후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는 58.1%가 소득을 얻기 위해서이지만, 약 3분의 1은 건강 및 자기발전, 여가시간 활용 등의 이유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신중년이 주로 하는 여가활동은 1순위 기준으로 TV 시청이 42.0%로 가장 많고, 그다음 등산(7.4%), 산책(6.5%), 이웃/친구와 대화하기·전화 통화(6.1%), 친목단체·사교활동(4.9%), 국내외 여행, 소풍, 나들이 등(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의 참여 빈도는 ‘주 2회 이상’이 64.8%로 가장 많고, 그다음 ‘주 1회(20.8%)’, ‘월 1회(6.2%)’, ‘2주에 1회(4.9%)’, ‘월 1회 미만(3.3%)’ 순이다. 특히 신중년은 여가활동을 할 때 함께 하는 사람이 없이 혼자인 경우가 36.4%로 가장 높지만, 친구와 함께하는 경우 31.3%, 가족과 함께하는 경우 28.0%도 고른 분포를 보였다.

신중년이 노후에 가장 즐기고 싶은 여가는 1순위 기준으로 ‘국내외 여행, 소풍, 나들이 등’(31.2%)이며, 그다음 등산(11.7%), TV 시청(9.1%), 산책(7.2%), 친목단체·사교활동(5.5%), 수영(5.1%) 등의 순서로 파악되었다. 즉 신중년은 현재와 비교하여 노후에 국내외 여행, 소풍, 나들이 등을 하고 싶은 욕구가 높고,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등산, 산책, 수영 등 보다 활동적인 여가활동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신중년의 삶에서 여가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파악한 결과, 현재 삶에서 84.9%, 노후 삶에서 91.9%로 응답하여 노후의 삶에서 여가활동의 중요도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0%포인트).

신중년의 16.3%는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단체 소속 11.4%, 단체 비소속 4.9%), 45.8%는 노후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단체 소속 24.3%, 단체 비소속 21.5%)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신중년의 5.1%는 현재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고, 신중년의 48.8%는 노후에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싶은 의향이 있었다.

신중년은 노후에 희망하는 활동으로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생활을 하면서’(52.8%)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그 외에 ‘소득 창출을 위한 일을 하면서’(13.1%), ‘학습 등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10.3%), ‘자원봉사와 같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6.2%), ‘종교활동을 하면서’(6.0%), ‘가사 및 손자녀 양육을 하면서’(2.7%) 노후를 보내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하게 지내고 싶다’고 응답한 신중년도 8.3% 있었다. 한편 신중년의 76.6%는 현재 삶에서 사회참여 활동이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83.2%는 노후에 사회참여 활동이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어, 현재보다 향후 사회참여 활동이 삶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가족·사회관계 및 부양 수준

신중년의 53.7%는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중 1명 이상이 생존해 있으며(본인 부모 39.3%, 배우자 부모 34.0%), 이들의 8.9%는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중 1명 이상과 동거하고 있었다.

신중년은 비동거 본인 및 배우자 부모에게 도구적인 도움을 주로 주는 편이며(제공: 본인 부모 61.0%, 배우자 부모 56.3%/ 수혜: 본인 부모 18.5%, 배우자 부모 17.5%), 집안일 도움이 간병·병원 동행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제공: 본인 부모 41.8%, 배우자 부모 36.4%/ 수혜: 본인 부모 5.8%, 배우자 부모 5.7%).

신중년의 81.0%(본인 부모 81.0%, 배우자 부모 81.6%)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와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받고 있으며 본인이 부모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부모로부터 받는 금액보다 더 많았다(연간 제공: 본인 부모 189만 원, 배우자 부모 155만 원/ 연간 수혜: 본인 부모 18만 원, 배우자 부모 20만 원). 그리고 신중년의 15.0%(본인 부모 15.7%, 배우자 부모 14.5%)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도구적인 지원에 대한 부담(본인 부모 10.8%, 배우자 부모 10.1%)보다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신중년의 대다수(94.1%)는 자녀가 있으며, 이들의 56.5%가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자녀가 있는 신중년의 65.0~66.0%가 자녀와 경제적 도움을 주고받고 있으며(비동거 자녀 66.4%, 동거 자녀 65.1%), 신중년이 자녀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자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연간 제공: 비동거 196만 원, 동거 533만 원/연간 수혜: 비동거 145만 원, 동거 108만 원). 특히 신중년은 동거 자녀에게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자녀와 동거하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신중년의 45.3%가 동거 자녀에 대한 경제적인 부양이 부담스럽다고 느끼고 있는데, 비동거 자녀에 대한 경제적인 부양 부담(14.0%)보다 응답 비율이 3배 높은 수준이었다.

신중년의 대부분인 90.1%는 문제나 걱정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고, 이들은 평균적으로 3.8명의 친구가 있었다.

5. 노후 가치관 및 정책 인지도

신중년의 86.4%는 본인 및 배우자가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신중년은 자녀 부양의 적정 기간으로 '결혼할 때까지(31.5%)', '학업을 마칠 때까지(31.0%)', '직장이 생길

때까지(30.2%)’를 꼽았다. 신중년 집단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젊은 신중년은 자녀의 결혼보다 이른 시점인 학업 종료까지를 자녀 부양의 적정 기간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전통적인 자녀 부양관이 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최근 자녀의 교육기간 증가와 더불어 자녀의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신중년이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기간은 증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신중년은 노인의 연령 기준으로 70~75세 미만이라는 응답이 52.6%로 가장 많고, 75~80세 미만은 20.8%로 나타났다. 즉 현재 65세 이상으로 통용되는 노인의 연령 기준보다 높게 생각하고 있다. 신중년의 최근 관심사는 본인의 건강이 36.3%로 가장 많고, 그다음 노후 준비(18.5%), 자녀 결혼(15.3%) 순이다. 노후 생활에서 가장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건강 및 기능 악화(53.0%)와 경제적 어려움(29.8%)을 꼽고 있으며,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또한 건강(48.4%)과 경제적인 안정과 여유(44.2%)를 꼽고 있었다. 따라서 신중년은 안정적인 노후 정착을 위해 건강과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신중년층 대상 정책(일자리, 생애경력, 노후 준비, 귀농귀촌 등)의 인지도는 낮지만, 노후생활 지원정책(주택·농지연금, 장기요양보험 등), 웰다잉 정책의 인지도는 높은 수준이다. 신중년층 대상 정책의 인지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16.6%(이용 의향 23.1%),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17.8%(이용 의향 34.4%),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6.3%(이용 의향 19.1%), 고령자 인재은행 6.7%(이용 의향 20.7%), 노후 준비 서비스 13.9%(이용 의향 36.7%), 귀농귀촌종합센터 26.4%(이용 의향 20.4%)이다.

노후생활 지원정책은 주택(농지)연금 인지율 90.0%(이용 의향 24.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지율 89.3%(이용 의향 64.4%)이며, 신중년이

속한 가구의 58.7%가 공적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23.4%는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 웰다잉 정책과 관련하여,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인지율 77.5%(이용 의향 48.4%), 호스피스제도의 인지율 90.0%(이용 의향 40.6%), 죽음 준비 교육의 이용 의향은 27.7%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정부 정책 및 서비스 정보 습득의 주된 경로는 TV가 71.3%로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2절 전기 신중년(50대)의 특성 변화: 2010년과 2019년 비교 분석

이 절은 정경희 외(2010b)의 ‘중년층의 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원자료 분석을 통해, 이 연구의 전기 신중년인 50대의 9년간의 주요 특성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경희 외(2010a; 2010b)는 전국의 46~59세를 대상으로 가족 부양, 경제활동, 사회참여, 노후 가치관 및 정책 인지도, 경제상태 등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의 연구대상인 50~69세 중 50대에 대해서만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이 연구에서 실시한 신중년 대상 실태조사는 조사표 개발 단계에서 정경희 외(2010b)의 ‘중년층의 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와의 비교를 고려하였으나 조사문항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조사문항이 신중년 특성 변화를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조사내용이 유사한 경우 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1. 50대의 일반적 특성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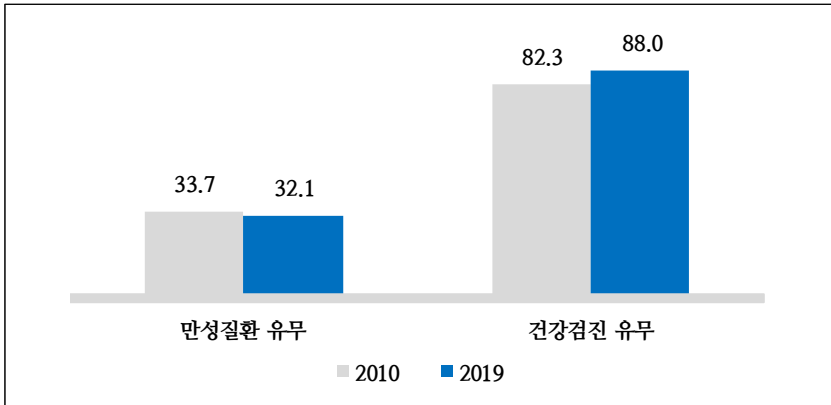
2010년의 50대와 비교하여 2019년의 50대는 건강 수준과 교육 수준

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만성질환을 보유한 비율이 2010년 33.7%에서 2019년 32.1%로 소폭 낮아졌고, 건강검진 참여 비율은 같은 기간 82.3%에서 88.0%로 높아졌다(그림 9-1 참조).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신중년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주된 이유는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2010년 40.3%→2019년 44.7%)’라는 응답이 가장 높고, 최근 비율이 더욱 증가하였다.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해서(23.4%→28.7%)’라는 응답도 최근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건강검진 미참여 이유로 ‘건강에 관심이 없어서(16.3%→14.0%)’와 ‘지병이 발견될까 두려워서(12.3%→7.5%)’의 응답 비율이 감소하였는데, 최근 신중년은 본인 건강에 대한 자신감 상승과 더불어 건강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향상되어 나타난 결과로 짐작된다(〈표 9-1〉 참조).

[그림 9-1] 건강 수준의 변화

(단위: %)



자료: 1) 2010년: 정경희, 이소정, 이윤경, 김수봉, 선우덕, 오영희, ... 이은진. (2010b).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2) 2019년: 이 연구의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표 9-1〉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이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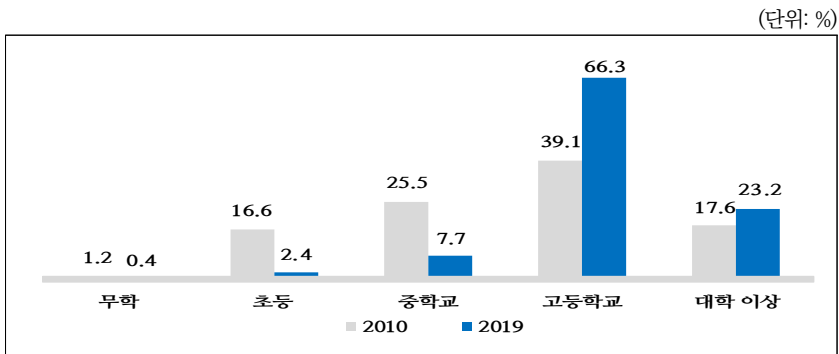
이유	(단위: %)	
	2010	2019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40.3	44.7
건강에 관심이 없어서	16.3	14.0
비용 부담(경제적 이유)	4.9	4.1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23.4	28.7
정보가 부족해서	2.9	0.5
지병이 발견될까 두려워서	12.3	7.5
기타	-	0.5
계	100.0	100.0

자료: 1) 2010년: 정경희, 이소정, 이윤경, 김수봉, 선우덕, 오영희, ... 이은진. (2010b).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2) 2019년: 이 연구의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교육 수준을 살펴보면, 비교 기간 동안 고등학교 이상의 고학력자 비율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 비율이 2010년 39.1%에서 2019년 66.3%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대학 이상의 졸업자 비율도 같은 기간 17.6%에서 23.2%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은 2010년 17.8%에서 2019년 2.8%로 크게 감소하였다(그림 9-2 참조).

〔그림 9-2〕 교육 수준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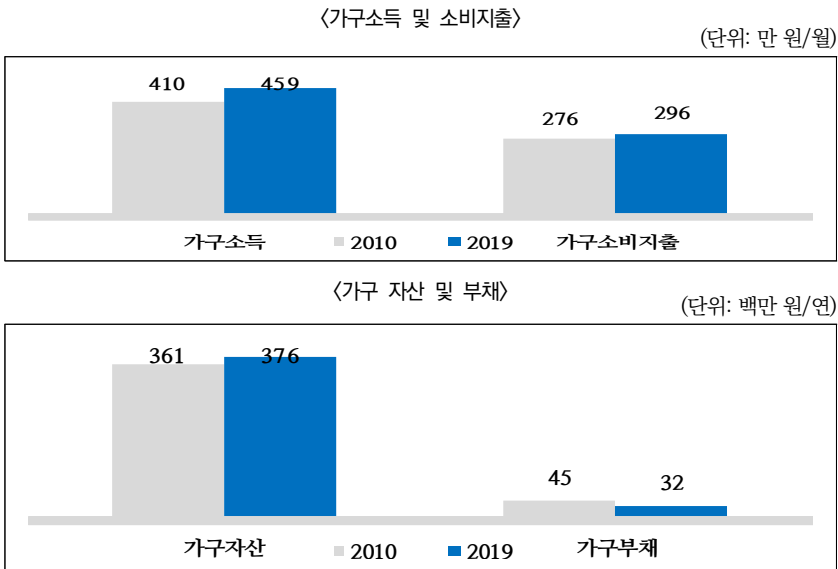
자료: 1) 2010년: 정경희, 이소정, 이윤경, 김수봉, 선우덕, 오영희, ... 이은진. (2010b).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2) 2019년: 이 연구의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2. 50대의 경제상태 변화

50대의 가구소득은 2010년 월평균 410만 원에서 2019년 459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가구소비지출도 같은 기간 276만 원에서 296만 원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를 감안한 실질금액을 적용하면,¹⁾ 가구소득은 2010년 월평균 463만 6000원에서 2019년 439만 1000원으로, 가구소비지출은 같은 기간 311만 7000원에서 282만 9000원으로 감소하였다(그림 9-3) 참조).

[그림 9-3] 가구소득 및 자산 변화: 명목 금액 기준



자료: 1) 2010년: 정경희, 이소정, 이윤경, 김수봉, 선우덕, 오영희, ... 이은진. (2010b).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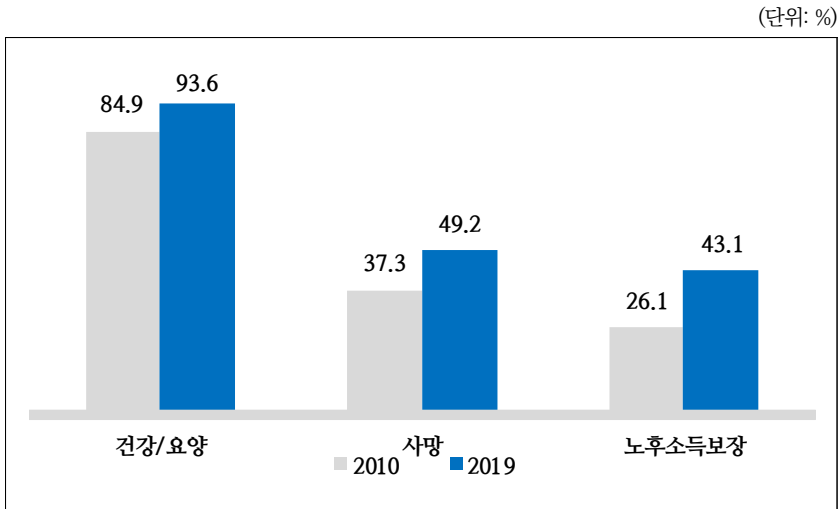
2) 2019년: 이 연구의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1) 가구소득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조사하므로, 조사 연도를 기준으로 1년 전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함. 국가통계포털(2019)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2015년 100 기준이며 2009년 88.452, 2018년 104.45임.

가구 자산의 현황을 살펴보면, 가구 자산은 2010년 3억 6100만 원에서 2019년 3억 7600만 원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가구 부채는 같은 기간 45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하락하여 가구 자산의 건전성은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9-4]는 50대가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여 저축이나 민간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는 현황을 제시한다. 건강 및 요양, 사망, 노후소득보장 등 모두 2019년의 50대가 2010년의 50대에 비해 더욱 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건강 및 요양 관련 저축·민간보험 가입률은 2010년 84.9%에서 2019년 93.6%로 증가하였으며, 사망 관련 저축·민간보험 가입률은 같은 기간 37.3%에서 49.2%로 증가하였다. 노후소득보장 관련 가입률은 2010년 26.1%에서 2019년 43.1%로 증가하였다.

[그림 9-4] 노후 위험 대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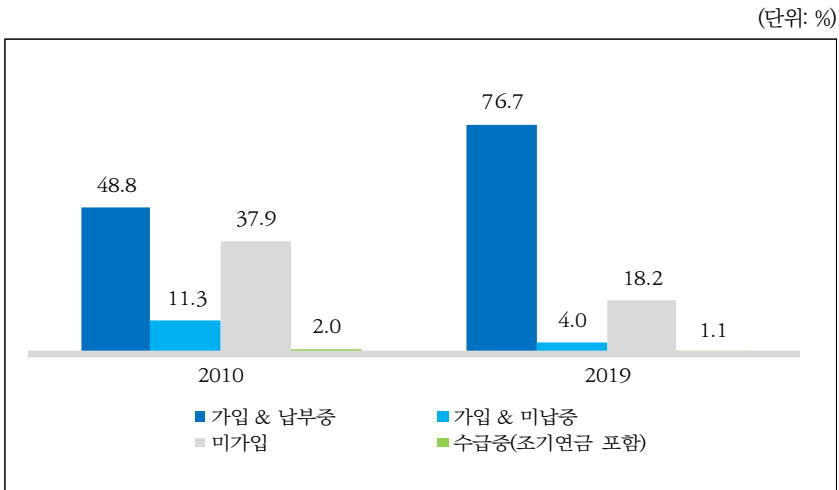


자료: 1) 2010년: 정경희, 이소정, 이윤경, 김수봉, 선우덕, 오영희, ... 이은진. (2010b).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2) 2019년: 이 연구의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그림 9-5]에 제시된 50대의 공적연금 가입 형태를 살펴보면, 2010년에 비해 2019년 가입률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납부 중인 50대의 비율이 48.8%에서 2019년 76.7%로 크게 증가한 반면, 미가입률은 같은 기간 37.9%에서 18.2%로 약 2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현재 50대는 9년 전의 50대에 비해 공적 노후 소득보장이 더 잘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9-5] 공적연금 가입 형태



자료: 1) 2010년: 정경희, 이소정, 이윤경, 김수봉, 선우덕, 오영희, ... 이은진. (2010b).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2) 2019년: 이 연구의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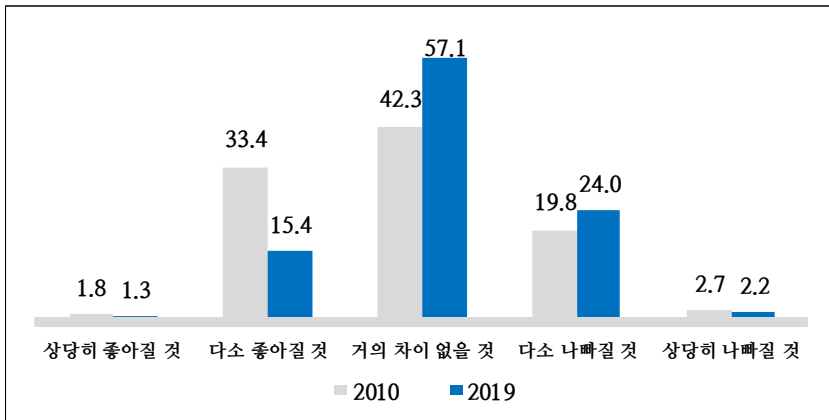
10년 후 가구경제 생활수준 변화에 대해 2019년의 50대는 2010년의 50대보다 현재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10년 후 가구경제 생활수준은 '현재와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2010년 42.3%에서 2019년 57.1%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다소 좋아질 것(33.4%→

15.4%)’이라는 긍정적인 응답은 같은 기간 중 약 2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고, ‘다소 나빠질 것(19.8%→24.0%)’이라는 부정적인 응답은 비교 기간 중 소폭 증가하였다.

최근 50대는 9년 전에 비해 민간 및 공공부문에서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혹은 노후 준비를 한 비율이 증가하면서([그림 9-4], [그림 9-5] 참조), 10년 후의 가구 경제생활 수준 변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유추된다.

[그림 9-6] 10년 후 가구경제 생활수준 변화 전망

(단위: %)



자료: 1) 2010년: 정경희, 이소정, 이윤경, 김수봉, 선우덕, 오영희, ... 이은진. (2010b).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2) 2019년: 이 연구의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3. 50대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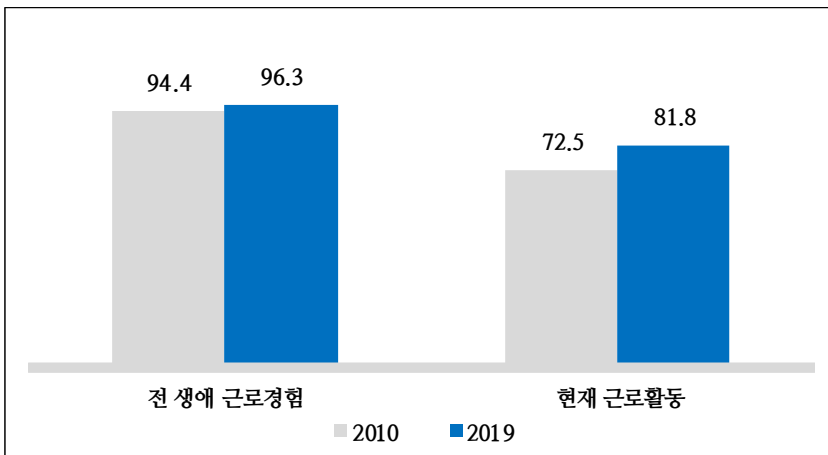
전기 신중년인 50대의 전 생애 근로활동 참여 경험과 현재 근로활동 참여 비율 모두 2010년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된다. 2010년 전 생애

근로 경험과 현재 근로활동 참여 비율은 각각 94.4%와 72.5%이며, 2019년 96.3%와 81.8%로 상승하였다(그림 9-7) 참조).

생애 주된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현재 생애 주된 일자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일을 하고 있는 50대 비율이 2010년 56.1%에서 2019년 71.7%로 증가하였다. 생애 주된 일자리와 다른 종류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는 20.7%에서 13.3%로 감소하였고, 생애 주된 일자리를 그만두고 현재 일을 하지 않는 비율도 23.2%에서 15.0%로 감소하였다(그림 9-8) 참조).

[그림 9-7] 전 생애 및 현재 근로활동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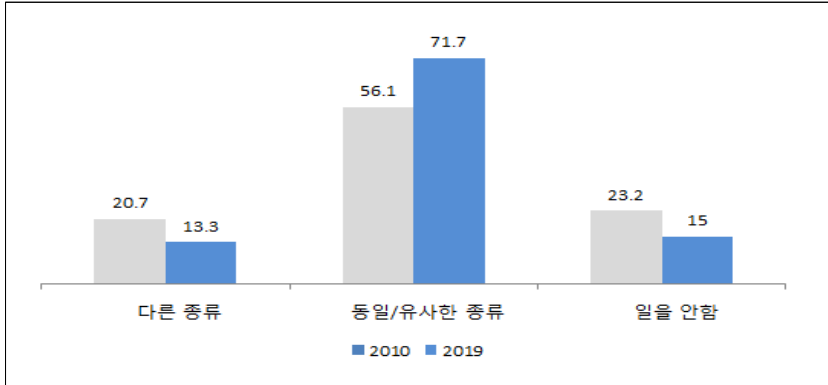


자료: 1) 2010년: 정경희, 이소정, 이윤경, 김수봉, 선우덕, 오영희, ... 이은진. (2010b).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2) 2019년: 이 연구의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그림 9-8] 생애 주된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 변화

(단위: %)



자료: 1) 2010년: 정경희, 이소정, 이윤경, 김수봉, 선우덕, 오영희, ... 이은진. (2010b).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2) 2019년: 이 연구의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현재 50대는 과거 9년 전의 50대와 비교하여, 보다 향상된 건강 수준과 교육 수준을 기반으로 많은 인원이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오랫동안 근로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 일자리 특성도 생애 주된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경력을 활용한 일을 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정부에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보다 오래 일하고, 노동시장에서 보다 오래 머물며 일하도록 한 고용정책의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감소에 따라 향후 신중년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50대의 현재 일자리 지속 의지는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현재 일자리 유지에 대한 불안 정도는 과거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확인된다([그림 9-9] 참조).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경우 건강이 허락하는 한 현재 일자리에 계속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5점 척도로 파악한 결과, 2010년 당시

78.7%가 그렇다고(그렇다+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고 2019년에는 이보다 높은 89.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일자리에서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지 불안한 정도에 동의하는 비율은 2010년 29.4%(그렇다+매우 그렇다)에서 2019년 25.5%로 낮아졌다. 즉 현재 50대는 과거에 비해 일자리에 대한 지속 의지와 안정성도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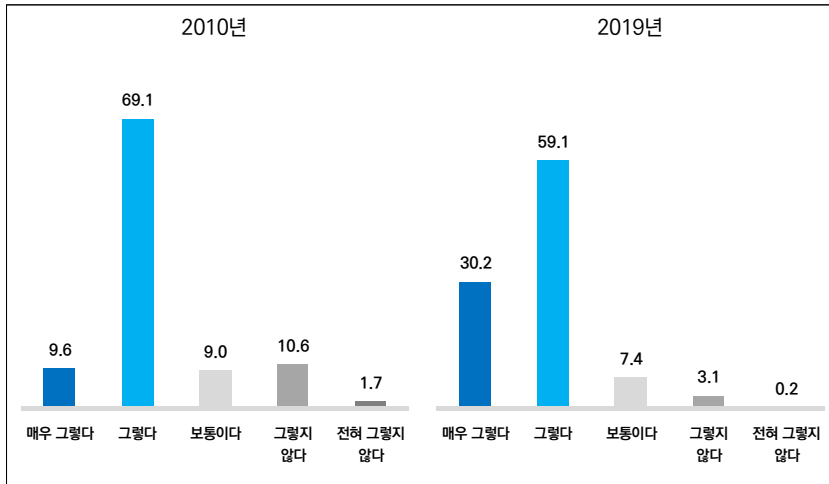
50대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둘 경우를 대비하여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는 연도에 상관없이 약 15.0% 수준으로 높지 않다([그림 9-10] 참조). 그러나 제2의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내용 측면에서 차이가 확인되는데, 창업 준비는 감소한 반면 취미·여가 개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준비를 한다는 응답 비율이 2010년에는 창업 준비 4.8%, 취미·여가 개발 6.0%이며, 2019년은 각각 2.5%, 9.6%에 불과한 수준이다.

최근 신중년에 대한 정부의 관심 증가로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생3모작 혹은 생애설계 지원 정책이 실시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의 낮은 인지율과 참여율로 인해 실제 신중년은 제2의 일을 위한 준비, 취미·여가활동 등에 대한 준비 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신중년층 대상 인생3모작, 생애설계지원 서비스의 홍보와 더불어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그림 9-9] 현재 일자리 지속 의지 및 불안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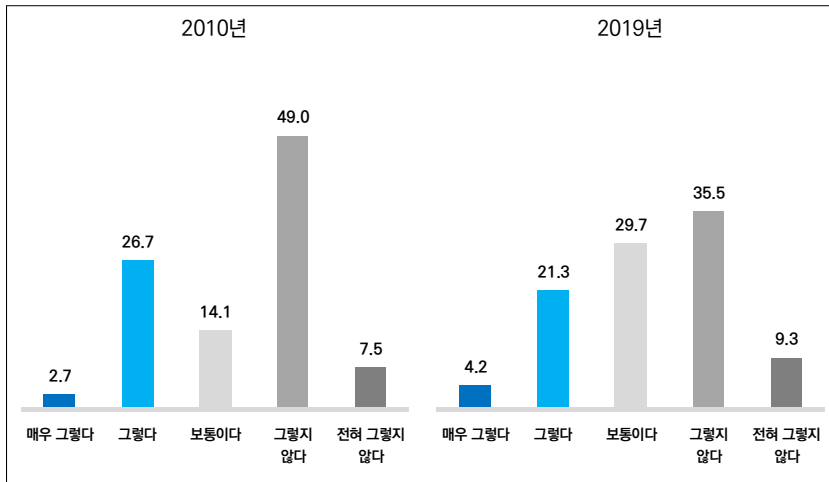
〈지속 의지: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자리 지속 희망〉

(단위: %)



〈불안정도: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불안〉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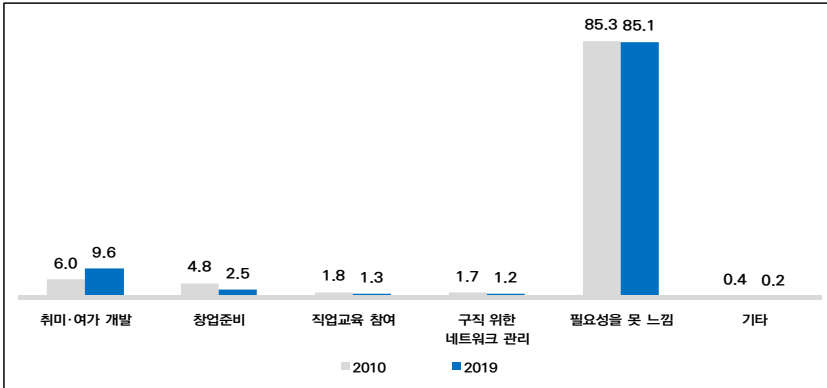


자료: 1) 2010년: 정경희, 이소정, 이윤경, 김수봉, 선우덕, 오영희, ... 이은진. (2010b).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2) 2019년: 이 연구의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그림 9-10] 제2의 일을 위한 준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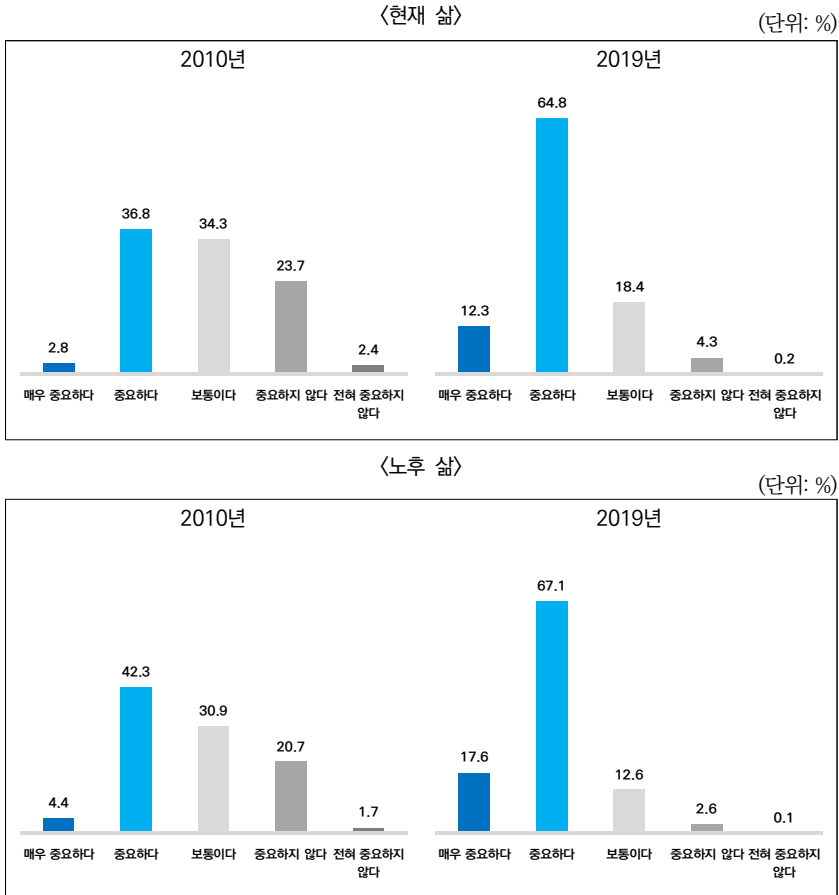
자료: 1) 2010년: 정경희, 이소정, 이윤경, 김수봉, 선우덕, 오영희, ... 이은진. (2010b).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2) 2019년: 이 연구의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한편 일자리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이 현재 및 노후 삶에서 중요하다라는 50대의 인식이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현재 삶보다 노후의 삶에서 사회참여 활동의 중요도는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림 9-11]은 여가활동, 자원봉사활동, 평생교육, 친목단체 활동 등의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중요도를 5점 척도로 파악한 결과이다. 현재 삶에서 사회참여 활동이 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 포함)는 응답이 2010년 39.6%에서 2019년 77.1%로 37.5%포인트 증가하였다. 또한 노후 삶에서의 사회참여 활동의 중요도는 같은 기간 46.7%에서 84.7%로 38.0%포인트 증가하였다.

신중년의 사회활동 참여 욕구에 대응하여, 정부의 신중년 정책은 일자리 이외의 다양한 여가활동, 평생학습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과거보다 증가한 욕구와 더불어 신중년의 변화된 특성(건강 및 교육 수준 향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기존 사회참여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질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그림 9-11] 현재 및 노후 삶에서 사회참여 활동의 중요도



자료: 1) 2010년: 정경희, 이소정, 이윤경, 김수봉, 선우덕, 오영희, ... 이은진. (2010b).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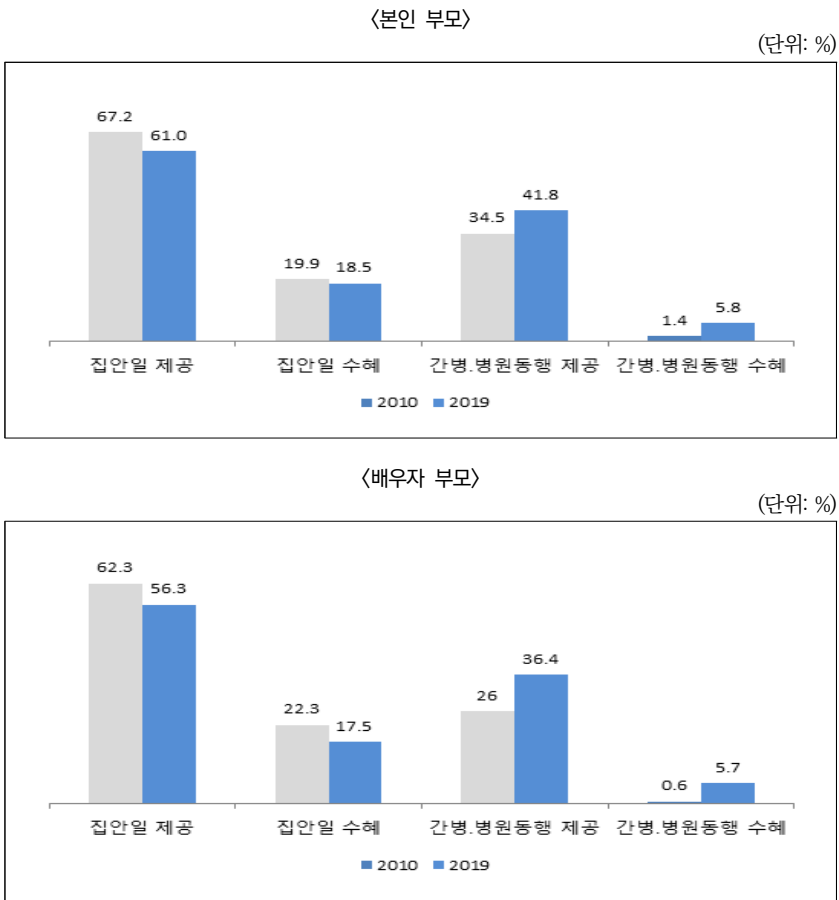
2) 2019년: 이 연구의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4. 50대의 가족 부양 수준 변화

과거에 비해 50대는 부모와 집안일 도움에 대한 부양 교환이 감소하였으나, 간병 및 병원 동행 도움에 대한 부양 교환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

다. 또한 배우자 부모보다 본인 부모와의 도구적 부양 교환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은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9-12 참조).

[그림 9-12] 본인 및 배우자 부모와의 도구적 부양 교환



자료: 1) 2010년: 정경희, 이소정, 이윤경, 김수봉, 선우덕, 오영희, ... 이은진. (2010b).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2) 2019년: 이 연구의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보면, 본인 부모(배우자 부모)에게 집안일 도움을 제공한 비율은 2010년 67.2%(62.3%)에서 2019년 61.0%(56.3%)로, 집안일 도움을 받은 비율은 같은 기간 19.9%(22.3%)에서 18.5%(17.5%)로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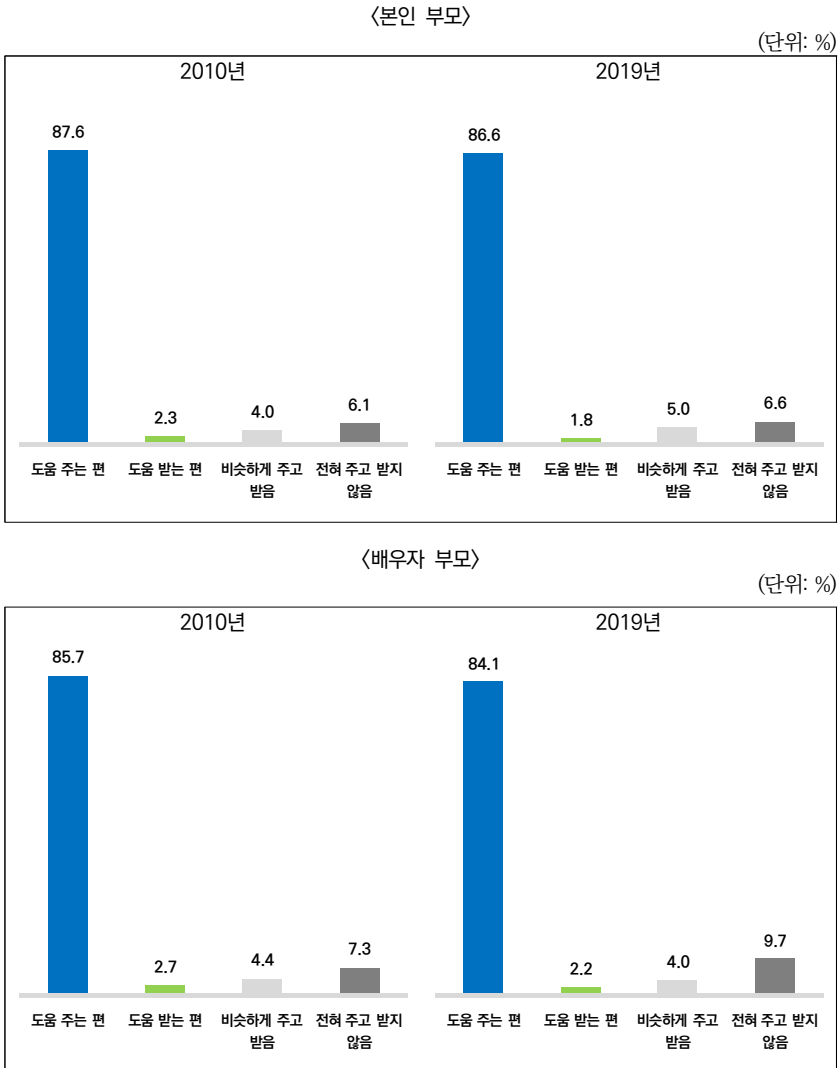
간병 및 병원 동행의 경우 본인 부모(배우자 부모)에게 제공한 비율은 2010년 34.5%(26.0%)에서 2019년 41.8%(36.4%)로, 부모로부터 수혜 받은 비율은 2010년 1.4%(0.6%)에서 2019년 5.8%(5.7%)로 증가하였다.

청소기, 세탁기, 건조기 등 생활가전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보급 확대 등으로 집안일 관련 부양 교환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의학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장수하는 부모와 간병 및 병원 동행 관련 부양 교환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유추된다.

한편 [그림 9-13]과 같이 부모와의 경제적 부양 교환은 본인 및 배우자 부모에 상관없이 신중년이 부모에게 도움을 주는 경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본인 부모(배우자 부모)와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편인지 혹은 받는 편인지 파악한 결과, 본인 및 배우자 부모에게 도움을 주는 편이라는 응답이 2010년 87.6%(85.7%)에서 2019년 86.6%(84.1%)로 거의 변화하지 않고 있다.

부모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도움에 부담을 느끼는 50대의 비율은 비교 기간 중 10.0%대이며, 최근 다소 감소한 경향을 보인다. 본인 부모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도움에 부담을 느끼는 50대는 2010년 17.4%에서 2019년 15.0%로, 배우자 부모의 경우 같은 기간 16.1%에서 15.7%로 감소하였다.

[그림 9-13] 본인 및 배우자 부모와의 경제적 부양 교환



자료: 1) 2010년: 정경희, 이소정, 이윤경, 김수봉, 선우덕, 오영희, ... 이은진. (2010b).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2) 2019년: 이 연구의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그러나 반대로 생각한다면 50대의 10명 중 약 2명은 부모에 대한 경제적인 부양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낀 세대인 50대가 이 연구의 제7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동거 자녀에 대한 경제적인 부양이 큰 시기인데, 부모에 대한 부양까지 이중 부양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그 부담수준은 개인에게 엄청난 수준일 것으로 생각된다. 50대의 가족 부양 부담은 자칫 50대 본인의 노후 준비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50대의 가족 부양 부담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 및 청년 복지, 노년 복지 정책 확대를 통해서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나, 보다 직접적으로 50대의 가족 부양 부담을 완화할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5. 노후 가치관 및 정책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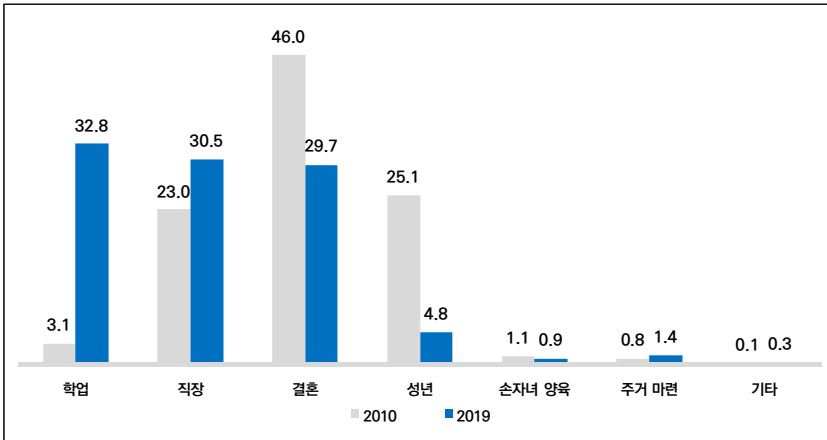
50대의 자녀 부양관을 자녀 부양 완료 시기의 변화로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 자녀에 대한 부양 부담 완료 시기를 앞당겨 보는 경향이 확인된다. 부모가 자녀를 언제까지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파악한 결과, 2010년에는 ‘결혼할 때까지’라는 의견이 46.0%로 가장 높고 그다음 ‘성년이 되는 만 19세까지(25.1%)’, ‘직장이 생길 때까지(23.0%)’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2019년의 50대는 ‘학업을 마칠 때까지’의 응답 비율이 32.8%로 가장 높고, 그다음 ‘직장이 생길 때까지(30.5%)’, ‘결혼할 때까지(29.7%)’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9-14] 참조).

이는 신중년 집단 내에서 자녀 부양의 걱정 기간이 결혼에서 학업 종료로 단축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전통적인 자녀 부양관의 변화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젊은 신중년은 자녀의 결혼보다 이른 시점인 학업 종료까지를 자녀 부양의 걱정 기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최근 자녀의 교육기간 증가와 더불어 자녀의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신중년이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기간은 증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그림 9-14] 자녀 부양 완료 시기

(단위: %)



자료: 1) 2010년: 정경희, 이소정, 이윤경, 김수봉, 선우덕, 오영희, ... 이은진. (2010b).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2) 2019년: 이 연구의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그림 9-15]와 같이 50대는 자신의 노후를 어떻게 보내고 싶어 하는지 파악한 결과, 과거에 비해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생활을 하면서(2010년 40.5% → 2019년 54.4%)'의 응답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외에도 '학습 등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2010년 6.6% → 2019년 10.8%)'의 응답 비율도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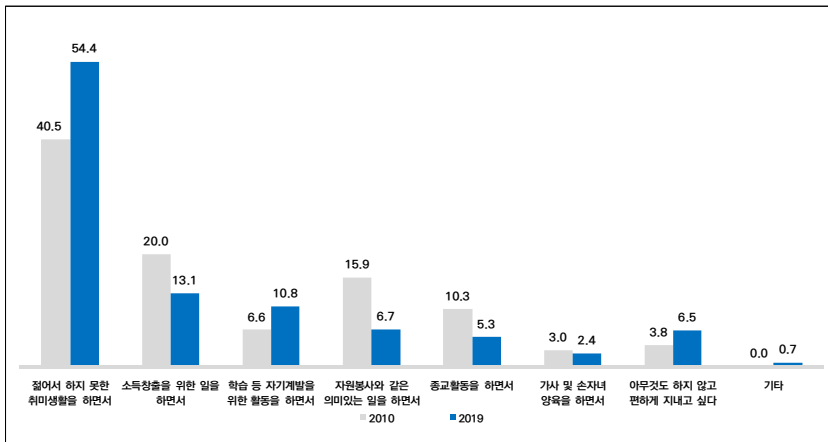
반면에 '자원봉사와 같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2010년 15.9% → 2019년 6.7%)'와 '소득 창출을 위한 일을 하면서(2010년 20.0% → 2019년 13.1%)'라는 응답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의 50대는 과거에 비해 취미·여가활동이나 평생교육 등 자기

자신의 즐거움이나 자기계발을 추구하며 노후의 시간을 보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9-15]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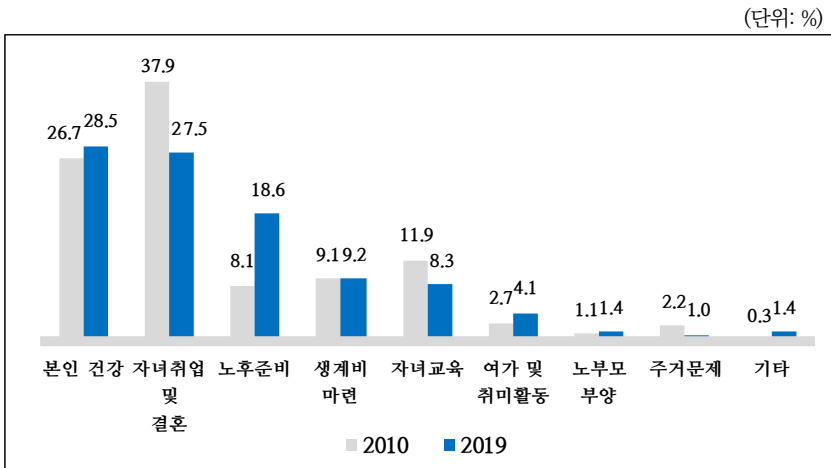


자료: 1) 2010년: 정경희, 이소정, 이윤경, 김수봉, 선우덕, 오영희, ... 이은진. (2010b).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2) 2019년: 이 연구의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과거에 비해 50대의 최대 관심사에서 자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반면, 자신의 노후 준비와 건강, 여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최대 관심사가 자녀 관련이라는 응답이 2010년 49.8%(교육 11.9%, 취업 및 결혼 37.9%)에서 2019년 35.8%(교육 8.3%, 취업 및 결혼 27.5%)로 약 14.0%포인트 감소하였다. 그러나 50대 본인의 노후 준비가 가장 큰 관심사라는 응답이 같은 기간 8.1%에서 18.6%로 10.5%포인트 증가하였다. 즉 과거에 비해 50대는 기대여명의 연장으로 길어진 자신의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준비하는 일에 관심이 더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그림 9-16] 참조).

[그림 9-16] 최근 관심사



자료: 1) 2010년: 정경희, 이소정, 이윤경, 김수봉, 선우덕, 오영희, ... 이은진. (2010b).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2) 2019년: 이 연구의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제3절 정책 제언

이 연구는 신중년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신중년 대상 정책에 대한 방향성과 향후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1. 신중년의 안정적인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해 삶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관심 필요

신중년은 생애주기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정의된 연령 집단이다. 신중년이란 용어는 고용노동부에서 5060세대를 지칭하며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신중년 정책은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 등에서 일

자리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재직, 전직, 재취업, 은퇴의 단계별 일자리 재취업 지원을 통해 정년 실효성 확보, 직업능력 향상, 재취업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양지훈, 권미애, 2018).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중년이 희망하는 근로활동 참여 연령은 평균 69.2세이며, 70세 이상까지 근로활동을 희망하는 비율(59.9%)이 절반을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신중년 대상 정책은 은퇴 이전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중년이 근로활동을 보다 오래 지속하며 점진적인 은퇴를 통해 안정적으로 노년기에 진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중년의 취약성은 50세 전후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후 낮은 일자리로의 이행, 부족한 노후 준비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신중년 대상 정책은 노후준비지원법에서 규정하는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의 제반 사항에 대한 지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다. 신중년이 노동시장에서 벗어나 노년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신중년 정책은 일자리 중심에서 삶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 결과 신중년이 희망하는 노후 활동으로 ‘짧어서 하지 못한 취미생활(52.8%)’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일(13.1%)과 사회공헌활동(6.2%)이라는 응답 비율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중년의 사회활동 참여 욕구에 대응하여, 정부의 신중년 정책은 일자리 이외의 다양한 사회참여, 가족 및 지역에서의 관계 정립 등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과거보다 증가한 욕구와 더불어 신중년의 변화된 특성(건강 및 교육 수준 향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기존 사회참여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질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대인관계 지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심리상담기관 등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아직 기관 수가 많지 않아 접근성이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 신중년의 경우 은퇴 이전 일을 중심으로 사회관계가 형성되었으며 장기간 근로 문화로 인해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편이다. 특히 남성의 경우 은퇴 이후 사회관계망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대인관계 교육 및 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중년이 은퇴 이후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신중년 대상의 공간을 제공하고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나 활동, 커뮤니티를 지원한다면 신중년의 대인관계와 더불어 여가 부문의 노후 준비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이 연구 결과, 신중년은 안정적인 노후 정착을 위해 건강과 경제적 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향후 정책 방향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중년에게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건강(48.4%)과 경제적인 안정과 여유(44.2%)이며, 노후 생활에서 가장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건강 및 기능 악화(53.0%)와 경제적 어려움(29.8%)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신중년에게 특화된 건강과 경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제공한다면 신중년의 안정적인 노후 정착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신중년의 건강 지원을 위한 사전 예방적 접근

개인은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높아지는데, 우리 사회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의 조사 결과 신중년은 ‘본인의 건강(36.3%)’이 최근 가장 큰 관심사로 확인되었다. 신중년은 생애 전환기에 있으며, 청장년층과 다른 신체적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있는 연령 집단이다. 건강정책에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이 만 40세 이후

부터 만 66세에 이루어지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일 것이다. 만 66세는 암이나 성인병과 같은 만성질환 이외에도 노인성질환에 대비가 필요하다. 평소 규칙적인 운동 실천, 고른 영양섭취 등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 이외에도, 건강검진을 통해 미리 다양한 질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신중년은 과거 9년 전 신중년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은 낮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참여율도 높아지고 있다(50대). 신중년의 건강 수준이 노년에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신중년의 일부는 미충족 의료욕구가 확인되므로, 이들이 치료하지 못하는 이유별로 맞춤형 정책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신중년의 특성상 아직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가사일로 바쁘거나 시간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높고(병의원 59.4%, 치과 45.1%), 특히 치과 치료의 경우 비용이 부담되어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높으므로(46.4%)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 지원 정책은 정신건강과 정서 지원을 포함하여, 신중년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인프라 및 프로그램의 예방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3. 신중년 1인 가구의 돌봄 지원 추진

현재 독거노인에 대한 정책이 확대되면서, 독거노인 대상 말벗이나 안부 확인, 식사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노인돌봄기본서비스, 재가지원 서비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신중년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집단이라 할 수 있는데, 50대도 1인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다(양지훈, 권미애, 2019). 한편 영국의 경우 세계

최초로 고독 담당 장관을 지정하고 고독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때 중점 대상은 신중년에 해당하는 50대이다.

이 연구에 의하면, 신중년 1인 가구의 경우 다인 가구에 비해 우울 수준(53.4%), 자살 생각 경험(8.1%) 등이 높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27.5%)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1인 가구의 경우 다인 가구에 비해 노후 생활에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소외 및 고독감'을 꼽은 비율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현재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되는 돌봄서비스의 정책 대상 범위를 신중년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공적연금 가입률 제고 및 납입 지원

우리 사회에서 가족 부양 가치관이 약화되면서 신중년은 더 이상 자녀로부터의 부양을 기대하기 어렵다. 근로·사업소득은 신중년 가구소득의 약 90.0%를 차지하는데, 신중년은 은퇴한 이후 근로소득을 상실하게 된다. 은퇴로 인한 노후소득의 중단에 대한 위험은 최소한 공적 노후소득보장을 통한 대비 이후, 저축이나 민간보험 등을 통한 사적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공적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이유, 공적연금을 미납하는 이유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 정책적인 개입이 가능한 지점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이 연구 결과 공적연금 가입률은 과거에 비해 높아졌으나, 여전히 공적연금 미가입자가 있다. 신중년의 23.4%가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3.0%는 공적연금을 가입했더라도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적연금 미가입자를 발굴하여 가입을 유도하고, 보험료 미납자를 파악하여 미납원인별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신중년의 경제적 노후 준비 지원 및 가족 부양 부담 완화

신중년은 아래로는 자녀, 위로는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긴 세대로 샌드위치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이중 부양 부담을 통해서, 자신의 경제적인 노후 준비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실제 노후 준비는 충분히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신중년은 자신의 부모를 부양하지만, 자녀로부터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최초의 세대라는 점에서(남경아, 2017; 양지훈, 권매애, 2018), 스스로 경제적인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세대이다. 특히 현재의 신중년은 베이비부머가 포함된 집단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사회적 부담은 매우 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 신중년의 가족 부양 부담을 완화하여, 자신의 경제적인 노후 준비에 보다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50~69세는 과거에 비해 건강 수준과 교육 수준이 향상되었고, 일을 지속하려는 의지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점차 자녀의 독립으로 자신의 노후에 대한 관심을 본격적인 노후 준비 실천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과정에 놓여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적 개입을 통해 신중년이 노년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노후에 희망하는 경제적 여유와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6. 사회참여 욕구 다양화에 따른 민간과 공공의 공동 대응

신중년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관심을 낮추고, 여가 활동, 자원봉사활동, 평생교육 등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또한 이들의 사회참여 활동은 기존의 노인복지관이나 사회 복지관 등을 통해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넘어서서 더욱 다양한 참여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신중년의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 욕구에 대응할 방안을 공공과 민간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가령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50플러스재단을 설립하고 권역별로 캠퍼스와 센터 등을 개소하여, 50~64세 대상으로 기존 노년층 대상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상담, 교육, 사회참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의 희망제작소에서는 민간 부문에서 신중년을 대상으로 특화된 인생 설계, 사회참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참여 욕구가 다양화되면서 공공 부문에서 이러한 욕구를 모두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민간 부문에서 사회변화에 따른 사회참여 활동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7. 신중년의 다양성을 반영한 정책 체감도 높은 일자리 정책 실시

신중년의 생애 주된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의 실태를 통해 신중년의 취업 기회 및 선택의 폭이 제한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근로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은 신중년의 다양성을 반영한 일자리 참여 기회 확대와 선택의 폭을 넓혀 줄 필요가 있다. 무배우자, 1인가구, 저학력자, 저소득 가구 등 특정 집단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일자리를 유지 및 희망하는 비율이 높다. 현재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해 신중년의 취업난이 문제됨에 따라 이들의 소득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이 우선적으로 요구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신중년은 근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유가 다양화되고 있다.

과거 경제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대부분의 고령자는 생계비 및 용돈 마련을 경제활동 참여의 주된 이유로 응답하였다(정경희 외, 2017). 그러나 이 연구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신중년은 자아실현, 사회공헌, 삶의 보람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비율이 약 3분의 1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단순하고 일회성에 그치는 일자리 개발이나 생계형 일자리에서 나아가 특수한 기술과 지식, 그리고 이들의 노하우, 과거 경험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사회공헌활동 등을 개발해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정책 개발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소득 보전의 측면과 욕구 충족의 측면을 조합한 신중년 인력 활용의 정책 개발 필요성이 제기된다.

8. 전반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신중년 일자리 지원 필요

신중년의 일자리 관련 지원 정책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이다. 부처의 특성일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신중년 일자리 정책은 주로 미국과 같은 재취업 서비스(Back to Work 50+, Tandem 50 plus) 제공에 초점을 두고, 개별화된 욕구에 맞춰 적극적인 근로활동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Back to Work 50+’는 미국은퇴자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에서 50세 이상 은퇴자를 대상으로 취업훈련을 통해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젝트이며, ‘Tandem 50 plus’는 스위스의 지자체에서 50세 이상에게 직업교육, 취업,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양지훈, 권미애, 2018). 이러한 서비스는 신중년의 근로능력 개발이나 기술 전수 등을 통해 신중년의 역량을 높여서 재취업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실제 취업 성과로 이어지기에는 제한이 많다. 소수의 정책수혜자만이 혜택과 성과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

며, 재취업이 필요한 다수의 신중년이 근로역량 향상을 위한 훈련에 참여하기 어렵다.

향후 신중년 대상 일자리 정책은 유럽 국가의 사례를 참조할 만하다. 유럽 국가의 경우 연령통합적인 차원에서 일자리 지원 정책에 접근하며, 신중년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보다 나은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는 정책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제공과 함께 인체공학적인 작업환경을 마련하고, 근무시간의 자유선택제 도입 등과 같은 지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9. 수요자 관점에서 정책 인지도 제고 및 홍보 강화 추진

정부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신중년 대상 정책으로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고령자 인재은행, 노후 준비 서비스, 귀농귀촌종합센터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신중년의 정책 인지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이 연구의 조사 결과 노인 대상 정책의 인지율은 90.0% 내외로 높은 편이나, 신중년 대상 정책의 인지율은 6.3~26.4%로 매우 낮은 편이다. 신중년 대상 정책은 노인 정책에 비해 도입 시점이 최근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중앙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신중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의 주요 대상인 신중년조차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책 홍보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신중년 대상 정책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현재 신중년 대상 정책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에서 부처별로 재정 지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정책 수요자의 인지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생각된다.

이들 부처의 사업 추진 전달체계, 서비스 접근 방식 등을 검토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정책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0.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신중년 지원 사업 내실화

신중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서울시 등 지자체 차원에서 먼저 이루어졌다. 서울시는 ‘50플러스세대의 삶의 전환과 사회참여를 선도하는 혁신 플랫폼’을 비전으로 50~64세의 일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종합지원기관으로 2016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후 부산시는 서울시를 벤치마킹하되 부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자리 중심으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 차원에서 신중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보다 최근에 나타나서, 국정과제에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중년 재충전센터를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공단의 신중년 재충전센터는 예산과 인력 등의 제약으로 중앙 차원에서 신중년 대상 사회참여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민연금공단 3~4개 지사에서 평생학습관과 함께 중단기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그치고 있다.

향후 신중년 재충전센터는 5060세대의 사회참여 욕구에 대응한 인프라로 역할 정립을 공고히 하되, 실질적으로 신중년 대상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 등 정책적 지원이 실질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다만 신중년 재충전센터의 서비스는 신중년의 욕구와 수요에 기초하여 계획 및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신중년을 포함한 장년층을 대상으로 온라인 일자리 종합인 장년워크넷(<https://www.work.go.kr/senior/>)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채용정보와 함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전직지원서비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고용뉴스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대상 사회활동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 전반의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며,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에서 별도의 신중년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 과정에서 신중년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들의 업무담당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전달체계가 명확하지 않고 사업 수행기관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중앙 차원에서 신중년 대상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지정하고 전달체계를 명료화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가령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노인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사업 전반의 운영 관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외에 지자체,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등에서 실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8년 기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수행기관은 1266개이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9).

11. 신중년 생활실태 및 정책욕구 조사의 정기적인 실시

법적 근거 기반 마련을 통해서 신중년 대상의 특화된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신중년층은 청장년층과 노년층의 사이에 있으며, 생애주기상 이들과 특성이 다르다. 또한 현재 50~69세의 신중년은 현재의 노년층 및 중장년층과는 변화된 특성이 있으므로 신중년을 대상으로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 및 개선을 위해서 특화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는 노인실태조사, 아동실태조사 등의 주기를 고

려하여 3년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 신중년층이 정책 대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거 포함되어 우리나라 인구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신중년의 생활실태 및 정책욕구 조사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점진적으로 노년기에 진입을 완료한 이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강소랑, 이은정, 임승연. (2017). **서울시 50+세대 실태 및 수요조사 연구 II**. 서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2017. 8. 8.). 정부 최초의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 마련.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165639>에서 2019.4.15. 인출.
- 고용조사분석시스템 홈페이지. (2019). **고령화연구패널 소개**. <https://survey.keis.or.kr/klosa/klosa01.jsp>에서 2019.4.11.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2019).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97%B0%EB%AA%85%EC%9D%98%EB%A3%8C#undefined>에서 2019.12.9. 인출.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9). **소비자물가지수**. <http://kosis.kr>에서 2019. 12.9. 인출.
- _____. (2019). **장래인구추계**. <http://kosis.kr>에서 2019. 6.20. 인출.
- 국립정신건강센터. (2019). 2019 정신건강 검진도구 및 사용에 대한 표준지침. https://www.ncmh.go.kr:2453/kor/data/snmhDataView2.jsp?no=8535&fno=106&menu_cd=K_04_09_00_00_00에서 2019.10.28. 인출.
- 국민연금연구원 홈페이지. (2019).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https://institute.nps.or.kr/jspage/research/panel/panel_01.jsp에서 2019.5.3. 인출.
- 금재호. (2011). 중장년층의 고용불안과 정년연장. **노동리뷰**, 11월호, 61-75.
- 남경아. (2017). **50플러스세대**. 서울: 서울연구원.
- 네이버(2019).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main>에서 2019. 7.15. 인출.

- 김미경, 주재선. (2003). 고령화시대 노인부양부담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여성연구**, 65(1), 181-210.
- 김유경, 이진숙, 손서희, 조성호, 박신아. (2018).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란. (2017). 중장년 세대와 자녀 세대의 가족건강성 및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2(3), 471-492.
- 박현식, 전오진. (2014). 성공적 노후를 위한 노년세대와 신노년세대 인식 비교. **지역사회연구**, 22(4), 217-237.
- 성혜영, 한정란, 주소현, 이금룡, 황남희, 정무성,윤소영. (2018). 노후준비서비스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 성지미, 안주엽. (2011). 중고령자의 은퇴만족도에 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 29(2), 175-212.
- 송현주, 임란, 왕승현. (2019). **중·고령자의 근로 욕구에 대한 연구**. 전북: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 _____, 임란, 왕승현, 이은영. (2017).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제6차(2015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 기초분석보고서**. 전북: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 신종각, 안준기, 김경희, 김은영, 권윤섭. (2017). **2016 고령화연구패널 기초분석보고서**. 충북: 한국고용정보원.
- 양지훈, 권미애. (2018). **인천시 베이비부머 실태 및 욕구조사**. 인천광역시 고령사회 대응센터.
- 이진구, 정일찬, 오미래. (2018). 중장년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개발 연구. **평생교육·HRD 연구**, 14(3), 1-30.
-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경래, 이윤경, 오미애, ... 홍송이.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_____, 이소정, 이윤경, 김수봉, 선우덕, 오영희, ... 이은진. (2010a).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_____, 이소정, 이윤경, 김수봉, 선우덕, 오영희, ... 이은진. (2010b). **베이비 부**

- 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년층의 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원자료
- _____. 한경례, 김정석, 임정기. (2006). **노인문화의 현황과 정책적 함의 - '성공적 노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선일보. (2013.9.9.). 6075 新 중년 열의 아홉은 “난 젊다, 일하고 싶다, 활기 차다”. **조선일보 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9/09/2013090900195.html에서 2019.5.14.자 인출
- 진주영, 하규수. (2016). 중장년층의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2), 45-57.
- 최희경. (2010). 신노년 정책 담론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활동적 노화, 성공적 노화, 생산적 노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17(3), 41-65.
- 한국고용정보원. (2018). 2018년 고령화 연구패널 이용자 가이드. 고령화연구패널팀. <https://survey.keis.or.kr/klosa/klosaguide/List.jsp>에서 2019.4.15. 인출.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9). **2018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통계동향**.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R&D팀. (2019.5.13.). 신중년을 위한 디지털에이징 프로그램, 왜 필요할까요?, **정책리포트** <http://www.arte365.kr/?p=72894>에서 2019.5.14. 인출
- Erikson, E. H. (1974). *Dimensions of a New Identity. Jefferson Lectures in the Humanitie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Havighurst, R. J. (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s*. New York: David McKay.
- Levinson. D. J. (1978). *The Seasons of a man's life*. New York: Ballantine Books.
- Petry. N. M. (2002). A Comparison of Young, Middle-Aged, and Older Adult Treatment-Seeking Pathological Gamblers, *The Gerontologist*, 42(1), 92-99.
- Wakasaki, A., Matsumoto, K. and Kakehashi, C. (2006). A Study on

Successful Ageing of Middle and Advanced Aged People - with Major Focus on the Current Status of Women in their Major Stage Living in Three Districts in Japan. *Kawasaki Journal of Medical Welfare*, 12(1), 45-53.

부 록 1: 조사표 <<

신중년(만50~69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신중년의 안정적인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무작위로 뽑은 약 4,000명의 만 50~69세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는데, 귀하께서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조사에는 약 30분 내외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귀하가 응답해 주신 내용은 앞으로 우리나라 고령정책 및 신중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비변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셔서 조사원의 질문에 성실히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및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통계자료로만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흥식

2019년 7월

조사주관기관	 조사수행기관 		
문의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박신아 연구원 ☎ 044-287-8339 (주)한국리서치 여론조사 사업3부 권성욱 과장 ☎ 02-3014-1069		
집계구 번호			
응답자 이름		응답자 연락처	- -
응답자 성별	① 남 ② 여	응답자 나이	만 _____ 세 → 만49세 이하, 만70세 이상 조사 중단
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상세주소
가구주 여부		① 가구주	② 가구주 아님
최종면접일시	월 일 시 분	면접시간	분
면접원 성명		면접원 ID	
수퍼바이저 검증		검증결과	

310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신중년(만50~69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Part A. 가구 일반사항

▶ 가구원 사항

A1 귀택의 가구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1번부터 10번 가구원까지 각각 응답을 작성해 주시고, 그 외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응답자와의 관계를 직접 입력한 다음 응답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	1. 응답자와의 관계 (※응답자/배우자/자녀/부모 이외의 기타 가구원은 '보카드 1'을 참고하여 응답자와의 관계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2. 가구원 유무 이 관계에 해당하는 가구원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 동거 여부 이 분은 현재 같이 살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 성별 이 분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5. 생년월 및 만 연령 이 분의 생년월과 만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해 주십시오. 2018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는 만 연령을 00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6. 결혼 상태 이 분의 사실상 결혼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① 배우자 있음 ② 사별 ③ 이혼/별거 ④ 미혼	7. 교육 수준 이 분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습니까? ⑤ 미취학 ⑥ 초등학교 ⑦ 중학교 ⑧ 고등학교 ⑨ 대학 이상	8. 근로 활동 여부 이 분은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비해당 (만14세 이하)
1	응답자				__년 __월 __만 __세			
2	응답자의 배우자				__년 __월 __만 __세			
3	첫째 자녀				__년 __월 __만 __세			
4	둘째 자녀				__년 __월 __만 __세			
5	셋째 자녀				__년 __월 __만 __세			
6	넷째 자녀				__년 __월 __만 __세			
7	응답자 부				__년 __월 __만 __세		⑨	
8	응답자 모				__년 __월 __만 __세		⑨	
9	응답자의 배우자 부				__년 __월 __만 __세		⑨	
10	응답자의 배우자 모				__년 __월 __만 __세		⑨	
11	()				__년 __월 __만 __세	⑨	⑨	
12	()				__년 __월 __만 __세	⑨	⑨	
13	()				__년 __월 __만 __세	⑨	⑨	
14	()				__년 __월 __만 __세	⑨	⑨	
15	()				__년 __월 __만 __세	⑨	⑨	

동거 가구원 수 : ()명

A2 지난 1년 간 동거 가구원 수의 변동이 있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기존 가구원 : 명)

신중년(만50~69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Part B. 가족·사회관계 및 부양의 교환

▶ 부모와 부양 교환

※ 가구원 사항에서 (응답자 및 배우자의) 따로 사는 부모가 있는 경우만 작성하십시오.

또한 응답자가 사별, 이혼/별거, 미혼인 경우는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질문을 생략하고 다음 문항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질 문 내 용	(1) 응답자의 부모	(2) 응답자 배우자의 부모
B1. 지난 1년 간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과는 얼마나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셨습니까? (방문한 경우, 방문 오는 경우, 전화문자·편지 등에 의한 상호 연락 모두 포함)	() 보기카드2 참조	() 보기카드2 참조
B2. 귀하는 지난 1년 간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에게 청소, 식사 준비(장보기, 반찬 제공 등), 세탁 등의 집안일에 도움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 보기카드2 참조	() 보기카드2 참조
B2-1. 귀하는 지난 1년 간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에게서 청소, 식사 준비(장보기, 반찬 제공 등), 세탁 등의 집안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보기카드2 참조	() 보기카드2 참조
B3. 귀하는 지난 1년 간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에게 간병이나 수발, 병원동행 등의 도움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 보기카드2 참조	() 보기카드2 참조
B3-1. 귀하는 지난 1년 간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간병이나 수발, 병원동행 등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보기카드2 참조	() 보기카드2 참조
(※ 조사원: 'B2'와 'B3' 모두 ⑨인 경우 B5로 가시오) B4. 부모에게 집안일, 간병 등 비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귀하는 어느 정도의 부담을 느끼십니까? ① 매우 부담스럽다 ② 부담스럽다 ③ 보통이다 ④ 부담스럽지 않다 ⑤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312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신중년(만50~69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질 문 내 용	(1) 응답자의 부모	(2) 응답자 배우자의 부모
B5. 귀하는 지난 1년 간 따로 살고 있는 부모와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조사원: ②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 'B7'로 가시오) ① 예 ② 아니오		
B5-1. 지난 1년 간 따로 살고 있는 부모와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받은 적이 있다면, 연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 현금지원 뿐만 아니라 현물지원도 현금으로 환산하여 계산해 주십시오. 천 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 현금지원 : 용돈, 생활비, 병원비, 부동산구매 등 - 현물지원 : 여행 및 관광, 건강용품, 생활용품, 전자제품, 외식 및 음식물, 상품권 등 B5-1-1. 본인→부모 B5-1-2. 부모→본인	연 ____만원 연 ____만원	연 ____만원 연 ____만원
(※ 조사원: B5-1-1에서 0원으로 응답한 경우 'B7'로 가시오) B5-2.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귀하는 어느 정도의 부담을 느끼십니까? ① 매우 부담스럽다 ② 부담스럽다 ③ 보통이다 ④ 부담스럽지 않다 ⑤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B6. 귀하는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편입니까? 도움을 받는 편입니까? ① 경제적인 도움을 거의 주고 받지 않음 ② 부모님에게 도움을 주는 편 ③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편 ④ 비슷한 정도로 도움을 주고 받는 편		

신증년(만50~69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 자녀와 부양 교환

※ 가구원 상황에서 만 19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만 작성하십시오.

따로 사는 자녀가 있는 경우 B7, 함께 사는 자녀만 있는 경우 B10으로 가시오.

B7 지난 1년 간 따로 살고 있는 자녀 전체와는 얼마나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셨습니까?
(방문한 경우, 방문 오는 경우, 전화문자편지 등에 의한 상호 연락 모두 포함)

- ① 주 4회 이상 ② 주 2~3회
 ③ 주 1회 ④ 2주에 1회
 ⑤ 월 1회 ⑥ 3개월에 1회
 ⑦ 6개월에 1회 ⑧ 연 1회 이하
 ⑨ 전혀 연락이나 접촉이 없음(도움을 준 적/받은 적 없음)
 ⑩ 기타(_____)

B8 귀하는 지난 1년 간 따로 살고 있는 자녀에게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 경험이 있습니까?

도움의 제 측면	도움 빈도
(1) 청소, 식사 준비(장보기, 반찬 제공 등), 세탁 등의 집안일의 도움을 자녀에게 제공	() 보기카드2 참조
(2) 손자녀 돌보기 도움을 자녀에게 제공	() 보기카드2 참조

(※ 조사원: 'B8'에서 모두 ⑨, ⑩로 응답한 경우 'B9'로 가시오)

B8-1 자녀에게 집안일, 손자녀 돌봄 등 비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귀하는 어느 정도의 부담을 느끼십니까?

- ① 매우 부담스럽다 ② 부담스럽다
 ③ 보통이다 ④ 부담스럽지 않다
 ⑤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B9 귀하는 지난 1년 간 따로 살고 있는 자녀에게 청소, 식사 준비(장보기, 반찬 제공 등),
세탁 등의 집안일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주 4회 이상 ② 주 2~3회
 ③ 주 1회 ④ 2주에 1회
 ⑤ 월 1회 ⑥ 3개월에 1회
 ⑦ 6개월에 1회 ⑧ 연 1회 이하
 ⑨ 전혀 연락이나 접촉이 없음(도움을 준 적/받은 적 없음)
 ⑩ 기타(_____)

314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신중년(만50~69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질 문 내 용	(1) 따로 사는 자녀	(2) 함께 사는 자녀
B10. 귀하는 지난 1년 간 자녀와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조사원: ②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 'B11'로 가시오) ① 예 ② 아니오		
B10-1. 지난 1년 간 자녀와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받은 적이 있다면, 연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 현금지원 뿐만 아니라 현물지원도 현금으로 환산하여 계산해 주십시오. 천 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 현금지원 : 용돈, 생활비, 병원비, 부동산구매 등 - 현물지원 : 여행 및 관광, 건강용품, 생활용품, 전자제품, 외식 및 음식물, 상품권 등 B10-1-1. 본인→자녀 B10-1-2. 자녀→본인	연 ____만원 연 ____만원	연 ____만원 연 ____만원
(※ 조사원: 'B10-1-1'에서 0원으로 응답한 경우 'B11'로 가시오) B10-2.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귀하는 어느 정도의 부담을 느끼십니까? ① 매우 부담스럽다 ② 부담스럽다 ③ 보통이다 ④ 부담스럽지 않다 ⑤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 사회관계

B11 귀하는 본인의 문제나 걱정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 ① 없다 → Part C. 건강상태로 이동
 ② 있다(____명) → B11-1로 이동

B11-1 귀하는 지난 1년 간 자신의 문제나 걱정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와 얼마나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셨습니까?
 (방문한 경우, 방문 오는 경우, 전화문자편지 등에 의한 상호 연락 모두 포함)

- ① 주 4회 이상 ② 주 2~3회
 ③ 주 1회 ④ 2주에 1회
 ⑤ 월 1회 정도 ⑥ 3개월에 1회
 ⑦ 6개월에 1회 ⑧ 연 1회 이하
 ⑨ 기타(____)

신중년(만50~69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Part C. 건강상태

▶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

C1 귀하의 평소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C2 귀하는 현재 3개월 이상 앓고 있으면서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만성질환이 있습니까?
【보기】를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

- ① 예 → C2-1로 이동
② 아니오 → C3으로 이동

【보기】만성질환 종류

- | | | |
|----------------------|-------------------|-------------|
| ① 고혈압 | ② 고지혈증(이상지질혈증) | ③ 당뇨병 |
| ④ 관절염/신경통(요통 포함) | ⑤ 골절 | ⑥ 치매 |
| ⑦ 중풍/뇌혈관질환(뇌졸중, 뇌경색) | ⑧ 심장병(협심증, 심근경색증) | ⑨ 암(악성 신생물) |
| ⑩ 위·십이지장 궤양 | ⑪ 빈혈 | ⑫ 천식 |
| ⑬ 폐결핵 | ⑭ 요실금 | ⑮ 우울증 |
| ⑯ 불면증 | ⑰ 파킨슨병 | ⑱ 골다공증 |
| ⑲ 전립선염 | ⑳ 안질환 | ㉑ 갑상선질환 |
| ㉒ 기타(_____) | | |

C2-1 앓고 있는 만성질환은 몇 개입니까?

총

 개

316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신중년(만50~69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C3 귀하는 지난 2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C4로 이동
② 아니오 → C3-1로 이동

C3-1 지난 2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일(가사, 직장 등)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② 건강에 관심이 없어서
③ 비용이 부담되어서(경제적 이유)
④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⑤ 정보(검진시설, 검진절차 등)가 부족해서
⑥ 질병이 발견될까 봐 두려워서
⑦ 기타()

질 문 내 용	(1) 병의원	(2) 치과
<p>C4. 귀하께서는 지난 1년 간, 병의원/치과 치료 또는 검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었으나 받지 못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p> <p>① 예, 받지 못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 ② 아니오, 받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③ 병의원 치료 또는 검사가 필요한 적이 없었다</p>		
<p>(※ 조사원: 'C4'에서 ①을 응답한 경우 'C4-1'로, 그 외에는 'C5'로 가시오.) C4-1. 필요한 병의원/치과 치료나 검사를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p> <p>① 일(가사, 직장 등)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② 건강에 관심이 없어서 ③ 비용이 부담되어서(경제적 이유) ④ 건강상의 이유로 방문이 어려웠음(가동이 불편해서) ⑤ 정보(시설, 의사, 절차 등)가 부족해서 ⑥ 질병이 발견될까 봐 두려워서 ⑦ 기타()</p>		

신중년(만50~69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 정신건강

C5

다음의 10개 문항은 지난 일주일 간의 느낌과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별로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껴지거나 행동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 분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음 (1일 미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음 (1일~2일 정도)	자주 그런 생각이 들었음 (3일~4일 정도)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음 (5일~7일 정도)
(1) 지난 일주일 간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습니까?	①	②	③	④
(2) 지난 일주일 간 마음이 슬프셨습니까?	①	②	③	④
(3) 지난 일주일 간 많이 우울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4) 지난 일주일 간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지셨습니까?	①	②	③	④
(5) 지난 일주일 간 비교적 잘 지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6) 지난 일주일 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까?	①	②	③	④
(7) 지난 일주일 간 잠을 잘 이루지 못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8) 지난 일주일 간 큰 불만 없이 생활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9) 지난 일주일 간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껴셨습니까?	①	②	③	④
(10) 지난 일주일 간 도무지 무얼 해나갈 엄두가 나지 않으셨습니까?	①	②	③	④

C6

귀하는 지난 1년 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C6-1로 이동

② 아니오

→ Part D. 노후 가치관 및 정책 인지도로 이동

C6-1

지난 1년 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았다

② 아니오, 아무 도움이나 상담을 받지 않았다

C6-2

지난 1년 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면, 실제로 그런 시도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18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신중년(만50~69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Part D. 노후 가치관 및 정책 인지도

▶ 노후 가치관

D1 귀하는 본인의 노후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본인 및 배우자(공적연금 포함) | ② 자녀 또는 친척 지원 |
| ③ 정부 차원에서 보장(기초연금 포함) | ④ 기타(_____) |

D2 귀하는 노후에 누구와 함께 살고 싶으십니까?

- | | |
|-------------|--------------|
| ① 자녀와 살고 싶다 | ② 배우자와 살고 싶다 |
| ③ 혼자 살고 싶다 | ④ 기타(_____) |

D3 귀하의 최근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자녀 교육 | ② 자녀의 취업 |
| ③ 자녀의 결혼 | ④ 생계비(가계) 마련 |
| ⑤ 주거 문제 | ⑥ 본인의 건강 |
| ⑦ 여가 및 취미활동 | ⑧ 노부모 부양 |
| ⑨ 노후 준비 | ⑩ 기타(_____) |

D4 귀하가 노후 생활에서 가장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배우자와의 관계 | ② 자녀와의 관계 |
| ③ 친구·이웃과의 관계 | ④ 건강 및 기능 악화 |
| ⑤ 경제적 어려움 | ⑥ 주거 문제 |
| ⑦ 소외 및 고독감 | ⑧ 소일거리 없음(무료함) |
| ⑨ 기타(_____) | |

신증년(만50~69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D5 다음 중 만족스러운 노후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3가지를 순서대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① 경제적인 안정과 여유 | ② 건강 |
| ③ 가족의 화목과 평안 | ④ 자녀의 성공 |
| ⑤ 친구·이웃관계 | ⑥ 근로활동 |
| ⑦ 자기계발활동(평생학습 등) | |
| ⑧ 지속적 사회참여(동호회, 여가 및 종교활동 등) | |
| ⑨ 사회 기여 활동(자원봉사, 사회공헌) | |
| ⑩ 기타(_____) | |

D6 귀하는 노인이 몇 세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

세부터

D7 귀하는 부모가 자녀를 언제까지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성년이 되는 만 19세까지 | ② 학업을 마칠 때까지 |
| ③ 직장이 생길 때까지 | ④ 결혼할 때까지 |
| ⑤ 손자녀 양육시까지 | ⑥ 주거가 마련될 때까지 |
| ⑦ 기타(_____) | |

320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신중년(만50~69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 신중년층을 위한 일자리 정책 등

D8

다음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중년층을 위한 정책입니다.

각 정책별로 들어본 적이 있는지, 이용경험이 있는지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구 분		(1) 인지도			(※ 조사원: ① 알고 있는 경우만 응답)		(※ 조사원: 모두 응답)	
					(2) 이용 경험		(3) 향후 이용의향	
		① 알고 있다	②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	③ 들어본 적도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일자리	(1)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①	②	③	①	②	①	②
	(2)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①	②	③	①	②	①	②
	(3)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①	②	③	①	②	①	②
	(4) 고령자 인세은행	①	②	③	①	②	①	②
노후준비	(5) 노후준비 서비스	①	②	③	①	②	①	②
귀농귀촌	(6) 귀농귀촌종합센터	①	②	③	①	②	①	②

(1)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퇴직인력의 사회적 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월 최대 120시간, 1일 4시간 이상 참여하며, 활동 일수에 비례하여 일비 9천원(식비 및 교통비)과 시간당 2천원의 참여수당 지급

(2)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생애설계, 재취업 및 창업, 사회참여 기회 등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 노사발전재단, 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등에서 주로 운영

(3)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40세 이상 대상으로 미래를 위한 경력관리, 능력개발 등을 지원.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4) 고령자 인세은행

50세 이상 구직자를 대상으로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에서 제공하는 무료직업소개사업. 여성발전센터, 사회복지관, YWCA 등 전국 44개소 지정

(5) 노후준비 서비스

노후생활 4대 영역인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 전국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 진단, 상담, 교육 등 제공

(6) 귀농귀촌종합센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방문전화상담온라인 상담, 귀농설계, 컨설팅, 1:1 맞춤형 귀농 닥터 연계 등 귀농귀촌을 위한 종합상담과 농업농촌 현장 사례 중심의 귀농귀촌 아카데미 교육 실시

신중년(만50~69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 노후생활 지원 정책

D9 주택(농지)연금(역모기지 제도)은 노후에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D9-1 노후에 주택(농지)연금제도를 활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생각해 본 적 없다 ④ 현재 주택(농지)이 없다

D1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수발을 필요로 할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D10-1 귀하는 본인이 장기요양을 필요로 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 ☐ 예 ☐ 아니오
☒ 생각해 본 적 없다

D11 귀하는 공적연금(국민연금, 직역연금 등)에 가입해 있습니까?

- ① 가입했으며, 돈을 내고 있다
- ② 가입했으나 돈을 내지 못하고 있다
- ③ 가입하지 않았다
- ④ 현재 연금(조기연금)을 받고 있다

322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신중년(만50~69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D12 귀하께서는 정부의 사업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현재 어떻게 얻으십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주된 정보 습득 방법을 순서대로 최대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TV(텔레비전)
- ② 라디오
- ③ 신문(지역주간지 포함)
- ④ 책, 잡지
- ⑤ 각종 홍보우편물
- ⑥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의 게시물(아파트 포함)
- ⑦ 가족·친구·이웃 등 주변사람
- ⑧ 통·반장,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관련 업무자
- ⑨ SNS, 이메일 (카카오톡 포함)
- ⑩ 인터넷(스마트폰, 컴퓨터), 유튜브 등
- ⑪ 관공서 전화 또는 방문 문의 (시구청, 주민센터, 공단 등)
- ⑫ 기타(_____)

▶ 웰다잉

D13 귀하는 죽음준비에 관한 교육이 있다면 받아볼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요

D14 연명의료 중단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행위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연명의료 중단결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요

D14-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말기 또는 임종기에 들어섰을 때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요
- ③ 생각해 본 적 없다

신중년(만50~69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D15 호스피스 는 말기 암 환자 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를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입니다.
호스피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D15-1 향후, 호스피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생각해 본 적 없다

▶ 삶의 질

D16 다음과 같은 삶의 각 영역에 대해 귀하께서는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다음 보기를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질 문 내 용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해당없음
(1) 경제상태	①	②	③	④	⑤	
(2) 건강상태	①	②	③	④	⑤	
(3) (일자리 있는 경우) 근로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4) 여가활동	①	②	③	④	⑤	
(5) (부모가 있는 경우) 부모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6) (배우자 있는 경우) 배우자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7)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8) 친구·이웃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9) 전반적인 삶	①	②	③	④	⑤	

324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신중년(만50~69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D17 귀하께서는 밑(0)에서 꼭대기(10)까지 숫자가 매겨진 사다리를 생각하세요.
맨 꼭대기(10)는 귀하의 삶에서 가능한 최선의 상태를, 맨 아래(0)는 귀하의 삶에서 가능한 최악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귀하는 현재(조사시점 기준) 사다리의 몇 번째 칸에 있다고 느끼십니까?

최선의 상태

10

9

8

7

6

5

4

3

2

1

최악의 상태

0

신중년(만50~69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Part E. 사회참여

▶ 여가활동

E1 귀하가 최근 1개월 간 주로 한 여가활동을 순서대로 3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원: '보기카드 3: 여가활동목록표'의 해당번호를 기입하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E1-1 귀하는 여가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 | | |
|-----------|-----------|
| ① 주 4회 이상 | ② 주 2~3회 |
| ③ 주 1회 | ④ 2주 1회 |
| ⑤ 월 1회 | ⑥ 월 1회 미만 |

E1-2 귀하는 주로 누구와 함께 여가활동을 하십니까?

- | | |
|----------|---------------|
| ① 혼자서 | ② 가족과 함께 |
| ③ 친구와 함께 | ④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
| ⑤ 기타() | |

E2 귀하가 노후에 즐기고 싶은 여가를 순서대로 3순위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원: '보기카드 3 : 여가활동목록표'의 해당번호를 기입하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E3 귀하의 현재 삶에 있어서 여가활동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 | | |
|--------------|-----------|
| ① 매우 중요하다 | ② 중요하다 |
| ③ 보통이다 | ④ 중요하지 않다 |
| 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 |

E4 귀하의 노후 삶에 있어서 여가활동은 얼마나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매우 중요하다 | ② 중요하다 |
| ③ 보통이나 | ④ 중요하지 않나 |
| 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 |

326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신중년(만50~69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 자원봉사 및 평생교육

E5 귀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 사회공헌활동을 포함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① 자원봉사단체에 소속되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 ② 자원봉사단체 소속없이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
- ③ 과거에 참여한 적은 있으나, 현재는 하고 있지 않다
- ④ 평생 한 적이 없다

E6 귀하는 노후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 ① 단체에 소속되어 참여하고 싶다
- ② 단체에 소속없이 참여하고 싶다
- ③ 참여하고 싶지 않다

E7 귀하는 평생교육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 대학, 도서관, 사이버대학 등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① 현재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 ② 과거에 참여한 적은 있으나, 현재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
- ② 평생 한 적이 없다

E8 귀하는 노후에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요

신중년(만50~69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 사회참여 인식

E9 귀하는 노후를 어떻게 보내고 싶든지 순서대로 2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생활을 하면서
- ② 학습 등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 ③ 자원봉사와 같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 ④ 종교활동을 하면서
- ⑤ 소득창출을 위한 일을 하면서
- ⑥ 가사 및 손자녀 양육을 하면서
- ⑦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편하게 지내고 싶다
- ⑧ 기타(_____)

E10 귀하의 현재 삶에 있어서 사회참여 활동(여가활동, 자원봉사활동, 평생교육, 친목단체활동, 지역사회 활동 등)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하다
-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지 않다
- 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E11 귀하의 노후 삶에 있어서 사회참여 활동(여가활동, 자원봉사활동, 평생교육, 친목단체활동, 지역사회 활동 등)은 얼마나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하다
-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지 않다
- 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신중년(만50~69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Part F. 경제활동

▶ 생애 주된 일자리 경험

※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중 가장 오래 했던 일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F1 귀하는 현재(조사시점 기준)까지 소득을 목적으로 일을 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F1-1로 이동
② 아니오 → F3으로 이동

F1-1 가장 오랫동안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관리자 |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 ③ 사무 종사자 | ④ 서비스 종사자 |
| ⑤ 판매 종사자 |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⑧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 ⑨ 단순노무 종사자 | ⑩ 군인 |

F1-2 가장 오랫동안 종사했던 일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
|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 ④ 고용주 |
| ⑤ 단독자영업자 | ⑥ 무급가족종사자 |

F1-3 가장 오랫동안 종사했던 일의 종사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년 개월

F1-4 가장 오랫동안 종사했던 일자리에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F2-4로 이동
② 아니오 → F1-5로 이동

F1-5 가장 오랫동안 종사했던 일의 그만 둘 당시 몇 세였습니까?

만 세에 그만둠

신중년(만50~69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F1-6 가장 오랫동안 종사했던 일을 그만둔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정년퇴직
 ②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③ 일거리가 없어서, 사업부진, 조업중단
 ④ 직장의 휴업, 폐업
 ⑤ 가족을 돌보기 위해
 ⑥ 건강이 좋지 않아서
 ⑦ 일을 그만 둘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⑧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여가를 즐기기 위해
 ⑨ 기타()

F1-7 가장 오랫동안 종사했던 일을 그만두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와 가족 간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 조사원: (1)-(3)의 경우 대상자(배우자, 자녀, 부모)가 없으면 ⑨비해당 처리하십시오.)

구 분	매우 좋아졌다	좋아졌다	변화없다	나빠졌다	매우 나빠졌다	해당없음
(1) 배우자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⑨
(2) 자녀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⑨
(3) 부모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⑨
(4) 전반적인 생활만족	①	②	③	④	⑤	

330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신중년(만50~69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 현재 일자리 및 인식

※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F2 귀하는 현재(조사시점 기준) 일을 하고 있습니까?

- ①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며, 가장 오랫동안 했던 일과 다른 종류의 일을 하고 있다
→ F2-1로 이동
- ②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며, 가장 오랫동안 했던 일과 동일/유사한 종류의 일을 하고 있다
→ F2-1로 이동
- ③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 → F3으로 이동

F2-1 현재 하시는 일의 일자리 유형을 적어주십시오.

- | | |
|-------------------|--------------------|
| ① 관리자 |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 ③ 사무 종사자 | ④ 서비스 종사자 |
| ⑤ 판매 종사자 |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⑧ 정차·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 ⑨ 단순노무 종사자 | ⑩ 군인 |

F2-2 현재 하시는 일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④ 고용주
⑤ 단독자영업자 ⑥ 무급가족종사자

F2-3 현재 하시는 일의 종사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년 개월

F2-4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귀하의 평소 생각은 어떠십니까?

질 문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신중년(만50~69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F2-5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그만 둘 경우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 ① 창업 준비(아이템, 자금 등)
② 직업교육 참여
③ 구직을 위한 네트워크 관리
④ 취마여가 개발
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관심은 가지나, 실질적인 준비를 못하고 있다
⑥ 필요성을 못 느끼며, 별다른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
⑦ 기타(_____)

F2-6 귀하는 몇 세까지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 현재 일자리(직장, 직종)와 상관없이 몇 세까지 일하고 싶은지를 의미합니다.

만 세

F2-7 노후에 일을 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노후에 일하기를 원하지 않음
① 소득을 위해
② 건강을 위해
③ 자기발전을 위해
④ 여가시간 활용을 위해
⑤ 사회나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⑥ 기타(_____)

F3 귀하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항 목	예	아니오
(1) 1주일 2~3회, 1일 4시간 정도 일하면서 한 달에 약 50만원의 소득을 받는 일자리 (예: 정부지원일자리(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지역사회 환경개선, 공공의료 및 복지시설 관리 지원, 취약계층의 일상생활활동 단순한 지원 등)	①	②
(2) 1주일 4~5회, 1일 8시간 가까이 일하더라도 한 달에 150만원 이상의 소득을 받는 일자리 (예: 일반적인 일자리와 유사한 업무조건과 강도 혹은 그것 보다 낮은 수준, 사회적기업 근무, 고령자친화기업 근무 등)	①	②

F4 귀하의 노후의 삶에 있어서 일은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지 않다 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332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신중년(만50~69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Part G. 경제상태

▶ 가구 소득 및 자산

G1

귀댁의 지난 한 해(2018.1.1.~2018.12.31.) 연간 총 가구 소득은 얼마입니까?
해당되는 귀댁의 수입을 소득항목별로 소득유무와 소득금액(세금 및 사회보험료 공제 후, 천원단위 반올림), 총 가구 소득을 말씀해 주십시오.
(※ 조사원: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가구원의 소득을 합한 연간 소득임)

구 분	소득 유무		연간 금액 (만원)
	있음	없음	
(1) 근로/사업소득	①	②	_____만원
(2) 재산소득 (금융소득, 임대수입)	①	②	_____만원
(3) 개인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	①	②	_____만원
(4) 사적이전소득	①	②	_____만원
(5) 공적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①	②	_____만원
(6) 공적연금 이외의 공적이전소득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급여), 보훈급여, 장애연금 등)	①	②	_____만원
(7) 기타 ((1)~(6)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비정기적인 소득) (비경상 소득 포함)	①	②	_____만원
(8) 총 가구 소득 (※ 조사원: (1)~(7)을 합산하여, 소득유무와 연간금액을 합산하여 기록하십시오.)	①	②	_____만원

G2 귀댁의 주택 점유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니까?

-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 ④ 기타(무상주택/사택 등)

G3 현재 귀댁이 소유한 자산은 얼마입니까? 해당되는 항목별로 유무와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 조사원: 명의 기준이며, 천원 단위 반올림)

구 분	자산 유무		금액 (만원)
	있음	없음	
(1) 부동산자산 (주택, 건물, 토지)	①	②	_____만원
(2) 금융자산 (전세보증금 준 것, 예·적금, 주식/펀드 등)	①	②	_____만원
(3) 기타자산 (자동차, 회원권 등)	①	②	_____만원

G4 현재 귀댁에는 부채가 있습니까?

구 분	부채 유무		금액 (만원)
	있음	없음	
부채(주택용자금, 전세보증금 받은 것, 그 밖의 빌린 돈 등)	①	②	_____만원

(※ 조사원: 'G4'에서 부채 유무에 ② 없음을 응답한 경우, 'G5'로 가시오)

G4-1 부채를 지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거주주택 마련
- ②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 마련
- ③ 전세·월세 보증금 마련
- ④ 증권투자자금 마련
- ⑤ 부채 상환
- ⑥ 사업자금(영농자금 포함) 마련
- ⑦ 자녀 결혼자금 마련
- ⑧ 의료비 마련
- ⑨ 교육비 마련
- ⑩ 생활비 마련
- ⑪ 기타()

G5 귀 닥의 지난 한 해(2018.1.1.~2018.12.31.) 월 평균 소비지출액은 얼마입니까?

세금, 사회보험료 및 저축, 이자 등 부채상환을 위한 지출은 제외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 조사원: 천원 단위 반올림)

월 평균 소비지출액

만원

334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신중년(만50~69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G6 귀 닥(본인과 배우자)에서는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저축, 민간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구 분	항 목	있음	없음
(1) 건강, 요양	질병(암), 실손보험(진료비 본인부담), 교통상해 사고대비, 간병보험, 실버보험 등	①	②
(2) 사망	종신보험, 상조회사 등	①	②
(3) 노후 소득 보장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은행, 보험, 증권회사 등)	①	②

▶ 가구 경제상태 인식

G7 귀하는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상의 상 | ② 상의 하 |
| ③ 중의 상 | ④ 중의 하 |
| ⑤ 하의 상 | ⑥ 하의 하 |

G8 귀하는 10년 전과 비교하여 현재 귀 닥의 경제생활 수준은 어떻게 변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상당히 좋아졌다 | ② 다소 좋아졌다 |
| ③ 차이가 거의 없다 | ④ 다소 나빠졌다 |
| ⑤ 상당히 나빠졌다 | |

G9 귀하는 10년 후 귀 닥의 경제생활 수준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 ② 다소 좋아질 것이다 |
| ③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 ④ 다소 나빠질 것이다 |
| ⑤ 상당히 나빠질 것이다 | |

신중년(만50~69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 소비 성향

G10

다음은 소비성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한 귀하의 동의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소 비 성 향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가격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 후에 상품·서비스를 구매한다	①	②	③	④
(2) 시간을 투자하여 좋은 물건을 찾기 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물건을 구매한다	①	②	③	④
(3) 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한다	①	②	③	④
(4) 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한다	①	②	③	④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육구 조사 연구참여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국가 정책 연구기관으로 신중년의 안정적인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의 기초 자료를 생산하고자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만 50~69세 국민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본 조사는 약 30분 내외로 소요될 예정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윤리위원회 지침 하에, 여러분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조사에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응답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공한 보안처리가 되어있는 컴퓨터에 파일로 보관되며, 향후 연구결과물에서 여러분이 응답해주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여러분의 개인 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등)도 노출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조사 참여를 거절할 수 있고, 응답 도중에 설문 참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조사 참여 및 거절, 참여 중 중단하더라도 어떠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본 조사의 자발적 참여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신다면 아래에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본 조사가 정부정책 수립과 추진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귀하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하고 솔직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흥식

연구책임자 : 인구정책연구실 황남희 연구위원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육구 조사 참여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응답자 및 가구원 일반사항, 가족·사회관계 및 부양의 교환 실태, 경제상태, 건강상태, 경제활동, 사회참여, 노후 가치관 및 정책인지도

[개인정보 수집 목적]

신중년의 생활실태 및 복지육구를 파악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관련한 어려움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정부 정책 수립 및 보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상기「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유 및 이용됩니다. 다만,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보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 사항들을 이해하였고,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육구 조사'의 조사대상으로 참여하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2019년 월 일

조사대상자 : _____

부 록 2: 부표 <<

〈부표 1〉 삶의 질 만족도: 경제상태

(단위: %, 명)

구분		만족도					계 (명)
		전혀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2.6	18.9	48.7	29.1	0.7	100.0 (4,006)
지역***	동부	2.9	20.0	48.9	27.8	0.5	100.0 (3,211)
	읍면부	1.4	14.7	48.1	34.3	1.6	100.0 (795)
성별	남성	3.0	19.1	48.6	28.5	0.8	100.0 (1,985)
	여성	2.2	18.8	48.8	29.6	0.7	100.0 (2,021)
연령	50~54세	2.5	20.8	46.2	29.9	0.6	100.0 (1,173)
	55~59세	2.3	16.7	50.7	29.8	0.5	100.0 (1,371)
	60~64세	2.2	19.1	49.6	28.1	1.0	100.0 (793)
	65~69세	3.7	20.0	48.0	27.2	1.1	100.0 (669)
결혼 상태***	유배우	1.4	16.4	50.0	31.5	0.8	100.0 (3,461)
	무배우	10.3	34.8	40.7	13.8	0.4	100.0 (545)
가구 유형***	1인	11.9	33.7	40.8	13.4	0.2	100.0 (353)
	부부	1.5	15.1	50.1	32.5	0.8	100.0 (1,396)
	자녀 동거	1.6	18.5	49.5	29.7	0.8	100.0 (2,038)
	기타	3.8	23.7	45.0	27.0	0.6	100.0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7.8	24.6	45.8	21.2	0.7	100.0 (321)
	중학교	4.2	25.5	44.7	25.4	0.2	100.0 (549)
	고등학교	2.0	19.2	50.2	27.8	0.7	100.0 (2,410)
	대학 이상	0.7	10.5	48.0	39.4	1.3	100.0 (72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1.7	17.8	49.9	29.8	0.8	100.0 (3,101)
	미취업	5.6	22.8	44.5	26.6	0.5	100.0 (9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5.8	29.2	44.4	20.3	0.2	100.0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1.4	16.3	53.9	27.6	0.7	100.0 (1,339)
	500만 원 이상	0.3	10.7	47.8	40.0	1.3	100.0 (1,28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부표 2〉 삶의 질 만족도: 건강상태

(단위: %, 명)

구분	만족도					계 (명)
	전혀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1.6	10.2	33.4	50.9	3.9	100.0 (4,006)
지역*	동부	1.7	9.9	34.4	50.5	3.6 100.0 (3,211)
	읍면부	1.3	11.4	29.7	52.5	5.2 100.0 (795)
성별*	남성	1.3	10.0	31.7	52.8	4.3 100.0 (1,985)
	여성	2.0	10.4	35.1	49.0	3.5 100.0 (2,021)
연령***	50~54세	1.5	6.3	27.9	59.0	5.3 100.0 (1,173)
	55~59세	1.2	9.8	33.0	52.0	3.9 100.0 (1,371)
	60~64세	1.6	11.5	37.9	46.4	2.5 100.0 (793)
	65~69세	2.8	16.1	38.7	39.4	3.0 100.0 (669)
결혼 상태***	유배우	1.1	8.2	33.2	53.6	4.0 100.0 (3,461)
	무배우	5.1	22.9	34.9	33.7	3.5 100.0 (545)
가구 유형***	1인	5.9	23.0	35.0	33.8	2.3 100.0 (353)
	부부	1.5	9.2	34.4	51.1	3.9 100.0 (1,396)
	자녀 동거	0.9	8.3	32.8	53.9	4.2 100.0 (2,038)
	기타	2.5	14.2	30.9	48.6	3.9 100.0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4.3	18.8	38.7	35.5	2.7 100.0 (321)
	중학교	3.0	15.4	34.7	43.8	3.1 100.0 (549)
	고등학교	1.4	9.2	32.7	52.8	3.9 100.0 (2,410)
	대학 이상	0.4	5.7	32.7	56.3	4.9 100.0 (72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0.5	8.3	33.2	53.6	4.4 100.0 (3,101)
	미취업	5.7	16.8	34.1	41.4	2.0 100.0 (9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3.8	16.9	37.6	39.0	2.7 100.0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0.7	8.3	33.4	53.7	3.9 100.0 (1,339)
	500만 원 이상	0.3	5.1	29.1	60.4	5.2 100.0 (1,28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부표 3〉 삶의 질 만족도: 근로활동

(단위: %, 명)

구분		만족도					계 (명)
		전혀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0.3	7.0	42.9	47.5	2.3	100.0 (3,101)
지역 ***	동부	0.3	7.5	43.3	46.6	2.3	100.0 (2,438)
	읍면부	0.3	4.9	41.3	51.0	2.5	100.0 (664)
성별 ***	남성	0.4	8.0	41.5	47.8	2.3	100.0 (1,733)
	여성	0.2	5.7	44.6	47.2	2.3	100.0 (1,368)
연령 ***	50~54세	0.1	5.7	40.9	51.1	2.2	100.0 (998)
	55~59세	0.1	6.1	43.2	47.8	2.8	100.0 (1,083)
	60~64세	1.3	9.8	41.9	45.2	1.8	100.0 (582)
	65~69세	0.0	8.2	48.0	41.8	2.0	100.0 (439)
결혼 상태***	유배우	0.2	5.9	42.7	48.9	2.3	100.0 (2,743)
	무배우	1.1	15.4	44.1	37.2	2.2	100.0 (358)
가구 유형***	1인	0.8	16.1	44.4	37.3	1.4	100.0 (232)
	부부	0.3	6.5	41.7	49.2	2.3	100.0 (1,044)
	자녀 동거	0.2	6.2	43.8	47.2	2.6	100.0 (1,664)
	기타	0.2	4.5	39.4	54.6	1.3	100.0 (162)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0.9	8.1	49.0	41.3	0.7	100.0 (210)
	중학교	0.2	9.8	41.9	46.3	1.8	100.0 (391)
	고등학교	0.3	6.8	43.7	47.2	2.0	100.0 (1,918)
	대학 이상	0.1	5.3	38.8	51.5	4.3	100.0 (582)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0.8	11.6	49.0	36.9	1.7	100.0 (926)
	300만~500만 원 미만	0.2	6.9	44.3	46.2	2.4	100.0 (1,078)
	500만 원 이상	0.0	3.1	36.6	57.5	2.7	100.0 (1,092)

주: 1) 현재 근로활동을 하는 310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 p < 0.05, ** p < 0.01, *** p < 0.001

〈부표 4〉 삶의 질 만족도: 여가활동

(단위: %, 명)

구분	만족도					계(명)
	전혀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3.7	22.4	44.4	27.8	1.7	100.0 (4,006)
지역*	동부	3.3	22.4	44.9	27.9	1.6 100.0 (3,211)
	읍면부	5.5	22.7	42.5	27.3	2.0 100.0 (795)
성별*	남성	3.7	23.3	45.1	25.8	2.1 100.0 (1,985)
	여성	3.8	21.6	43.8	29.6	1.2 100.0 (2,021)
연령***	50~54세	3.8	22.6	44.1	28.8	0.8 100.0 (1,173)
	55~59세	3.6	22.1	44.0	28.8	1.5 100.0 (1,371)
	60~64세	4.8	23.7	41.3	28.4	1.8 100.0 (793)
	65~69세	2.5	21.4	49.6	23.1	3.3 100.0 (669)
결혼 상태***	유배우	3.3	21.0	44.5	29.4	1.7 100.0 (3,461)
	무배우	6.2	31.3	43.8	17.3	1.4 100.0 (545)
가구 유형***	1인	5.8	31.9	44.3	16.9	1.1 100.0 (353)
	부부	3.6	20.6	45.1	28.8	1.9 100.0 (1,396)
	자녀 동거	3.4	21.9	44.3	28.9	1.5 100.0 (2,038)
	기타	4.2	24.4	41.9	27.6	1.9 100.0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6.4	28.4	48.3	16.5	0.4 100.0 (321)
	중학교	3.4	26.1	45.8	23.2	1.5 100.0 (549)
	고등학교	3.9	23.1	44.5	26.7	1.8 100.0 (2,410)
	대학 이상	2.1	14.7	41.6	39.7	1.9 100.0 (72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3.7	23.6	45.2	26.0	1.5 100.0 (3,101)
	미취업	3.9	18.4	41.8	33.7	2.2 100.0 (9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5.7	27.7	44.0	20.7	1.9 100.0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2.8	22.2	46.1	27.0	1.9 100.0 (1,339)
	500만 원 이상	2.6	17.1	43.0	36.2	1.2 100.0 (1,28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부표 5〉 삶의 질 만족도: 부모와의 관계

(단위: %, 명)

구분		만족도					계 (명)
		전혀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0.2	3.1	36.3	56.3	4.1	100.0 (1,573)
지역**	동부	0.2	3.3	37.0	56.2	3.2	100.0 (1,300)
	읍면부	0.3	1.8	32.7	56.8	8.4	100.0 (273)
성별**	남성	0.5	1.9	34.8	57.4	5.4	100.0 (758)
	여성	0.0	4.1	37.6	55.3	2.8	100.0 (814)
연령***	50~54세	0.1	1.7	34.6	60.2	3.4	100.0 (658)
	55~59세	0.1	2.7	37.6	55.3	4.3	100.0 (638)
	60~64세	1.1	6.2	36.6	50.7	5.3	100.0 (192)
	65~69세	0.0	9.0	38.4	47.3	5.3	100.0 (84)
결혼 상태***	유배우	0.2	2.8	35.0	58.4	3.6	100.0 (1,388)
	무배우	0.4	5.1	46.2	40.8	7.5	100.0 (185)
가구 유형***	1인	0.7	5.0	50.1	39.0	5.3	100.0 (99)
	부부	0.5	6.0	37.8	52.7	3.1	100.0 (398)
	자녀 동거	0.1	1.8	34.5	59.6	4.0	100.0 (925)
	기타	0.0	2.1	34.3	57.3	6.3	100.0 (151)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0.4	4.5	43.3	47.9	3.9	100.0 (59)
	중학교	0.0	6.1	38.0	50.0	5.9	100.0 (116)
	고등학교	0.3	3.4	36.3	56.6	3.5	100.0 (979)
	대학 이상	0.2	1.3	34.8	58.6	5.0	100.0 (418)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0.1	2.9	35.1	57.7	4.2	100.0 (1,261)
	미취업	0.7	3.7	40.9	50.9	3.8	100.0 (312)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0.1	5.1	41.9	47.4	5.6	100.0 (398)
	300만~500만 원 미만	0.4	3.3	37.8	54.2	4.3	100.0 (530)
	500만 원 이상	0.2	1.7	31.1	64.0	2.9	100.0 (641)

주: 1) 부모 중 1명 이상이 생존한 신증년 1573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 $p < 0.05$, ** $p < 0.01$, *** $p < 0.001$

〈부표 6〉 삶의 질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

(단위: %, 명)

구분		만족도					계 (명)
		전혀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0.4	2.0	33.8	57.9	5.9	100.0 (3,461)
지역	동부	0.4	2.2	33.6	58.2	5.6	100.0 (2,776)
	읍면부	0.2	1.5	34.4	56.8	7.1	100.0 (685)
성별***	남성	0.4	1.9	29.2	61.8	6.7	100.0 (1,752)
	여성	0.3	2.1	38.5	53.9	5.1	100.0 (1,709)
연령*	50~54세	0.2	1.8	29.7	61.8	6.5	100.0 (1,030)
	55~59세	0.3	2.0	35.2	57.5	5.0	100.0 (1,215)
	60~64세	0.6	2.1	38.8	52.9	5.7	100.0 (691)
	65~69세	0.6	2.4	32.0	57.7	7.3	100.0 (526)
결혼 상태	유배우	0.4	2.0	33.8	57.9	5.9	100.0 (3,461)
	무배우	0.0	0.0	0.0	0.0	0.0	0.0 (0)
가구 유형*	1인	0.0	0.0	0.0	0.0	0.0	0.0 (0)
	부부	0.3	2.4	34.0	56.6	6.6	100.0 (1,396)
	자녀 동거	0.4	1.9	34.4	57.9	5.4	100.0 (1,915)
	기타	0.0	0.0	23.4	70.2	6.4	100.0 (15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0.5	2.8	38.9	53.6	4.2	100.0 (226)
	중학교	0.8	2.6	34.1	55.3	7.0	100.0 (438)
	고등학교	0.2	2.2	35.3	56.6	5.6	100.0 (2,125)
	대학 이상	0.4	0.7	26.9	65.0	6.9	100.0 (672)
현재 여부	취업 중	0.3	2.0	33.4	58.2	6.0	100.0 (2,743)
	미취업	0.5	1.9	35.3	56.6	5.7	100.0 (718)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0.8	2.3	37.1	53.1	6.8	100.0 (976)
	300만~500만 원 미만	0.2	2.5	36.0	56.0	5.3	100.0 (1,231)
	500만 원 이상	0.1	1.4	29.2	63.4	5.9	100.0 (1,248)

주: 1) 배우자가 있는 신중년 346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 p < 0.05, ** p < 0.01, *** p < 0.001

〈부표 7〉 삶의 질 만족도: 자녀와의 관계

(단위: %, 명)

구분	만족도					계 (명)
	전혀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0.4	2.1	20.4	68.6	8.4	100.0 (3,770)
지역**	동부	0.4	2.3	21.0	68.6	7.7 100.0 (3,019)
	읍면부	0.3	1.4	18.3	68.6	11.4 100.0 (751)
성별***	남성	0.5	2.8	23.4	65.6	7.7 100.0 (1,828)
	여성	0.3	1.5	17.6	71.5	9.0 100.0 (1,942)
연령*	50~54세	0.6	2.0	17.7	71.3	8.4 100.0 (1,089)
	55~59세	0.3	1.3	20.2	70.0	8.2 100.0 (1,269)
	60~64세	0.2	2.8	22.2	67.4	7.4 100.0 (761)
	65~69세	0.5	3.2	23.4	63.0	9.9 100.0 (650)
결혼 상태***	유배우	0.2	1.6	19.4	70.5	8.4 100.0 (3,392)
	무배우	2.5	7.3	29.4	52.0	8.8 100.0 (378)
가구 유형***	1인	2.8	8.6	28.5	52.5	7.7 100.0 (229)
	부부	0.4	1.6	18.5	71.5	8.0 100.0 (1,328)
	자녀 동거	0.1	1.8	20.9	68.6	8.5 100.0 (2,038)
	기타	1.0	1.5	18.6	67.9	11.1 100.0 (175)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0.8	3.3	22.9	63.4	9.6 100.0 (293)
	중학교	0.5	3.5	21.1	65.3	9.6 100.0 (517)
	고등학교	0.3	1.8	19.8	70.3	7.7 100.0 (2,275)
	대학 이상	0.4	1.8	20.9	67.8	9.2 100.0 (685)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0.1	1.9	20.9	69.0	8.1 100.0 (2,942)
	미취업	1.3	3.1	18.8	67.4	9.4 100.0 (828)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1	3.5	24.7	62.2	8.5 100.0 (1,206)
	300만~500만 원 미만	0.1	1.4	20.9	70.7	6.9 100.0 (1,290)
	500만 원 이상	0.1	1.6	15.9	72.6	9.8 100.0 (1,268)

주: 1) 자녀가 있는 신중년 3770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 p < 0.05, ** p < 0.01, *** p < 0.001

344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부표 8〉 삶의 질 만족도: 친구·이웃과의 관계

(단위: %, 명)

구분		만족도					계 (명)
		전혀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0.4	2.0	29.8	63.3	4.5	100.0 (4,006)
지역	동부	0.4	2.0	30.4	62.8	4.4	100.0 (3,211)
	읍면부	0.1	1.9	27.1	65.6	5.3	100.0 (795)
성별**	남성	0.5	2.4	31.6	60.9	4.6	100.0 (1,985)
	여성	0.2	1.5	28.0	65.8	4.5	100.0 (2,021)
연령	50~54세	0.2	2.4	28.0	65.2	4.2	100.0 (1,173)
	55~59세	0.5	1.6	30.5	63.1	4.3	100.0 (1,371)
	60~64세	0.2	2.4	29.5	64.1	3.9	100.0 (793)
	65~69세	0.6	1.4	31.9	59.7	6.4	100.0 (669)
결혼 상태***	유배우	0.1	1.3	28.3	65.6	4.7	100.0 (3,461)
	무배우	1.9	6.3	39.4	48.7	3.7	100.0 (545)
가구 유형***	1인	1.6	7.3	39.8	48.5	2.7	100.0 (353)
	부부	0.3	1.4	27.9	65.7	4.7	100.0 (1,396)
	자녀 동거	0.1	1.4	29.4	64.5	4.6	100.0 (2,038)
	기타	1.4	2.3	29.1	61.4	5.8	100.0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1.0	2.9	32.3	60.7	3.1	100.0 (321)
	중학교	0.0	2.2	34.1	57.7	5.9	100.0 (549)
	고등학교	0.4	2.0	28.5	64.5	4.5	100.0 (2,410)
	대학 이상	0.2	1.0	29.5	64.8	4.4	100.0 (72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0.2	1.5	29.2	64.9	4.2	100.0 (3,101)
	미취업	1.0	3.6	31.8	58.1	5.6	100.0 (9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0.9	3.7	34.7	55.9	4.8	100.0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0.0	1.3	28.8	66.1	3.7	100.0 (1,339)
	500만 원 이상	0.2	0.7	25.5	68.3	5.2	100.0 (1,28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부표 9〉 신중년의 현재 여가활동: 1+2+3순위 기준

(단위: %, 명)

구분		여가활동						
		TV 시청	이웃/친구와 대화하기·전화	산책·통화	친목단체·사회활동	등산	국내외 여행, 소풍, 놀이 등	목욕, 사우나, 찜질방
	전체	70.5	34.7	32.5	21.4	18.9	17.3	15.2
지역	동부	68.9	32.2	32.7	21.0	20.3	17.8	15.5
	읍면부	77.2	44.7	31.4	22.9	13.5	15.3	14.0
성별	남성	70.6	27.8	31.4	24.5	27.2	15.8	9.9
	여성	70.5	41.4	33.6	18.4	10.8	18.7	20.5
연령	50~54세	69.6	33.9	28.6	20.7	16.0	19.6	17.5
	55~59세	67.7	34.0	30.9	22.8	22.5	17.8	15.2
	60~64세	71.8	35.4	35.7	21.5	18.1	17.6	13.4
	65~69세	76.3	36.4	38.6	19.5	17.7	11.6	13.6
결혼 상태	유배우	69.2	33.7	32.4	22.5	20.0	18.0	15.1
	무배우	79.0	40.8	33.0	14.2	12.5	12.5	16.1
가구 유형	1인	80.2	37.9	31.9	14.9	12.7	13.2	16.7
	부부	72.3	36.0	35.0	22.0	17.7	17.6	14.2
	자녀 동거	67.5	32.3	31.2	22.2	21.0	18.1	15.7
	기타	71.5	43.1	29.4	20.3	17.8	13.8	14.7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83.0	44.0	35.3	16.3	12.8	9.3	11.9
	중학교	82.3	42.4	36.8	20.0	10.9	10.7	15.6
	고등학교	70.3	35.2	31.9	22.4	19.9	18.6	16.4
	대학 이상	56.9	22.8	29.8	21.2	24.6	21.4	12.7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70.9	34.8	29.2	23.0	21.0	18.0	15.3
	미취업	69.2	34.0	43.7	15.7	12.0	14.9	15.1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77.3	39.1	34.3	17.0	14.7	13.4	13.6
	300만~500만 원 미만	70.5	32.6	33.1	22.0	20.3	17.1	17.3
	500만 원 이상	63.4	32.0	29.8	25.5	22.2	21.4	15.0

〈부표 9〉 신중년의 현재 여가활동: 1+2+3순위 기준(계속)

(단위: %, 명)

구분		여가활동				계 (명)
		낮잠	컴퓨터 검색 등	종교활동	기타	
	전체	13.3	9.4	8.6	45.9	100.0 (4,006)
지역	동부	11.5	9.8	9.1	48.3	100.0 (3,211)
	읍면부	20.3	7.6	6.6	36.0	100.0 (795)
성별	남성	13.8	12.5	6.2	48.1	100.0 (1,985)
	여성	12.7	6.3	10.9	43.7	100.0 (2,021)
연령	50~54세	12.6	14.4	7.4	47.5	100.0 (1,173)
	55~59세	11.5	9.6	8.7	47.6	100.0 (1,371)
	60~64세	14.5	6.0	8.4	42.5	100.0 (793)
	65~69세	16.5	4.0	10.5	43.5	100.0 (669)
결혼 상태	유배우	12.0	9.5	8.6	47.4	100.0 (3,461)
	무배우	21.3	8.1	8.4	36.6	100.0 (545)
가구 유형	1인	20.1	7.3	7.5	39.2	100.0 (353)
	부부	14.1	5.7	9.2	43.4	100.0 (1,396)
	자녀 동거	11.3	11.9	8.6	49.0	100.0 (2,038)
	기타	15.0	12.0	6.3	44.4	100.0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25.1	2.0	10.8	31.3	100.0 (321)
	중학교	16.9	4.5	8.4	38.5	100.0 (549)
	고등학교	13.0	9.1	7.0	43.7	100.0 (2,410)
	대학 이상	6.1	17.2	12.9	65.2	100.0 (726)
현재 여부	취업	13.1	10.4	7.8	44.8	100.0 (3,101)
	미취업	13.7	5.8	11.3	49.8	100.0 (9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8.4	5.8	9.8	40.4	100.0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11.7	9.6	8.1	46.9	100.0 (1,339)
	500만 원 이상	9.5	13.0	7.7	50.7	100.0 (1,283)

〈부표 10〉 신중년의 노후 선호하는 여가활동: 1+2+3순위 기준

(단위: %, 명)

구분		선호 여가활동					
		국내외 여행, 소풍, 나들이 등	산책	등산	친목단체· 사교활동	TV 시청	이웃/친구와 대화하기·전 화 통화
전체		59.8	30.6	27.2	26.1	23.7	19.7
지역	동부	60.8	30.3	27.3	24.8	22.9	18.0
	읍면부	55.7	32.0	26.8	31.3	27.2	26.5
성별	남성	58.2	30.3	37.2	28.6	25.9	17.4
	여성	61.4	30.9	17.3	23.6	21.6	21.9
연령	50~54세	62.3	25.9	25.7	25.0	21.7	17.0
	55~59세	62.1	30.2	30.0	25.6	19.4	17.4
	60~64세	59.4	32.3	27.0	27.0	27.1	21.6
	65~69세	51.5	37.6	24.1	27.6	32.2	26.7
결혼 상태	유배우	60.6	30.2	28.3	26.6	22.6	19.0
	무배우	54.8	33.3	20.1	22.3	31.1	24.0
가구 유형	1인	55.3	33.6	20.6	23.0	31.1	23.5
	부부	59.2	34.0	25.7	27.4	26.5	21.8
	자녀 동거	61.9	27.6	29.2	25.4	20.3	17.3
	기타	52.0	32.5	28.8	28.8	26.3	21.3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49.5	36.5	19.2	25.0	39.2	29.8
	중학교	53.5	36.0	22.1	27.8	33.6	26.7
	고등학교	62.4	29.2	29.2	27.1	22.1	19.2
	대학 이상	60.6	28.7	27.6	21.8	14.9	11.3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62.0	27.8	30.2	27.5	22.3	19.0
	미취업	52.5	40.3	16.9	21.0	28.7	21.9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55.1	35.4	23.2	24.4	32.4	24.7
	300만~500만 원 미만	62.7	28.4	29.8	26.9	20.3	17.5
	500만 원 이상	61.9	27.7	28.6	26.9	18.1	16.5

〈부표 10〉 신중년의 노후 선호하는 여가활동: 1+2+3순위 기준(계속)

(단위: %, 명)

구분		선호 여가활동					계 (명)
		음악 활동	수영	헬스	종교 활동	기타	
	전체	15.1	14.4	9.9	9.2	55.8	100.0 (4,006)
지역	동부	15.9	14.6	10.4	9.7	56.0	100.0 (3,211)
	읍면부	12.0	13.8	7.8	6.9	55.0	100.0 (795)
성별	남성	12.0	8.5	10.5	6.5	56.1	100.0 (1,985)
	여성	18.2	20.3	9.3	11.7	55.5	100.0 (2,021)
연령	50~54세	18.5	15.9	13.7	8.7	57.8	100.0 (1,173)
	55~59세	14.3	16.5	10.9	8.8	55.7	100.0 (1,371)
	60~64세	15.1	11.4	7.2	9.6	53.5	100.0 (793)
	65~69세	11.1	11.0	4.4	10.1	55.1	100.0 (669)
결혼 상태	유배우	15.3	14.7	10.3	9.0	55.3	100.0 (3,461)
	무배우	13.9	12.6	7.4	9.9	59.2	100.0 (545)
가구 유형	1인	13.2	12.5	7.6	9.4	58.4	100.0 (353)
	부부	13.7	11.7	8.1	9.0	55.2	100.0 (1,396)
	자녀 동거	16.2	16.9	11.3	9.7	56.1	100.0 (2,038)
	기타	17.3	12.0	12.1	4.7	52.6	100.0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12.3	8.9	3.2	10.3	53.6	100.0 (321)
	중학교	9.6	12.5	5.8	7.8	56.7	100.0 (549)
	고등학교	15.1	16.1	10.3	8.0	52.7	100.0 (2,410)
	대학 이상	20.8	12.6	14.8	13.4	66.2	100.0 (72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14.9	14.3	10.3	8.4	55.4	100.0 (3,101)
	미취업	15.8	14.8	8.7	11.7	57.2	100.0 (9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1.9	10.4	6.8	9.9	56.4	100.0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15.3	16.0	10.3	8.3	55.4	100.0 (1,339)
	500만 원 이상	18.5	17.1	12.8	9.2	55.6	100.0 (1,283)

〈부표 11〉 신중년의 희망 노후 활동: 1+2순위 기준

(단위: %, 명)

구분		희망 노후 활동					계 (명)
		접어서 하지 못한 취미생활	소득 창출 위한 일	학습 등 자기개발 활동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하게	자원봉사 같은 의미 있는 일	
	전체	73.7	35.1	24.3	20.4	19.5	100.0 (4,006)
지역	동부	73.3	36.2	24.1	19.1	20.0	100.0 (3,211)
	읍면부	75.5	30.5	25.1	25.5	17.9	100.0 (795)
성별	남성	75.3	34.0	31.1	21.2	17.5	100.0 (1,985)
	여성	72.1	36.1	17.7	19.5	21.6	100.0 (2,021)
연령	50~54세	77.2	37.2	21.8	17.2	22.3	100.0 (1,173)
	55~59세	73.4	38.7	26.9	17.7	18.6	100.0 (1,371)
	60~64세	73.7	33.5	23.0	22.6	18.2	100.0 (793)
	65~69세	68.3	25.8	24.9	28.8	18.3	100.0 (669)
결혼 상태	유배우	74.4	35.7	23.6	19.2	20.3	100.0 (3,461)
	무배우	69.5	31.1	28.8	27.6	14.6	100.0 (545)
가구 유형	1인	70.8	30.9	28.6	28.5	13.3	100.0 (353)
	부부	74.8	34.8	22.8	21.6	18.3	100.0 (1,396)
	자녀 동거	73.4	36.3	24.8	17.7	21.6	100.0 (2,038)
	기타	73.9	32.2	22.2	24.4	18.4	100.0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64.1	22.7	28.2	34.9	13.9	100.0 (321)
	중학교	70.9	27.1	23.5	28.0	18.7	100.0 (549)
	고등학교	76.6	35.8	24.6	19.0	19.3	100.0 (2,410)
	대학 이상	70.4	44.0	22.2	12.7	23.5	100.0 (72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76.4	35.5	27.6	18.4	19.9	100.0 (3,101)
	미취업	64.4	33.6	13.0	27.0	18.2	100.0 (9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69.9	28.5	26.9	26.8	17.5	100.0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75.4	37.3	24.9	17.9	18.4	100.0 (1,339)
	500만 원 이상	75.9	39.9	21.0	16.0	22.8	100.0 (1,283)

〈부표 11〉 신중년의 희망 노후 활동: 1+2순위 기준(계속)

(단위: %, 명)

구분		희망 노후 활동			계 (명)
		종교활동	가사 및 손자녀 양육	기타	
	전체	10.8	9.5	0.9	100.0 (4,006)
지역	동부	11.6	9.1	1.0	100.0 (3,211)
	읍면부	7.5	11.4	0.7	100.0 (795)
성별	남성	7.3	6.3	0.8	100.0 (1,985)
	여성	14.3	12.7	1.0	100.0 (2,021)
연령	50~54세	9.0	10.2	0.7	100.0 (1,173)
	55~59세	10.2	8.5	1.2	100.0 (1,371)
	60~64세	12.5	9.6	0.8	100.0 (793)
	65~69세	13.2	10.5	1.0	100.0 (669)
결혼 상태	유배우	10.6	10.2	0.9	100.0 (3,461)
	무배우	12.3	5.3	1.0	100.0 (545)
가구 유형	1인	10.4	4.5	0.7	100.0 (353)
	부부	10.4	10.0	1.0	100.0 (1,396)
	자녀 동거	11.0	10.1	0.8	100.0 (2,038)
	기타	12.5	9.4	1.4	100.0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13.7	10.1	0.7	100.0 (321)
	중학교	10.1	12.2	1.1	100.0 (549)
	고등학교	9.8	9.4	0.8	100.0 (2,410)
	대학 이상	13.6	7.7	1.3	100.0 (72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9.4	7.5	0.8	100.0 (3,101)
	미취업	15.8	16.6	1.5	100.0 (9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1.7	9.3	1.2	100.0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10.4	9.5	1.0	100.0 (1,339)
	500만 원 이상	10.3	9.8	0.5	100.0 (1,283)

〈부표 12〉 정부 정책 및 서비스 정보 습득 경로: 1+2순위 기준

(단위: %, 명)

구분	정보 습득 경로								계 (명)
	TV	가족·친구·이웃 등 주변 사람	인터넷, 유튜브 등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회의 계시물	신문	각종 홍보 우편물	기타		
전체	86.6	52.7	22.3	8.5	6.5	6.3	15.8	100.0	(4,006)
지역	동부	85.3	52.4	24.3	7.8	7.3	6.2	15.7	100.0 (3,211)
	읍면부	91.9	53.9	14.4	11.7	3.5	6.5	16.3	100.0 (795)
성별	남성	85.9	45.9	25.4	8.7	9.0	6.5	17.8	100.0 (1,985)
	여성	87.3	59.5	19.4	8.4	4.1	6.0	13.8	100.0 (2,021)
연령	50~54세	81.5	46.6	32.7	8.6	6.8	5.6	17.3	100.0 (1,173)
	55~59세	85.8	50.9	25.1	9.2	6.1	7.0	15.1	100.0 (1,371)
	60~64세	91.2	56.3	15.5	7.8	7.1	5.3	15.0	100.0 (793)
	65~69세	92.0	63.0	6.7	7.9	6.3	7.0	15.5	100.0 (669)
결혼 상태	유배우	85.9	52.1	23.4	8.5	7.1	6.3	15.7	100.0 (3,461)
	무배우	91.1	56.5	15.5	9.0	3.0	5.8	16.7	100.0 (545)
가구 유형	1인	90.2	59.7	14.0	8.7	1.6	5.9	16.9	100.0 (353)
	부부	90.4	56.2	14.9	8.6	5.8	6.2	16.5	100.0 (1,396)
	자녀 동거	83.2	49.7	28.8	8.5	7.8	6.3	14.8	100.0 (2,038)
	기타	88.6	47.7	22.8	8.4	7.5	6.3	18.7	100.0 (22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95.0	68.2	5.1	6.8	3.7	3.7	15.7	100.0 (321)
	중학교	93.5	63.6	8.0	8.1	3.3	4.7	16.7	100.0 (549)
	고등학교	87.9	53.9	22.0	8.3	5.6	6.7	14.6	100.0 (2,410)
	대학 이상	73.5	33.8	42.0	10.5	13.2	7.2	19.3	100.0 (726)
현재 취업 여부	취업 중	85.9	51.0	24.1	8.4	7.1	6.6	15.9	100.0 (3,101)
	미취업	89.2	58.5	16.4	8.9	4.6	5.2	15.4	100.0 (90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91.1	57.8	13.4	8.6	4.8	6.2	16.5	100.0 (1,378)
	300만~500만 원 미만	85.0	52.5	23.7	9.3	6.5	6.4	16.0	100.0 (1,339)
	500만 원 이상	83.7	47.8	30.6	7.6	8.0	6.3	14.9	100.0 (1,283)

간행물 회원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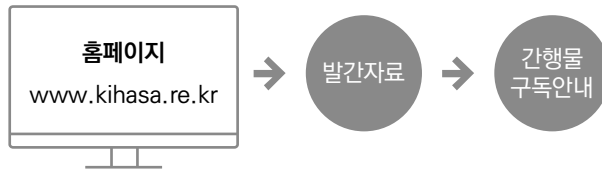
회원제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회원 종류

전체 간행물 회원	보건 분야 간행물 회원
120,000원	75,000원
사회 분야 간행물 회원	정기 간행물 회원
75,000원	35,000원

가입방법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